책을 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력사적인물들에 대하여 다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애국주의가 생기고 민족적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에는 자기 민족고유의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크고작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조선민족처럼 인류의 발생기부터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자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그런 민족은 드물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정의감이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였으며 의리를 귀중히 여기였다. 그리고 례절이 밝고 겸손한 품성을 지니고 백두대산줄기로 잇닿은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화목하게 살아왔다.

조선인민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침략자들과도 용감히 맞서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명예를 견결히 고수하였으며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찾기 위한 반동적통치배들과의 대중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이와 함께 일찌기 인류문명의 려명기부터 자기의 근면한 창조적로동과 지혜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 자랑찬 전통을 이룩함으로써 인류의 과학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민족자존의 정신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유구한 민족사와 더불어 배출된 력대의 명장들과 명인들에 대하여서도 학

생들과 청년들에게 잘 알려줄데 대하여 여러차례의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3권으로 나가는 도서 《조선력사인물》은 제1권에 고조선으로부터 세나라시기와 고려에 이르는 고대 및 중세의 인물들을 주고 그 다음 권들에는 리조와 그이후시기를 포함한 근대조선의 력사적 인물들을 주었다. 당대의 력사흐름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일부 부정적인물들도 취급하였다.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김일성**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나갈 결심을 새롭게 가다듬게 되리라고 본다.

편 집 부

차　　례

민족사의 첫 건국시조 단군

단군은 고조선을 세운 건국시조이다.

지금으로부터 5000여년전에 단군이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당시 평양을 《부루나》라고 불렀다.

계급사회에 들어서면서 단군이 고조선을 세움으로써 수백만년이상 지속되던 원시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국가시대가 시작되였다.

단군이라는 이름의 《단》은 고대조선의 족명인 《발》(박달)족의 한자식표기이고 《군》은 임금이라는 군자를 쓴것으로서 해석하면 《박달족임금》이라는 뜻이다. 이 《박달》을 《배달》이라고도 불렀기에 현재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은 조선민족을 《배달민족》이라고도 하는것이다.

단군은 평양을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후 주변의 소국들을 통합하여 령토를 확장하였고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근 3000년간이나 존속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력사에서 가장 오래 존재한 계급국가였다.

단군조선은 그 강성기에 조선반도의 대부분지역과 료하류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송화강류역의 일부 지역까지 포괄한 광대한 령역을 차지하였다.

단군의 출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해오는 민족고유의 《단군신화》가 있다.

13세기말 고려의 중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란이가 있었는데 자주 천하에 뜻을 두면서 인간세상을 몹시 바라고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위태백(산이름으로 보고있다.)을 보니 인간들에

게 커다란 리익을 줄것 같으므로 천부인(하늘임금의 자격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을 담보하는 표시) 3개를 주어 소원대로 땅으로 내려보내여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자기 무리 3 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꼭대기(지금의 묘향산) 신단수아래로 내려오니 이를 신시(환웅이 만든 처음의 도시)라 이르고 그를 환웅천왕이라고 일렀다. 그는 바람귀신, 비귀신, 구름귀신을 데리고 농사와 생명, 병과 형벌, 선악을 맡아 인간살이의 360여가지의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 곰 한마리와 범 한마리가 같은 굴에 함께 살면서 환웅에게 사람으로 변하도록 하여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이들에게 신비스러운 쑥 한타래와 마늘 스무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걸 먹고 백날동안 해빛을 보지 않으면 쉽사리 사람의 모양으로 될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곰과 범은 그것을 먹고 굴속에서 기를 하였는데 성급한 범은 끝내 참지 못해 굴간에서 뛰쳐나가 사람으로 되지 못하고 성질이 느슨한 곰은 스무하루만에 녀인의 몸으로 되였다. 사람이 된 곰녀인은 혼처가 없어 매일밤 신단수아래에 가서는 아이가 생기도록 해달라고 빌었다. 이를 가긍히 여긴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신한 후 그와 혼인하여 아이를 배게 하였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의 이름을 단군이라고 불렀고 그가 자라서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것이다.》

단군신화는 《삼국유사》뿐아니라 1287년 고려의 리승휴가 쓴 《제왕운기》에도 밝혀져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각별하고 시조인 단군에 대한 숭배심이 깊었던것으로 하여 생겨난 설화이다.

단군신화는 우리 나라 건국신화들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이다. 이 신화에는 원시사회가 해체되고 계급사회가 발생하던 력사적시기의 사회상이 반영되여있다.

단군신화의 내용을 분석하여보면 원시시대 사람들의 생활면모와 함께 계급사회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가들에게 우리 민족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여지없이 말살된 단

군과 고대조선의 력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단군의 무덤을 발굴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여러 기회에 일군들에게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 비록 신화적인 전설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구월산, 묘향산 등 전국각지에 있는 단군유적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증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으며 수많은 력사책들과 문헌들, 지어는 수십년전의 잡지까지 찾아 해당 부문에 보내주시였다.

드디여 단군릉에서 유골이 발견되고 그것이 5천여년전의것으로 확증되였다는 소식에 접하시고 주체82(1993)년 9월 력사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까지 전설로만 전해져오던 단군이 반만년전의 실재한 인물로 고증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라는것이 명백하여졌으며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왔다는것이 확증되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몸소 단군릉을 찾으시고 릉을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확장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령도에 의해 우리 민족은 자기의 원시조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되찾게 되였으며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칠수 있게 되였다.

주체82(1993)년에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B. C. 30세기초인 5011년전에 단군이 태여난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므로 고조선건국은 B. C. 3000년경을 기초로 하고있다.

이 사실은 남들이 아직 원시시대에 머무르고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벌써 국가를 이루고 문명한 생활을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단군릉의 발굴과 그의 과학적해명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유구한 력사의 시초를 실증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에서 조금 떨어진 대박산 동남쪽경사면 경치수려한 자리에 있다.

단군릉 앞쪽에는 넓은 벌이 있고 동쪽으로는 대동강으로 흘러드는 수정천이 있다. 이 수정천가에 림경대가 있으며 이곳에 단군의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서쪽으로는 단군호라는 호수가 있다.

이곳의 마을이름을 단군동이라 하였고 동쪽마을은 아달동이라 불렀다.

발굴당시 단군릉에서는 두 사람의 뼈가 나왔다. 무덤에는 86개의 크고작은 뼈들이 있었는데 고증한데 의하면 주로 팔, 다리뼈와 골반뼈로서 하나는 남자의것이고 다른 하나는 녀자의것으로 보아 남자의 뼈는 단군의것이고 녀자의것은 그의 안해의 뼈로 인정된다.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고 고조선의 건국시조이며 강동에 있는 단군릉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였다는것은 많은 문헌들을 통하여 력력히 고증되였다.

앞에서 지적한 《삼국유사》, 《제왕운기》뿐아니라 1393년 례조전서로 있던 조박이 쓴 《태조실록》에서도 《조선의 단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임금》이라고 하였고 같은 시기의 학자 권근은 《삼국사략》의 서문에서 《우리 동방에서 나라를 세운것은 단군의 조선으로부터 시작되였다.》고 하였다. 그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당시 그 나라의 태조와 자리를 같이한 좌석에서 단군을 원형으로 한 즉흥시를 읊었는데 시에서 단군시대는 1000년을 넘었다고 노래하자 태조도 머리를 끄덕여 긍정하였다고 전한다.

공민왕시기 학자였던 백문보는 1361년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우리 동방은 단군으로부터 지금까지 3600년이 되였다.》고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력사적기원을 단군으로 보았다.

A. D. 3세기에 나온 중국의 고대력사책인 《위서》에서도 이렇게 적었다.

《지나간 수천년전에 단군 왕검이란이가 있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창건하여 조선이라고 불렀다.》

단군조선의 력사가 문헌들에 공식적으로 편찬된것은 《고려사》(1451년)에서부터였는데 《동국통감》에서는 이렇게 쓰고있다.

《동방에 처음에는 임금이 없었다. 신인이 있어 박달나무아래로 내려왔더니 나라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았다. 이가 단군이 되여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는데… 처음에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후에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다. 상나라 무정3년 을미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으로 되였다.》

또한 학자 허목은 《동사》의 서문에서 환인이 신씨를 낳고 신씨가 단군을 낳았는데 박달나무아래에서 살았기때문에 단군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단군릉에 대한 기록들도 있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강동군에 2기의 큰 무덤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둘레가 410자 되는 묘가 단군릉이라고 쓰고있다. 그리고 《숙종실록》에도 숙종왕이 단군묘와 동명왕의 묘를 해마다 손질할데 대한 건의서를 승인한것이 밝혀져있고 《영조실록》, 《정조실록》들에도 왕들이 평양감사에게 명하여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거두는것을 관습화한 사실도 기록되여있다.

《세종실록》 37권에도 추석에 단군을 조선민족의 시조로 제를 지냈다는것을 밝혀놓았다.

이 모든 력사적사실들은 단군이 실재한 인물임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단군숭배사상은 력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공고한것으로 되였으며 많은 사가들과 인민들이 단군시대의 고조선력사를 밝히기 위하여 애를 썼다.

일제는 단군조선의 건국년대가 저들의 국가기원보다 수천년이나 앞선데 대해 시기한 나머지 단군시대를 무참히 짓밟는 용서못할 죄행을 저질렀다. 조선의 초대총독 데라우찌는 단군사적을 비롯한 조선의 력사기록을 모조리 불태웠고 자료가 허황하다는 구실을 내걸고 《단군시대》를 완전히 없애버리였으며 단군은 후세사람들이 꾸며낸 신적인물이라고 외곡하였다. 그리고 1915년부터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를 위조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당시 우리의 지식인들과 력사가들은 단군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종교》를 내오고 단군시대를 반영하여 1912년부터 1916년사

이에 《삼일신고》, 《신단실기》라는 저술을 내였으며 주체26(1937)년에는 《단군교부흥경략》을 간행하였다.

또한 단군신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의 책동에 맞서 단재 신채호를 비롯한 애국적인 력사가들이 저작들을 내고 단군시대의 력사문제해설에 나섰다.

하지만 나라없는 백성이 된 우리 인민은 자기의 원조상까지도 지켜낼수 없었다.

오늘 로동당시대에 와서 단군의 유골이 발굴되고 그의 출생년대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우리 조선민족은 단군시대로부터 자기의 고유한 력사를 빛나게 창조하여왔다는것이 립증되게 되였으며 단군이 도읍으로 정한 평양은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며 조선민족 첫 국가의 발생지라는것도 확인되였다.

단군이 통치한 첫 계급국가인 고조선에 대하여서는 고조선의 법인 《범금8조》가 남아있다.

여기에는 노예주를 한편으로 하고 노예와 평민을 다른편으로 하는 두 계급사이의 적대적대립과 당대 사회현실이 잘 반영되여있다.

현재 이 법조항중에서 3개 조항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첫째 조항은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것이고 둘째 조항은 남에게 상처를 입힌자는 곡식으로 보상해야 한다는것이며 셋째 조항은 남의 물건을 도적한자는 50만의 돈을 내야 한다는것으로 되여있다.

여기에는 고조선사회의 경제관계와 함께 노예주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계급적성격이 내포되여있다. 이 조항들을 통해 고조선에 보상, 매매현상, 소유권과 함께 채권, 채무와 같은 민법제도가 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것은 당시로 볼 때 매우 발전된 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 시기 법들은 대체로 눈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눈으로, 이발을 다쳐놓았을 때는 같은 이발로, 물건인 경우 같은 물건으로 해를 가한자에게 피해를 받은자가 동등한 보복을 가하는 《동해보복》제도가 실시되고있었다.

그러나 고조선법을 보면 죄를 벗기 위하여 곡식이나 돈으로 보상하도록 한것이다. 이것은 노예소유자국가의 법으로 볼 때 상

당한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고조선시기 생산력과 경제도 주변원시씨족들에 비하여 훨씬 앞서나가고있었는데 그것은 청동기생산 하나만 보아도 잘 알수 있게 한다.

고조선에서는 국가형성초시기에 벌써 로동도구와 무기, 수레부속, 마구류 등과 치레거리, 일용잡화들을 청동으로 만들어썼다. 이것은 고조선시기의 무덤발굴을 통하여 고증된것이다.

고조선시기 기본생산은 농업이였다. 고조선사람들은 소, 말 등 짐승을 리용하여 밭일을 하였고 이와 함께 닭, 돼지 등 집짐승도 많이 길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그리고 노예계급사회였으므로 노예주가 죽으면 그의 노예들을 함께 순장하는것이 합법화되여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노예를 완전소유한 노예소유자적경리형태가 고조선 초기 단군시대에 지배적인 형태로 되여있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고조선에서는 또한 나라가 세워진 초시기부터 글자를 만들어썼다. 고조선에는 신지라는 사람이 만든 고유한 글자가 있었다.

신지가 글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단군의 충실한 신하였던 신지는 어느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짐승사냥을 떠났다. 짐승을 찾아다니던 그는 사슴의 발자국을 발견하였다. 신지는 사슴의 발자국을 보면서 순간 움직일줄 몰랐다.

《…사슴발자국모양으로 글자를 만들수 있지 않을가?》

신지는 사슴발자국과 같은 모양으로 사람이 하는 말과 뜻을 표시하는 글자를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심어린 노력끝에 마침내 글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지글자는 사람들속에서 널리 쓰이였다.

《녕변지》에는 16자의 신지글자가 전해지고있다. 신지가 글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규원사화》라는 옛날책에도 있다.

단군이 실재한 존재로서 확인되고 민족의 원조상으로 되여온 이 모든 사실은 그의 후손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줄뿐아니라 조선민족이 력사적으로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려옥과 《공후인》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자기의 고유한 음악과 예술을 창조하여오면서 훌륭한 전통을 이룩하였다. 비록 살림은 가난하였으나 그 속에서도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면서 자기들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모든것을 노래에 담았다.

우리의 음악은 고조선시기에 벌써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려옥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고조선의 민간음악가였던 려옥은 B. C. 5～4세기 사람으로 보고있다.

고조선의 수도 평양의 대동강나루가에는 곽리자고라는 배사공이 안해 려옥과 함께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살고있었다. 그들부부는 나루배에 의지하여 오가는 길손들을 성의껏 건늬여주면서 살림을 꾸려나갔다.

저 멀리 먼동이 터오면 려옥의 초가집 사립문이 조용히 열리고 부지런한 곽리자고는 기다란 노대를 어깨에 멘채 안해의 눈바래움을 받으면서 강가로 성큼성큼 나서군 하였다. 대견스런 그 큰걸음에 려옥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가볍게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을 내보낸 후이면 려옥은 베틀에 마주앉아 바디를 놀리거나 터밭의 남새를 가꾸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종종 남편을 도와 강기슭을 오가면서 동리사람들의 고달픈 생활을 눈여겨보았고 그속에서도 꽃과 같이 피여나는 인정의 면모를 뜨겁게 새겨두었다.

어둠이 서려드는 저녁이 오면 곽리자고의 초가집에서는 은은하면서도 우아한 공후의 선률이 흘러나왔다. 곽리자고는 보고 또 보아도 싫지를 않는 안해의 정다운 모습을 넌지시 바라보면서 벽에 등을 기댄채 공후의 소리를 듣군 하였다.

려옥은 글도 잘 짓고 공후도 잘 탔다. 공후의 줄을 골라가는 날

랜 손놀림에 곽리자고는 넋을 잃군 하였다.

《재간은 재간이구나. 고것 참…》

곽리자고는 너무도 기특하여 려옥을 보면서 웃음을 짓는다. 그러면 려옥은 볼을 붉히며 나는듯이 고운 손을 놀려나갔다.

온 동네가 그의 노래를 즐기였다. 명절이면 의례히 려옥의 공후를 청하였고 그의 노래를 듣기도 하였다.

베 한자 짜서 무엇을 할고
우리네 랑군님 옷 지어드리지

베 한자 짜서 무엇을 할고
낟알과 바꾸어 살아나가지

어느날 려옥은 옆집에 사는 려용이라는 녀인과 함께 성안에서 일어난 일을 놓고 눈물을 흘렸다. 글쎄 비왕(고조선의 급높은 관직)의 친척된다는 사람이 그만 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가 데리고있던 종 60여명을 그 집의 안해와 함께 무덤속에 함께 묻었다니 기막힌 일이였다.

노예주가 죽으면 같이 매장하는 당시의 법이니 할수 없는 일이였다. 저세상에서도 생존시와 꼭같이 주인을 받들라는것이다. 억울해도 어디에 하소연할길 없는 그들이였으니 한숨만 나갈뿐이였다.

려옥은 가슴이 아팠다. 오늘 주인과 함께 파묻힌 그들속에 산에 나무를 하러 오가며 자기한테서 노래를 배운 애어린 총각도 들어있었던것이다.

(그애도 무덤속으로 들어갔겠구나. 에구…)

려옥의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언제나와 같이 싱글벙글 웃으며 마당으로 들어서던 곽리자고가 오늘은 웬일인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들어오더니 노대를 마당가에 뎅겅 놓고 토방돌에 털썩 걸터앉는것이였다.

려옥은 달려가 넘어진 노대를 바로 세우고 곽리자고에게로 돌아섰다.

《어인 일이오이까. 혹시 나쁜 일이라도?…》

그러자 곽리자고가 한숨을 지으며 그날 강변에서 있은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여느날보다 한숨 일찍 나루가에 나간 곽리자고는 아직 이른아침이라 몇사람의 길손을 배에 태우고 서서히 노를 저어가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건너편 강변에서 별안간 백발을 풀어헤친 한 늙은이가 미친 사람모양으로 한손에 그 무엇인가를 거머쥔채 세차게 흐르는 물결을 질러 강복판으로 들어서는것이였다. 배에 올랐던 길손들은 그만 눈이 휘둥그래졌다.

(아니, 어쩌자고 제일 깊은 곳으로?!…)

그런데 뒤를 따라 늙은이의 안해로 짐작되는 녀인이 두손에 공후를 들고 달려오고있었다.

그러면서 건너가지 말라고 소리쳐불렀다.

하지만 늙은이는 하늘을 향해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리였다. 안해는 그만 그자리에 주저앉아 몸부림치더니 공후를 부둥켜안고 손으로 땅을 치면서 《공무도하가》를 탔다.

《나를 남겨두고 혼자 가시다니. 나를 데리고 가주오. …》

처절한 울음소리는 배에 탔던 사람들의 가슴을 허비였다. 스산한 강바람만이 그 울음소리를 싣고 저 멀리로 사라졌다.

남편을 강물속에 잃어버린 녀인은 슬픔과 괴로움을 참을길 없어 성큼 일어나더니 강물에 몸을 던져버렸다. 사람들이 녀인을 붙잡을 사이조차 없는 한순간이였다.

곽리자고는 주저없이 웃저고리를 벗어던지고 녀인을 구원하려 강물속으로 뛰여들었다. 그 누군가가 쓸데없는짓이라고 그의 팔을 잡았지만 곽리자고는 그냥 강물속을 헤쳐들어갔다. 이 강가에서 나서자란 그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찬 물결은 어느사이엔가 녀인을 데리고 가버렸다.

알고보니 그들부부에게는 귀여운 외딸이 있었는데 어느날 그

는 길가에서 그 누군가가 흘린 보석반지를 얻었다고 한다. 처녀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웃에 사는 노예주가 그를 도적으로 몰아대였다.

실은 처녀를 탐내여 그놈이 일부러 만든 《그물》에 가엾게도 걸려든것이였다.

법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물건주인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물건값에 달하는 베천을 내야 하는데 가난한 그의 살림에 있을리 만무하였다.

딸애는 결국 노예로 끌려가고 그 억울함을 어디에도 하소할길 없었던 아버지는 더는 살기를 바라지 않았다. 로인은 타번지는 울분을 안고 강물에 뛰여들었다. 뒤따라 어머니까지도 그 신세가 된것이니 너무도 비참한 일이였다.

이야기를 마치는 곽리자고의 큰 가슴에서는 동정의 한숨이 터져나왔고 그것을 듣고있던 려옥의 눈가에서도 가랑가랑 눈물이 고여내렸다.

그들부부의 심중에는 사품치는 강물에 몸을 던진 불쌍한 부부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차있었다.

그날 저녁 뒤동산에서는 소쩍새가 여느때없이 구슬프게 울어댔다.

려옥은 공후를 끄당겨 부둥켜안고 곽리자고가 들려준 《공무도하가》를 재현시켜나갔다.

(남편을 따라 강물에 뛰여든 녀인. 아, 그는 얼마나 불쌍한가. 그를 안아일으켜세우고싶구나!)

노래소리는 깊은밤 하염없이 울리고 또 울리였다. 그때 노래의 사연과 구슬픈 곡조를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려옥은 그 곡조를 옆집에 사는 려용에게 들려주었는데 노래곡명을 《공후인》이라고 하였다 한다. 이때 려옥이 지어부른 《공후인》은 다음과 같은 한시로 번역되여 전해오고있다.

강 건느지 말랬는데
왜 굳이 건느셨소

물에 빠져죽었으니
님아 이 일 어이 하오

(님아 가람 건느지 마소
그에 님이 건느시네
물에 들어 늬오시니
어저 이를 어이 하료)

노래는 동네를 지나 온 나라에 불리워졌고 지경을 넘어 이웃나라에까지도 널리 퍼지였다.

려옥이 지은 이 《공후인》은 고조선인민들속에서 깊은 공감을 받았으며 후세에 길이 전해지게 되였다.

서정적이면서도 처량한 《공후인》에 담겨진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선률은 그 시기 고조선사람들의 아름다운 세계를 잘 반영하였다고 할수 있다. 당시 려옥이 탄 공후는 열석줄로 된 현악기로서 매우 정교한것이였다.

《공후인》은 그 가사가 전해지는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랜 고대가요작품들중의 하나이다.

노래는 고조선인민들속에서 창조되고 대를 이어내려온 민요성격의 가요작품이다.

노래에 담겨진 한 부부의 물에 빠져죽는 기막힌 이야기는 귀족들에게 시달리던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을 담은것으로서 노예소유자국가인 고조선시기의 형편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노래 《공후인》에는 이름없는 배사공의 안해까지도 가사를 짓고 악곡을 할줄 알며 공후를 훌륭히 뜯어 만사람의 가슴을 움직이였던 고조선시기 예술의 경지가 비껴있다.

고조선시기 민간녀류음악가였던 려옥이 지은 노래 《공후인》은 당시 시대상과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창작된 때로부터 수천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우리 인민의 정서와 재능을 담은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으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고조선의 무관 성기

적들이 왕검성을 포위한지도 벌써 1년이 되여왔다. 그사이 날마다 벌어지는 싸움에서 숱한 한나라군사들이 쓰러지고 고조선군사들도 어지간히 지쳤다.

(이 싸움을 어떻게 타개해나간단 말인가?…)

고조선의 무관이며 대신인 성기는 한차례 적을 물리치고난 뒤 바위우에 걸터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대신들은 적에게 투항하자고 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고있다.

상하가 이렇게 합심하지 못한 형편이니 싸움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만 간다.

식량도 말이 아니다.

그러나 무관 성기는 결심을 달리할수 없었다.

《우리는 기어이 왕검성을 지켜내야 한다!》

그는 두주먹을 굳게 틀어쥐였다.

B. C. 110년 한나라의 무제는 18만에 달하는 막대한 병력을 저들의 북쪽변방지대와 동쪽바다가로부터 갈석(만리장성계선)에 이르는 변방지대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B. C. 109년 섭하라는 대신을 《사신》의 명목으로 고조선에 보내면서 우거왕이 한나라에 복종하도록《설복》할데 대한 지시를 주었다.

그러나 우거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신 섭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돌아가면서 자기를 바래주려고 따라나선 고조선의 비왕인 장을 죽이고 도망치는 비렬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조선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를 몰아 섭하를 추격하여 끝내는 죽여버리고말았다.

이것을 구실로 한나라 무제는 고조선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다.

한나라가 고조선에 쳐들어온 기본목적은 고조선의 넓은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령토를 확장하며 이와 함께 고조선인민들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B. C. 109년 한나라군은 5만명의 수군과 륙군을 무어 바다와 륙지에서 동시에 공격해들어왔다.

순체가 거느린 륙군은 오만무례하게 큰소리를 치면서 북쪽으로 쳐들어왔으나 고조선군의 힘있는 반격으로 첫 싸움부터 패하였다.

양복이 거느린 수군은 발해를 건너 렬구에 와닿았다. 수군대장 양복은 륙군과 합세하여 왕검성(부수도—료녕성 개주)을 공격하도록 되여있었으나 제 혼자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우쭐거렸다.

공명심이 하늘에 닿은 양복은 7천명의 군사로 왕검성을 공격하였으나 고조선군의 강한 반격으로 어쩌지를 못하였다.

고조선의 패수(오늘의 대릉하)를 지켜선 군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참패를 만회해보려고 달려드는 순체에게 또다시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하여 한나라군은 숱한 주검만을 남겼을뿐이였다.

많은 군사들을 잃고 이제 더는 어쩔수 없게 되자 한나라군은 담판의 방법으로 고조선을 굴복시켜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무제는 우거왕에게 담판을 제기해왔다. 그리고 그 막뒤에서 력량을 재수습하려고 꾀하였다.

한나라의 무제는 위산이란자를 담판장으로 내보냈다.

이에 우거왕은 태자로 하여금 말 5천필, 1만의 군대와 많은 무기들을 들고 시위를 벌리면서 패수를 건너가 담판에 응하게 하였다.

담판장에 나온 사신 위산과 좌장군 순체는 패수를 건너오는 고조선군의 위력에 겁을 먹고 말 한마디 해보지도 못한채 꽁무니를 사리고말았다.

이렇게 되자 한나라 무제는 위산의 비겁한 태도에 분격하여 그를 죽여버렸다. 그리고는 한시바삐 우거왕이 들어있는 왕검성을 공

격할 기회만 노리고있었다. 어떻게나 항복을 받아보자는 속심이였다.
싸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렬해졌다.
순체는 패수 상군을 물리치면서 왕검성에까지 기여들었다.
그러나 양복은 첫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여 10여일간이나 산속에 숨어지내다가 겨우 살아나서는 공포에 질려 고조선과 화의를 맺자고 주장하였다.
이때 고조선은 양복에게 밀사를 보내여 화의를 교섭하였다.
순체는 양복이 고조선과 내통하고있는것으로 보아 반변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한나라 무제는 자기의 심복졸개인 공손수를 전장에 파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공손수가 현지에 나타나자 순체는 양복의 약점을 고해바치면서 그의 군사들까지 자기의 휘하에 넣었다.
무제는 공손수의 보고를 듣고나서 그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마저 죽여버렸다.
그러면서 적들은 근 1년동안 왕검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물러서지 않았다. 기어이 결판을 보려는 심산이였다.
날이 갈수록 왕검성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갔다. 이렇게 되자 고조선통치배들속에서는 적에게 투항하려는 배신자들이 나타났다.
고조선의 상 한음, 상 로인, 니계상 참, 장군 왕협 등은 적들의 거듭되는 공격이 두려워 왕에게 투항할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우거왕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성기만을 믿고 왕검성을 그에게 맡겼다.
《자네만 믿네. 성을 끝까지 맡아주게.》
우거왕은 성기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볼뿐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배신자 니계상 참은 자기의 졸개를 시켜 우거왕을 살해하고 적에게 투항변절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것은 성내 백성들의 더없는 격분을 자아냈다.
《무엇이라구? 대왕님께서 살해되였다구?》
성기는 배신자들에 대한 증오로 가슴이 끓어올랐다.

(우리는 기어이 원쑤를 갚아야 한다. 그리고 침략자를 몰아내야 한다!)

성기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성기는 군사들의 대렬을 재정비하고 인민들을 불러일으켰다.

《여러분, 우리는 원쑤놈들에게 왕검성을 내줄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비겁하게 나앉는다면 후손들이 용서치 않을것입니다.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싸우자! 원쑤를 막아내자!》

기치창검은 하늘을 찔렀다. 성기의 지휘밑에 왕검성인민들은 용기백배하여 다시 일떠섰다. 그들은 습격조를 무어 한나라군을 족쳤고 성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병법을 써가며 적을 무찔렀다.

적들로서는 성기가 가장 큰 골치거리였다.

원쑤들은 드디여 우거왕의 아들인 장항과 상 로인의 아들 최등을 시켜 대신 성기를 끝내 죽이고말았다.

그러니 성은 지휘자를 잃게 되였다. 인민들은 목숨걸고 나섰으나 어찌할바를 몰랐다. 적은 이때라고 수십배의 력량을 증강하여 왕검성으로 몰려들었다.

고조선인민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원쑤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력량상대비가 되지 않았다.

끝내 왕검성은 적들에게 함락되고 고조선은 무너지고말았다.

전쟁기간 한나라 무제도 많은 손실을 보았다.

숱한 군사들과 자기의 충실한 졸개들을 무수히 잃었다.

성기를 선두로 한 고조선인민이 수행한 한침략자들을 반대한 전쟁은 반침략적인 정의의 전쟁이였다. 물론 이 전쟁으로 하여 고조선은 종말을 고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조선사회내부의 모순과 노예제도 그자체의 위기로부터 온것이였다.

동방강국—고구려의 시조 동명왕

동명왕은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의 시조이다.

이름은 주몽, 추모, 중해이며 왕호는 동명왕이다.

그는 고구려를 세우고 동방의 강대국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고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하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류화라고 전하고있다. 어머니 류화는 졸본부여의 위력한 세력자인 하백(물의 신)의 딸이였다. 해모수도 이 시기 큰 귀족문벌출신이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런 설화가 있다.

동부여의 금와왕이 태백산 우발수에서 한 녀자를 발견하게 되여 웬 녀인인가고 물으니 그 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것이였다.

《나는 하백의 딸이요, 이름은 류화이다. 여러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노는데 때마침 웬 사나이가 있어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나를 웅심산밑 압록강가에 있는 집안으로 유인하고는 그 길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의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남자와 상관한것을 꾸짖고 드디여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하였다.》

금와왕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를 데려다 집에 가두어두었더니 그에게 해빛이 비치였다. 그가 몸을 피하면 또 따라가서 비치였다. 이후로 알 한개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되들이만 하였다.

금와왕은 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지만 하나같이 먹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길가운데에 내다버리였는데 이때에도 소와 말들이 피하여 길을 갔고 날아가던 새들도 깃을 펴서 날개로 덮어주었다.

왕은 그 알을 류화에게 다시 돌려주었더니 류화는 그것을 싸

서 따뜻한 곳에 두고 보호하였다.

그후 그 알에서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왔다. 사내애의 몸체는 장대하고 기이하였는데 벌써 7살에 보통사람과는 대비도 되지 않게 제 손으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으며 그때마다 어김없이 과녁을 맞히군 하였다.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이를 《주몽》이라고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주몽이라고 지었다.

당시 금와왕에게는 일곱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어 늘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그들은 재능에서나 무술에서나 주몽을 따르지 못하였다.

하루는 일곱 왕자가 부하권속 40여명을 데리고 짐승사냥을 나갔다. 이때 주몽도 함께 갔다. 주몽이 혼자서 그것도 적게 차례진 화살로 수십마리나 되는 짐승을 잡았지만 왕자들은 겨우 사슴 한마리를 붙잡았으니 대비가 되지 않았다.

일곱 왕자들은 주몽을 질시한 나머지 그를 큰 나무에 묶어놓고는 잡은 짐승들을 빼앗아가지고 궁궐로 돌아와버렸다. 그러나 주몽은 자기가 묶여있던 큰 나무를 뿌리채뽑아서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위구를 느낀 왕자들은 그를 죽여버리려고 꾀하였지만 저들의 약한 힘으로는 어쩌는수가 없었다.

어느날 금와왕의 맏아들인 대소가 왕에게 이런 청탁을 하였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것이 아니며 그 됨됨이 용감하여 만일 일찍 처리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가 두려우니 청컨대 없애버리소서.》

금와왕도 주몽이 범상한 인물이 아닌것을 알고있었으므로 대소의 말에 인츰 공감이 갔으나 그를 죽인 후의 일이 어떻게 돌아올지 께름한 생각도 없지 않아 죽이지는 못하고 마구간에서 일하게 하였다.

영특한 주몽은 말들중에서 가장 날랜 말을 골라 한동안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도록 하였고 다른 둔한 말들은 이것저것 먹이를 많이 주어 살이 지게 하였다.

어느날 마구간을 돌아본 금와왕은 가장 여위고 볼품이 없는 말

을 주몽에게 주고 살진 말들은 자기들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문무를 훌륭히 갖춘 주몽을 따를수 없게 된 금와왕의 아들들은 또다시 그를 해치려고 꾀하였다.
이 계책을 알아차린 주몽의 어머니는 어느날 아들을 불러앉히였다.
《나라사람들이 장차 너를 죽이려 하니 너같은 재능과 지략을 가지고 어디 간들 나쁠것이냐.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욕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멀리 가서 큰일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결심을 굳힌 주몽은 마침내 오이, 마리, 협보 등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함께 부여를 떠났다.
그들이 산과 들을 지나 엄호수(압록강 동북쪽에 있는 오늘의 송화강)라는 강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뒤에서 부여군사들의 추격하는 소리가 다급히 들려오고 강을 건느려니 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주몽은 안타까움에 모대기다가 강물을 향하여 소리쳤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을 하는 길인데 뒤쫓는자가 따라닥치면 어찌하겠는가?》
그러자 일순간 거부기와 자라들이 물우에 떠올라 다리가 되여주어 주몽의 일행은 무사히 강을 건너섰다. 거부기들과 자라들은 곧 흩어져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뒤쫓던 부여군사들은 강을 건늘수 없게 되였다.
주몽은 이렇게 엄호수에서 뒤따르던 군사들을 떼여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도중에 그들일행은 자기들의 뜻을 따르는 젊은이들을 받아들여 졸본땅에 이르러서 여기에 거처지를 정하였다.
이곳은 구려국 북쪽변방지역이였다. 여기 졸본땅에는 구세력으로서 높은 문벌의 귀족인 연타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주몽은 연타발의 딸인 소서노라는 젊은 녀자와 알게 되였다. 소서노는 주몽의 문무에 감탄하여 자기의 집재산을 털어 그의 일을 뒤받침하였다.
이때 구려의 북방에 자리잡고있던 말갈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려에 기여들어 백성들의 생명과 재물을 마구 략탈하고

있었다. 주몽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소서노의 힘을 입어 말갈족을 제압하고 항복시켰다. 이로 하여 주몽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이 지역에서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세력을 확장해가던 주몽은 구려왕을 만나 국사를 의논하게까지 되였다. 주몽의 름름한 풍채와 지략에 대하여 알게 된 구려왕은 나라의 장래도 모두 주몽에게 맡겼다.

구려왕이 사망하자 주몽은 전체의 통치자로 되였고 드디여 정권을 쥐게 되였다. 이렇게 주몽은 이곳의 신흥봉건세력들과 힘을 합쳐 B. C. 277년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구려》국 이름앞에 《높을 고》자를 덧붙여 《고구려》라고 하였다. 이때 동명성왕의 나이는 22살이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건국설화가 처음으로 기록된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세운 《광개토왕릉비》에 새겨져있는것이다.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 24대왕인 광개토왕의 공적을 높이 찬양하여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414년에 세운 비석이다.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고구려건국설화는 여러가지로 전해지고있으나 고구려사람들이 직접 남긴것은 오직 《광개토왕릉비》에 실려있는 비문뿐이다. 고구려사람들은 이 비문에서 자기들의 시조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

《옛날에 시조 추모왕(동명왕)이 나라의 터전을 처음 잡을 때에 그 연원은 북부여에서 나왔다. 추모왕은 천제(하느님)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물의 신)의 딸이였다. 알을 깨고 나왔는데 나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

…명령하여 수레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길이 부여의 엄리대수를 지나게 되였다.

왕이 나루가에 와서 웨치기를 〈나는 황천(하느님)의 아들이요, 어머니가 하백의 딸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자라와 거부기들이 물에 떠 다리를 놓으라.〉라고 하였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자라와 거부기들이 떠올라 다리를 놓아 왕이 건늘수가 있었다. 왕은 비류국 졸본 서쪽산우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웠다. 인

간세상의 왕위를 즐기지 않게 되니 하늘이 황룡을 내려보내여 그를 맞이하였다. 왕은 졸본의 동쪽언덕에서 황룡이 업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와 같은 설화는 모두루무덤에도 똑똑히 밝혀져있다.(모두루무덤은 5세기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고구려의 대사자벼슬을 지낸 일이 있는 모두루라는 사람의 무덤으로서 중국 길림성 집안현 하양어두에 있다.)

이런것으로 미루어보아 고구려사람들은 5세기이후까지도 자기들의 시조인 동명왕에 대하여 해와 달, 물의 후손으로 신성화하였고 높이 내세웠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은 오늘날의 중국 료녕성 환인현부근이다. 그곳 오녀산(해발 820m)에 있는 옛 고구려산성은 둘레가 2 440m로서 비교적 큰 산성이다.

이 산성은 동, 서, 남쪽은 크고 넙적한 돌로 무게있게 쌓고 북쪽은 가파로운 벼랑에 지탱하고있는 천연요새이다.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은 당시 고조선판도에 널려있던 분산된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고 이곳 주민들을 자기 지역안에 받아들여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점점 강해지는 고구려의 위력에 눌리운 비류국의 송양왕이 손을 들고 고구려에 항복하였으며 여러 소국들이 고구려에 귀속되였다.

동명왕은 국권을 강화하고 고조선의 옛 지역을 수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것과 함께 자기를 엿보는 한나라를 비롯한 린근의 외부세력으로부터 제 땅을 튼튼히 지켜내면서 강력한 봉건통치체계를 확립해나갔다.

동명왕이 나라를 세운 후부터 고구려는 가장 강력한 봉건국가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였다.

고구려사람들은 나라방위를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일로 여기였으며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를 배웠고 민간오락들도 모두 무술을 기본으로 하여 벌리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 행정관인 동시에 유사시에는 군사지휘관

을 겸하였으며 백성들도 순수 생산자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준비된 싸움군들이였다. 《후한서》의 기록을 보면 진국초시기부터 고구려사람들은 《집집마다 스스로 갑옷과 병쟁기를 갖추었다.》고 씌여있다.

고구려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무적기풍을 가질수 있은것은 언제나 나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애국심과 용맹한 기질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동명왕이 나라를 세운지 19년이 되던 해 4월 동명왕의 아들 유류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 부여로부터 고구려땅으로 오게 되였다.

유류는 동명왕이 부여를 떠난 다음 부인 례씨가 낳은 아들이였다.

그가 동명왕을 찾게 된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류달리 활을 잘 쏘던 유류가 하루는 날아가는 새를 쏘다가 백번중 한번의 실수로 그만 지나가던 아낙네의 물동이를 쏘아버렸다.

재빨리 다시 쏘아 구멍은 막아치웠지만 그 녀인의 입에서는 이런 곱지 않은 소리가 나왔다.

《이 아이는 애비가 없어 이렇게 못되게 구는구나.》

소년 유류는 미안한 생각과 함께 아버지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울분을 참을수 없어 어머니에게로 달려와 얼굴을 묻으며 물었다.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며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요?》

이에 어머니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대답하는것이였다.

《너의 아버지는 보통사람이 아닌데 나라에서 용납되지 못해 남쪽지방으로 도망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였다. 떠날 때 나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만약 아들을 낳거든 나의 유물이 일곱모진 돌우의 소나무밑에 묻혀있다고 말하라. 만약 이것을 발견하면 곧 나의 아들일것이다.〉고 한 말이 있다.》

이 말을 들은 유류는 그 시각부터 밤낮이 없이 아버지의 유물을 찾아 온 산과 들을 헤매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도 찾지 못하고 힘겹게 돌아와 마루우에 앉았는데 기둥과 주추돌사이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것 같아 가서 보니 바로 그 주추돌이 자기가 그렇게도 찾고 또 찾

던 일곱모난 돌이고 그우에 처마를 받들고선 기둥은 소나무가 아닌가! 기둥밑을 파헤치니 과연 부러진 칼 한동강이 나타났다.

유류는 곧 옥지, 구추, 도조 등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졸본으로 가서 동명왕을 만나 부러진 칼을 바쳤다.

《대왕님, 유물을 찾아가지고 아들이 왔소이다.》

《어디 보자, 어디. 네가 과연 내 아들이란 말이냐?!》

왕은 급히 자신이 보관했던 칼의 한끝을 맞추어보았다. 그러니 과연 면모를 갖춘 장검이 아닌가.

동명왕은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

《옳구나. 내 아들이 옳구나. 이렇게 꼭 맞지 않느냐.》

동명왕은 오래도록 아들과 장검을 놓지 못하였다.

동명왕은 즉시 유류를 태자로 봉하고 송양의 딸을 그의 부인으로 맞았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첫 봉건국가를 세우고 강력한 대국으로서의 기초를 마련한 동명왕은 자기의 맏아들인 유류를 세자로 책봉한 후 B. C. 259년 4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후 고구려의 후손들은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였으며 그때 자기들의 시조인 동명왕의 릉도 함께 옮겨왔다. 우리 민족에게는 예로부터 수도를 옮길 때면 시조의 무덤도 함께 옮기는 풍습이 있었다. 고구려사람들은 지금의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의 풍수가 좋은 곳에 동명왕릉을 만들고 락랑언덕에서 매해 삼월삼질날 사냥놀이도 벌리고 잡은 짐승들로 제사를 하면서 강력한 나라를 일떠세운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업적을 추억하군 하였다.

그리하여 후세에는 평양에 《기린굴》전설, 《조천석》전설 등 동명왕과 관련한 많은 전설들과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이것은 동명왕이 고구려국을 세운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어도 그 어떤 외세굴종과 타협을 모르고 당당히 민족의 기상을 떨쳐오던 고구려때처럼 우리 나라를 동방의 강국으로 빛내이려는 우리 선조들의 념원과 기대의 반영이였다.

백살로장 명림답부

1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부여와 현도군(후한의 동북변방주, 군들중의 하나)사이에 벌어진 싸움으로 하여 고구려에는 일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를 제때에 간파한 고구려는 한나라(후한)가 혼란된 상태에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168년 료동의 유주와 병주지방을 선제공격하여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고구려의 감쪽같은 드센 공격으로 여지없이 패배를 당한 한나라 통치배들은 현도태수 경림을 두목으로 하는 침략군을 고구려에 침입시켰다.

그러나 고구려의 완강한 방어로 하여 무수한 시체만을 남긴채 쫓겨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한나라침략자들은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다시금 방대한 무력으로 172년 또다시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고구려에는 긴급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왕정에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신들의 모임이 열리였는데 한시라도 지체말고 나가서 한나라군을 치자는데로 의견들이 모아지고있었다.

어느 한 대신이 성큼 일어서더니 결기에 넘쳐 제 생각을 터놓았다.

《한나라군사들은 저들의 수가 많은것을 믿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모양인데 만약 이런 때 우리가 맞받아나가 치지 않으면 적들이 우리를 비겁하다 할것이오이다. 우리 고구려는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길이 좁으니 능히 하나로 만을 당해낼수 있다고 보나이다.

한나라군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는 이길터이니 어서 나가 싸우도록 하는것이 상책일듯 하오이다.》

몇몇 대신들도 머리를 끄덕이며 이에 수긍하였다.

《옳거니, 한시라도 지체 말구 나가야지.》
대신들은 제나름대로 한마디씩 웅얼거리였다.
그러나 제일 앞줄에 서있던 106살 로령의 국상 명림답부만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아니야. 손실을 보지 않고 이겨야 해. … 얼마든지 할수 있어.》
명림답부는 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명림답부는 적아간의 력량관계, 한나라군의 무장상태, 우리나라의 지세 등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한나라군사들은 먼 천리길에서 군량을 나르니 오래동안 지탱해낼수 없을게고 또 그들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는 형편이옵니다. 우리가 성을 높이 쌓고 낟알 한알 적이 다치지 못하게 성안으로 끌어들이면 한달이 못되여 적은 허기지고 지쳐서 저절로 되돌아서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오이다.
이런 때 우리가 길목을 막고 벼락같이 들이치면 적은 영낙없이 떼죽음을 당하게 될것이요, 우리는 자그마한 손실도 보지 않고 이길수 있소이다.》
듣고보니 과연 신통한 명안이였다. 성을 차지하고 길목을 막아서면 적은 올데갈데 없을것은 뻔한 사실이였다.
그리하여 대신들의 모임에서는 청야수성전술을 쓰자고 한 명림답부의 안대로 한나라군사들을 맞아 싸우기로 락착되였다.
명림답부는 이제 해야 할 싸움을 머리속에 곰곰히 그려보며 궁궐을 나섰다.
연나부출신 조의였던 명림답부는 165년 폭군인 차대왕을 처단하고 신대왕을 내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고구려의 대신이였다.
당시 음모적방법으로 왕권을 차지했던 차대왕은 밖으로는 큰 나라에 아부하면서 한나라에 대한 비굴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안으로는 반대파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권력은 차대왕의 몇몇 측근들의 손에 쥐여지게 되였고 조정에서는 어지러운 싸움이 계속되였다.
이러한 때 명림답부는 정변을 일으켜 차대왕을 제거하고 새로이

신대왕을 앉히였다. 명림답부는 그 공로로 하여 166년 고구려국가의 첫 국상(좌보, 우보를 국상으로 개편)으로 되였다.

그는 국상으로서 차대왕이 가두어넣었던 반대파세력들과 백성들에게 대사령을 내리고 혼란된 질서를 수습하는 한편 국력을 다져 한나라에 대한 강경정책을 실시하였다.

바로 이런 때 한나라군사들이 쳐들어왔던것이다.

고구려는 명림답부의 지휘에 따라 적들이 기여들수 있는 곳의 식량을 모조리 성안으로 날라들였으며 위나암성에 군량을 충분히 마련해놓는 한편 성들을 보수하고 그 방비를 철저히 하였다.

고구려의 청야수성전술을 알길 없는 한나라군은 순조로이 쳐들어왔다. 적들은 성들에 이르자 이를 타고넘으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여러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성문은 굳게 닫겨져있었고 성벽에 의거한 군사들이 날리는 화살이 비발치듯 날아왔다. 천연요새에 의거하여 싸우는 고구려군을 도무지 당해낼수가 없었다.

한편 명림답부는 몇개의 부대를 파견하여 적의 후방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그러니 날이 갈수록 적은 식량이 떨어져 허덕이였다.

이때 명림답부의 총공격명령이 떨어졌다.

《북을 울리고 성문을 열어라! 적들을 한놈도 놓쳐서는 안된다!》

성문이 활짝 열리고 고구려군사들이 벼락같이 쓸어나와 적을 사정없이 족쳤다.

한나라군은 허둥지둥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명림답부의 지휘하에 수천명의 고구려기병대는 적을 뒤쫓아 좌원벌에서 큰 싸움을 벌렸다. 벌의 좌우목을 막아 적들을 독안에 든 쥐신세로 만든 후 일제히 북을 울리며 공격에로 넘어간 고구려군사들은 이 싸움에서 한나라침략군을 마지막 한놈까지 통쾌하게 소멸함으로써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것이 후세에 전해진 좌원벌싸움이다.

좌원벌싸움의 승리로 하여 오래동안 검질기게 계속된 한나라의 침략책동은 여지없이 분쇄되고 고구려의 위력은 더욱더 파시되였다.

명림답부는 백살로장으로서 112살(67～179)까지 활동하였다고 전해지고있다.

고구려의 국력강화에 크게 기여한 광개토왕

《와, 와.》 군사들이 사방에서 짐승들을 몰아온다. 한편에서는 짐승들이 달아나려고 발버둥치며 나무사이를 가로질러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를 잡겠다고 군사들이 창을 들고 말을 몰아댄다.

오늘이 사냥 마지막날이니 좁혀진 포위진에 갇힌 짐승들은 락랑언덕어귀에 몰려들어 마구 헤덤비는 판이다. 이에 따라 사냥군들은 한마리라도 놓칠세라 패를 지어 더 좁혀들어간다.

짐승무리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사곳에서 터지고 그에 따라 군사들의 기쁨의 고함소리도 더욱 커간다. 그들은 산비탈이건 벼랑이건 가림이 없이 짐승들을 쳐몰아간다.

드디여 광개토왕(고담덕, 374～412)이 신하들의 호위밑에 사냥터에 나타났다. 길게 울리는 뿔나팔소리와 함께 먼저 왕이 활을 들어 커다란 사슴을 쏘아맞혔다. 뒤따라 군사들이 승벽을 돋구며 몰고온 짐승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한다.

해마다 3월 3일이면 평양부근 락랑언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냥경기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희망한다면 누구나 참가할수 있다. 사냥이 끝나면 짐승을 잡은 마리수에 따라 왕이 직접 후한 상을 내리고 더우기는 장수로도 등용시킨다. 그러니 평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커다란 행사였다.

광개토왕은 이 사냥경기에 관심과 기대가 컸다. 하기에 해마다 여기에는 어김없이 참석하였다.

이번에도 왕은 수많은 짐승을 잡은데 대해 만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군사들을 크게 표창하였다.

《여봐라, 새끼짐승들은 모두 놓아주고 큰것들만 잡아 즐겁게 놀도록 하여라.》

《알겠소이다.》

광개토왕은 이 사냥경기를 한갖 즐거운 놀이로만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무술훈련으로 여기였다. 사냥경기에서는 경기에 참가한 사냥군들의 담력과 의지를 시험받을뿐아니라 칼쓰기, 창쓰기, 활쏘기 등 자기들이 련마한 훈련정도와 수준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사냥군들이 떼를 지어 산짐승들을 몰아 달려가는것은 싸움시에 적을 포위속에 몰아넣는것과도 흡사하였다. 때문에 선대왕조때도 그러했지만 광개토왕도 이를 적극 장려하였다.

391년 5월 태자로 책봉된지 5년만에 담덕(광개토왕의 어렸을 때 이름)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17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임금이였지만 그에게는 벌써 누구도 함부로 대할수 없는 위엄이 있었다. 그리고 정사도 여러모로 훌륭히 펴나갔다. 하긴 어려서부터 그는 뛰여난 인물이였다.

고구려 22대왕이였던 소수림왕은 슬하에 아들을 두지 못하였다. 하여 왕위를 이을 태자가 없어 동생인 이련(고국양왕)이 왕위를 잇게 되였는데 그에게서도 역시 아들이 태여나지 않았다.

고구려의 23대왕이였던 고국양왕은 머리에 점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자 태자가 없는것을 한탄하며 근심속에 날을 보내게 되였다.

그런데 형처럼 태자를 포기하려던 이련이 천만뜻밖에도 아들을 보는 경사를 맞게 될줄이야.

이날은 온 궁성이 기쁨으로 들끓었다. 궁녀들이 소식을 알리려 바람이 일게 뛰여다니고 한다하는 산파들이 산모를 에워쌌다. 대궐에서는 크게 잔치를 열고 아기의 앞날을 축복하였다.

아기는 커감에 그 용모가 의젓하고 침착했으며 무엇이든지 두려움을 모르는 용사의 기질을 보여주었다.

담덕이 4살때의 일이다. 난데없이 대궐에 호랑이 한마리가 뛰여들어 사람들은 아우성을 쳐댔다. 유모들은 누구보다도 담덕을 념려하여 궁성안으로 안아들이려 하였지만 그는 태연히 도리질

을 하는것이였다. 그런데 그렇게도 사납던 호랑이가 담덕앞에 이르러 그의 무섭게 뜬 두눈을 보고는 천천히 대궐밖으로 나가는것이 아니겠는가.

대궐을 지키던 군졸들과 유모들은 너무도 신기하여 담덕을 멍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이에 무관하고 그는 히쭉 웃으며 유모에게 매달렸다.

《무섭나?》

《그래 무섭지 않소이까?!》

사람들은 모두 얼이 빠진듯 하나 담덕은 아무렇지도 않아했다. 이런 놀라운 일은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한다.

담덕은 글공부에도 뛰여났으며 무예에도 열성이 대단하였다. 벌써 5살에 말을 타고 성안을 여기저기 달렸으며 10살이 넘어서는 산과 들을 뜨락밟듯 말을 몰아댔다. 그러다가도 아무 동네에나 들려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눈여겨보았고 절간도사들을 불러 지난날 선조들의 력사도 차분히 익혀들었다. 특히 그는 병서를 탐독하는데 많은 품을 들였다. 앞으로 자신이 왕이 되면 사나이답게 무술로써 기개를 떨치고싶었던것이다.

391년 왕위에 오른 광개토왕은 나라안팎의 정세로 보아 들어오는 적을 막고 나라를 편하게 하자면 군사가 강하고 무기가 많아야 하며 군량이 풍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농사법의 개량에 힘을 넣었다.

그리고 전국에 령을 내리였다.

《고구려의 아들들이여! 모두가 일어나라, 우리의 적을 치고 조상이 물려준 땅을 되찾자!》

광개토왕은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을 열심히 시켰다.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우리는 하늘신인 단군의 후손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뛰여난 민족인 우리는 마땅히 존엄있고 굳세게 살아나가야 할것이다.》

그는 전국의 방방곡곡에 경당을 짓게 하여 청장년들이 글공부와 무술을 련마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에서도 관리제도를 새로 내오게 하고 평양성의 영명사를 비롯하여 9개의 커다란 절을 세워 나

라의 번영을 빌도록 하였다.

광개토왕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넓은 북쪽의 대평원을 되찾아 동방의 대강국을 건설할 거대한 포부를 안고 그 실현에 힘을 넣었다.

광개토왕은 먼저 백제를 징벌하는 길에 나섰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관계를 놓고보면 369년 9월에 벌어진 치양성(황해도 배천지방)싸움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원래 고구려에 비하면 작은 나라로서 고구려에 사대하는 관계에 있던 백제가 4세기 중엽에 와서 강화되고 주변나라들까지 인입하여 고구려를 반대해 나서게 된 조건에서 고구려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고구려는 서북방정세가 긴장함에도 불구하고 2만명의 병력으로 백제의 치양성을 공격했으나 백제군이 더 많은 력량으로 반격하여오는 바람에 수곡성(신계남쪽 30리, 오늘의 침교리)까지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백제는 그후 고구려의 기본무력이 유주방면으로 나가있는 틈을 타서 371년 10월에 3만명의 무력으로 고구려의 평양성(남평양성—신원군 장수산일대)을 공격해왔다.

고구려수비군의 완강한 방어로 백제군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갔으나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백제는 북방에로의 진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를 남한성(광주)으로부터 북한성(오늘의 서울지방)으로 옮기였다.

광개토왕의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이 남평양성전투에서 날아가는 화살에 맞은것이 원인이 되여 죽은것은 고구려—백제관계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으며 두 나라사이에는 해마다 싸움이 잦을새 없었다.

375년 고구려는 백제의 수곡성을 쳐서 함락하였으며 376년에는 남방을 공격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기는 하였지만 어느쪽도 특별한 전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고구려의 남방진출이 큰 규모로 진행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웅대한 기상의 소유자이며 유능한 군사가였던 광개토왕

의 즉위이후부터였다.

고구려는 백제를 고립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신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썼다. 신라는 원래 가야, 《왜》(가야—백제 등 계통 이주민들의 후예가 형성한 소국정치세력들에 대한 총칭)의 소국들가운데 많은 세력과는 리해관계가 상치되는 관계에 있었고 또 백제와의 동맹으로써는 강력한 고구려의 진출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있었다.

391년에 이르러 백제는 손아래동맹자인 북규수의 《왜》국사람들을 끌어들여 그들을 고구려, 신라를 반대하는 전쟁에서 선봉대로 내세울 계획을 꾸미였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먼저 그 주동세력인 백제에게 타격을 주기로 작정하고 한편으로는 신라를 더 적극적으로 인입하는 정책을 쓰게 되였다.

광개토왕은 392년 7월 겨레와 국토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 4만명의 무력으로 백제북쪽의 석현성을 비롯한 10개의 왕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리고 10월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던 관미성을 20일간 공격하여 끝내 점령하고말았다.

396년 광개토왕은 군사를 일곱길로 나누어 파하고 자신도 배에 올라 왕성으로 쳐들어갔다. 그리하여 백제를 격파하고 한강 북쪽지역은 거의다 차지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삼촌을 죽이고 왕이 된 백제의 아신은 외삼촌이 되는 진무에게 군사를 주어 여러차례에 걸쳐 고구려에 쳐들어왔지만 광개토왕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414년 아들인 장수왕에 의하여 압록강건너 집안현 통구에 세워진 광개토왕릉비(높이 6.34m, 너비 1.43～1.9m)에 의하면 396년 왕이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의 수십개 성들을 격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항복하지 않으므로 그는 크게 노해 정예부대로 하여금 한강을 건너 왕성에 육박하게 하였으며 백제의 북부 및 서부지방(황해도 남부)과 경기도 북부 및 서부해안지대는 고구려의 령토로 되였다고 씌여있다.

그리고 고구려에 무릎을 꿇은 백제왕은 남녀노비 1 000명과 가는 베천 1 000필을 바치고 영원히 고구려국왕의 노객(신하)이

되겠다고 맹세다지였다고 한다.

릉비에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새겨져있다.

《태왕은 은혜롭게도 앞서 잘못을 범한 허물을 용서하고 그가 후에는 순종하게 된 성의를 인정해주었다. 이에 58성 700촌을 얻었고 백잔(백제)임금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볼모로 데리고 군사를 돌리여 수도로 되돌아왔다.》(볼모—예속적인 조약을 지키게 하는 담보로 잡아두던 조약상대국의 왕의 아들이나 그밖의 사람.)

그후 백제는 398～399년 고구려를 보복하려고 하였으나 실패만 거듭하였다.

399년에 이르러 백제는 《왜》의 군사를 끌어들이고 가야와 합세하여 먼저 신라의 변방을 치게 하였다. 위협에 직면한 신라는 고구려에 후원을 요청하였다.

광개토왕은 400년에 진행한 신라구원작전에서 백제, 《왜》군을 몰아 남해안끝까지 진출하였으며 404년 백제—《왜》의 련합군이 바다로 대방계(오늘의 황해남도 남쪽해안지방)에 침입하였을 때에는 평양성에서부터 직접 부대들을 거느리고 나가 섬멸적타격을 주었다.

407년에 광개토왕은 5만명의 보병, 기병부대를 파견하여 백제가 다시는 고구려를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눌러놓고말았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남방진출은 성공적이였다.

이것은 광개토왕을 비롯한 고구려인민들이 자기들의 성과를 확대하여 장차 세나라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단군민족의 위용을 만대에 떨쳐가려 한 변함없는 념원과 의지의 귀결이였다.

한편 광개토왕은 옛 조상의 땅을 수복하여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방개척에도 큰힘을 돌리였다.

395년 광개토왕은 북쪽에서 항시 소란을 피우는 비려를 징벌하기 위한 원정의 길에 올랐다.

비려란 거란의 한 종족으로서 부단히 고구려를 침략해왔다.

광개토왕은 비려를 정복하여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아 고구려의 령토를 넓힐 계획이였다.

만주의 드넓은 땅은 거칠었고 북변의 날씨는 음산하였다. 그

러나 광개토왕은 달려드는 적을 쳐갈기며 말을 몰아나갔다.

적들은 처음에는 맞서보았지만 대항해나설수록 목숨만 잃을뿐이였다. 이에 비려인들은 생각을 바꾸어 고구려군이 가는 길마다에 환영의 물결을 지었고 족장들은 두말없이 광개토왕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침내 광개토왕은 북만주의 넓은 땅을 손에 넣게 되였으며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의 길에 오르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광개토왕릉비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영락5년 을미에 왕은 비려가 (우리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것을 토벌하였다. 부산을 거쳐 염수가에 이르니 그 3개 부락과 600～700명을 격파하여 로획한 소, 말, 양의 떼들이 이루다 헤일수 없을만큼 많았다. 이에 왕은 행차를 돌려서 양평도를 지나 동쪽으로 ○성, 력성, 북풍으로 와서 령토를 시찰하고 사냥을 한 다음에 돌아왔다.》

여기에 지적된것과 같이 돌아올 때는 성들을 돌아보기 위해 다른 길을 택했던것이다.

비려를 징벌하고 돌아온 광개토왕은 넓은 후궁을 산책하면서 이번에는 숙신(말갈족)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익혀가고있었다. 숙신으로 말하면 2세기초 고구려와 좋은 무역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그후에는 고구려를 침범하여 호된 징벌을 받고 3세기말에 고구려의 속국으로 되였다.

그러나 숙신은 그에 그치지 않고 기회가 있을적마다 고구려에 대한 침입을 일삼았다.

광개토왕은 서북쪽으로의 진출을 계획하였으며 398년 숙신을 징벌하였다.

광개토왕은 고구려와 멀리 떨어진 숙신에 들어가 굉장한 무력시위를 진행하고 그길로 가태라곡주민 300여명을 잡아왔다.

그 위용에 겁을 먹은 숙신은 이후 고구려에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되였다.

숙신의 넓은 땅은 고구려의것으로 되였으며 근 반세기동안 한번도 고구려땅에 범접하지 못하게 되였다. 그후 숙신은 점차 고구려

에 흡수되면서 수나라, 당나라침략을 물리치는 싸움에도 합류하게 되였다고 한다.

이어 광개토왕은 동부여에로 시선을 돌리였다.

동부여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국이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고구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것이였다. 그동안 동부여의 많은 귀족들과 백성들이 고구려에 귀순하여왔지만 그 일부는 외래침략자들과 손을 잡았고 이제는 고구려에 대한 배신을 서슴없이 하려 들었다. 그러니 광개토왕으로서 가만둘수 없는 일이였다.

고구려의 대신들은 광개토왕에게 아뢰였다.

《우리 고구려는 감히 누구도 다칠수 없는 동방의 강대국으로 되였나이다. 동부여쯤은 다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리를 숙이게 될줄로 아나이다.》

하지만 광개토왕은 엄하게 일렀다.

《내 젊은 나이에 대궐이나 지키란 말이요?》

신하들은 목을 움츠러뜨릴수밖에 없었다.

광개토왕이 이끈 고구려군이 기세도 드높이 동부여땅에 들어서자 그곳 군사들은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모두들 무릎꿇어 엎드려 머리를 숙이였다.

《소신들을 이끌어주시옵소서.》

광개토왕은 일거에 64개의 성을 점거하고 1 400여개의 촌을 평정했다. 광개토왕의 사후인 494년 동부여는 고구려에 스스로 투항하였다. 천군만마를 휘몰아 광활한 대륙을 주름잡으며 천하를 호령하여 남으로, 북으로 질타하던 광야의 대장군 광개토왕은 왕위에 오른지 21년만인 412년 12월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땅을 노리는 침략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하고 조상의 땅을 되찾았으며 국토의 통합을 위한 성업에 한몸바친 광개토왕은 고조선의 옛땅을 완전히 수복하고 북방의 대륙을 한손에 거머쥔 령주로 력사에 기록되여있다.

온달과 공주

궁궐을 나선 공주는 벌써 몇번째나 온달의 집을 물어 겨우 찾아갔다.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집에는 눈먼 어머니가 홀로 앉아있었다.

공주는 늙은 어머니앞으로 조심히 다가가 공손히 절을 하고나서 아들이 간 곳을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내 아들은 가난하고 루추하여 귀인이 가까이 할만한 사람이 못되오이다. 이제 내 그대의 냄새를 맡아보니 꽃다운 향기가 범상치 않으며 그대의 손을 만져보니 부드럽기가 솜과 같으니 필시 천하에 귀인인가 하나이다. 그런데 누구의 허튼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오셨소이까? 내 자식은 너무도 배가 고파 주림을 참다 못해 느릅나무의 껍질을 벗기려고 산속으로 들어갔소이다.》

공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토방돌에 앉아 오래동안 온달을 기다렸다.

어느덧 저녁해가 서산마루로 넘어가려 하는데도 온달은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기에 지친 공주는 집을 나서 산밑에 이르렀다. 그런데 앞에서 온몸에 누덕누덕 기운 옷을 걸치고 머리는 덥수룩한데 찌그러진 지게에 느릅나무껍질을 한가득 짊어진 어수룩한 총각이 걸어오고있었다.

공주는 제꺽 그가 온달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공주는 온달앞으로 다가가 자초지종 사연을 말하고나서 《이 몸을 맡기려 하오이다.》하였다.

그러자 온달이 벌컥 성을 내면서 말하였다.

《여기는 어린 녀인들이 다닐데가 아닌데 필연코 너는 사람이 아

니라 여우귀신이로구나.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나 공주는 한번 먹은 뜻 굽힐수 없었다.

공주는 온달의 뒤를 따라 그의 집으로 와서 그날밤을 삽짝문 바깥에서 지새웠다.

온달은 평원왕(평강왕)시대의 사람이다. 그는 너무도 비천한 집안의 사람이여서 아버지와 그 집안에 대하여 알려진것이 없다. 다만 늙은 어머니 한분을 봉양하고있었다는것이 전해지고있을뿐이다.

어린시절부터 집안이 하도 가난하여 언제나 이 집, 저 집 쪽문을 두드려 밥을 빌어 눈먼 어머니의 때식을 마련하였으며 꿰진 옷과 낡은 신발을 겨우 걸치고 장마당에 나들면서 목숨을 이어가니 마을사람들은 그를 《바보온달》이라고 불렀다.

그의 외모는 모진 생활난에 여위고 허름하여 우습게 보였으나 마음만은 어질고 순박하여 사람들의 동정을 받았다.

그때 평원왕의 어린 딸이 하도 울기를 잘하여 온 궁궐안에 소문이 자자했다.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우니 어느날 왕이 롱담으로 이런 말을 하였다.

《네가 늘 울어서 나의 귀를 솔게 하니 필시 점잖은 사람의 안해로는 되지 못할것이요, 마땅히 〈바보온달〉에게나 시집을 보내야 하겠다.》

평원왕은 공주가 울 때마다 롱담삼아 이런 말을 되뇌이였다.

공주가 커서 나이 16살이 되자 평원왕은 상부 고씨에게 시집을 보내려 하였다.

공주가 왕앞에 한걸음 나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안해가 되리라고 하였는데 오늘 무슨 까닭으로 전일의 말씀을 변경하나이까? 보통사람도 거짓말을 하지 않거늘 하물며 임금으로서 거짓말을 할수 있소이까?

예로부터 〈임금은 롱담이 없다.〉는 말이 있소이다. 지금 대왕의 명령이 그릇된것이기에 전 받들수 없나이다.》

너무도 천진하고 당돌한 말이였다. 롱담으로 입버릇처럼 하여온 평원왕의 그 말이 그만 공주의 귀에 못이 든 모양이였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도저히 내 딸로 될수 없으니 어찌 한집에 같이 살수 있겠느냐? 너 갈데로 가거라!》

평원왕은 정말로 성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공주는 태연히 왕의 앞을 물러나 자기한테 있던 진귀한 금, 은팔결이 수십개를 손목에 걸고서 대궐문을 나섰다. 그리고는 이렇게 온달의 집을 찾아왔던것이다.

궁궐의 포근한 자리에서만 자던 공주였지만 그날밤 온달의 집 삽짝문옆에서 이슬을 맞으며 하루밤을 지새우면서도 공주의 마음은 여전하였다.

다음날 아침해가 뜨자 공주는 온달이 거처한 방으로 찾아들어가 자기의 뜻을 다시금 말하였다.

온달은 너무도 뜻밖이고 신기한 일이여서 어찌지 못하고 망설이였다.

이때 어머니가 공주에게 말했다.

《내 자식은 지지리 못나서 귀인의 짝이 될수 없고 내 집은 몹시 가난해서 아예 귀인이 들수 없소이다.》

그러나 공주는 조금도 다름없이 어머니를 설복하였다.

《어머니, 옛글에 〈한말의 곡식도 찧어서 함께 먹을수 있고 한자의 베도 기워서 같이 입을수 있다.〉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만 맞는다면 어찌 꼭 부하고 귀하여만 같이 살겠소이까.》

공주는 온달과 어머니가 그러거나말거나 짐을 풀어놓았다.

공주는 장에 나가 가지고온 금, 은, 팔결이들을 팔아 논을 사고 우마를 사고 기물들을 사들여 살림을 폈다. 그리고 보란듯이 집도 크게 지었다.

이렇게 되니 며칠사이에 《바보온달》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의젓한 젊은이가 새로 태여났다.

공주는 말을 사려 장으로 떠나는 온달의 팔을 끄당겨 이런 말을 해주었다.

《부디 저자사람의 말을 사지 말고 나라말로서 병들고 수척하여

버리게 된것을 골라서 값을 치르소이다.》
온달은 공주의 말대로 하였다.
그날부터 공주는 정성을 다 바쳐 말을 키웠다.
제가 직접 먹이를 주고 등을 쓸어넘기였다.
그랬더니 말은 나날이 살이 지고 튼튼해져 마침내는 준마로 되였다.
그후부터 온달은 나라 지킬 마음으로 무술을 익혔다. 낮에도 밤에도 산과 들을 달렸고 활을 쏘고 검을 휘둘렀다.
이 시기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이면 락랑언덕에 모여서 사냥경기를 하여 잡은 짐승으로 산천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은 왕도 사냥에 나서고 온 나라의 한다하는 무사들이 모두다 왕의 뒤를 따라 짐승잡이경기를 하군 하였다.
당당한 무사로 자라난 온달의 미더운 모습을 정겨운 눈으로 바라보던 공주는 그를 락랑언덕의 사냥경기에 내보내였다.
여기서 인재를 뽑고 나라의 재목으로 등용하는것이기에 공주는 온달의 등을 애써 떠밀었다.
《어서 떠나시오이다. 반드시 우승을 하고 돌아오시오이다.》
멀어져가는 온달을 바라보는 공주의 마음은 마냥 설레였다.
이날 온달은 사냥경기에서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여 단연 우승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게 되였다. 온달은 공주가 기른 말을 타고 앞장에서 달렸으며 잡은 짐승도 제일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절반도 못되였다. 고구려때는 무술이 능한것을 보고 사람을 등용하였다.
온달은 름름한 무관으로 선발되였다.
바로 이런 때 후주의 무제가 군사를 출동하여 고구려의 료동에 쳐들어왔다. 그리하여 고구려군은 배산들판에서 적을 맞받아 결전을 벌리게 되였다.
나라의 위급함을 온몸으로 느낀 온달은 자진하여 부대의 선봉으로 나서서 좌우로 달려드는 수십명의 목을 단번에 베버렸다. 이에

고무된 군사들이 함성을 울리며 마지막 한놈까지 때려부심으로써 고구려는 크게 이겼다.
이 싸움을 총화하는 마당에서 군사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온달의 공로를 제일이라고 추천하였다.
평원왕은 깜짝 놀랐다.
(그러면 그 《바보온달》이?)
만족한 왕은 온달을 크게 평가하고 그에게 대형이라는 높은 벼슬을 주었다.
그리고는 어깨를 펴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여봐라, 듣거라. 이 사람이 나의 사위로다!》
그후 평원왕은 온달과 공주를 례를 갖추어 맞아들이였다.
그때로부터 온달에 대한 왕의 총애는 날에날마다 더하여갔으며 그의 위풍과 권위는 올라만 갔다.
그 옛날의 《바보온달》이란 그림자도 찾아볼길 없었고 름름한 고구려장수로서 온달은 군사에 충실하였다.
평원왕의 뒤를 이어 영양왕이 왕위에 오른 어느날 온달은 그 앞에 나섰다. 일시 약화된 국력을 회복하고 잃었던 땅을 되찾음으로써 군사의 직분을 다하려는 마음에서였다.
《대왕님, 온달이 문안드리옵니다. 지금 신라가 우리의 한쪽지역을 떼내여 저들의 군현을 만들었으므로 백성들이 통분하게 생각하고 부모의 나라를 잊지 못해하오니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고 변변치 않다 하지 않으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걸음에 우리 땅을 도로 찾겠소이다.》
그의 결심은 단호하였다.
《네 말이 옳다. 군사를 이끌어 어서 떠나거라.》
온달은 떠나기에 앞서 공주의 손을 꼭 쥐였다.
그리고는 뜨거운 눈매로 바라보았다.
《계립현과 죽령의 서쪽지역이 우리 땅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소.》
《기어이 성공하고 돌아오시오이다.》
공주는 공손히 머리숙여 절하였다.

이윽고 온달은 출정의 길에 올랐다.

그런데 어이하랴. 싸움의 날이 흐르던 어느날 아단성밑에서 신라군사들과 생사의 격전을 치르던 온달은 그만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말았다.

군사들이 그를 장사 지내려고 하였으나 어인 일인지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어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슬픔에 잠겨 이런 말을 하였다.

《생사가 결판났으니 아, 아 돌아가시라.》

그제야 관이 서서히 들리여 하관을 하였다 한다.

왕도 이 말을 듣고는 매우 슬퍼하였다고 전한다.

나라를 지켜 용감히 싸운 고구려의 온달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기》렬전에 올라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바둑왕 도림

백제의 개로왕은 오늘도 도림과 마주앉아 바둑을 두고있었다. 매번 묘한 수를 써나가는 도림의 솜씨는 과연 《바둑왕》으로 불리울만 하였다.

《도림선생은 바둑을 어디서 배우셨소?》

이번에도 도림에게 지고만 개로왕이 그 묘한 수를 알려는듯 넌지시 물었다.

《녜, 옛날에 그저 좀 배워두었소이다.》

도림 역시 그 수는 절대로 알려줄수 없다는듯 능청을 부리였다.

《허 참, 나한테도 그 묘술을 넘겨주시구려.》

개로왕이 체면도 잊고 낮추붙었다.

하지만 도림은 여전히 히죽거리며 딴전을 부리였다.

도림이 백제의 궁궐에 들어온지도 몇달이 되였다. 그동안 개로왕은 도림을 자기곁에 두고 바둑친구로 하였다. 이제는 개로왕과도 퍼그나 가까운 사이가 되였으니 도림은 자기의 목적한바를 시작해도 될상싶었다.

도림은 개로왕의 얼굴을 슬금슬금 훔쳐보면서 넌지시 아뢰였다.

《상감마마, 소인으로 말하면 백제사람도 아닌데 대왕님께서는 저같은 하찮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였사옵니다. 하지만 소인은 다만 바둑 한가지로만 임금님께 봉사할뿐 아직 은혜를 갚을만한 일을 하지 못하였소이다.

소인이 한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려 하오니 들어주시겠사온지요?》

도림은 이렇게 한마디 슬쩍 건늬였다.

《어서 말해보아라.》

개로왕은 선선히 대답하였다.

《소인이 보건대 대왕의 나라는 사방에 산과 둔덕이며 또한 마땅한 곳에 강이 있고 바다가 펼쳐졌으니 이는 하늘이 정해준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이웃나라들에서 감히 엿볼 마음을 먹지 못하고 오로지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고있소이다.

그런즉 임금님께서는 그 위엄을 떨쳐야 하는줄로 아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궁실들이 웅장하지 못하고 선왕의 무덤도 초라하며 백성들의 집들이 허물어지고있소이다. 이는 대왕님의 위엄을 떨어뜨리나이다. 그러한즉 소인의 생각으로는 한시바삐 궁궐부터 고쳐지어야 할줄로 아옵니다.》

《지당한 말이로다. … 그대는 제때에 나를 일러주었도다.》

개로왕을 추어올린 도림은 흡족한 마음으로 자기 처소에 돌아왔다. 사실 도림은 고구려사람으로서 고구려의 남방진출을 위하여 백제에 파견된 인물이였다.

450년 고구려의 한 지방의 군사지휘관이 어느날 실직(강릉)에 사냥을 나갔다가 신라의 하실라성의 우두머리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도화선으로 되여 고구려의 남진이 시작되였다.

당시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가 련합하여 고구려에 대항하는것을 미리 막기 위해 동서에 전선을 펴고 그 력량을 분산시키면서 주력은 중부조선일대를 장악하는데 돌리고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동해연선을 따라 신라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한강하류지방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펴나갔다.

고구려는 고조선과 부여의 옛땅을 거의다 회복하였고 서쪽으로는 대릉하에 이르렀다. 고구려의 남방진출은 의연히 국토통합정책을 강하게 밀고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백제의 개로왕은 고구려의 강대한 세력에 대처하여 북방에 여러 성들을 구축하는 한편 일련의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되자 고구려는 백제에 대한 위력공세를 들이대여 그들의 기세를 꺾고 국토통합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고구려는 전연깊이까지 군사들을 들이밀어 훈련시키는 한편 백

제왕정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작전을 은밀히 펴나갔다.
이를 위해 파견된 인물이 바로 도림이였다.
도림은 자진하여 이 위업실현에 나섰다. 도림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나 지혜가 있고 묘술을 잘 쓰기로 이름이 났었다. 그 시기 그는 중으로 자처하면서 절간에 들어가 도를 닦고있었다.
고구려에서는 도림에게 백제에 침투할 방안을 알려주고 그곳에서의 련락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약속하였다. 도림이 백제의 국경을 넘게 하기 위해 고구려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치는 범인으로 가장케 하고 백제에 가서는 궁궐에 들어가 개로왕이 바둑을 좋아하는것을 리용하기로 하였던것이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얼마후 평양성안의 곳곳에는 중 도림의 범죄에 대한 방이 큼직하게 나붙고 그와 그의 가족, 친척들은 《체포》되여 왕실감옥에 갇히였다. 도림은 이 감옥에서 《탈옥》하여 국경을 무사히 넘어서 백제땅에 들어갔다.
도림은 백제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왕궁에 이르렀다.
도림은 궁궐앞에서 개로왕이 바둑을 잘 둔다는데 한번 해보고싶어 찾아왔다고 하였다. 바둑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개로왕은 이 말을 전해듣자 어서 불러들이라고 하였다.
도림은 개로왕의 《바둑손님》으로 유유히 입궐하였다.
개로왕이 바둑을 두어보니 초면객의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으며 백제에서는 당할자가 있을상싶지 않았다.
이렇게 되여 도림은 백제궁궐에서 후한 대접을 받으며 몇달간을 지냈다. 도림은 그동안 백제궁궐의 구석구석을 살폈으며 개로왕에 대해서도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도림은 개로왕을 유혹하여 허세를 부리게 함으로써 백제의 내부를 와해시키는 전술을 쓰기로 하였다.
도림에게서 궁궐개축에 대한 말을 들은 개로왕은 곧 온 나라에 령을 내리여 한다하는 목수는 모두 징발하고 한쪽에서는 벽돌을 구워내여 루각과 정자들을 세우고 궁궐을 고쳐지었다.
그리고 깊은 골에서 돌을 캐여 선조들의 무덤을 요란하게 쌓아올렸다. 개로왕은 이 공사에 일반백성들은 물론 국경수비병들까

지 징발하는 등 극성을 부리였다.

농군들은 봄이 다 가도록 씨붙임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세를 하소연하였으나 개로왕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개로왕은 높은 교자(가마)에 올라앉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길다란 수염을 천천히 내리쓸었다.

《음, 이제는 누구도 나를 당해내지 못할테지.》

그러나 그해 농사는 거의나 페농이고 나라창고는 텅 비여 쥐들까지 달아나버리는 형편이였다.

궁궐과 루각은 덩실하게 솟아올랐지만 백성들은 곤궁에 빠지였고 군사들은 해이될대로 되였다.

자기가 바라던바를 성취한 도림은 고구려에로 돌아와 장수왕에게 이 사실을 낱낱이 알리였다.

때를 기다리던 고구려군은 백제에 대한 전면공격을 개시했다.

475년 가을 고구려군은 장수왕의 지휘밑에 3만의 군사로 백제의 수도인 한성(경기도 광주)을 들이쳐 일시에 점령하였으며 개로왕을 징벌하고 수많은 대신들을 고구려에 포로로 끌어갔다.

그리하여 백제는 국경부근의 여러개 성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급기야 수도를 옮기는 혼란이 일어났다.

백제가 어쩔새없이 손도 써보지 못한채 이러한 손실을 보게 된데는 고구려의 《바둑왕》도림의 활동에 적지 않은 요인이 있었다.

도림이 개로왕의 《바둑손님》으로서 궁정내부에까지 들어가 그 상황을 낱낱이 알아내고 와해시킴으로써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렇게 고구려는 남방진출에서 커다란 전과를 이루었다.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한것은 남쪽전선에서 가장 큰 장애로 되였던 백제세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전령토에 대한 통합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고구려는 겨레와 강토의 통일을 위해 남쪽으로 그 령역을 넓혀나갔다.

수나라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자, 받거라. 가보로 전해내려오던 칼과 활이다. 너는 이것으로 심신을 단련하여 반드시 성공해야 하느니라.》

《아버님 말씀을 명심하겠소이다.》

《어서 떠나거라. 어디에 가든 너는 을지가문의 자손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고구려의 아들이라는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하느니라.》

《제 반드시 뜻을 이루겠소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작별했다.

이제 청년은 무술을 닦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것이다. 물론 고생이란 이루 말할수 없는것이겠지만 그것을 마다할 청년이 아니였다.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그이상 더 걸리겠는지 알수 없지만 고구려의 얼을 지켜 대장부로서 무술을 익히기 위해 그는 주저없이 이길을 택하였다.

청년이 멀리 굽인돌이로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는 오래도록 손을 저어 바래웠다. 어머니인듯한 로파는 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끝내 참지 못해 옷고름을 눈굽에 가져갔다. 하지만 눈물은 그냥 줄줄이 흘러내린다.

청년 을지문덕은 활쏘기, 칼던지기, 창쓰기와 함께 말타기도 잘하였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였다.

원쑤들은 물산이 풍부한 고구려를 먹어보려 긴목을 빼들고 엿보는데 그 아들들인 우리가 이를 소홀히 할수 없지 않는가!

을지문덕은 곧추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불곡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속으로 굳게 마음을 다지였다.

《아버님, 어머님, 제 기어이 한번 먹은 뜻을 이루고야말겠소

이다.》

앞이 탁 트인 백척도 넘는 낭떠러지우에 올라서니 굴간의 입구가 보이였다. 이 석굴에 오르면서 그는 몇군데나 찢기였지만 아픈줄을 몰랐다.

해질녘에야 을지문덕은 려장을 풀었다. 려장이라야 아버지가 물려준 병서들과 어머니가 지성껏 마련해준 량식이였고 간소한 생활도구들이였다.

을지문덕은 휘영청 밝은 달빛에 온몸을 정갈하게 한 후 산신령에게 기도를 드렸다.

《전지전능하옵신 신령님이시여, 이 몸에 장수힘을 주시옵고 원쑤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고구려아들들의 본분을 다하려 하나이다. 우리를 넘겨다보는 원쑤들을 단칼에 요정내도록 하여주시옵기를 천만번 비나이다.》

다음날부터 을지문덕은 맹훈련에 들어갔다. 화살의 시위를 당기고 또 당기였고 주먹으로 바위를 가르고 쉴참이면 병서를 익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저녁이면 짐승을 잡아 때식을 하였다.

이제는 토끼 같은것은 아무리 빨리 달아나도 한손으로 움켜잡을수 있게 되였다. 날짐승도 마찬가지였다. 한번 활줄을 놓기만 하면 아무리 높은 곳을 나는 새도 영낙없이 돌덩이처럼 떨어졌다.

《쉬익, 쉭…》

장검이 허공에서 원을 긋는다. 훈련은 쉬임없이 계속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말 한필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것을 발견하였다.

을지문덕은 그 말을 데려다 길을 들이고 말우에 앉아 험산준령을 종횡무진하였다.

이제는 그를 따를 무사가 거의 없게 되였다.

름름한 체구와 안장에 올라 산악을 가르는 도도한 기품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낼뿐이였다.

을지문덕은 이렇게 석굴에서 10여년간 갖은 고초를 이겨내며 무

술을 닦았다. 이것은 그 누가 시킨것도 아니며 또 법에 의한것도 아니였다.

오직 을지문덕과 같은 고구려의 미더운 아들들이 저들의 본분을 지켜나가기 위한것이였다.

을지문덕은 지금의 평안남도 증산군에서 태여났다고 하기도 하고 평양출신이라고도 한다.

그의 집안래력은 자세히 전해지는것이 없다.

을지문덕은 성격이 침착하면서도 매우 용맹스럽고 지혜와 재주가 뛰여났을뿐아니라 이름있는 문장가였다고도 한다. 더우기 말타기와 활쏘기에서 비범하고 창과 칼에 능란하여 사람들이 혀를 찼다고 한다.

고구려에서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3월 3일이면 평양부근 락랑언덕에서 사냥경기를 가지였는데 이날은 커다란 명절같아 보통병사는 물론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기에 참가할수 있었다.

또한 여기서 우승하면 귀천에 관계없이 높은 자리에 등용되였으므로 이 성대한 년중행사는 나라의 인재를 뽑는 좋은 계기로도 되였다.

을지문덕도 바로 이 경기의 우승자로 등용되였다는 설이 있다.

당시 고구려의 서쪽 국경건너에서는 수나라가 강적으로서 계속 넘겨다보고있었다.

주변 소국들을 모두 점령통합하고 589년 장강이남의 진(557～589년)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남북조시대를 끝장내고 중국대륙을 다시 통일한 수(581년 북주왕실의 외척 양견은 북주를 멸망시키고 수나라를 세웠다.)나라는 항시 동방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에 대한 지배야망을 버리지 않고있었다.

이미 고구려에 대한 1차침입에서 크게 실패한 수나라통치배들은 거기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재침준비를 서둘렀다.

7세기에 들어서면서 수나라통치배들은 고구려침략을 위해 함선을 건조하는 등 륙군과 수군을 마련하고 인민들로부터 군비를 털

어내기에 혈안이 되였다.

수나라가 전함건조에 얼마나 백성들을 가혹하게 내몰았는가 하는것은 산동반도의 해안에서 사람들을 밤낮으로 물속에서 일하게 하였으며 쉴참조차 주지 않아 그들의 허리밑에 구데기가 쓸 정도였고 당시 죽은 사람이 일군 10명중 3～4명에 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잘 알수 있다.

이렇게 수나라는 10여년전 100만대군으로 1차침입을 기도하였다가 만신창이 된 교훈도 잊어버린채 력사상 보기 드문 큰 규모로 612년 1월 또다시 2차침입을 시작하였다.

수 양제는 전국에서 긁어모은 륙군 113만 3 800명을 24개 군단으로 편성하였으며 제놈자신이 직접 이끄는 부대는 6개 군단으로 꾸렸다. 이에 수군이 근 10만에 달하고 후방병종들이 전투부대의 배가 된다 하니 총 300만을 넘는 대규모의 원정군이였다.

(당시 고구려는 동방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강대하였을뿐아니라 력사적으로 한, 위, 진, 연 등 강대한 국가들의 침입을 그때마다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바로 10여년전에는 100만의 수나라침략군의 침입을 격파한 자랑찬 투쟁의 력사를 가지고있었다. 하기에 양제는 침략전쟁준비를 하면서 수치스러운 패배의 쓴맛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하여 우선 수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고구려군대를 《제압》할수 있는 전례없는 대규모적인 침략무력을 준비하는데 달라붙었다. 단적인 실례로 610년에 전국각지에서 군사들과 군마들을 징발하였는데 무기와 장구류들은 다 정교하고 새롭게 만들게 하였고 군마는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제 수량을 다 채우도록 강요하였다. 만일 수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때에는 용서없이 사형에 처하게 하였으니 말 한필의 값이 10만전에 이르게 되였고 모자라는 군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동지방에 말을 기르는 전문관청까지 두게 되였다.)

수 양제의 출전규모가 얼마나 큰것이였는가는 침략군의 첫 부대가 탁군을 출발한 때부터 마지막부대가 출발할 때까지 무려 40

일이나 걸렸으며 부대와 부대사이 거리는 40리로서 대렬의 전체 길이가 1 040리가 되였다는것이 잘 말하여준다. 수나라침략군이 도발한 고구려에 대한 침략전쟁은 동원된 병력수와 군수기재, 그 규모에 있어서 당시까지 세계적으로 그 류례를 볼수 없던 가장 큰것이였다.

침략군은 단숨에 고구려를 삼켜버릴 기세로 침공해 들어왔으나 그 어떤 위협공갈도 용감하고 슬기로운 고구려사람들을 놀래우지 못하였다.

이때는 영양왕이 집권한지 23년이 되는 해로서 을지문덕도 대신의 자리에 올라앉은지 퍼그나 지난 후였다. 그간 을지문덕은 나라가 강하려면 군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민이 풍족하게 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뜨거워야 한다고 하면서 영양왕에게 여러번 충간을 올리였다.

그리고 특히 그는 군대가 강하려면 상하가 합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군사들을 더없이 위해주었다. 병사들의 말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항상 그들이 훈련에 열중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고구려의 조정에서는 적의 침공에 접하자 문무대신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수나라대군의 위압에 겁을 먹은 일부 대신들은 《화친》을 제기하자고 하였고 다른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입을 떼지 못하였다.

이때 을지문덕은 주저없이 나섰다.

《우리 고구려는 예로부터 그 어디에 허리를 굽힌적이 없소이다. 군민이 합심하여 적을 친다면 능히 격퇴할줄로 아뢰나이다.

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고구려를 위해서 목숨바침을 영광으로 알겠나이다.》

이 전쟁은 고구려인민들에게 있어서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심각한 싸움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애국적인민들은 을지문덕의 총지휘하에 침략자의 목을 치는 싸움의 길에 나섰다. 전선사령부는 고구려 제2

수도인 환도성(봉황성)에 두었다.

을지문덕은 먼저 적의 약점을 간파하였다.

적군은 300만대군의 군품과 식량을 기동성있게 보장할 능력이 극히 부족했으며 병졸들은 마지못해 끌려나온것들인데다 행군에 몹시 지쳐있었다.

하기에 적은 《속전속결》의 전술로 나왔던것이다. 이때 을지문덕은 청야수성전술을 써서 적을 수세에 빠뜨리도록 세심한 작전을 펼치였다.

을지문덕은 여러 산성들과 험한 천연요새들을 리용하여 적을 칠것을 타산하고 일정한 지점까지 유인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침략군이 통과할수 있는 길주변 주민들은 미리 가까운 성안으로 모두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식량과 집짐승을 옮기고 그밖에 우물을 모두 메우고 철저히 봉쇄했다.

그리하여 적들은 식량은 물론 물마저 얻어먹을수 없게 되였다. 적은 대릉하 서쪽 회원진에서 출발에 앞서 모든 군사들이 100일분의 식량과 무기, 장구류들을 지고가도록 명령하였으며 이를 어기는자는 목을 벤다고까지 선포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군사행동은 고사하고 거저 걷기도 힘에 겨웠으므로 대부분이 숙영지 장막안에서 몰래 구뎅이를 파고 묻어버리였다.

을지문덕은 료하계선의 튼튼한 성새들에 의거하여 적들에게 첫타격을 주고 점차 그 력량을 분산소멸시키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료하와 그 동남쪽산악지대에 제2방어선을 형성하고 매복, 기습의 방법으로 모조리 섬멸하도록 하였다.

수나라군과의 첫 싸움은 612년 3월 무려라(대릉하 동쪽)에서 벌어졌다.

나라의 서쪽국경전초기지인 무려라성을 지키던 고구려군은 수나라의 선두부대에 된타격을 안기고 기본방어선인 료하동쪽으로 철수하였다.

수나라군은 3월 19일부터 배다리를 놓고 강을 건느려고 시도하였다.

용맹스러운 고구려군은 료하동쪽기슭의 높은 언덕에 의거하여 활로 집중사격을 퍼붓고 민활한 기습전을 벌려 적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수나라군은 막대한 병력의 소모를 무릅쓰고 여러번에 걸쳐 배다리를 고쳐놓으면서 달려들었다.

그러나 거의 한달이라는 기간을 소비하고서야 겨우 료하를 건늘수 있었다. 하지만 적들은 이 도하작전에서 명성높던 장수 세명과 수많은 졸병들을 잃었다.

료하계선싸움에서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고구려군은 수적차이에서 오는 불리한 정황에서도 방어에 유리한 새로운 진지로 신속히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고구려군의 방어중심은 튼튼하게 쌓은 성들인 료동성, 건안성, 백암성, 신성 등에로 옮겨졌다.

적은 먼저 료동성에서부터 된맛을 보게 되였다.

바위마냥 굳게 다져진 료동성을 도저히 깨뜨릴수 없었다. 견고하게 꾸린 성안에 들어가 군민이 합세하여 막아내는데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더우기 고구려의 수성전법에 걸려든 수나라군은 심히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고구려의 이 전술은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진것으로서 벌써 건국초시기부터 국내에 기여들었던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나라의 안전을 지켜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중세기전법의 하나였다.

원래 적들의 전술은 수군이 바다를 건너 들이치고 륙군이 평양성을 향해 들어가 합세하자는것이였다. 하지만 수륙병진작전은 벌써 료하계선에서 륙군의 지연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수군은 9개의 군단(료하계선과 료동성전투에서 계속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자 수 양제는 우중문, 우문술 등을 내몰아 9개 군단의 병력 30만 5 000명으로 별동대를 조직하여 고구려의 전선을 돌파하려고 꾀하였다.)의 행동개시와 때를 같이하여 산동반도를 떠나 그들과 협동하기 위하여 오늘의 압록강하구로 기여들었다.

그들이 압록강하구로 기여든것은 고구려의 기본수도인 평양성에 대한 공격이 조성된 형편으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하였기때문이였다.

정황이 변동된 조건에서 그들은 고구려의 왕이 나와있으며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평양성(북평양성 즉 봉황성)이라도 륙군과 합세하여 강점해보려고 하였던것이다.

륙군의 도착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적 수군대장 래호아는 저들의 수군만으로도 봉황성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 4만의 정예군을 선발하여 쳐들어왔다. 하지만 적들은 고구려군의 유인전술에 걸려들었다는것을 알리 없었다.

적이 봉황성가까이에 이르자 고구려군은 급히 배머리를 돌려 달아나버리는것이였다.

그러자 래호아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저 꼴 좀 보지. 고구려놈들은 우리가 무서워 모두 달아나는구나. 하하하.》

수나라군은 신이 나서 그들의 뒤를 쫓아 들어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을은 비여있고 집집마다 술상과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있는가 하면 길가에는 아름다운 비단필들이 나무가지에 걸려있거나 땅에 떨어져있었다.

한창 굶주리고 물욕에 눈이 어두운 놈들이라는것을 알고 을지문덕이 이같이 해놓은것이다.

《야, 비단필이다! 내 색시의 저고리감이 생겼구나.》

병졸들은 누가 볼세라 배낭에 움켜넣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는 향기로운 술과 안주를 퍼먹으며 다 이긴것처럼 좋아들 하였다. 바로 이때 고구려군은 을지문덕의 명령에 의하여 총공격에 들어갔다.

《둥 둥 둥…》

북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고 병사들의 드높은 함성이 터졌다. 고구려군의 산악같은 기세는 누구도 멈출수 없었다. 불의기습에 적은 갈팡질팡하였고 떼죽음을 당하였다. 적의 대오는 산산쪼각이 났다.

삽시간에 벌어진 이 싸움에서 고구려군이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룩하였는가 하는것은 4만의 적군가운데서 겨우 목숨을 건진자는 수천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보고도 짐작할수 있다.

고구려군은 쫓기는 적을 따라 강변에까지 뒤따라가서 련속 된매를 안기였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고구려－수전쟁에서 침략자들의 《수륙병진》전략을 파탄시킨 결정적계기로, 전쟁을 승리로 끝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였다.

한편 수 양제가 마지막기대를 걸고 내몬 9개 군단의 30여만명이 《압록수》(태자하하류)가에 몰려온다는것을 안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은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를 단호히 물리치기 위해 담판을 주동적으로 제기한 후 자신이 직접 적진으로 들어갈 결심을 내리였다. 적들의 내부형편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기 위해서였다. 과연 대담무쌍한 행동이였다.

을지문덕이 나서자 고구려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앞을 막아섰다.

《아니됩니다. 범의 굴을 그것도 혼자의 몸으로 들어가실수 없소이다.》

그래도 을지문덕은 태연자약하였다.

그는 적진에 들어서면서부터 진중을 유심히 살펴나갔다.

병졸들의 어깨는 축 처지고 배고픔에 시달려 웅크리고있었다. 식량더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진막에 들어서니 장수들은 진수성찬에 술을 돌리고 앉아있었다.

을지문덕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적은 지쳐있고 사기는 떨어지고 상하가 분렬되여있구나.)

그는 자신이 쓴 왕의 칙서라는것을 내놓으면서 화평을 요구했다. 그리고는 적장들앞에서 본국으로 돌아감이 어떠냐고 하였다.

《지금 두 나라가 오래동안의 전쟁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피차간에 고통이 많으니 량군이 화평을 체결함이 어떠하오?》

적장은 고구려의 왕이나 을지문덕이 오면 즉석에서 목을 베라는

비밀지령을 받았으나 을지문덕의 대담한 행동과 위풍에 눌리워 감히 어쩌지를 못하였다.

그러는사이 을지문덕은 적의 내부정황을 탐지하여 쥔 후 미리 준비해놓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잠시후 적들은 을지문덕의 진의도가 화평에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깨닫고 날랜 병사 10여명을 급파하여 추격하였다.

수나라의 한 기병이 강을 건느는 을지문덕을 불렀다.

《우리 대장께서 다시 합의할 일이 있으니 잠시 다녀가시라고 하십니다.》

을지문덕은 큰웃음을 터뜨렸다.

《너희 대장에게 일러라. 래일 싸움터에서 한번 겨루어보잔다고 말이다. 하하하.》

적의 기병대는 그를 붙잡으려고 화살을 비발치듯 날리며 발악적으로 달려들었다.

참으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그런데 이때 적기병대의 앞길을 한 로파가 막아나섰다. 이 로파로 말하면 전쟁이 일자 싸움을 지휘하고있던 을지문덕의 진막에 찾아들어 자신은 비록 늙은 녀자의 몸이지만 이 전쟁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켜달라며 청을 하여 고구려진중에 남은 록족부인이였다.

…오래전 록족부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어머니를 닮아 두발이 사슴의 발과 꼭같았다.

어느날 그애들이 밖에 나가 놀고있는데 량반집아이놈이 자꾸만 놀려대기에 때린것이 그만 죽어버리였다. 아들을 잃은 량반놈이 가만있을리 없다는것을 생각한 록족부인은 두 아들을 그날밤으로 피신시키려고 바다가로 데리고나왔다.

부인은 아들들을 쪽배에 싣고 정처없이 기슭을 떠났다. 그들의 머리우로는 무심한 구름만 오락가락할뿐이였다.

그런데 급하게 나오다나니 길량식을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부인은 배를 어느 자그마한 포구에 대여놓고 아들들을 남겨둔채 마을을 찾아 내려갔다.

록족부인이 식량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니 그사이 태풍에 밀려 배도, 아이들도 간 곳이 없었다.

그후 록족부인은 언제나 아들들이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대성산에 들어가 사슴 기르는것을 일생의 락으로 삼고 지내왔었다. …

그런데 을지문덕이 적군의 진영에 홀몸으로 들어간다하니 그의 신상이 념려되여 따라나섰던것이다.

아닐세라 적진에 들어갔던 을지문덕이 태연자약하여 나오는데 잠시후 적기마대가 따라서는것이다.

록족부인은 적장직속의 군사들속에 싸움 잘하기로 이름난 두 장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두 록족장군들이라는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부인은 장수들앞에 아무말없이 자기의 버선을 벗어보이면서 그들도 발을 벗으라고 했다.

발을 벗으니 신통히 부인의 발과 꼭같았다.

그제야 그들은 그 부인이 자기들이 잃었던 어머니인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와락 안겨들었다.

《어머니! 아,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부인은 준절히 일렀다.

《너희들이 내 아들일진대 곧 고구려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런데 제 어머니에게 창을 겨누고 제 나라 백성들에게 칼부림을 하려들다니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으며 그런 역적이 또한 어디 있겠느냐?》

부인의 기상은 근엄하였다.

두 아들은 자기들이 제 나라를 저버릴번 하였던 수치로 가슴을 치면서 새벽녘에 어머니를 찾아 고구려진영으로 넘어왔다.

그들은 어머니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으며 을지문덕을 찾아 자기들의 죄를 씻도록 해달라고 청을 드렸다고 한다.

이리하여 을지문덕은 그날 무사히 자기의 진막으로 돌아왔으며 고구려의 아들들인 록족장군들은 드디여 원쑤치는 성전에 떨쳐나 침략군을 몰아내는데 이바지할수 있었다.

을지문덕은 적진을 돌아보는 과정에 그들사이에는 통일적인 지

휘체계가 서있지 않고 거듭되는 참패와 식량난으로 동요와 불신의 공포속에 있다는것을 간파하였으며 따라서 원쑤를 무자비하게 족쳐버릴 대섬멸전을 구상하였다.

을지문덕은 침략군을 극도로 피로케 하기 위해 하루 일곱번 싸우다 일곱번 피하는척 하면서 퇴각하였고 마침내 적들이 천산줄기를 넘어서게 하였다.

또한 지세를 보아 유리한 지점에 잠복하고있다가 기습타격으로 큰 손실을 주기도 하고 산등성이를 타고 넘나들면서 불의에 쳐갈기기도 하였다.

침략군은 천산을 넘어서자 먼저 오골성에서 보기 좋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그리고는 정신도 차릴새없이 을지문덕의 유인전술에 걸려 봉황성밖 30리지점까지 따라왔다.

철옹성같은 봉황성을 눈앞에 본 적은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었다.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결정적으로 변경시킬 조건과 여유를 마련한 을지문덕은 빈틈없는 반격준비를 갖춘 후 적장 우중문에게 그 몰골을 야유하는 시 한수를 보내였다.

신통한 전략은 천문을 꿰뚫었고
기묘한 전술은 지리를 통달하였네
싸움에서 이겨 공로가 이미 높거니
만족함을 알고 돌아감이 어떠하리

우중문은 분통이 터져올랐다. 악을 쓰며 큰 칼을 뽑아들고 병졸들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그들은 그것이 명령인지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모양들이다. 적장은 금시 고구려군이 쓸어나올것 같아 안절부절못했다.

적들은 퇴각을 결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보기 위해 네모나게 방진을 치면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을지문덕의 얼굴에는 마침내 승리를 확신한 미소가 피여올랐다. 그는 적이 도망치기에 앞서 장마철이라는것을 고려하여 물이 불어나 건느기 불리한 살수에 많은 부대를 매복시키고 놈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적들이 살수에 당도하였을 때는 이미 다리도 간 곳 없고 배도 보이지 않았다.

뒤에서는 고구려군이 추적해오는데 강을 건늘수도 없어 적은 그야말로 진퇴량난에 빠졌다.

이때 웬 사람 일곱이 유유히 강물에 들어서더니 태연히 건너가는것이 아닌가?!

위기에 처한 적은 이것이 을지문덕이 놓은 덫인줄은 모르고 깊고 얕은 곳을 가릴새조차 없이 앞을 다투어 강물에 들어섰다.

고구려군은 일대 공격을 시작함과 함께 막아놓았던 물목을 터쳐놓았다.

《용감한 고구려군사들!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다. 적의 숨통을 찌르라!》

을지문덕이 장검을 높이 들고 백마에 올라 대오의 진두에서 돌진했다.

《와, 와!》

천지를 뒤흔드는 고구려군의 함성과 비발치는 화살소리, 원쑤의 아우성소리… 적들은 손쓸새없이 물에 빠져죽고 깔려죽고 활에 맞아죽고 칼에 찔려죽고 얼어져죽었다.

적의 대오는 수라장을 이루고 시체는 강에 넘쳐 물결이 미처 흐르지 못하였다.

을지문덕의 기묘하고 대담한 전략전술과 그에 힘을 얻은 고구려군사들은 수나라 30만 5 000의 대군을 살수계선에서 거의다 소멸해버리였다.

적들이 료동성밑까지 당도했을 때는 그 수가 2 700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력사에서 이 싸움을 가리켜 《살수대첩》(살수에서의 큰 승리)

이라고 한다.

을지문덕은 마지막으로 백석산에서 설세웅의 한개 군단도 요정내고말았다.

이때 설세웅은 정예기병 200명으로 겨우 포위진을 뚫고 더러운 잔명을 건져냈다고 한다.

수백만의 군대와 군수기재를 동원하여 침략전쟁을 벌린 수 양제는 성스러운 조국방위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고구려인민들의 항전에 부딪쳐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채 쫓겨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리하여 전쟁은 1년도 못가서 고구려군의 대승리로 끝났다.

을지문덕이 승전고를 울리며 평양성에 들어서자 영양왕은 그의 손을 잡고 승전을 치하하였으며 백성들도 모두가 기뻐하였는데 그 광경이야말로 감개무량하였다고 한다.

오늘날 을지문덕이 무술을 닦았다는 석굴을 《을지문덕굴》로 부르고있다.

고구려를 빛내인 담징

부두는 떠나는 사람, 보내는 사람으로 붐비고있었다.

담징은 여러 승려들에게 옹위되여 묵묵히 부두에 들어섰다. 옆에서 들썩하는 소란에도 아랑곳없이 바다 먼곳을 바라보며 발을 옮기는 그의 걸음은 어쩐지 가볍지 않았다.

그들의 일행이란 몇이 안되며 보짐도 단출했다.

《대사님, 부디 옥체보존하시옵소서. 예서는 날마다 기다리겠소이다. 아무쪼록 무사하옵기만을 바라나이다.》

따라나온 중들이 짐을 넘겨주며 서운함을 표시하나 그는 별로 기색을 달리하지 않았다.

담징은 드디여 배전에 올랐다.

순풍에 돛을 달고 물우로 미끄러져가는 배의 갑판에 서서 바람에 펄럭이는 가사(중의 겉옷)자락을 부여안은채 멀어져가는 고구려땅을 바라보며 기약없는 길을 떠나는 담징의 마음은 심란하였다.

(아, 나는 과연 언제면 다시 이 길을 돌아올것인가! 외적의 준동이 심하고 나라안팎은 소란하기 그지없는데…)

오래전부터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수나라의 준동이 근간에 와서는 더욱 잦은데 이 땅, 이 집을 뒤에다 두고 원쑤의 목에 칼 한번 대여보지 못한채 장삼을 입고 기약 못할 길을 떠나려니 더욱 걸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아니 갈수 없는 길이였다.

왜나라 초청은 이미 수락되고 자신은 왕의 어명을 받은 신하의 몸이니 달리할수 없는 일이 아닌가!

담징은 579년 평원왕이 집권하고있던 시기에 태여났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그림에 호기심을 가지고있었던 담징은 무

엇을 하나 보아도 그저 스치지 않았으며 반드시 다시한번 재현해보고야말았다.
그가 일찌기 중이 된것도 그림에 뜻을 두었기때문이라고 한다.
이른 나이에 승려가 된 담징은 벌써 젊은 시절에 불교만이 아니라 유교교리까지 꿰들었고 기술분야에도 조예가 깊어 출중한 인물로 명성이 났다.
이런 담징이 국왕의 어명을 받고 일본의 문화건설을 도와주기 위해 사랑하는 고구려땅을 떠나게 되였으니 때는 610년 3월이요, 당년 그는 30대의 장정이였다.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인류문화의 공동적보물고에 크게 기여한 창조와 발명의 전통을 가지고있었다.
그 이전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세나라시기에만도 동방에서 가장 앞섰던 우리 민족은 이웃나라들의 기술과 예술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의 력사기록에도 수다히 남아있다.
백제의 학자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 글 모르던 그곳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천자문을 가르쳤고 고구려의 중이며 의사인 혜자는 야마또왕권의 집권자 성덕태자의 스승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담징 역시 일본의 거듭되는 초청으로 그곳에 건너가 대고구려를 빛내인 화공이였다.
당시 일본으로 말하면 그들이 자랑하는 이른바 아스까문화가 고조기에 이른 때였다.
이 아스까문화 역시 백제로부터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가고 삼국과의 문물이 교환되면서 우리의 학자, 기술자, 예술가들에 의해 시작되고 이룩되였다.
특히 고구려회화문화는 일본의 고대, 중세미술발전의 밑천으로 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것은 다까마즈무덤벽화, 법륭사 금당벽화, 천수국수장(자수공

예품)들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무덤벽화들에 그려진 인물형상의 아래바지, 허리에 띠를 맨 겉옷, 머리에 쓴 두건같은것은 고구려사람들과 꼭같다.

더우기 힘이 넘쳐나고 그런가 하면 매우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필치의 형상수법들은 고구려의 회화예술이 일본에 건너간것임을 설명없이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담징이 일본으로 건너갈 당시는 추고천왕(녀천왕) 스미꼬의 사위인 성덕태자가 나라를 다스리고있던 시기였다.

나라의 문화건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고구려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힘쓰던 성덕태자는 백제의 사원건축가들을 초빙하여 근 8년간에 걸쳐 지은 가장 큰 법당인 법룡사의 벽화장식을 바로 고구려에 의뢰하였다.

법룡사는 금당(황금으로 장식됨.)중심불전과 5층탑, 중문, 회랑으로 꾸려지고 그옆에는 동, 서, 북으로 실들과 강당이 배치되였으며 또 고루와 종루를 비롯하여 모든것이 훌륭히 건설된 절간이였다.

하기에 건물벽화를 아무에게나 맡길수 없었다. 그리하여 불교경전에 능통하고 그림과 채색에 뛰여났으며 또한 종이와 색감제작에서 기술자로 이름이 났던 담징이 이 사원벽화를 담당하게 되였던것이다.

담징이 일본에 도착하자 성덕태자는 자기의 거처인 왕궁으로 이들 일행을 반갑게 맞아들이였고 저들의 스승으로 높이 모셨으며 법룡사에 자리를 잡도록 하였다.

《고구려스님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라!》

성덕태자는 왕궁과 수도에 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가하였고 일본의 이름난 중이였던 호오죠오와 거처를 같이하도록 하였다.

장대한 체구와 꾹 다문 입, 시원스러운 걸음걸이로 늘어진 가사자락을 올려붙인채 법룡사를 한바퀴 돌아보고난 담징은 머리를 끄덕이며 깊은 사색에 잠기였다.

담징은 먼저 벽화창작을 위한 준비부터 하였다.

그는 종이, 먹, 물감제조기술을 가지고있었다.

물론 일본에도 일부 문방구들과 기재들이 준비되여있었지만 그 모든것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담징은 모든것을 처음부터 시작했다. 사람들을 시켜 먼저 질높은 먹을 갖추도록 기술적인 지도를 주었고 손수 색감들을 하나하나씩 제조했다. 그리고 또한 일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희한한 종이도 만들어냈다.

그뿐이 아니였다. 그는 《연애》라고 이름지은 훌륭한 물차를 만들었다. 이 물차가 서게 됨으로써 사람의 힘이 아니라 흐르는 물의 힘을 리용하여 불상조각과 금속공예품을 만들어내는데서 하나의 개변이 일어나게 되였다.

특히는 농민들이 곡식을 제분하고 수공업자들이 광석을 분쇄하는데서 혁신이 일어났다. 이 희귀한 사실에 일본원주민들은 담징을 《고구려스님》이라고 존대하여 불렀다.

《정말 신묘하지요?》

《글쎄말이웨다. 우린 생각도 못했는데 〈고구려스님〉이 이런것을 다…》

무던히도 힘에 부치던 저들의 로동을 졸지에 헐한것으로 만들어준 신선같은 《고구려스님》을 그들은 다시없는 은인으로, 위인으로 우러렀다.

담징이 일본땅에 건너온지도 근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어지간히 준비도 갖추어졌다. 법륭사의 주지를 비롯한 승려들은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그가 빨리 붓을 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담징은 선뜻 일에 달라붙지 못했다.

어쩐지 생각은 두고온 대동강기슭의 금잔디밭으로만 달려갔고 고국에 있을 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꼬리를 이어 떠오르며 때없이 애수에 잠기게 했다.

(아, 벌써 이태가 되였구나. 모든것이 무고한지? 무슨 변고라도 없는지?…)

이즈음 일본의 중들속에서는 담징이 저희들의 땅에 온지도 퍼

그나 지났는데 왜 아직 그림을 그리지 않는가고,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말들이 나도는가 하면 승적에도 없는 건달승이여서 다른 재간은 있어도 그림만은 그릴줄 모를것이라고까지 수군수군했다.

이 흉흉한 분위기속에 어느날 고구려에서 함께 떠난 법정이 이젠 붓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조용히 권고하였다.

담징은 근엄한 표정으로 천천히 대답하는것이였다.

《건달승이란 말은 열백번 듣겠소만 나라를 모르는 중이라는 말은 죽어도 듣지 못하겠소. 내 나라 대고구려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을 담징임을 대사도 부디 알아주오.》

그는 시름겨운 눈으로 먼 서쪽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순간 법정대사의 머리에는 언제인가 담징과 함께 길을 걸을 때 그가 했던 말이 금시런듯 떠올랐다.

우리는 고구려사람이다. 그러니 부처를 믿어도 고구려를 위해 믿어야 한다. 부처만 알고 제 나라를 모른다면 부처의 종일뿐 고구려사람은 아니다. …

과연 옳은 말이였다. 담징은 바로 그런 사람이였던것이다.

나서자란 고향과 그 땅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날 밤 담징은 이미 정제해놓은 채색감들을 하나하나 검열해보고 애써 자신을 달래며 벽면에 마주섰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만은 개운치 않았다.

요즈음 들리는 소문에 끝내 외적들이 쳐들어와 고구려는 시련을 겪고있다고 한다, 물론 대고구려는 적을 지경밖으로 반드시 내몰고 승리의 큰북을 울릴것이지만 아무튼 이 시각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종시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마침 법륭사 주지가 숨가쁘게 달려오더니 그를 얼싸안으며 렴치없이 고구려에 쳐들어갔던 외적들이 가랑잎같이 흩어지고 몰살되였다는 기적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주지는 두손을 모으고 손목의 념주를 들채이며 아뢰는것이였다.

《대사님, 군사들이 전장에서 대고구려의 명예를 떨치였으니 담징대사님은 화필로써 명성을 떨쳐야 하나이다. 법륭사에 영광을 베풀어주소이다.》

승전의 소식은 쓸쓸하던 담징의 가슴을 무등 높뛰게 하였다.

(아, 대고구려는 이겼구나. 끝끝내 동방강대국의 이름을 떨치고야말았구나. 이제 내 무엇을 아끼고 주저하랴. 대고구려의 빛발로 해외만방을 밝히는 이 성업에 한몸을 바치리라!)

드디여 담징은 큰 붓을 들었다. 법정대사가 숭엄한 자세로 금당출입문을 지키고있을뿐 주변은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이렇듯 온몸이 그대로 고구려의 넋이 되여 담징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벽화를 그려나갔다.

힘있게 긋고 또 찍고 채색을 먹이고…

마지막붓을 놓았을 때 담징은 금당바닥에 뿌리를 내린듯 그 장대한 체구가 움직일줄 몰랐다.

벽화의 완성을 보려고 발벗고 달려온 주지와 승려들은 물론 함께 동행했던 고구려의 중들도 《아!—》하는 탄성을 지를뿐 다른 말을 잇지 못하였다.

과연 명화에 또 명화였다.

금당벽의 열두폭 불교관계의 크고작은 그림들과 천정밑의 20개 작은 벽면에 두개씩 그려놓은 비천(하늘을 나는 선녀)그림들은 그야말로 대황홀경이였다.

반듯한 흙벽우에 모래와 수사(풀이름)를 바르고 또다시 아마와 풀을 섞어 매질한 후 그우에 백토를 칠하여 티없이 매끈한 면을 마련하고 그려나간 그림들중에 불교교리를 선전하는 모습을 형상한 6편의 《아미타여래상》은 구도가 대칭적이면서 성격이 특색있게 살아난것으로 하여 더욱 이채로왔다.

특히 장방안 련꽃방석우에 위엄있게 틀고앉은 주인공의 모습은 얼굴표정과 형태의 예술적처리에서 매우 정확한것으로서 승려들과 화공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또한 벽화들은 가는 선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연두색, 남색, 연한 붉은색과 짙은 재색 등을 조화롭게 먹여나감으로써 그 화려

함이 이를데 없었다.

단숨에 그어내린 굵고 진한 선, 가늘고도 연한 선으로 성격을 살리고 운동감을 드러낸 인물들의 각이한 형상, 형태를 사실적으로 똑똑히 하면서도 미묘한 움직임마저도 하나같이 놓치지 않은 선묘운필의 묘미…

일찌기 감득할수 없었던 벽화예술의 황홀한 경지를 펼친 이 격조높은 조화는 그앞에 선 사람들의 가슴을 금시 숭엄하게 만들었다.

완전히 넋을 잃은 주지는 모든것을 잊어버리고 바닥에 합장한채 엎드리여 《관세음보살》을 속으로 외우고 또 외울뿐이였다.

담징 역시 외적을 보기 좋게 물리친 조국 고구려에 대한 생각으로 벽면을 향해 《남무관세음보살》하고 조용히 되뇌이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고구려의 이긴 싸움이 돌연 그에게 힘을 주고 붓을 들게 하였던것이다. 만약 그 폭풍같은 희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들 담징은 아직도 시작을 못한채 망설이고만 있었을것이 아닌가!

《이 벽화는 세상에서 더는 찾아볼수 없는 그림이요. 담징대사의 그림솜씨는 참으로 신비롭소이다.》

주지를 비롯하여 모든 승려들이 입을 모아 연해연방 추어올리였다.

하지만 담징은 조용히 뇌이였다.

《이 벽화가 잘되였다면 그것은 나의 화법이 신비로와서가 아니라 바로 고구려의 얼이 깃들었기때문이요.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굽힐수 없는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용감하고 강의한 고구려사람들의 얼이 있어 이 벽화가 완성되였음을 알아야 할것이요.》

과연 이 벽화야말로 담징의 숭고한 애국정신의 산물인 동시에 담차고 순결하며 지혜롭고 열렬한 대고구려넋의 정화가 아니겠는가! 벌써 가사를 바로잡은 주지가 목탁을 두드리고 수많은 승려들이 합장배례를 하고 또 한다.

은은한 향불의 유연한 연기속에 담징은 대고구려의 아들임을 온

몸으로 느끼였다.

이와 같이 법륭사의 벽화는 담징에 의하여 훌륭히 마련되였다.

법륭사의 금당벽화는 신라의 경주석굴암, 중국의 운강석굴과 함께 《동양3대걸작》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 벽화는 창작된 때로부터 천수백여년이 지났으나 색 하나, 선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보존되여 세계적인 보물로 미술가들의 찬탄의 대상으로 되여왔었다.

그러던중 1949년 1월 법륭사가 불타면서 금당의 벽화를 잃게 되였다.

그후 1968년 수많은 일류급화가들이 동원되여 최상의 자재로 다시 복귀하여놓았지만 원화를 살리지 못하였다는것을 그들자신이 말하고있다.

고구려의 담징이 그린 벽화는 그만큼 놀라운것이였다.

당나라를 전률케 한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614년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 서부(동부라고도 한다.)의 대인인 연태조의 아들로 태여났다. 연태조는 쉰이 지나서야 아들 하나를 보게 되였는데 그의 이름을 개소문이라 하였다.

사람들은 개소문을 두고 부인이 쉰살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쉰동이라고도 불렀다.

연개소문은 온 집안의 웃음이고 락이였다. 더불어 연태조의 인생의 전부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쉰이 훨씬 넘도록 슬하에 아들을 두지 못하여 하늘만 쳐다보던 연태조에게 이런 사내자식이 굴러떨어졌으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녀석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만시름이 다 잊혀지고 절로 웃음이 흘러나왔다.

(내 이제 환갑을 바라보거니 네 어서 자라서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되여 내 미처 이루지 못한것을 네가 이루고 우리 가문을 만대에 더욱 빛내여나가야 하느니라.)

연태조는 금지옥엽 재롱스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생의 보람을 느끼였다. 그럴수록 그를 더욱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싶었다.

어느날 연태조는 자기를 찾아온 이름있는 황로도사와 이를 의논하였다.

《모든것을 자네에게 맡기니 내 아들을 장차 나라의 주추돌이 되게 해주게나.》

연태조의 부탁은 간곡하였다.

《네, 알아듣겠소이다.》

그리하여 황로도사와 연개소문은 큰사람이 될 도를 닦기 위해 누구도 모르는 먼길을 떠났다.

《아버님, 부디 옥체보중하옵시기를 바라나이다.》
《오냐, 전심전력을 큰뜻에 두어라.》
진정 내놓고싶지 않은 아들이건만 연태조는 주저없이 그를 황로도사에게 맡기였다.
이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무술을 닦기 시작하였다.
연개소문은 유대인의 집에 상노로 들어가 나무군총각의 행세로 밤낮을 이어 수많은 병서들을 탐독하였고 장수힘을 키워나갔으며 병법을 익히였다.
말을 달려나가면서 큰 칼을 번쩍 쳐들면 산악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져나가는것 같았다. 때로는 황로도사마저 머리를 끄덕이며 그의 장한 모습에 미소를 짓고 만족해하였다.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이 당당한 그 자세는 과연 장수의 체모였다. 거기에 강직한 성품은 누구도 따를자가 없었다.
이러기를 10년세월, 연개소문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그는 산속에서 무술을 닦을 때 들었던 주인집의 둘째딸 모란과 낯을 익히였다. 모란이 자기 집에 상노로 와있는 연개소문을 아무리 뜯어보아야 그 인품이 노비인것 같지 않았다.
《아니야. 그 무슨 곡절이 있어.》
저녁이면 집채같은 나무짐을 지고 마당에 성큼 들어서는 그는 진정 뜻이 있는 청년이지 상노로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날 모란이 그의 뒤를 조용히 쫓아 산으로 올라가보니 과연 생각하던바 그대로였다.
두주먹으로 바위를 부시고 말을 달리는 놀라운 거동은 소녀가 꿈속에서 그리던 장군의 모습이 틀림없었다. 이날 이들 둘은 서로 통성을 하게 되였고 연개소문은 산같은 나무단우에 모란을 닁큼 들어올려놓은채 성큼성큼 마을어귀에 들어섰다.
그날부터 모란은 앉으나서나 총각인 연개소문에 대한 생각으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이런 모란을 두고 연개소문은 길을 떠나게 되였다.
《나를 기다려주오, 모란이. …》

《어느때까지라도 소녀는 도련님을 잊지 않겠나이다.》
연개소문과 모란은 굳은 언약을 하였다.
연태조는 기다리고기다리던 아들을 만나자 나라안팎의 정세부터 자세히 말해주고 자신의 당부를 하였다.
《신하된 도리를 지켜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고 가문을 추세우는 일에 절대로 방심하여서는 안되느니라.》
연개소문은 아버지앞에 꿇어앉아 조용히 대답을 올리였다.
《아버님의 뜻에 추호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소이다.》
부자는 오래간만에 저녁상을 마주하였다.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연개소문은 무술을 더욱 련마해가면서 장차 가문의 뜻을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은 단오라 온 동네가 끓고 온 나라에 봄의 향기가 넘쳐나고있었다. 그네터에서는 녀인들의 쌍그네가 하늘을 날고 씨름판에서는 장정들이 무쇠힘을 겨루고있었다. 다색 꽃댕기를 드리운 처녀들이 버들잎 늘어진 방천에서 산책을 즐기는 모양은 또 얼마나 아릿다운가.
그런데 갑자기 심부름을 들던 바위가 연개소문에게로 달려왔다.
《도련님, 지금 당나라군졸들이 그네터에서 녀인들을 마구 희롱하고있소이다!》
연개소문은 넝큼 일어섰다. 큰 걸음을 옮기여 가보니 당시 고구려에 와있던 당나라군졸들이 처녀들을 무작정 끌어가려고 하고있었다. 연개소문은 성큼 나서서 그놈들앞을 막아섰다. 순간 한놈이 그에게 창을 던졌다.
연개소문은 날아오는 창을 가볍게 받아 일순간에 두동강을 내여던졌다. 창은 맥없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때 또다시 한 청년이 달려와 누이를 구해달라고 그에게 매여달렸다.
연개소문은 그리로 달려가 거기서도 당나라군사들을 순식간에 요정내고 처녀를 구출하였다.
이로 하여 연개소문의 이름은 온 장안에 알려졌다. 그와는 무술

을 겨룰만한 인물이 없다는것이였다. 이제는 당나라놈들도 제 마음대로 놀지 못하게 되였다고 마을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좋아들 하였다.

얼마 지나서 연태조도 세상을 떠났다.

연개소문은 모란을 데려다가 안해로 들이고 꿈같은 나날을 보내였지만 항시 마음은 나라를 바로세울 하나의 생각으로 높뛰였다. 나라의 정세는 여전히 어지러웠기때문이였다.

618년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왕조가 성립된 후 당나라통치배들은 고구려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침략준비를 서둘렀다. 주변나라들은 다 먹어버렸으나 오직 고구려만은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하였던것이다.

당나라통치배들은 《사신》이라는 명목으로 신하들을 들여보내 고구려의 군사비밀과 내부형편을 렴탐하기에 급급했다.

영양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은 영류왕은 비굴하게도 당나라에 굴종하여 그들의 요구조건에 순순히 응해나섰다.

628년 영류왕은 당나라에 나라의 지형과 지세를 그린 지도까지 주어버렸다. 연개소문은 이에 대처하여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총감역의 소임을 맡고 부여성으로부터 발해만에 이르는 1 000리장성 구축에 전심전력하였다.

이 장성의 축조는 근 16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진행되였다. 그후 이 장성은 나라 지키는 싸움에 큰 도움이 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속에서는 연개소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연개소문장군이 있으니 당나라는 념려가 없소.》

《그렇지 않구. 그놈들이 감히 어디라구.》

모두가 그를 받들어나섰고 조정의 대신들까지도 이에 합세했다. 여기에 위압을 느낀 영류왕은 차츰 그를 해칠 생각을 하게 되였다.

영류왕은 고구려를 치려는 당나라의 계교를 모르고 태자와 여러 대신의 아들들을 그곳으로 류학까지 보내였다. 그리고 당나라사신들이 고구려성지들을 마음대로 돌아보도록 하여 렴탐하게 하였

다. 실로 나라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642년 10월 연개소문은 드디여 군대의 대열병식의 거행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켰다. 그는 당나라에 기울어진 100여명의 대신들을 가차없이 처단하였으며 영류왕대신에 그의 조카인 보장을 왕위에 올려앉혔다. 그리고 자신은 최고관직인 막리지가 되여 모든 실권을 틀어쥐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29살의 장수힘이 넘쳐나는 때였다.

몸에는 다섯개의 칼을 차고 가슴에는 홍감을 두른 연개소문의 근엄한 표정은 감히 쳐다보기조차 두려웠다. 해빛에 번쩍이는 긴 창의 날에서는 서리발이 감도는데 그 위풍에 맞설자는 가히 없었다.

황로도사는 제자의 미더운 모습을 보고 또 보면서 마지막말을 남기였다.

《고구려의 운명은 이제 대감의 손에 달려있소. 당나라를 경계하고 막강한 군사를 기르기에 힘써야 할것이요. 대감은 언제나 나라의 안녕을 저버려서는 안되오.》

연개소문은 언제나 이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는 당나라는 물론 신라, 백제와의 관계에서도 굴욕적인것은 결사반대하였고 강경했다.

연개소문은 료하계선의 여러 성들을 철벽으로 보강하였으며 식량을 저축하고 무장을 정비하는 등 싸움에 대처할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갔다.

연개소문은 신라의 왕족으로서 고구려에 사신으로 온 김춘추에게도 자기의 뜻을 거침없이 내놓았다.

《같은 건국의 리념을 가진 한민족, 한형제국으로서 신라, 백제와는 화친을 도모하고 한족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는바인데 신라에서는 당나라와 친교를 맺으니 그 까닭을 바이 알수 없는 일이요.》

연개소문은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먹으려드는 신라를 공격하여 여러 성들을 점령하였으며 백제도 이 기회에 신라 서남

부의 40여개 성을 점령하였다.

당태종은 당나라에 지원해줄것을 애걸하는 신라의 요구에 응하여 644년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였다. 당태종은 오만무례하게 고구려내정에 간섭하려들면서 위협해나서는것이였다.

《신라는 우리에게 충실할것을 다짐한 나라로서 조공이 적지 않으니 너희는 백제와 더불어 각각 군사를 거두어야 한다. 만약 또다시 신라를 치면 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그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일축해버리였다.

그는 사신으로 온 상리현장에게 대고구려의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면서 신라의 비렬성을 지적하였다.

또다시 당태종은 장엄이라는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왔으나 연개소문은 그를 연금해버리고말았다.

그러자 당나라태종은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연개소문이 저희 임금을 죽이고 대신들을 해쳤으며 백성들을 못살게 굴뿐더러 이제 또 명을 거역하니 불가불 치지 않을수 없느니라.》

이에 당 나라대신인 이종이 태종에게 아뢰였다.

《고구려는 단군이래 군신간에는 신의가 두터웁고 만백성이 상하를 물론하고 굳게 단결되여있사오나이다. 뿐만아니라 고구려는 산악이 험하여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있어 우리가 공격하기는 실로 어렵소이다.

하기에 먼저 화친을 내세우고 그 나라 대신들을 리간하여 궁성내부를 소란하게 하며 분렬을 이룩하고 상하를 갈라놓아 그 힘이 약해진 연후에 들이쳐야 한다고 보나이다.》

하건만 당태종은 이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고구려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리는데 짐이 어찌 이를 살피지 않겠는가.》

그는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군주를 살해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니 그들을 제가 《구원》해야 한다는것이였다.

645년 4월 당태종은 군함 400여척을 건조하고 군량을 마련한 후

수군은 바다를 건너 료동반도로, 륙군은 료하상류를 거쳐 쳐들어가게 했다.

연개소문은 나라지킬 중임을 걸머지고 고구려의 백성들을 원쑤치는 싸움에로 일궈세웠다.

그는 자신이 호국원정대 총관으로, 병부상서 고정의를 좌위대장군(선봉장)으로, 서부대인 을지만수를 우위대장으로 명하여 후군을 맡게 한 후 원정군을 이끌고 출정의 길에 올랐다.

10만 고구려원정군의 위풍은 하늘을 찔렀다. 연개소문은 수나라 침략군을 물리친 을지문덕의 전법을 깊이 연구하여 이를 실천에 옮겼다.

료동에 진출한 연개소문은 각 성주들의 모임을 열고 그들의 전술적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들었으며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안시성에 15만의 원군을 파하고 자신은 료동성에 자리를 잡은 후 전군을 지휘하였다.

한편 고구려가 예상치 않았던 불의의 방향으로 적의 대군이 집중공격하는 속에 개모성의 2만여명의 군민들은 용감하게 싸웠으나 12일만에 성은 함락되였다.

처절한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개모성백성들은 놈들의 노예로 붙들려갔다.

그후 비사성과 료동성, 백암성을 련이어 강점한 적들은 6월 하순 총력량을 집중하여 안시성으로 몰려들었다. 안시성은 요충지로서 이 성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동쪽으로의 진격이 어림없었다.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은 군민들을 동원하여 적을 무자비하게 쳐갈겼다.

적들은 전술을 바꾸어 성벽가까이에 흙산을 높이 쌓고 성안을 내려다보면서 공격하려고 꾀하였다.

양만춘은 적들의 이러한 속심을 들여다보고 성벽을 더 높이 쌓아올렸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나날이였다. 고구려군은 조금도 숙어들지 않았다.

당나라군은 60일에 걸쳐 연 50만공수의 로력을 들여 흙을 포

대에 담아 쌓아올렸으나 그만 한 모퉁이가 무너지게 되였다. 이바람에 성을 다쳐놓아 안시성 한쪽성벽이 허물어졌다.
양만춘은 기회를 놓칠세라 날랜 병사 수천을 골라 성벽을 타고넘어 반격을 들이댐으로써 적들이 그렇게도 공력을 들인 흙산을 빼앗아내고야말았다.
그리하여 88일간이나 계속된 싸움은 고구려군의 승리로 끝났다. 성은 기쁨의 환호성으로 넘쳐났으며 모두가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
《둥, 둥, 둥…》
승전의 북소리는 산악을 울리였다.
양만춘은 연개소문의 원병과 함께 물러서는 적을 뒤쫓아 무찔렀다. 사방에서 원쑤의 숨통 끊어지는 소리가 터져나왔고 고구려 군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뒤덮었다.
연개소문은 적을 위압하기 위해 안시성군인들과 휘하군사들을 합치여 20만에 달하는 군사로 성밖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그 진의 행렬은 장장 20리에 뻗쳤다.
퇴각하는 당태종은 이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였다.
(아, 무슨 군사가 저렇게도 많은가!)
연개소문은 금산지구에 복병을 매복시켜 퇴각길에 오른 적들을 완전포위섬멸했다.
그리고 개모성을 도로 빼앗아낸 후 5 000명의 당군을 모두 시체로 만들어버렸다.
연개소문은 어려운 싸움마다에서 큰 칼을 량손에 들고 군사들의 앞장에 서서 적의 진중을 뒤흔들어놓았으며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당군을 한놈도 남기지 말고 죽여버리자!》
그의 칼이 한번 번쩍이면 벌써 두세놈의 목이 덜렁덜렁 날아났다. 적은 완전히 쫓기우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연개소문은 당나라 땅깊이까지 들어가 끌려간 개모성군민들을 비롯하여 수천의 고구려사람들을 구출하여가지고 유유히 개선길에 올랐다.

당나라침략군은 륙수군 100만중에서 목숨을 건진 놈이 겨우 수천에 불과했고 군마 만여필중 돌아간것은 겨우 천여필이였다고 한다. 고구려군은 전쟁사에 보기 드문 전과를 올리였다. 그때부터 당나라사람들에게 있어서 연개소문의 이름은 공포의 대상이 되였다.

울던 아이도 《연개소문장군이 온다.》고 하면 금시 울음을 그쳤다는 일화도 이때 생겨난것이다.

고구려군에 쫓기여 돌아가던 태종은 양만춘에게 비단 100필을 보냈는데 이것은 제발 추격하지 말아달라는 애걸의 부탁이기도 하였다.

보장왕은 료동성 서문에까지 나와 장막을 가설하고 연개소문을 맞이했다.

평양에 돌아온 보장왕은 전국에 대사령을 내리고 전승을 축하하기 위하여 수일간에 걸쳐 대연을 베풀었다. 보장왕은 어주를 들어 연개소문에게 권하면서 그의 공을 치하하였다.

그러나 당태종은 이처럼 헤여날길 없었던 치욕의 패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2년후인 647년 3월 또다시 수만의 병력으로 고구려를 쳐들어왔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이 싸움에서도 고구려군민을 이끌어 승리를 가져왔다.

662년 2월 침입때에도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이 직접 출전하여 적장 방효태와 그의 아들 13명을 비롯한 4만여명의 당나라군을 일거에 몰살시켰다.

그러나 제 버릇을 개 못준다는 말과 같이 당태종은 고구려를 다시 치겠다고 성들에 군량과 군수기재들을 준비하고 배들을 새로 뭇게 하면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어댔다.

그래도 폭군인 그에게 누구 하나 상소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방현령이란 늙은 관리가 죽으면서 태종에게 고구려침략을 그만두라는 부탁의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 한 대목이 이렇게 되여있다고 전해진다.

《가령 고구려가 신하의 절차에 어긋난다면 목을 잘라 마땅하며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면 멸망시키는것이 옳으며 뒤날 당나라의 걱

정거리로 된다면 제거해버리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세가지 조건이 없는데 공연히 괴롭게 함으로써 안으로는 선대의 수치를 씻고 밖으로는 신라를 위하여 복수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얻는것이 적고 잃는것이 큰것이 아닌가.》

안팎으로 패배만 당하게 되자 태종은 화병에 걸려 숨을 거두면서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였다고 한다.

《해상잡록》에 의하면 태종이 당대의 명장이였던 리정에게 《연개소문의 병법이 과연 예전사람 그 누구에게 비할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리정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예전사람은 알수 없으나 현재 왕의 모든 장수들중에서는 상대가 될만한 사람이 없소이다.》

그후 태종이 죽고 고종도 여러차례 고구려원정을 했지만 거듭 패하자 신하인 왕안석에게 물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 이기지 못한것은 무엇때문일가?》

《그것은 다름아니라 고구려에 연개소문이라는 명장이 있기때문이지요. …》

7세기 강대한 고구려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3차에 걸치는 당나라침략을 보기 좋게 물리쳐 나라를 빛내인 연개소문은 666년 5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하기에 오늘도 강대국 고구려를 말할 때 연개소문을 앞자리에 놓으며 당나라침략군을 떨게 한 그의 대담성과 용의주도한 기질을 잊지 않고있다.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양만춘은 먼길을 달려 성안에 이르렀다.

새 임금을 맞은 후로 평양성안은 흥성거리고있었다. 영류왕이 폐위하고 보장왕이 새로 즉위하자 양만춘은 막리지로 모든 실권을 틀어쥔 연개소문의 부름을 받게 된것이다. 그간 안시성의 성주가 된 양만춘은 언제나 마음속에 우러르던 연개소문을 만나게 된것으로 하여 기분이 좋았다.

그는 연개소문의 집으로 찾아들어갔다. 심부름을 들고있는 바위가 기다린듯 안으로 급히 뛰여들어간다.

《왔소이다. 양만춘장수가 금방 도착했소이다.》

《그래, 그를 어서 모셔라.》

연개소문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였다.

《귀체건강하셨소이까?》

《별고 없소. 그곳에도 다른 일은 없겠지.》

연개소문과 양만춘은 별당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양만춘은 그간 연개소문의 지시대로 여러 첩자들을 당나라에 보내여 적군의 움직임을 샅샅이 내탐하였다.

양만춘은 모든것을 사실대로 아뢰였다.

두 장군은 오래간만에 만난 감회도 깊어 얼마후에는 술상을 마주하였다.

양만춘은 연개소문이 부어주는 큰 잔을 단숨에 쭉 들이켰다.

연개소문과 양만춘은 깊은 인연이 있었다. 연개소문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연금되였을 때 그를 구출하는 일에 양만춘의 아버지인 양흥로인이 깊이 관여하였다. 그리하여 연개소문은 당나라를 탈출할수 있었다.

영류왕이 집권한지 25년이 되는 642년 안시성의 장수 양만춘

은 성주에 대해 반기를 들고나섰다. 이것은 고구려조정에 대한 반란이였다.

당시 양만춘은 실권을 쥐고있던 대신들의 눈밖에 난 인물이였다. 성주였던 선우돌은 성품이 매우 포악하여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다. 온갖 가렴잡세와 부역을 일삼았고 폭정으로 하여 소문이 났었다.

그는 3년 임기가 지났지만 다음 부임지인 장성감독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못된짓만 계속하였다.

하기에 성안백성들은 모두가 원한에 넘쳐있었다.

이러한 때 덕망이 높았던 장수 양만춘은 군사를 일으켰다.

급해난 선우돌은 여러 성들에 원병을 요청했으나 어느 성주도 들어주는이가 없었다. 그는 또다시 조정에 원병 1만을 파병해달라고 하였으나 역시 감감하였다.

내란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였다.

본시 이것은 연개소문이 앞날의 큰일을 위해 비밀리에 일으킨것이였다.

연개소문에 의해 나라안팎의 모든것이 평정되자 양만춘은 성주가 되여 그를 찾아온것이다.

양만춘은 당나라의 움직임에 대해 손금보듯 알고있기에 성을 더욱 튼튼히 꾸렸다.

그는 앞날을 예견하여 성벽을 수리하고 다졌으며 식량도 넉넉히 마련했다. 더우기는 군사들의 무술훈련에 힘을 넣었다.

성주가 이토록 대담무쌍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니 성의 군사들은 무슨 일이든 소홀히 할수 없었고 진심으로 그를 받들어나갔다.

그러던 645년 4월 당나라태종은 도합 100만의 륙군과 수군으로 고구려에 대한 침략의 길에 올랐다.

출발에 앞서 당태종은 군사들에게 이번 고구려원정이 반드시 성공할수 있다는 신심을 주기 위해 수나라시기 경험자들의 입을 빌어 확인시키려고 하였지만 여러차례 참혹한 실패를 직접 겪은 정원숙이라는 대신은 자신이 없다는것을 실토하였다.

《대왕님, 료동은 길이 멀어 군량수송이 어렵고 고구려사람들이 성을 잘 지키기때문에 아무리 공격하여도 항복을 받을수 없나이다.》

하지만 태종은 수나라때와는 다르다면서 이길수 있는 다섯가지 조건을 내놓았다.

태종은 《그 첫째는 큰것으로 작은것을 치는것이며 둘째는 순리로써 반역을 치는것이며 셋째는 정돈된 나라로서 어지러운 틈을 타는것이며 넷째로는 편안한 군사들이 피로한 군사를 대적하는것이며 다섯째로는 기쁨에 충만된 군사로써 원한에 싸인 군사와 맞서는것이니 어찌 이기지 못할가봐 근심하겠느냐.》고 호언하였다.

당태종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달가와하지 않는 제 나라 군민들을 이런 식으로 얼리려들었다.

고구려에 쳐들어온 당나라군은 먼저 개모성을 일시 먹은데 기세를 얻어 료동성으로 달려들었으나 성은 철벽이였다.

더우기 중요한것은 안시성을 타고앉는것이였다.

드넓은 료동평야를 한품에 안고있는 안시성은 내성으로서 세면이 낮은 구릉지대에 면해있으며 성벽은 토성과 목책(나무울타리)으로 되여있었다.

적은 견고한 성벽도 골치거리였지만 내굴과 외굴을 건늘 방책이 전혀 없었다. 외굴은 강물을 끌어온것이므로 웃목을 막고있는 제방만 터쳐놓으면 금시 물살에 수중귀신이 되고만다.

어둠을 타서 기여들려 해도 여기에 익숙치 못한 군사들이 성공할리 없고 또 불을 켜자니 화살세례가 난처한 일이였다.

당나라군은 여러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양만춘의 빈틈없는 지략으로 어쩔수없이 물러서군 하였다.

수일간 성밖에서 녹아난 적장 리세적은 화가 꼭두까지 치밀어 어느날 또다시 성벽을 넘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안시성은 이번 싸움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결전장으로 되였다.

당태종도 격전장에 나와 소리를 질러댔으나 군사들만 쓰러져

갈뿐이다.

안시성을 그대로 두고는 고구려땅 종심으로 기여들수 없으니 어차피 여기서 결판을 보아야만 하였다.

고구려군도 원군을 파하였다.

고구려군 장수인 고정의는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내놓았다.

《너무 급하게 공격하지 말고 군사를 정돈해가면서 여러날을 두고 기습병들을 파견해 그들의 수송로를 끊어버리면 적들은 량식이 떨어지게 될것이요. 그러면 싸우려 해도 싸울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갈 길이 없게 될터이니 이때야말로 이길수 있을것이요.》

안시성이 전략상 중요하기에 당태종은 이제 이 성만 먹으면 다른 성들은 문제로도 되지 않으며 수도를 점령하는것도 힘들지 않다고 떠벌이면서 더욱 집요한 공격을 들이대였다.

안시성의 10만 군민들은 양만춘의 지휘하에 한덩어리가 되여 성을 철옹성같이 방어하고있었다.

적에 대하여 주의깊게 살피고난 양만춘은 현재 그들의 후방보급로가 우리 원군에 의해 끊어졌다는것을 알아챘다.

그는 한쪽으로는 기발을 높이 날리고 북을 울려 기세를 올리게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밥짓는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맛있는것들을 볶아내여 바람새를 따라 날림으로써 굶주린 적들의 창자를 뒤집어놓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그리고 적의 공격을 물리친 다음에는 주동적으로 기습전을 짜고들어 피로해진 그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싸움이 끝난 저녁이면 집짐승소리를 요란히 내게 하고 고기삶는 냄새가 멀리까지 풍겨가도록 적의 턱밑에 가마를 걸고 끓여댔다.

뿐만아니라 씨름을 비롯한 오락과 운동놀이를 하여 성안이 웃음소리로 들썩하도록 만들어놓았다.

포위진을 치고 공격만 해서는 성을 먹어들어갈수 없다는것을 알게 된 당나라침략군은 이번에는 포차(큰 돌을 300보이상 날려보낼수 있는 수레)와 충차(공격용수레)를 동원하여 성벽을 부셔보려 했지만 이것 역시 허사였다.

십여일이 넘도록 안시성을 공격했으나 당군은 저들의 머리수만 줄어들뿐이였다.

당태종은 이번에는 안시성보다 훨씬 더 높게 흙산을 쌓아 그곳에 올라서 성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할 안을 꾸미였다.

적들은 흙산쌓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60여일이나 계속하여 근 50만공수를 들이였던것이다.

이들은 흙산에 다섯개의 굴을 만들어 그길로 산정에 오르도록 꾀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성안의 군민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양만춘은 목책을 만들어 성벽에 세우는 한편 남녀로소 가림이 없이 돌을 나르고 흙을 퍼담아 당군의 흙산보다 더 높이 쌓아올리게 했다.

그 앞장에는 크지 않은 체구에 붉은 투구와 갑옷을 입고 두툼한 입술을 꾹 다문채 큰 칼을 힘있게 짚고선 사십전후의 양만춘이 서 있었다.

당군의 흙산이 거의 되여가자 양만춘은 습격조를 무어가지고 야음을 타서 토성 쌓는 적들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양만춘은 습격조로 선출된 군사들에게 닭과 돼지를 잡고 술을 걸어 잘 먹이였으며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었다.

《당군을 한놈이라도 살려보낼수는 없다. 오늘 너희들은 안시성을 위험에서 구원할것이니 각오를 굳게 하여라.》

습격조는 성난 호랑이처럼 달려나가 적들을 보기 좋게 쓸어눕혔다. 흙산쌓기에만 눈이 어두웠던 당군은 생벼락을 맞은셈이였다.

잘 훈련된 사나이들이 서리발 번뜩이는 칼과 창으로 춤추듯 원쑤를 무찌르는 모양은 과연 볼만 하였다. 번개불에 콩닦듯 적진을 들이쳐 술한 주검을 낸 습격조는 귀신의 조화같이 꼬리를 사리였다.

흙산이 완성되자 당군은 마지막으로 여기에 올라 공격을 시도하였다.

성벽에 높이 가설한 목책에 올라 큰 싸움을 여유있게 지휘하

던 양만춘의 눈앞에 당태종의 모습이 나타났다.
《네놈이?! 내 좀 버릇을 고쳐주어야지.》
양만춘은 지체없이 대궁을 들어 지그시 시위를 당기였다. 다음순간 공격을 지휘하던 당태종이 한손으로 눈을 가리며 그자리에서 허우적댔다.
《아이고, 나 죽는다! 게 누구 없느냐?》
양만춘이 쏜 화살이 당태종의 눈에 정통으로 박힌것이였다.
성안에서는 녀인들과 로인들이 펄펄 끓는 물을 날라다 성벽에 기여오르는 적들에게 사정없이 쏟아붓고있었다.
《아이구 저 꼴 좀 보지, 데죽는 꼴을. 하하하!》
수만대군의 겹겹한 포위속에서도 녀인들은 배심좋게 웃어댔다.
화살이 비발치고 돌사태가 쏟아져도 원쑤들은 수적우세를 믿고 교대로 달려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부터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차츰 기세를 돋구던 비는 어느 사이엔가 폭우로 번져져 대줄기같이 실해졌다. 이통에 당군이 악전고투하며 쌓은 흙산밑둥이 위태로와졌다.
상류에서부터 불어난 물살이 삽시에 들이닥쳐 흙산을 에워싸며 뻗치더니 미처 손쓸새없이 한쪽밑을 뭉청뭉청 먹어들어갔던것이다.
조금뒤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과 함께 흙산이 성쪽으로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적들은 어찌할바를 모르고 헤덤볐다. 흙산이 무너지면서 그와 성사이에는 통로가 생겨났다. 이때라고 생각한 양만춘은 장수인 왕축에게 큰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왕축은 나가 토산을 타고앉거라. 순간도 지체해서는 안되느니라!》
《알아들었소이다!》
왕축은 군사 5천을 이끌고 함성을 지르며 질풍같이 달려나가 흙산을 빼앗아 가로탔다.
퍼붓는 비속에서 흙산을 놓고 생사의 육박전이 벌어졌다.

당군은 고구려군을 당해낼수 없었다. 이때 양만춘의 공격명령이 떨어졌다. 적들은 헤아릴수 없는 주검떼만을 남기였다.

성이 머리끝까지 오른 당태종은 당장 흙산우두머리로 배치하였던 장수의 목을 쳐서 진중에 돌리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공격을 개시했다.

양만춘은 성방비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일시 싸움은 이겼지만 성안형편도 말이 아니였다. 군민이 모두 지쳐있었고 식량이 떨어져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쉴새없이 적을 막아야 하니 군사들은 피로하여 온몸이 부어오르고 발은 부르텄다.

그러나 군민은 일치단결하여 자기들의 성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이때 료동성의 원병이 도착하였다.

성안에서는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이제는 이겼구나. 원쑤를 마지막까지 부시자!》

《한놈도 살려보낼수 없다!》

양만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총공격으로 넘어갔다.

군사들은 성문을 열어젖히고 성난 사자마냥 적군을 향해 돌진해갔다.

양만춘은 긴 칼을 뽑아들고 말을 몰아 적의 머리를 수없이 베여나갔다. 적은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애꾸가 된 눈을 처매고 진막안을 서성거리던 당태종은 졸지에 마음이 서글퍼졌다.

《이번 원정은 실패하였구나. 이런 강군과 싸워 여기서 이긴다 해도 평양까지는 틀렸어. …》

당태종은 서늘한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승리한 양만춘은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곯아떨어졌다.

장수의 코고는 소리가 드렁드렁 벽을 울리였다. 아무리 깨워도 소용이 없었다. 군사들이 수건을 샘터의 찬물에 적시여 얼굴을 마구 비벼대서야 그는 간신히 눈을 떴다.

《아, 내가 잠이 들었던가?》

마치도 쪽잠에나 들었던듯싶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은것이다. 양만춘은 연개소문과 합세하여 군사를 이끌고 도망치는 적을 따라나섰다.

살길을 찾아 달아나던 당군은 화살에 맞고 칼에 맞아 쓰러지고 진펄에 빠져 허우적거리였다.

말을 달려 전장의 한복판에서 원쑤의 목을 치는 장군의 모습에 고구려군사들은 용기백배하였다.

양만춘은 맥없이 돌아가는 태종의 몰골을 보고 몇자 글을 쓰더니 화살을 날렸다.

《태종도 오랜 싸움에 괴로움이 많았을게다. 부디 무사히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

날아온 글을 읽은 태종은 그의 높은 기개에 머리가 숙어졌다.

당태종은 88일간이나 안시성을 굳건히 지켜낸 양만춘의 장수다운 기질에 감동되여 퇴각하면서 그에게 비단 100필을 기념으로 보냈다고 한다.

안시성을 포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림이 없이 공격전을 들이댔으나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애꾸가 된 당태종은 죽은 군사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후에 시인인 리색은 안시성에서 애꾸가 된 당태종의 가련한 몰골을 두고 그를 조롱하는 시 한수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 …
어찌 알았으랴
날아온 화살이 눈에 박힐줄을
… …

이처럼 양만춘은 안시성의 성주로서 당나라침략군을 물리치고 고구려의 승리를 가져오는데서 큰 역할을 한 애국명장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안시성이라고 할 때면 88일간이나 성을 지켜낸 양만춘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백제의 시조 온조

고구려의 동명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맏이 유류는 고주몽이 동부여에 있을 때 본부인인 례씨에게서 태여난 아들이고 둘째, 셋째인 비류와 온조는 졸본부여(구려)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왕이 된지 19년이 되던 어느날 동부여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던 유류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 졸본에 나타났다.

고주몽은 처음 보는 아들이지만 역시 자기의 혈육이므로 무척 반가왔다. 그래서 두말없이 그를 자기의 뒤를 이을 태자로 정하였다.

비류와 온조는 속이 좋지 않았으나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그들 두 형제는 일단 부왕이 그렇게 선포하였으니 시비를 가릴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찾아 남쪽땅으로 내려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형, 우리 더 좋은 땅을 찾아 우리 세상을 만듭시다.》

온조는 형인 비류와 굳게 다짐하고 길을 떠났다.

고구려의 오간, 마려를 비롯한 10명의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나섰다.

한달이나 걷고걸어 마침내 그들은 마한의 북변인 례성강과 한강류역에 이르러 두루 지세를 살피였다.

숱한 강을 건느고 산을 타고넘었지만 이곳처럼 아늑한 곳은 없었다. 산천이 수려하고 우거진 밀림속에는 온갖 짐승들이 뛰놀고있었다. 노루, 사슴들이 떼지어 흐르는가 하면 나무우에서는 이름모를 새들이 자기들을 맞아 노래를 부르는듯싶었다. 거기에 험준한 산악들이 둘러서서 자연성벽을 이루었으니 외적

의 침입을 막는데도 문제가 없을것 같았다. 또한 남으로는 끝간데 없는 기름진 옥야천리가 펼쳐져 그야말로 더 이를데가 없었다.

벌써 자기들이 세울 미래의 나라를 그려보면서 온조는 형에게 말하였다.

《형님, 우리는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는것이 마땅할가 하나이다. 이제 더 남쪽으로 가본댔자 이만한 곳이 있을듯 싶지 않거니와 오늘까지 지나온 가운데도 물론 이런 곳이 없었소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는 발길을 멈추는것이 좋을것으로 아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비류가 반대하는것이였다.

바다에 황홀해있는 그는 서쪽으로 더 나가서 아예 해변가에 도읍을 정하자고 한다.

《그보다 나는 우리의 도읍을 아주 바다가에다 정하는것이 옳을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륙지에서 사냥을 하고 밭을 가는 한편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아 백성들의 살림이 더욱 풍족해질것이며 나라는 더 부강해질줄로 안다.》

그러나 따라온 백성들과 10명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모두 온조의 의견에 동감하였다. 그리고 비류에게 생각을 달리하고 자기들과 함께 여기에 눌러앉기를 청들였다.

하건만 비류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바다가 더 좋아.》

그는 온조와 작별하고 얼마 안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바다가를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그리고 미추홀(오늘의 인천지방)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

형을 바래운 온조는 신하들과 함께 마한의 하남 위례성(경기도 광주지방)에 도읍을 정하고 자그마한 나라를 세웠다.

온조는 처음 나라이름을 《십제》라고 정했다. 그것은 자기를 받들어온 10명의 신하들의 공적을 후세에 전하자는데서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그후 위례로 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따랐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백제》라고 고쳤다.

초기 《십제》의 령역은 사방 100리지경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기는 B.C. 3세기 중엽으로 보고있다. 그것은 온조가 B.C. 3세기 초엽에 수립된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권 23) 백제본기의 첫 머리에서는 백제의 시조설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있다.

《백제시조 온조왕의 아버지는 추모인데 혹은 주몽이라고도 한다. 그의 아버지가 북부여로부터 란을 피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더니 졸본부여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3형제가 있었는데 주몽이 보통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둘째딸을 주어 안해로 삼게 하였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왕이 죽고 주몽이 그뒤를 이었다. 주몽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요, 둘째아들은 온조였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와의 사이에 알륵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드디여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를 데리고 남쪽지방으로 떠나니 백성들가운데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리하여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서 살만한 곳을 살폈다.

비류가 바다가에서 살자고 하나 10명의 신하가 충고하기를 남쪽땅은 북쪽으로 한수가 있고 동쪽은 높은 산악에 의거하고있으며 남쪽으로는 기름진 들판이 바라보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로 막혔다. 이러한 천연요새로 된 좋은 땅이야말로 얻기 어려운 곳이니 여기에 수도를 정하는것이 좋지 않을가 하고 하였으나 비류가 듣지 않고 따라온 백성들을 나누어가지고 미추홀로 가서 살게 되였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수도를 정하고 10명의 신하들로 하여금 돕게 하고 나라이름을〈십제〉라 하였다.》

이 설화에서 보여주는것처럼 온조는 마한에 《십제》를 세우고 그후 《백제》로 발전시켜나갔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해마다 백제임금들이 고구려시조인 동명왕의 사당을 자기들의 시조묘로 인정하고 제사한 기사들이 실려있다. 이것은 백제왕실에서 오래동안 동명왕을 시조로 삼아왔

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나라를 세운 온조는 부아악에 위엄있는 궁전을 건설하였다.

궁전처마는 울긋불긋 단청으로 장식되였고 성곽우로 높이 치솟아 그야말로 황홀경을 이루었다.

산과 들에는 짐승 쫓는 소리와 밭갈이가 한창인데 온조는 왕좌에 높이 올라 나라의 크고작은 일들을 주관해나갔다.

그런데 어느날 형인 비류가 찾아왔다. 비류는 바람세찬 바다가에서 풍랑에 그슬려 더는 살아갈 도리가 없게 되자 할수없이 온조에게로 돌아왔던것이다.

《형님, 어찌된 일이오이까?》

《응, 일이 그렇게 되였다.》

온조는 형을 기꺼이 맞아 궁전에서 함께 살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류는 동생을 마주볼 면목이 없었다. 바다에 호기심을 가지고 미추홀에 도읍을 정하였지만 바람이 세고 풍랑이 심하였으며 해변땅들은 짠물이 배고 습하여 농사가 잘되지 않았다. 그나마 그에게는 바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비류는 자기도 나라를 세워보려 했지만 그만 실패하고 동생을 찾아왔으니 마음이 편할리 없었다. 그리하여 비참한 자기의 실패가 부끄러워 외로운 마음을 안고 지내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온조는 점차 나라의 령역을 넓히고 당당한 국가를 형성해나갔다.

처음 나라를 정하였을 때에는 얼마 되지 않는 땅을 차지하고 주변의 마한에 복종하면서 때로는 신기한 사슴을 사로잡아 마한에 바치기도 하고 말갈의 추장을 붙잡아 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온조는 점차 마한에 속한 다른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자기의 지배권을 확립해나갔다.

지방통치제도와 함께 중앙통치기구도 정비하였다.

처음 정부의 최고관직은 우보벼슬 하나만을 두었으나 점차로 좌보벼슬도 생겨났다.

백제에서는 전국을 두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수많은 읍락

들을 두어 통치했으며 그후에는 4부행정제도를 만들었다.

4부의 수하에는 군사행정단위인 성들을 배속시켜 그것들이 여러 읍락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이렇게 온조를 비롯한 통치배들은 자기들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여나갔다.

B.C. 3세기 중엽 고구려의 한 집단이 한강하류지대로 이동하여 백제를 세운 사실은 유적유물을 통해서도 고증되고있다.

한강일대에 있는 돌각담무덤은 그 뚜렷한 물증으로 된다.

대표적인것으로 발굴된것은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의 돌각담무덤이다. 그것은 한변의 길이가 약 7.6m, 높이가 약 3m이다.

무덤무지의 내부구조를 볼 때 바닥에 강돌을 곱게 펴고 그우에 편마암과 화강암으로 동서 6m, 북남 7m, 높이 약 60㎝정도의 돌곽을 쌓았다. 돌곽안에서 발견된 꺾쇠는 이 무덤이 아주 이른 시기의것임을 시사해주고있다.

문호리돌각담무덤에서 검증된 자료는 고구려의것을 그대로 본따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특히 압록강일대의 고구려무덤들과 대비해놓고볼 때 형식과 크기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온 꺾쇠, 쇠손칼, 청동제품, 대롱구슬 등의 유물들도 고구려초기의것과 같은것이다.

백제에서는 일찍부터 벼농사를 지었다. 넓은 벌판에 논을 풀고 저수지를 만들고 뚝을 쌓았다.

그후의 사실이지만 백제에서는 330년에 뚝길이가 1 800보나 되는 저수지인 벽골지를 오늘의 전라북도 김제군에 만들어놓았다. 이것은 그때 시기로 놓고볼 때 높은 수리공학적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백제에서는 소, 돼지, 말 등 집짐승도 많이 길렀고 밀, 보리, 콩을 비롯한 여러가지 곡식과 남새, 뽕나무를 재배하였다.

그리고 신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에 종자로 쓸 훌륭한 말을 보내여 백제의 말들이 널리 퍼지게 되였다고 한다.

백제의 금속가공기술도 매우 발전하여 철판과 농기구, 칼 등

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일본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백제에서는 건축과 의학기술도 발전하였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천문학과 기상학이 발전하였다. 백제의 천문학자들은 살별(혜성), 별찌(류성), 행성들에 대하여 나타났던 날자와 시간, 위치와 방향, 크기에 대하여 하나하나 기록해두었다.

실례를 든다면 186년 10월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가 20일만에 사라졌다.》(《삼국사기》 권 23)고 하였고 454년에는 《혜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는데 그 길이가 두발가량이나 되였다.》고 적어두었다.

그리고 기상기후현상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는데 221년 5월 나라의 동쪽지방에 큰물이 나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과 222년 6월 《수도에 물고기가 비와 함께 떨어졌다.》는 신기한 일화까지 남기였다. 이것은 당시로 놓고볼 때 고구려와 신라의 기록에는 없는 3세기초 백제고유의 기록이다.

또한 다정다감하고 정서가 깊었던 백제사람들은 벌써 오랜 옛날부터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창조하여 기록하여놓았다.

비록 신분은 보잘것 없는 평민이였으나 인간의 고상한 의리와 녀성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낸 《도미와 그의 안해》에 대한 설화, 장사하러 떠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산우의 바위우에 올라앉아 남편을 걱정하며 지었다는 《정읍사》, 백제봉건왕조의 가혹한 착취를 비판하여 둥그렇던 달이 이제는 이지러지게 되였다는 식으로 그 멸망을 예고한 참요 《백제는 둥근달바퀴》 등은 아름다우면서도 형상성이 높은것들이다.

특히 《정읍사》는 순수 고유조선말로 꾸며진 정서적여운이 짙은 서정가요이다.

달아 높이 좀 돋아서
어기야 멀리 좀 비쳐주소서
어기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전주장터에 가계신데요
어기야 진데를 드디실세라
어기야 어강됴리

어디에다 놓으시라
어기야 내 님 가는데 저물세라
어기야 어강됴리
아으, 다롱디리

기다리고기다리는 녀인의 애틋한 심정, 남편의 신상에 나쁜것이라도 생길세라 가슴조이는 안해의 소박하고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안겨드는 시가이다. 3음조의 운률을 기초로 하여 감탄사와 조흥구를 효과적으로 주면서 노래의 정서를 돋구어주고있는 마지막련은 후렴구의 역할도 같이하고있다.

하기에 《정읍사》는 백제의 유산인 동시에 세나라시기 우리 나라 서정가요의 귀중한 재보로 된다.

백제사람들은 조각과 금동관장식품에서도 이채를 띠였고 음악과 무용에서도 특이하였다.

온조가 세운 백제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산천에 온갖 정을 다 부어 이처럼 높은 과학기술적성과와 문화를 창조하였다.

충신 성충

3월도 늦은 어느날 대황포언덕에서는 봄맞이놀이가 한창이였다. 큰 차일을 펴고 궁녀들이 모여들었으며 이름모를 가지각색 음식에 향기로운 술이 동이마다 철철 넘쳐났다. 수백의 종들이 엉치에 바람이 일도록 뛰여다니고 한쪽에서는 전을 지지며 고기를 볶아내고 갈비를 구워댔다.

백제의 의자왕은 진달래 울긋불긋 한창 피여나고 버들가지 실실이 늘어진 대황포기슭에 잔치를 베풀고 이렇듯 아릿다운 궁녀들과 더불어 술과 노래속에 파묻힌것이다.

《이렇게 화창한 봄을 어찌 아니 즐길소냐!》

궁녀들은 부채질을 해대고 만족스런 의자왕은 신선부럽지 않은 건드러진 자세이다.

《자, 술을 부어라. 너희들도 마음껏 마셔라. 이 봄을 한껏 즐기자꾸나.》

겨울이면 겨울대로 봄이면 또 봄대로 임금의 잔치는 그끝을 모른다.

한쪽에서는 외적이 쳐들어올 차비를 하고 농량이 떨어진 백성들은 새로 돋아난 풀잎을 찾아 산을 덮었건만 그래도 의자왕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고 또 들리지도 않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좋은 팔자에 실컷 놀아보자는것이다.

이때 이 유흥을 깨뜨리며 좌평 성충이 의자왕앞에 나섰다.

이것은 백제의 마지막왕으로 치욕을 남긴 바로 의자왕때의 일이다.

그때 밖으로는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다른 야심을 품고 결탁하여 백제로 쳐들어올 기회만을 노리고있었다.

그러나 백제는 이와는 딴세상이였다.

의자왕은 국사에는 아랑곳없이 날에날마다 술놀이, 들놀이로 삼천이나 된다고 하는 궁녀들과 해를 지우고있었다.
겨울이면 임금의 사냥행차에 백성들은 산에 덮인 눈을 쓸어 길을 내야 하였고 술과 안주를 위해 날마다 더 큰 부담을 져야만 했다.
처음 의자왕이 즉위하였을 때는 그래도 국력을 기르고 민심을 수습한다고 하였지만 10여년이 지나자 모든것을 다 줴버리였다.
어느 사이엔지 국정은 안중에 없고 부화방탕한 본바탕이 드러나 폭군으로서 날이 가는것을 가늠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많은 충신들이 진심으로 왕을 걱정하게 되였고 백성들은 그를 원망하여 눈물을 흘리였다.
이때 이것을 두고 가장 가슴아파한 사람이 바로 당시 좌평벼슬에 있던 성충이였다. 성충은 왕이 주색에 빠져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명을 무릅쓰고 어전에 나서서 자기의 소견을 아뢰였으며 또한 여러차례 충간을 올리였다.
왕의 한마디 어명이면 그자리에서 목이 잘리우는 형편에서 이렇게 그를 따라다니며 시끄럽게 군다는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언제나 나라의 안녕을 먼저 생각한 성충은 그 무엇도 주저치 않았다. 그래서 또다시 오늘 이곳 놀이터에 나타난것이다.
사실 어제저녁 여러명의 충신들이 모여 년세로 보나 공로로 보나 좌평 성충이 대왕께 말씀올리는것이 옳을것 같다고 하여 마음을 다잡고 나섰던것이다.
《상감마마께 아뢰나이다.》
금시 눈알이 꼿꼿해진 의자왕이 못마땅하게 내려다본다.
《무슨 일이냐? 즐거운 봄날에…》
의자왕은 성충이 또 간을 올리려고 이렇게 나섰다는것을 너무도 잘 아는터였다. 하지만 성충은 례를 갖추어 엎드려 정중히 절을 하고나서 절절히 아뢰였다.

《극간하나이다. 이젠 상감께서도 그만하시고 정사를 돌보심이 어떠하실지. 지금 밖으로는 신라가 호시탐탐 엿보고 안으로는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심하여가오니 어찌 현철하신 상감께서 이를 돌보지 않으시겠나이까. 만일 상감께서 굳이 이를 외면하신다면 가히 헤아리기 어려운 결말이 올것으로 짐작되오니 성충은 목숨을, 목숨을 바쳐 다시 간절히 아뢰나이다. 굽어살펴주소이다.》

의자왕에게 자기의 애절한 소원을 아뢰는 성충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졌다.

《듣기 싫소. 썩 물러가오!》

언제 한번 듣지 않고 힐책만 하는 의자왕이니 이 일을 어찌하랴만 성충은 속이 탔다.

성충은 한 나라 임금이란 한가정의 주인과도 달라 왕이 국사를 돌보지 않는데 대하여 보고도 못본척 한다는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여기였다. 더우기 다른것도 아니고 왕이 음란으로 술과 계집속에 파묻혀버린것을 내버려둔다는것은 하나의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였다. 더군다나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대황포에서의 봄놀이를 그냥 내쳐둔다면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빠질것이 명백하므로 성충은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충간을 올리는것이였다.

그러나 의자왕은 그것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도리여 남의 흥취를 깨뜨린다고 제편에서 야단이다.

《경이 이렇게 자꾸 성가시게 군다면 나도 생각을 달리하겠네.》

그래도 성충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은 큰맘먹고 나선 걸음이다.

《상감께서는 술잔치를 어서 거두고 녀인들을 멀리 하시옵소서. 만일 이렇게 사치와 향락으로 날을 보내시다가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면 상감께서는 후세에 망국지주로서의 치욕을 면치 못할것이오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할것이오이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것이 아니겠

나이까?》
성충은 신하로서 마지막말을 하고 눈을 슬며시 감았다.
성이 독같이 오른 의자왕은 분별을 잃고 덤비였다.
《무엇이라구?! 나더러 술을 먹지 말라구. 게 누구 없느냐? 저놈을 당장 묶어 옥에 처넣어라!》
그처럼 절절하게 사정하는 신하의 충정은 안중에도 없이 의자왕은 성충을 역적으로 몰아 그자리에서 오라를 지웠다. 성충의 주름깊은 얼굴로는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늙은 목숨이 아까와서가 아니라 왕의 주색이 마음에 걸리고 나라의 장래가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의자왕과 간신들은 성충을 역적으로 몰아 옥에 넣고는 지어 물한모금 주지 않았다.
말리여 죽이자는 심산이였다.
(아, 이 나라는 장차 어찌 될고! 다가오는 위험을 어떻게 막아낸단 말인가.)
옥에 갇힌 늙은이의 생각은 오직 이것뿐이였다.
의자왕은 성충의 죄목을 이렇게 하였다.
《임금을 업신여기고 신하로서 버릇이 없이 분별있게 처신하지 못한것이며 또 희희락락 태평성대에 요망스럽게도 수다를 떨어서 민심을 소란하게 한것이 바로 성충의 죄이다.》
림종을 앞두고 성충은 나라의 안전이 더욱 걱정되였다. 그러나 왕의 음탕한 놀음은 여전히 계속되였다. 봄을 즐기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즐기였다.
성충의 목숨은 이제 마지막고비에 들어섰다.
성충은 손가락을 이발로 깨물었다.
붉은 피가 방울방울 떨어져내린다. 성충은 웃옷을 벗어들고 마지막힘을 모아 유서를 써나갔다.
《상감께 마지막상소로 아뢰옵니다. 자고로 충신은 죽어서도 그 나라와 임금을 잊지 못한다 하였거늘 이제 소신도 림종을 당하여 다시한번 충간을 드리는바이옵니다. 시세의 추이를 보건대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큰 병란이 터질것으로 아오니 병사를 바

로 다스리자면 먼저 지세의 여부를 잘 알아두어야 하는 법이오이다. 병란을 당하면 그때는 상류에 자리를 잡고 적을 막아야만 가히 강토의 안전을 보장할것이니 적이 만일 륙지로 쳐오는자가 있다면 숯재(탄현)를 넘지 못하게 막을것이며 수로로 오는자가 있으면 기벌포언덕에서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숯재와 기벌포의 천험에 의거한다면 능히 어떠한 대적도 막을것이오이다.》

성충은 이같이 혈서를 남긴 후 역신의 루명을 쓰고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한채 말라죽었다.

성충의 피의 유서는 가장 훌륭한 대안이였다. 하지만 이때에도 의자왕과 그에 붙어먹는 대신들은 그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후 3년간 백제에서는 왕이 주색에 빠지니 백성들도 도탄에 빠지였으며 별의별 해괴한 일들이 다 나타났다고 한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의자왕 19년 한해만 해도 2월에는 아직도 날씨가 풀리지 않아 싸락눈이 내리고있는데 난데없는 큰 여우떼가 궁중에 몰려들어 그중 흰여우 한마리는 상우로 올라가앉았는가 하면 4월에는 암닭과 참새가 교미를 하고 5월에는 사비하에 사람보다 더 큰 서발짜리 물고기가 떠올랐고 8월에는 열여덟자나 되는 녀인의 시체가 강복판으로 내려왔으며 이듬해 2월에는 수도 사비성의 우물물이 어인 일인지 갑자기 피빛으로 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나라에 큰 변고가 일어날 징조라고 아우성을 쳐댔다.

또 어느날에는 흉물스런 귀신이 궁중에 나타나 큰 입을 벌려 《이제 백제가 망한다.》하고는 땅속으로 사라졌다는것이다.

의자왕이 너무도 괴이쩍어 그 땅속을 파보게 하였더니 거기에서 거부기 한마리가 나타났는데 잔등에 《백제는 둥근달이요, 신라는 초생달》이라고 써있었다고 한다.

유능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이여 물어보니 둥근달은 기울어지는것이요, 초생달은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둥그래진다는것이다. 그러니 백제는 망해가는 신세라고 하였다. 의자왕은 화가 치밀어 그

무당을 죽이고 다른 무당을 끌어들여 물으니 그는 둥근달은 현재 성하다는것이고 초생달은 아직 미약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 그렇겠지.》

의자왕은 또다시 놀이에 빠져버리였다. 그러던 660년 7월 신라와 당나라련합군이 백제로 쳐들어왔다.

성충의 예언은 틀림이 없었다.

적이 들어오는 로정까지도 모두 그대로였다. 신라와 당군이 침입하면 평원광야에서 맞아야 하며 숯재, 기벌포는 천연요새로서 군사 한사람의 방비로 능히 만명의 적병을 당할것이니 여기에서 막되 특히 적이 곤난할 때를 타서 역습하면 불피코 이길수 있다고 한 성충의 충간이 이제야 의자왕의 머리를 무겁게 쳤다.

《오, 성충! 어찌 내 경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이 꼴이 되였을고…

후회로다. 내 성충의 충성된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때늦은것이였다. 벌써 백제의 운명은 결정지어져있었다.

계백을 비롯한 의로운 장수들이 죽기를 맹세하고 황산벌에서 적을 막아나섰지만 신라와 당군은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백제의 아들들은 적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싸워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의자왕의 궁녀들도 자결을 각오하고 백제의 넋을 지켜 검푸른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

백제의 수도인 부여에 흐르는 백마강기슭에는 부소산이라는 봉우리가 뿌리를 내리고있었다. 소정방을 괴수로 하는 당나라군이 불의에 기여들자 의자왕은 태자와 함께 도망을 쳤으나 궁녀들은 갈 곳도, 돌봐주는이도 없는 몸들이였다. 그러나 그들도 백제의 물을 마시고 자라났기에 적의 품으로 기여들수는 없었다. 궁녀들은 의논끝에 부소산벼랑으로 올라 깨끗한 넋을 백마강물속에 던졌다. 이때로부터 그곳을 《락화암》이라 불렀고 꽃처럼 떨어진 궁녀들의 령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절간을 지었다고

한다.

당시 의자왕이 얼마나 포악무도하였는가는 고란정의 샘을 길어오게 한것을 보고도 알수 있다. 고란사결에는 고란정이라는 정갈한 샘이 있었는데 상록고사리부류의 하나인 고란초라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있었다. 의자왕은 날마다 궁녀들을 시켜 백년을 해로한다는 이 고란정의 물을 떠다 마시였다. 그런데 그 길이 몹시 험하여 맥이 진한 궁녀들은 오르다못해 다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바치는 때가 있었다. 의자왕이 이것을 알게 되여 대번에 노한 어명이 떨어졌다.

《고얀년들!… 이제부터는 고란정의 물을 떠올 때 싱싱한 고란초를 띄워오도록 하라!》

이렇게 천대속에 살던 궁녀들이였지만 백제의 넋은 버릴수 없어 락화암에서 자결로 항거하였던것이다. 이때 궁녀들의 수가 3 000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진시황이 아방궁에 3 000의 궁녀를 두었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였다고도 한다. 이것만 보아도 의자왕을 비롯한 부패한 봉건군주들의 사리사욕과 포악성, 그들이 누린 부귀영화에 대하여 알게 된다.

성충은 이렇게 의자왕과 간신들의 박해로 생명을 잃는 마지막순간까지 나라를 지킬 방책을 구하였고 백제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것을 원치 않았다. 물론 그의 애국의 뜻이란 어디까지나 충군사상에 기초한것이였다.

황산벌에서 최후를 마친 계백

가을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는데 몇몇 고관대작들이 후궁정자에 모여앉았다.

그들의 모습들은 하나같이 근엄하였고 깊은 시름에 겨워있었다.

주색으로 날이 가는지 오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제의 의자왕을 두고 숱한 충신들이 간을 올리였으나 도리여 성을 낼뿐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들리는 소문은 당나라와 손을 잡은 신라군이 쳐들어올 준비를 한다는데 의자왕은 나라방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수천의 궁녀에 에워싸인채 해가는지 모르고 풍월속에 세월을 보내니 과연 난사는 난사였다.

좌평 성충이 깊은 한숨을 내쉰다.

달솔 계백이 입을 떼였다.(달솔은 백제의 16품 관직중에서 2품에 해당하는 관직)

《상감께서는 옛날과는 아주 달라지셨소. 아마도 이건 임금님의 턱밑에 붙어사는 후궁들의 작간인줄로 아오.》

《아니 글쎄 신라와 당군이 들이친대도 상감께서는 날마다 주악과 계집들만 끼고계시니 이 일을 어디에다 하소하면 좋겠소.》

좌평 흥수도 한마디 끼웠다.

신중한 론의끝에 그들은 그래도 나이로 보나 품위로 보나 누가 감히 다칠수 없는 좌평 성충이 왕에게 아뢰여 일깨우기로 하였다.

하지만 성충은 극간을 올렸다가 도리여 옥에 갇히여 말라죽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의자왕은 더욱 승기가 나서 더 큰 놀이터를 마련하기 위해 새 궁궐을 짓도록 명했다.

충신들이 아무리 말리여도 도대체 그의 귀에는 마이동풍이였다. 오직 고운 계집의 얼굴과 향기로운 술이 넘쳐나는 놀이터만 안

겨들뿐이였다. 어디서 인물맵시 잘났다는 말만 들리면 귀천을 가림이 없이 군졸들을 풀어 잡아들이였다.

놀이터를 또 짓는다는 말에 계백이 더는 참을수가 없어 의자왕앞에 나섰다.

《놀이터보다도 그 비용으로 국력을 길러야 한다고 보나이다. 그래야 후날 백제사람들이 상감의 은덕을 전할것이 아니오이까?》

의자왕은 분노하여 계백을 당장 잡아들여 죽여버리고싶었지만 그럴수는 없었다.

계백은 백제의 유명한 장수이기에 그를 없애버리면 군사를 통솔할 무관이 없게 된다. 그러니 분을 삭일수밖에 없는것이였다.

굶주림과 고역에 시달린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갔지만 의자왕의 대궐에서는 흥겨운 풍악이 날에 날마다 터져나왔다.

660년 끝내 일은 터지고야말았다. 당나라와 손을 잡은 신라군이 백제로 쳐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급해맞은 의자왕은 대신들을 불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라고 다그어댔다.

여러명의 고관들이 저들의 생각을 의자왕에게 아뢰였으나 그게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 그는 도무지 생각을 종잡을수 없었다. 아직 술이 덜 깬때문인지 아니면 너무도 급작스런 변란에 기가 눌린때문인지…

문득 충간을 올렸다 하여 귀양을 보낸 좌평 흥수에 생각이 미쳤다.

《빨리 흥수에게 가서 물어보라.》

의자왕은 신하를 급히 보내였다.

흥수도 역시 성충이 권고한바대로 금강과 탄현을 막으라고 한다.

그런데 또 일부 신하들은 의견이 달랐다.

《귀양간 흥수이니 상감을 원망하여 좋은 꾀를 내지 않았을것이오이다.》

들어보니 그것도 그럴듯한것이였다.

이때 달솔 계백이 나섰다.

《성충이 남긴바대로 흥수의 의견을 좇으면 가장 상책일것이

오이다.》

그사이에도 급보는 또 날아들었다. 총 13만의 륙군과 수군으로 편성된 당나라군사는 서쪽에서 금강을 거슬러오고 신라군은 탄현을 거쳐 황산벌로 달려든다고 한다.

맥을 잃은 의자왕은 모든것을 계백에게 맡겨버리였다.

《나는 장군만을 믿소. 나라의 운명은 이제 장군의 손에 달려있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막아주오.》

의자왕은 눈물로써 하소하였다.

당시 신라와 당나라는 서로 련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후 대동강이남은 신라가 차지하고 그보다 훨씬 넓은 이북지역은 당나라가 통솔한다는 침략적인 《비밀협약》을 맺었다.

사실 당나라는 신라와 손을 잡는척 하지만 실속은 딴데 있었다.

백제와 신라가 싸워 맥이 빠진 다음 두 나라를 함께 먹어치워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교활한 속심이였다. 하지만 신라는 이런 내속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큰 나라인 당나라를 등에 업고 개꿈을 이룰 더러운 령토확장야망에 눈이 뒤집혀 동족의 나라인 백제를 먹기 위한 배족의 길에 들어섰다.

신라의 김유신은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이였고 5만의 신라군을 이끌어 백제의 천연요새인 탄현을 거쳐 황산벌로 달려들었다.

계백은 5 000명의 군사들로 결사대를 뭇고 신라군이 들어오는 동쪽을 맡아나섰다.

싸움터로 떠나기에 앞서 계백은 잠시 집에 들려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들을 만났다. 그들을 바라보는 계백은 백년을 함께 화목하게 살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일국의 군사로서 당나라와 신라의 대병과 부딪치게 되였으니 나라의 존망을 기약할수 없다. 나의 처자가 적에게 사로잡혀 노예로 될가 념려되니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것보다 차라리 내 손에 죽는것이 나을것이다.)

계백은 죽음을 각오한것이였다.

그는 큰 칼을 번쩍 쳐들어 그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그자리에서 부인과 자식들의 목숨을 끊어버리였다. 귀여운 자식이고 사

랑하는 부인이다. 그랬으나 계백은 잡다한 마음을 일시에 털어버리고 말에 올라 전장으로 달렸다.

황산벌에 도착한 계백은 군영을 설치한 후 군사들앞에 나섰다.

《이제 적은 기필코 우리를 먹으려 달려들것이다. 너희들중에 진정 나와 함께 나라위한 싸움에 목숨바칠 군사들은 앞으로 나서라.》

피끓는 백제의 아들들이 저저마다 창과 칼을 들고 따라섰다. 계백은 결사의 각오를 가진 이들 5 000의 결사대원들에게 다시금 기운차게 웨쳤다.

《옛날 월왕 구천은 5천명의 군사로써 오나라의 70만대군을 격파하였으니 오늘날 우리들은 각자가 분발하여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것이다.》(월왕—중국의 춘추시대 B.C. 5세기경 월나라왕인데 그는 오나라와 싸워 전멸당한 후 10년만에 다시 싸워 끝내 원쑤를 갚고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드디여 김유신이 이끈 5만의 신라군이 황산벌에 나타났다.

5만과 5천, 10대 1의 대격전이 벌어졌다. 수적우세만을 믿는 신라의 김유신은 제놈의 더러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피를 나눈 혈육의 머리우에 검은 칼을 사정없이 들이대였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일떠선 5 000의 백제 결사대를 쉽게 당해낼수가 없었다.

철릭을 휘날리며 군사들의 앞장에 선 계백은 그대로 백제군의 기치였다.(철릭=천릭—무관이 입던 옷의 한가지.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는데 벼슬에 따라 남색과 붉은색이 있다.)

첫 싸움에서 신라군은 패하여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신라군은 력량을 수습하여 다시 달려들었다.

계백은 적진을 종횡무진하며 수많은 적의 머리를 베여버리였다. 황산벌은 군사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다.

피어린 싸움은 네차례에 걸쳐 벌어졌지만 신라군은 그때마다 패하는 신세가 되였다.

싸움으로 날이 가고 해가 저물던 어느날 좌평 성충의 아들인 웅이 계백의 진막에 나타났다.

《그대는 뉘 자손인가?》

계백이 그를 뜯어보며 물었다.
《좌평 성충의 아들 웅으로 아뢰오.》
성충이 옥중에서 말라죽을 때 림종을 앞두고 나라일이 너무도 가슴에 걸려 후일을 맡길만한 인물로 계백을 만나 마지막부탁을 하려 했으나 그가 옥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숨이 진 뒤였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사지판에 계백을 찾아왔으니 과연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였다.
계백은 웅의 손을 억세게 틀어쥐였다.
의자왕의 횡포한 처사로 아버지가 억울하게 세상을 하직한 후 그 역시 나라의 안전을 위해 일을 하려다가 왕의 군졸들에게 부상을 입고 시골에 내려가있던중이였다.
그런데 황산벌에 침략자들이 쳐들어왔다니 더 누워있을수가 없어 헤여지기 싫어 눈물을 흘리는 약혼녀 혜영이를 산촌에 남겨놓은채 밤낮으로 말을 몰아왔던것이다.
웅의 뒤를 이어 백제의 방방곡곡에서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백제의 아들들이 계백을 찾아와 죽기를 각오하는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한편 신라군 장막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싸움마다에서 패한데다가 계백을 따라 결사적으로 막아서는 백제군의 기세에 위압을 느꼈던것이다. 장수들은 신묘한 방책이 떠오르지 않아 속을 조이고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제군사들의 용맹을 어떻게 누를것인가, 우리 군사들의 가슴에 어떻게 불씨를 지펴야 할것인가?…)
신라군의 장군인 품일은 동생인 흠춘과 의논하고 조카인 반굴을 단신으로 백제진영에 돌입시켰다. 백제군사들은 그를 단칼에 베여버렸다.
이를 본 신라군사들이 웅성대기 시작하였다.
품일은 이번에는 제 아들인 관창을 백제군진지로 출동시켰다.
계백은 뒤미처 쳐들어온 관창을 보자 불현듯 신라군의 계교를 알아차렸다.
그는 관창을 사로잡게 하였다.

계백이 투구를 벗겨보니 애어린 소년이였다.
생각에 잠겨있던 계백은 관창을 그대로 돌려보내였다.
그러나 진지로 돌아갔던 관창은 하루를 못지나 다시 장검을 빼여들고 백제군진영에 돌입하였다. 또다시 사로잡았다가 돌려보냈으나 역시 관창은 단신으로 덤벼드는것이였다.
백제의 군사들은 관창의 목을 베여 그의 말에 달아 신라군진지로 보내였다. 순간 신라군의 대오는 술렁대기 시작하였다. 품일이 노린것이 바로 이것이였다.
신라군의 군졸들이 이름못할 울분에 휩싸여 물밀듯 백제군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정의는 역시 백제의 편에 있었다.
《황산벌에서 백제사나이들의 기개를 떨치자! 원쑤를 용서없이 쳐갈기자!》
계백의 소리높은 열혈의 호소가 백제군의 진중에 울려퍼졌다. 노도의 합침과도 같은 격전의 그 순간 싸움터를 가르며 백제군진지에서 백마에 흰옷을 입은 자그마한 몸집의 군사가 살같이 적의 무리를 가로질러가는것이 눈에 띄웠다. 잠시후 흰옷 입은 백제군사는 신라군에 에워싸여 보이지 않았다. 전장을 예리한 눈초리로 지켜보던 계백은 조용히 뇌이였다.
《가엾도다, 백제의 넋이여. …》
부하를 사랑하는 계백의 한숨이였다.
신라군은 저들의 진지에 뛰여들었던 그 군사를 그의 백마에 실어 백제군진지로 보내였다.
백제군사들이 말에서 시체를 받아 군막앞에 정히 내려놓았을 때 계백도 군사들도 한순간 아연실색하였다. 그는 섬약한 녀성의 몸이였다.
이때 한 군사가 급히 달려나오며 시체를 와락 그러안았다. 성충의 아들이며 계백의 용감한 부하인 웅이다. 웅의 가슴은 터질듯 하였다.
《아, 사랑하는 혜영이! 눈을 좀 뜨구려. 천년을 같이 살자 하더니 이렇게 먼저 간단 말이요!…》
일관(나라의 길흉과 기상천기를 알기 위해 점치는 일을 맡아보는 벼슬)을 지내던 최일의 딸이다. 대바른 최일 역시 성충처

럼 나라일을 걱정하여 점괘로 의자왕의 주색을 말리려다가 생죽음을 당하였다.

혜영은 웅을 알게 되여 시골에서 부상당한 그를 돌봐주고있었다. 그는 웅이 전장으로 달려나가자 자신도 나라를 구하고 사랑하는이와 운명을 같이할 굳은 마음으로 말을 몰아 백제군진지로 왔던 것이다.

백제군사들은 두주먹을 틀어쥐였다.

《나가자, 나가 싸워 죽기로써 나라를 지키자!》

《혜영의 원쑤를 갚자!》

의분에 참을길 없는 백제군사들은 분노를 힘으로 바꾸어 신라군진지를 들이쳤다. 노호한 계백이 소리높이 웨쳤다.

《군사들! 살기를 바라지 말라. 살아 치욕을 당하느니 백제를 위하여 용맹을 떨치자!》

계백은 말을 몰아 선두에서 적진으로 육박하였다.

창공을 진감하는 백제군사들의 함성은 신라군을 당황케 했다. 드디여 분노와 분노가 부딪쳐 더 큰 분노를 낳고 류혈이 류혈을 빚어내는 맹렬한 최후결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신라군의 수는 너무도 엄청난것이였다. 신라군은 사방에서 압박하며 조여들었다. 적진에서는 비오듯 화살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계백은 원쑤의 머리를 베고 또 베였다.

이때 화살 하나가 계백의 가슴에 박혔다. 뒤미처 또하나의 살이 등에 날아들었다. 계백은 그만 말우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검을 쥐려는데 어느새 신라군사들의 칼이 어깨에 와닿았다.

계백은 애석하게도 황산벌에 피를 쏟으며 쓰러지고말았다.

계백의 장렬한 최후는 곧 백제의 종말로 이어져 근 1000년의 력사를 자랑하던 백제는 마침내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고말았다. 의자왕은 태자와 함께 적군에 손을 들었고 3천 궁녀들은 락화암절벽에서 꽃잎마냥 백마강에 몸을 던지였다.

계백이 황산벌에 잠든지도 어느덧 천수백년이 지났건만 력사와 인민들은 나라위한 싸움에 한몸바쳐나섰던 그를 잊지 않고 애국명장으로 부르고있다.

신라의 박혁거세

먼 옛날 진한(경주지방)땅에는 알천 양산촌, 돌산 고허촌, 무산 대수촌, 취산 진지촌, 금산 가리촌, 명활산 고야촌 등 6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의 조상이 보통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봄날 이 여섯마을 우두머리들은 자기의 아들딸들과 마을백성들을 거느리고 경주땅 알천뚝우에 모여앉아 마을을 합치는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는 앞으로 자기들의 왕이 될만한 인물을 찾아내여 나라를 세울데 대하여 의논하였다.

먼저 여섯마을의 합동문제를 순조롭게 합의한 이들은 이어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그다음 긴급한것은 우리들을 다스릴분을 모시는것인줄로 아오.》

어느 한 마을의 우두머리가 무게있게 서두를 떼놓았다.

《물론이지요. 여섯마을을 훌륭히 통솔해나갈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 우리 여섯마을이 말썽없이 화목하게 살수 있을게 아니겠소.》

생각들은 같았으나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구하는가가 문제였다. 당장 그런 인물이 없어 모두들 자기들의 힘을 모아 그런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겠다고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당장 궁리가 나지 않아 뚝 높은 곳에 올라 남쪽땅을 바라보느라니 이상하게도 갑자기 천지가 환해지면서 양산아래 라정이라는 우물곁에 알지 못할 휘황한 한줄기 빛이 진하게 드리워져있는것이였다.

그 빛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면서 오색령롱한 기다란 막을 내

린듯이 아름답기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빛은 점차 천지를 환하게 비치였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여섯마을의 우두머리들은 너무도 갑자기 일어난 신비로운 광경에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그들은 다급히 우물가로 달려가보았다. 그랬더니 우물가에는 지금까지 자기들은 보지도 못한 커다란 흰말 한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시늉을 련속 해대는것이였다.

《아니, 저게 말이 아니요?》

《글쎄 말은 틀림이 없는데 이상한 일이 아니요.》

그런데 더우기 이상스러운것은 이들이 우물가에 가닿자 오색찬란하던 빛은 금시 사라지고 말은 사람들을 보자 급히 울음소리를 길게 내면서 하늘로 날아올라가버리는것이였다. 사람들이 우물주위를 살피니 보라빛 알 한개가 있을뿐 주위는 전과 다름없이 고요하였다. 알을 들어 이리 보고 저리 보던 그들은 그것을 깨여보기로 하였다.

그들이 힘을 합쳐 알을 쪼개니 그속에서는 단정하고도 잘 생긴 사내아이가 나왔다.

사내아이는 알속에서 나오면서 머리를 곧추 쳐들며 《알지 거슬한》하고 큰소리를 내였다.

그들이 알속의 사내아이를 동쪽샘물에 정히 씻어주었더니 금시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주위의 새와 짐승들이 일시에 춤을 추었으며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도 여느때와는 달리 유난히 밝게 비치는것이였다.

《이 아이는 하늘에서 우리 여섯마을을 위하여 보내온것이 틀림없소.》

여섯마을의 우두머리들은 모두가 머리를 조아렸다.

《옳소, 우리들의 어른으로 받들어모십시다. 하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내려보낸 어른이 분명하오.》

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왕(불구내왕이라고도 하는데 광명으로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하였고 임금의 칭호는 《거

슬한》(거서간)이라고 붙이였다.
갈은 날 이들은 또하나의 경사를 맞이하였다. 그것은 혁거세의 천상배필로 되는 부인도 맞은것이다.
그날 사량리 알영우물가에 계룡이 나타나더니 왼쪽 겨드랑이에서 계집아이를 낳았는데 그 생김새가 이를데없이 아름다왔다. 그런데 옥같이 귀여운 계집아이는 입술이 마치 닭의 부리와 같았다.
마을사람들이 그를 조심히 안고 월성북쪽 내가에 가서 정성을 다해 씻어주었더니 닭의 부리는 떨어져나가고 새빨갛고 고운 입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그날에 생긴 신비스러운 경사를 크게 기뻐하며 사내아이는 알에서 나왔기에 알과 비슷이 생긴 박과 련관시켜 《박》가 성을 붙이였고 계집아이는 우물이름을 그대로 따서 알영이라고 명하였다.
그후 사람들은 두 아이들을 위하여 남산서쪽기슭에 화려한 궁전을 세우고 지성껏 받들어모시였다.
두 아이는 이들의 정성에 받들려 무럭무럭 자라났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즐기면서 무탈하게 커갔다.
드디여 그 아이들이 13살이 되던 해 이곳 사람들은 사내아이를 왕으로, 계집아이를 왕후로 삼고 나라이름을 《서나벌》(서벌, 계림, 사로)이라고 정하였다.
이 이야기가 바로 신라건국설화이다. 이때는 B.C. 57년에 해당한다.
이야기는 물론 자기들의 왕조를 신비화하기 위하여 과장된 사실들을 넣어 꾸민것이다.
전설은 고조선계통의 이주민들과 경주지방사람들에 의하여 신라이전에 사로소국이 형성된 사실을 반영하고있다.
박혁거세는 여기에서 주동이 된 인물로 보아야 할것이다.
신라는 노예소유자국가인 진국의 구성부분인 진한의 12국가운데 하나였던 사로국이 진한안에서 봉건세력으로 장성하면서 B.C. 1세기 초엽에는 봉건소국으로, A.D. 1세기 초중엽에는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성립된 나라이다.
수도는 경주였다.
신라는 성립후 이웃한 소국들을 통합하고 점차 강화되였다.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벼농사를 비롯한 농업이 발전하였는데 이에 따라 관개수리사업도 널리 벌리였다.
또한 수공업이 발전하였고 특히 귀금속재료는 그 질이 매우 좋았으므로 은은 페르샤(이란), 운남(중국) 등의 은과 함께 높이 평가되였으며 동은 종의 주조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인정되였다.
이와 함께 고급비단, 질좋은 질그릇, 가죽제품 등을 많이 생산하였다.
또한 기상, 천문학, 건축술 등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
신라의 과학기술은 이웃한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
신라에서는 국내상업은 물론 대외상업도 발전하였다.
신라의 봉건통치배들은 6세기 초중엽 가야국을 통합하고 백제의 령토였던 한강류역일대를 차지하면서부터 령토확장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신라의 통치배들은 령토팽창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국력을 강화하는 한편 당나라세력을 끌어들이였다.
당나라군과 련합하여 신라는 660년에는 백제를 그리고 66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신라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는 력사발전에 막대한 부정적후과를 미치였다.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던 고구려에 의한 세 나라의 국토통일을 파탄시키고 대동강이북의 광대한 령토를 잃게 하였으며 세나라 령토가 외세의 군마에 짓밟히게 함으로써 민족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다.
지배계급에 의한 착취의 강화와 통치배들의 사치생활, 도덕적부패는 신라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격화시키고 봉건통치계급의 정치적몰락을 촉진시켰다.
특히 봉건통치배들의 왕위쟁탈전은 극도의 무리를 산생시

켰다.

8세기 중엽부터 9세기초에 이르는 70여년간만 보아도 통치집권내부의 추악한 정권쟁탈전으로 하여 제명을 산 왕은 거의 없었고 여러명의 왕이 꼬리를 물고 교체되였다.

이러한 정권쟁탈전은 국력을 극도로 쇠약케 하였으며 인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만갔다.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나자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려는 봉건귀족세력들이 그에 편승하였다.

9세기 후반기에만도 전국적으로 20여개 농민군이 활동하였는데 그 투쟁성과는 폭동군대렬에 우연히 끼여든 신흥봉건세력의 대표자들인 궁예와 견훤에 의해 도용되였다.

이 어부지리한 성과에 토대하여 견훤은 후백제를, 궁예는 태봉국을 세우고 각각 그 왕으로 되였다.

918년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다.

이미 형세가 기울었음을 깨달은 후기신라의 마지막왕인 경순왕이 왕족을 거느리고 고려에 항복함으로써 신라는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다.

나라의 명예를 지켜 목숨바친
박 제 상

가을날의 풍성한 열매는 산과 들을 덮었고 오곡을 걷어들이는 농민들의 건드러진 노래가락이 벌마다 넘치는데 대궐에서는 눌지왕의 등극을 축하하여 성대한 잔치가 열리였다.

기름진 안주에 향기로운 술이 잔마다 철철 넘쳐 여러곱배 돌아가고나니 좌중은 취흥에 흥성거리였다.

요란한 풍악이 울리고 궁녀들이 비단치마자락을 날리며 춤을 추어대는데 궁중의 문무백관들과 호걸들은 저저마다 눌지왕에게 례를 표하며 왕좌에 오른 그를 추슬러올리는것이다.

모든것이 흥겨웁고 눌지왕도 어지간히 취기가 올랐지만 어쩐지 그의 안색은 좋지 못하였다. 어느결에 룡상에서 슬며시 일어나 그는 먼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목숨들이나 붙어있는지?…》

혼자소리로 말끝을 맺지 못한다.

신하들도 어인 일이냐싶어 모두가 일어섰으나 잠잠해있을뿐이다. 이윽고 눌지왕이 입을 열었다.

《그전 선왕께서 나라일을 걱정하시여 미해로 하여금 왜나라를 방문하게 하였고 또 이웃나라 고구려가 화친을 맺자고 하기에 보해로 하여금 그 나라를 례방케 하였더니 두 나라는 그들을 잡아두고 보내지 않는구나. 내 비록 부귀는 누린다고 하나 일찌기 하루도 그애들을 잊어버리거나 울지 않는 날이 없었거늘 만일 두 아우를 다시 만나게 되여 함께 부친의 사당에 참례라도 하게 된다면 과인은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을 평생 잊지 않을터이니 누가 능히 이 일을 모색해서 성공할수 있겠느냐?》

눌지왕의 목소리는 서글픔으로 하여 가늘게 떨리였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지고 취기는 금시 가시여졌다.
서한발이 나서며 아뢰였다.
《대왕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뛰여난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하느니만큼 조정의 대신중에는 적임자로 지목할만한 인물이 없소이다.》
그러면서 그는 수주촌장을 지내는 벌보맡과 일리촌장 구리내, 리이촌장 파로들이 대가 바르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있으니 그들과 문의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 세사람을 즉각 불러 물으니 그들은 하나같이 아뢰인다.
《삼량군 태수로 있는 박제상이 그 중임을 능히 감당할가 하오이다.》
그리하여 박제상은 왕명을 받고 궁궐로 향하였다.
박제상이 활동하던 5세기 중엽 세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대립되여있었고 교활한 왜나라는 이 틈을 타서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402년 나물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세 아들들은 아직 어리였으므로 김알지의 후손이며 이찬(제2벼슬등급) 대서지의 아들인 실성이 왕위에 올랐다. 실성은 나물왕시기 고구려에 인질로 갔던 몸이라 은근히 그 아들들을 미워하였다.(김알지—박혁거세, 석탈해와 더불어 신라 초기 세 왕족성씨의 기원에 관한 인물들중의 하나.)
실성왕이 즉위한지 얼마후 왜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여왔다.
《저의 임금은 대왕이 신성하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을 보내여 백제의 죄상을 대왕에게 고해바치라고 하시더이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왕자 한명을 보내여 우리 임금에게 성의를 표시해주시옵소서.》
왜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한 실성왕은 선왕의 셋째인 미해로 하여금 그를 방문하게 하였다. 이때 미해는 겨우 10살밖에 안되는 어린 소년이였다.

《큰형, 작은형, 내 인차 돌아올게. …》

애처로운 눈물이 삼형제의 볼을 타고 내리였다. 맏이인 눌지는 15살, 둘째인 보해는 13살이다. 그들 둘은 작은 손을 놓지 못한채 멀어져가는 배를 원망할뿐이였다.

그런데 속이 딴데 있는 왜왕은 미해를 인질로 붙들어놓고 17년간이나 돌려보내지 않았다.

412년 고구려 광개토왕이 신라에 국서를 보내여왔다.

《선왕의 둘째아들 보해가 지혜와 인품이 뛰여났다고 하니 그와 사귀여보고싶소. 사신을 보내오니 량국의 친교를 위해 보해를 보내주길 바랄뿐이요.》

그리하여 보해 역시 고구려로 떠나게 되였다.

눌지왕은 두 동생을 다 잃은것으로 하여 가슴이 터져왔으나 어찌할수가 없었다.

강대국 고구려의 말을 물리칠수도 없는 일이였다.

보해도 몇년이 지나도록 소식 한장 없었다.

아우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세월을 보내던 눌지가 드디여 룡상에 앉았다.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던 눌지왕은 진귀한 물품이 생겨도, 희귀한 음식이 생겨도 동생들과 나누고싶은 생각에 가슴이 저려오군하였다. 그리하여 기쁜 날이지만 이 가슴아픈 사연을 신하들앞에 내놓았던것이다.

박제상으로 말하면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후손이였다. 아버지인 물품은 이 시기 왜구들이 신라에 기여들었을 때 큰 공을 세운 이름난 무관이였다.

아버지의 엄격한 교양을 받은 박제상은 어려서부터 뜻이 높았고 특히 왜구들을 미워하였다. 때문에 태수라는 그리 높지 않은 자리에 있었어도 정사를 잘하여 그 이름은 널리 알려져있었다.

임금의 이야기를 듣고난 박제상은 기꺼이 대답해나섰다.

《소신이 듣건대 옛글에 〈임금이 걱정을 하게 되면 신하로서 욕으로 되는것이요, 임금이 욕을 보게 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

하였으니 만일 일의 어려움과 쉬움을 가려서 실행한다면 그것은 충성치 못하다고 할것이요, 죽고사는것을 따져본 뒤에 행동한다면 그것은 용맹스럽지 못하다 일러야 할것이오이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변변치 못하오나 임금님의 령을 받들어 기어이 해내고야말겠소이다.》

임금은 너무 기뻐 즉시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나마(11번째 등급)의 벼슬을 내리였으며 직접 술을 따라 권하였다.

《부디 나의 원을 풀어 아우들을 만나게 해주오.》

박제상은 그 길로 북행길에 올랐다.

고구려 국내성에 들어간 그는 공관에 살고있는 보해를 만났다. 보해는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랐다.

울며 웃으며 온밤 회포를 나눈 그들은 만약의 경우 도망칠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다음날 박제상은 장수왕을 찾아들어가 눌지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박제상은 광개토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장수왕에게 신라, 고구려 량국은 지경을 같이하고 지내니 신의로써 교제한지 이미 오래고 옛날부터 형제사이는 혈육간이라 떼여놓을래야 놓을수 없다는것을 조리있게 엮어나갔다.

《북방의 강국인 고구려가 신라의 왕제를 약속한바대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것은 대국으로서 취할바 행동이 아니며 혈육간을 억지로 떼여놓는것은 인륜에 어그러지는것이오니 대왕의 도리가 아니올소이다. 보해를 신라에 보내주신다면 임금의 형제간 정을 다시 맺어주므로 대왕님의 덕은 하늘에 닿을것이고 고구려는 아홉마리의 소에서 털 한오리 빠진셈으로 손해될것이 없다고 보나이다.》

장수왕은 박제상의 의젓한 인품과 사리정연한 말솜씨에 내심 모든것이 옳다고 수긍하였다.

그러나 일부 대신들이 이를 반대해나섰으므로 그 송환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시일을 끌게 되였다.

박제상은 애타게 기다릴 눌지왕을 생각하니 잠시라도 늦출수가 없어 보해와 미리 작정한대로 달골포구에서 비밀리에 만나 신

라를 향해 노를 저어나갔다.
바람결도 이들의 길을 재촉하여 등을 밀어주었다.
이리하여 박제상은 보해를 데리고 왕궁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6년만에 그리운 동생을 그러안은 눌지왕의 마음은 무등 기뻤다. 성대한 주연이 베풀어졌다. 하지만 눌지왕의 얼굴에는 또 근심이 서리였다. 보해를 만나고보니 미해의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 기쁜 날도 지금 과인은 한몸뚱이에 한쪽팔만 있고 한얼굴에 한쪽눈만 있는것 같소. 비록 하나는 얻었으나 또 하나가 없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소. …》
박제상은 곧바로 일어났다.
《소신이 이 길로 왜나라에 건너가 미해님을 모셔오겠소이다.》
《아니 집에서도 기다릴터인데 며칠 쉬지도 않고 떠나겠다니 그 무슨 말이요?!》
왕은 박제상을 눌러앉히였다.
《아니옵니다. 상감마마의 어명을 받은 몸이 어찌 편안하기를 바라겠나이까.》
박제상은 안해와 가족들을 만나보고 떠나라는 왕의 당부도 마다하고 곧바로 률포바다가로 나갔다.
박제상이 어서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던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포구로 달려나갔으나 이미 배는 닻을 올린 후였다. 갑판에 선 박제상이 부인을 향해 가벼이 손을 흔들뿐이였다. 멀어져가는 그 손짓도 점차 알릴듯말듯 하였다.
(부디 몸성히 돌아오시기를 바라나이다.)
부인은 끝없이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다.
이윽고 배는 멀리로 사라지고말았다.
왜나라에 당도한 박제상은 곧바로 왕을 찾아들어갔다.
《대왕님, 저를 구원해주소이다.
글쎄 신라왕이 무고한 저의 부형을 죽이였기에 그 화가 또 소신

에게 미칠것이 두려워 도망쳐왔나이다.》

이것은 박제상이 떠나기에 앞서 눌지왕과 미리 짜놓은 계략이였다. 왜왕은 고구려의 장수왕과는 달라 기개와 아량이 없을뿐더러 조폭하고 옹졸하였기에 박제상자신을 역신으로 몰아달라고 약속이 되여있었다.

무지막지한 폭군에게 사리를 밝힌다는것도 말이 아니며 인정을 호소한다는것도 통할리 없는 일이니 이렇게 한것이다.

궁전에 머무르게 된 박제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해를 데리고 해변가에 나가 신라에로 돌아갈 일을 꾸미였고 왜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물고기들과 새들을 잡아 바치였다.

왜왕은 제놈의 졸개들을 시켜 박제상의 진속을 알아보게 하였다.

신라왕이 박제상의 가족들을 잡아가두었다는 소식까지 얻어들은 왜왕은 그를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신라침공의 길잡이로 써먹으려고까지 마음먹었다.

어느날 안개가 자욱하고 사위가 고요한 이른새벽 박제상은 미해에게 떠날것을 이야기했다.

《나는 남아서 왜놈들이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을터이니 어서 떠나셔야 하나이다.》

그의 말은 단호하였다.

《그러면 그대는?… 그럴수가 없소. 지금 나에게 있어서 그대는 아버지나 친형과 다를바 없소. 어찌 그대를 버리고 나 혼자만 살기를 원하여 돌아간단 말이요!》

그러나 박제상의 태도는 강경하였다.

《제가 능히 왕제님의 생명을 구하여 대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면 그것으로써 자신이 할 일을 다한것이니 무엇을 더 바라겠나이까.》

박제상은 술을 따라 미해에게 권하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서 빨리 떠나기를 재촉했다. 그리고 신라사람 강구려를 시켜 미해를 따라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두사람은 눈물로 작별하였다.

다음날 아침 미해의 문안을 온 왜왕의 신하들은 그가 보이지 않자 박제상에게 왜 아직 일어나지 않는가고 물어봤다.

이에 박제상은 태연히 대답하는것이였다.

《어제 사냥에서 몹시 피로하여 아직 일어나지 못하시였소.》

그는 미해가 빠지도록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얻으려 신하들을 속이였다.

한낮이 기울어지자 신하들은 또 찾아들었다.

이미 모든것을 각오한 박제상은 이제는 미해가 퍼그나 멀리 갔을것을 짐작하고 태연히 나섰다.

《우리 왕제님은 이미 떠나간지가 오래되였소.》

이 소식을 알고 깜짝 놀란 왜왕은 급히 군사들을 바다로 내보내는 한편 박제상을 잡아들여 자신이 직접 문초를 시작하였다.

《너는 어째서 그를 몰래 보냈느냐?》

《나는 신라의 신하요, 왜국의 신하는 아니다. 나는 우리 임금님의 뜻을 성취코저 할뿐이니 구태여 더 묻지 말라.》

왜왕은 성이 불끈 치받쳤다.

《너는 이미 내 신하로 되지 않았느냐?》

아무리 달구어도 박제상이 굽어들지 않자 간사한 왜왕은 만일 자기의 신하라고만 말하면 반드시 높은 벼슬과 큰 상을 주겠다고 얼리려 들었다.

그러나 박제상은 머리를 들어 왜왕을 준렬히 꾸짖었다.

《내 차라리 계림(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로는 될수 없는것이요, 차라리 계림의 매를 맞을지언정 왜국의 벼슬과 록은 절대로 받을수 없다.》

악에 받친 왜왕은 벌떡 일어서더니 병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놈의 발바닥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벤 그루터기우를 달리게 하라.》

그래도 박제상은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민간에서는 갈대우의 벌건 자리가 있는것을 《박제상의 피》라고 하였다고 한다.

왜왕은 더욱 지독한 고문을 들이대며 박제상에게 물어댔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냐?》
《신라의 신하다.》
수십번을 곱씹어 물어왔건만 그는 낯빛 하나 변함이 없이 태연히 신라의 신하라고만 꿋꿋이 대답하였다.
악독하기 그지없는 왜왕은 이번에는 시뻘겋게 단 쇠판우에 그를 올려세우고 다시 어느 나라 신하인가고 물었다.
《나는 그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신라의 신하이다!》
박제상은 추호도 굴함없이 웨쳤다.
왜왕은 그를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알아차리고 목도라는 섬에서 불태워 죽이였다. 때는 419년이였다.
신라왕궁에서는 미해를 맞아 삼형제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기쁨을 안고 잔치를 차리였으며 서로 눈물속에 얼싸안았다.
눌지왕은 이 모든것은 바로 박제상의 덕이라고 거듭거듭 목메여 뇌이였다.
눌지왕은 박제상에게 《대아찬》이라는 높은 벼슬을 주고 부인에게는 《국대부인》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둘째딸을 미해의 안해로 맞아들이였다.
박제상의 부인은 그가 왜나라로 떠난 뒤 딸 삼형제를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 제사를 지내며 목메여 남편을 부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후세사람들은 박제상의 부인이 남편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갔으나 종시 따라잡지 못하고 모래밭우에 넘어져 길게 통곡하였다 하여 그 모래터를 《장사》(길게 통곡한 모래터)라고 불렀다.
또한 친척 두사람이 부인의 량팔을 부축하여 돌아오려고 하니 그가 다리를 뻗치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그 고장이름을 그후 《벌지지》(버티고있은 땅)라고 하였다. 민요 《치술령곡》도 나라의 명예를 지켜 목숨바친 박제상을 잊지 못해 부른 노래이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황진은 왜적에 대한 끝

없는 증오를 가지고 박제상을 추모하여 이렇게 읊었다.

대장부 나라위해
죽는다 무서우랴
죽음을 겁낸다면
대장부 아니리니

시퍼런 칼날이라도
밟고밟아 넘으리라
끓는 가마인들
뛰여들길 주저하랴

절개를 지키리라
가슴깊이 다진 마음
이 몸이 안전하길
그 어이 바랄소냐

청사에 길이 빛날
거룩할손 박제상은
죽음을 당해서도
마음 변치 않았거니

박제상은 자기 나라의 명예를 위해 고립무원한 적국의 한복판에서도 굴함없이 싸웠다.

박제상은 단 한마디의 말이면 부귀영화를 누릴수도 있었건만 이를 허락치 않고 죽음의 길을 서슴없이 택하였던것이다.

우리 민족사의 최초의 녀왕
선 덕 왕

어느날 진평왕은 뜰에 나가 뒤짐을 진채 모란꽃주위를 천천히 돌고있었다. 과연 공주의 예언은 틀림이 없었다.

《병풍의 그림을 보고 모란꽃의 향기가 없다고 하더니…》

진평왕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리고는 혼자소리로 말하였다.

《아들이 없다고 서운해할 일이 아니로구나. 공주에게 나라를 맡기여도 안심하겠다.》

지난 가을 진평왕은 당나라사신이 례물로 가져온 병풍의 그림을 어린 딸 덕만공주에게 보이였다.

그런데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볼뿐 공주는 크게 반색을 하지 않는것이였다.

그래서 진평왕이 그 리유를 물으니 공주는 생각깊게 대답을 한다.

《보기에는 탐스러우나 이 꽃에는 꽃의 생명이라고 할 향기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구, 아니 종이에 그린 꽃에서 향기가 날리 있겠느냐?》

그러자 공주는 다시금 대답하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꽃에는 본래 향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리유는 이 그림에 단 한마리의 나비나 벌도 보이지 않기때문입니다.》

진평왕은 잠시 생각한 후 아마도 화공이 나비나 벌을 그려넣는것을 잊은것이라고 딸애를 타일렀다. 그러나 공주는 조금도

주저없이 이 꽃에는 나비나 벌이 찾아오지 않음이 틀림없다고 하였다.

금년 봄 왕의 어명으로 모란꽃을 궁궐정원에 백여그루 심고 가꾸었다. 이어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였는데 과연 꽃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는것이였다.

진평왕은 공주의 지혜가 놀랍기만 하였다.

632년 진평왕은 마지막길을 떠나며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것을 서운해하면서도 맏딸인 덕만공주가 있기에 한가닥 위안을 가지였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였다.

《덕만공주, 이 나라를 너한테 맡기고간다. 부디 선왕들의 위업을 받들어 어진 정사를 베풀고 나라를 부강시켜주기를 바란다.》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자 조정에서는 왕위계승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대신들은 아무리 그러기로서니 녀자가 어찌 왕이 되겠는가 하며 은근히 반대해나섰다. 더우기 아직까지는 녀자가 왕이 된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을제를 비롯한 일부 신하들은 덕만공주가 왕이 되여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해나섰다. 그리하여 따뜻한 봄날 즉위식이 거행되였다.

신라의 25대 왕으로서 우리 나라 력사에 처음으로 녀성의 몸으로 룡상에 오른 선덕녀왕은 나라안의 모든 일을 충실한 신하들에게 맡기였다. 녀왕은 상하의 간격을 크게 두지 않고 그들의 사정을 자상히 들었으며 수인들도 직접 죄를 물어 판별하였다.

선덕녀왕은 우선 농사일에 관심을 돌리였다.

논밭에 풍년이 들어야 백성들의 살림이 펴이고 나라가 흥하게 된다고 생각하고있던 선덕녀왕은 을제를 통하여 농사일에 힘을 기울이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흉년이 든 해에는 자신이 직접 내을신공(박혁거세의 혼을 안치한 사당)에 나가 풍년을 바라는 제사를 지내였다.

선덕녀왕은 농사일을 살펴보니 날씨를 먼저 알아내여 방비대책을 미리 세우는것이 제일 좋을듯싶었다. 그리하여 녀왕은 날씨를 미리 알수 있게 하는 과학연구에 힘을 기울였다.

녀왕은 전국의 이름있는 학자들을 뽑아올리여 큰 연구집단을 뭇도록 하였으며 마침내는 천체를 관측하여 날씨를 알아내는 천문대를 세웠다. 이것이 경주에 있는 첨성대이다.

이렇게 선덕녀왕시기에 동방최대의 첨성대가 우리 나라에 세워졌다. 이것은 농사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첨성대는 화강암으로 쌓았는데 높이는 약 9m이다. 이것은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선조들의 슬기를 자랑하며 경주 인왕동에 옛모습그대로 서있다고 한다.

녀왕은 나라에 기여든 렴탐군들도 제꺽 알아내여 잡도록 하였다. 선덕녀왕의 집권시기는 세 나라가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있던 시기였다. 세 나라 통일을 념원한 고구려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638년 신라북변의 칠중성을 공격해왔다. 그리고 백제의 의자왕도 군사를 일으켜 642년 서부의 40여개 성을 함락시켜버렸다.

모름지기 녀왕이 집권한 틈을 노리였을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선덕녀왕은 지혜로 군사들의 싸움길을 알리였다. 하지만 당시 신라의 군사력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아직 약하였다. 선덕녀왕은 자력으로 군사를 키워야 한다는것을 강조했다.

원래부터 불교를 숭상해온 선덕녀왕은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황룡사앞뜰에는 9층탑이 웅장하게 세워졌다. 이 탑은 짓기 시작하여 2년만인 645년에 완공되였다. 당시 수준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규모의 탑건설은 생각도 못하였다.

이 탑은 신라 3대보물중의 하나로서 귀히 여겨졌다. 그러나 이 탑은 1238년 원의 침입으로 불타버리고말았다.

선덕녀왕에게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어느 한 마을에 지귀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역에서 말을 보는 역종이였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혼자속으로 선덕녀왕을 사모하면서 한번이라도 녀왕을 만나뵙는것이 더없는 소원이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선덕녀왕은 자신에게도 소녀시절 열두랑이라는 이와의 애틋한 사랑의 추억이 있었던지라 지귀의 소원대로 그를 만나려 하였다.

지귀는 녀왕이 만나주겠다는 꿈같은 소식에 너무도 기뻐 누데기옷이나마 깨끗이 빨아입고 영명사탑밑에서 녀왕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그만 저도모르게 잠시 잠이 들었다.

그때 그곳에 나타난 녀왕은 지귀의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그에게 자기의 금팔찌를 풀어 그의 가슴우에 얹어주었다.

지귀가 깨여나니 이미 녀왕은 떠난 뒤였다. 지귀는 팔찌를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봉건군주의 《자비심》을 선전하기 위해 봉건관료들이 꾸며낸 이야기일것이다.

선덕녀왕자신으로서는 한생을 혼자의 몸으로 국사를 돌보느라고 하였지만 그를 없애려는 시도들도 없지 않았다.

《치마두른 녀자가 국사를 보면 종당에 나라가 망하고말거요.》

이렇게 험담하며 왕의 자리를 노리고있던 비담이라는자는 끝내 녀왕을 죽이려 하였다. 그는 군사들을 명활산성에 준비시키고 새해인사를 드리는 기회를 리용하여 거사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알천이라는 신하에 의하여 비밀이 드러났다.

알천은 이것을 녀왕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녀왕곁에 서있다가 비담이 들어오면 쳐없애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647년 새해아침 비담은 처형되고말았다. 그후 선덕녀왕은 이 사건의 여운인지는 알수 없지만 얼마 안있어 생을 마쳤다.

한생을 홀몸으로 지낸 선덕녀왕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촌동생인 승만공주(진덕녀왕)에게 왕위를 물리였다.

물론 선덕녀왕이 《어진 정치》를 편다고는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봉건통치제도 그자체를 유지하기 위한것이였다. 그 역시 력대 왕들과 다름없는 군주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기 《첨성대》와 《황룡사9층탑》과 같은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건설되였다는것은 우리 선조들의 자랑이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배반한 김유신

어느날 제또래들과 군사놀이를 하여 이긴것이 너무도 장한듯싶어 아버지에게 달려간 김유신은 한참 제 자랑을 늘어놓았다.

8살때부터 말타는 법을 배워 10살에 이르러서는 칼, 창, 활을 들고 무예를 익히기 시작하였다는 김유신은 15살에 화랑으로 뽑히였다.

화랑이란 신라의 귀족청소년들로 무어진 관리후비양성단체였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것은 진흥왕시기부터였다. 그 시기 화랑의 총지도자를 국선이라 하였고 그밑에 3～8명의 화랑을 두었으며 그아래에 또 문호라는 조직을 두어 랑도를 거느렸는데 그 수는 무려 수천명에 이르렀다고 한다.(신라는 화랑집단과 관계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화주》라는 벼슬을 따로 두어 그들을 장악통제하였다.)

이들은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심신을 단련하는 방법으로 호연지기(하늘과 땅사이에 가득찬 넓고 큰 원기)를 키우는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한다.

신라의 대관료이며 한생을 전장에서 지냈다는 무관인 김유신은 595년 가야왕실의 후손으로서 신라의 진골골품에 편입된 귀족의 집안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인 김서현은 금관가야의 마지막왕인 구형왕의 손자이고 어머니 만명은 신라 진흥왕의 동생인 숙흘종의 딸이였다.

김유신은 화랑으로서 무술훈련에 힘씀으로써 신라봉건통치배

들속에서 호전적인 무관으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김유신은 그 시기 싸움판에서 두각을 나타내였다.

화랑도로서 젊은 시절 그에게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하루훈련을 끝내고나면 김유신은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그런데 그가 다닌 술집에는 천관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이틀 술집출입이 늘어가는 사이에 김유신은 천관에게 차츰 마음이 끌리였다.

그런데 그 일로 어머니로부터 되게 꾸지람을 받은 김유신은 기생 천관의 집에 발길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얼마후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탄 말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스스로가 천관의 집으로 찾아간것이였다.

뒤늦게야 술에서 깨여난 김유신은 제가 단념했던 그길로 제 말이 찾아갔다고 하여 말에서 뛰여내려 단칼에 그 목을 동강냈다. 자기의 결심을 뒤흔들리게 하였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애매한 말만 목잘리운 신세가 되고말았다.

그러나 이때도 김유신의 생각은 기생 천관에게로 가있었으니 목치는 놀음은 결국 제뺨을 친짓이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당시 수차에 걸치는 수나라침략군의 침공을 보기 좋게 쳐물리친 고구려는 그 기세가 당당하였다. 고구려는 당나라와 가까이 지내는 신라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신라가 당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인 한강류역을 막아버렸다.

고구려군의 작전에 말려든 신라군은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첫 싸움에서 크게 패하였다.

그때 35살이던 김유신이 이 길목을 열기 위한 싸움의 부장군으로 나섰다.

김유신은 제 아버지앞으로 다가섰다.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아들의 목숨이 아까와 선뜻 허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유신은 《큰 공》을 세워볼 생각으로 기어이 혼자결심으로 출전하고야말았다. 이 싸움에서 《공》을 세운 김유신은 벼슬이 상장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김유신은 신라의 상층귀족의 대표자로서 매부인 김춘추와 한짝이 되여 647년 오랜 문벌귀족들을 제거하였다. 그 얼마후에는 김춘추(태종무렬왕)를 왕자리에 들여앉히고 자기는 왕의 가장 위력한 신하로서 활약하였다.

김유신은 저들의 령토확장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나라세력까지 끌어들이는 매국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이미 고구려에 의하여 마감단계에 이르렀던 삼국통일의 위업을 좌절시키는 죄악을 범하였다.

김유신은 손가락을 깨물어 김춘추와 서로의 피를 나누어 마신 후 백제침략의 길에 올랐다.

그는 먼저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여 원병을 끌어들이는 일을 벌려놓았다.

《아직 신라의 힘만으로는 백제로 쳐들어가기가 힘들것이니 당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것이 어떻겠소?》

《남의 힘을 빈다는것이 께름직하다만 나라형편이 아직은 어려우니 할수 없는 일이지.》

이것이 김유신과 김춘추, 처남매부간에 오고간 말이다.

그리하여 김춘추가 당나라로 떠났다. 그리고는 당나라황제에게 엎드려 청원하였다.

《저희 신라는 아직 국력이 미약하므로 백제로부터 계속되는 시달림을 당하고있습니다. 당나라에서 원병을 보내여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세상에 다시 없는 큰 은혜로 알것이며 당나라에도 큰 리익을 가져올것입니다.》

당나라의 고종과 신라의 김춘추는 두 나라가 련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친 다음 대동강을 계선으로 하여 이남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그 이북의 넓은 지역은 당나라가 차지한다는 《비밀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나라의 내속은 신라를 도와주자는것이 아니였다. 당나라통치배들은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린 다음 신라마저 타고앉으려는것이였다.

이렇게 김유신은 외세를 끌어들이는 천추에 용서못할 큰 죄

를 범하였다.

김유신은 드디여 백제를 공격하는 길에 올랐다.

총사령관이 된 그는 출발에 앞서 군사들에게 이렇게 지껄였다.

《군사들,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만일 백제를 꺾어놓지 못하면 곧 신라자체가 백제에 먹히게 될것이다. 그러니 모든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김유신은 제 집에서 떠온 한바가지의 물을 마신 후 죽기를 맹세하고 백제를 공격해들어갔다.

벌써 백제의 여러 성을 먹은 김유신은 황산벌에 당도하였다.

백제의 계백이 이끄는 5 000명의 군사가 결사적으로 맞서나섰다.

백제군사들은 계백의 지휘하에 10배가 넘는 신라군을 상대로 피어린 싸움을 벌리였다. 백제군은 4차에 걸쳐 신라군을 물리쳤다.

이때 신라군은 화랑으로 자처하던 소년 관창의 죽음을 리용하여 군사들의 적의를 격발시킴으로써 백제군의 진지를 끝내 무너뜨리고야말았다. 그리고 백제의 사비성을 차지하였다.

백제를 차지한 신라는 또다시 고구려로 달려들었다.

백제와의 싸움에서 벼슬이 또다시 올라 대각간이 된 김유신은 벌써 66살의 늙은 나이였으나 668년 20만 신라군의 총지휘관으로서 고구려로 공격해들어갔다. 이때도 역시 당나라와 합동하였다.

당나라의 수십만 대군이 먼저 고구려로 출병하였다. 그러나 얼마후 당군은 식량이 떨어졌다. 신라의 왕궁으로 식량을 대라는 당군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전회의가 급히 열리였으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김유신은 이 일을 솔선 말아나섰다. 그는 전국에서 모은 쌀 2천석, 벼 2만 2천석을 숱한 수레에 싣고 평양성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고구려땅에 발을 들여놓자 신라의 군사들은 동족의 나라를 밟아선 가책으로 몸을 떨었다.

그러나 김유신은 기고만장하여 웨쳐댔다.

《이만한 일이 두려워서야 어찌 신라의 군사라고 할수 있단 말인가! 힘을 내라. 나라의 운명이 우리들에게 달려있지 않느냐!》

김유신이 거느린 군사들은 드디여 평양성에 닿았다.

고구려인민들은 땅과 바다에서 달려드는 수십만의 침략군을 막아 한달이상이나 힘겨운 혈전을 벌리였다.

그러나 이 시기 고구려의 통치층은 연개소문이 사망한 뒤에 란투극으로 화한 그 아들들의 세력권다툼으로 하여 심히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 침략군을 물리칠 힘이 어디서 생기랴.

신라는 바로 이 틈을 노리고 달려든것이였다.

그해 9월 당나라군과 련합한 신라군은 성문을 깨뜨리고 평양성안으로 쳐들어왔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오직 제 목숨만을 살리기에 피눈이 된 보장왕을 비롯한 고구려통치배들은 싸우는 백성들을 배반하고 적앞에 무릎을 꿇고말았다.

그리하여 동방의 강대국으로 그토록 천하무적의 자랑을 떨치던 고구려는 건국이래 945년만에 존재를 마치였다.

신라의 문무왕은 어전회의를 열고 열을 올렸다.

《오늘 우리가 이긴것은 오로지 대각간 김유신장군의 공이요. 이제 나는 그 공을 치하하여 김유신장군에게 태대각간의 벼슬을 내리려 하오.》

이렇게 김유신은 고구려를 무너뜨린 《공로》로 태대각간이라는 가장 높은 등급의 벼슬을 받았으며 죽은 후인 흥덕왕때(826~836년)에는 《흥무대왕》이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이와 같이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통치배들의 사대주의적이며 배족적인 외세의존정책에 의하여 당나라침략군은 대동강이북의 광대한 령토를 일시 차지하게 되였다.

고구려와 백제가 무너지자 당나라침략자들은 이 기회에 신라마저 차지하려고 꾀하였다. 그리하여 672년 8월 신라군과 당나라군은 석문들판에서 맞붙었다. 이 싸움에서 신라군은 적군의 기습을 받아 크게 패하였다.

김유신의 아들 원술은 패잔병들속에 끼워 돌아오게 되였다. 그 후 원술은 태백산속으로 들어가 여생을 보내였다고 한다.

김유신은 673년 7월 죄악에 찬 한생을 마치였다. 종래의 봉건사가들과 사대주의사가들은 신라에 의하여 3국이 통일되였다고 보는데로부터 김유신을 삼국시기의 《큰 인물》로 , 3국통일에 이바지한 《인물》로 내세웠다. 그러나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집권자들은 시종일관 령토확장야망으로부터 제힘으로는 강대한 고구려를 누를수 없고 또 백제를 먹을수 없게 되자 당나라를 끌어들여 동족간의 정복전쟁을 벌려놓았으며 광대한 조상의 땅을 당나라에 섬겨바치는 큰 죄를 저질렀다. 하여 공정한 력사는 김유신을 치졸한 사대주의의 시조로, 민족반역자로 락인하고있다.

거문고의 명수 백결

앞에는 푸른 벌이 펼쳐지고 뒤에는 랑산이라는 큰 산이 우뚝 솟아 이를데없이 아름답고 마음이 안온해지는 동리마을 한쪽모퉁이 초가집에서 거문고소리가 흘러나온다.

낮에도 밤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그 소리는 멈출줄을 모른다. 수수대로 울타리를 둘러치고 비바람이나 겨우 막아줄 찌그러진 초가집이건만 그속에서 울려나오는 거문고소리는 아름답기 이를데없다.

《백결선생은 아무튼 거문고의 명수야. 그 소리는 참 아무때 들어도 싫지 않구만!》

지나가던 늙은이가 머리를 끄덕이며 한참이나 초가를 바라본다.

그 초가가 바로 거문고를 잘 타기로 이름난 백결선생이 살고 있는 집인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결은 5세기경 신라 20대 왕이였던 자비왕때의 사람인데 매우 재능있는 음악가였으나 극심한 가난속에서 불우한 한생을 마친 사람이라고 전해진다.

백결이라고 부르게 된 연원도 집이 하도 구차하여 옷을 백군데나 누덕누덕 기워입었다는데서 생긴 별호라고 한다.

하지만 백결은 자기의 가난을 탓하지도, 서러워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하루 세끼 안해가 뜯어다 무쳐주는 산나물에 물을 마시면서 생의 락을 거문고에서 찾았다. 기뻐도 거문고요, 슬퍼도 거문고요, 모든것을 거문고에 실었고 자기를 달래였다.

거문고는 그의 생활의 전부이기도 하였다. 백결은 자기에게 차례진 불행을 오직 숙명으로만 감수했다. 때문에 찌그러진 초가이영밑에서는 거문고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다.

백결의 창작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다만 그에 대해서는 유명

한 《방아타령》이 전해지고있을뿐이다.

어느해 섣달 그믐날이였다. 랑산밑 동리마을에서도 설을 맞을 준비로 들썩하였다. 누구에게나 일년내내 기다려지는 명절이 바로 설이다.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마감짓고 앞날에 대한 기대를 안은 새롭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설을 맞이하는것이다.

앞집에서는 떡방아소리로 흥성거리고 뒤집에서는 새옷을 준비하는 다듬이방망이소리로 분주하다. 덩달아 아이들이 먹을것을 쥐고 뛰여다니고 마을은 온통 명절맞이로 설레였다. 밤이 되여도 그 소리는 좀처럼 그치지 않는다. 등불심지를 돋구며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나가는 녀인들의 웃음소리가 부엌문을 새여나오고 댕기를 드리는 처녀애들의 그림자 또한 들창을 덮는다. 과연 년중의 제일 가는 명절다운 풍경이였다.

그러나 이런 날에도 백결의 집만은 예나 다름이 없었다. 거문고소리는 앞에 놓인 가물거리는 등잔과 함께 장밤을 새려는듯싶었다. 약간 다른것이 있다면 부인의 한숨소리가 더 깊어진것뿐이였다.

그날도 산나물과 샘물로 끼니를 하였으니 떡방아, 다듬이질소리에 녀인의 한숨인들 어찌 무심하랴. 두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고인 안해는 끝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내 이런 말을 하는것이 부질없는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랑군님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하며 저 방아찧는 소리들과 다듬이질소리가 들리지 않소이까?》

잠시 거문고를 멈춘 백결은 이 말에 안해를 처음 보기나 하듯이 유심히 바라보았다. 내친 걸음이라 안해의 푸념은 계속되였다. 이제까지 속에 묻어두었던 그 마음을 쏟아놓으려는것이였다.

《이제 설날도 래일로 되여오고있나이다. 명절이라 하여 남과 같이 떡을 빚고 새옷장만은 못하더라도 언제 가면 하다못해 설날이나마 나물신세를 면하겠소이까?》

안해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리였다. 이날 이때까지 참고참아오던 진하디진한 눈물이였다.

백결의 안해로 말하면 참으로 어진 녀인으로 온 동리사람들이 다

아는 녀인이다. 언제나 제자신이 뼈심을 들여 뜯어온 산나물로 량주가 연명해가는 구차한 살림이지만 이에 대해 구구히 늘어놓지도 않았으며 랑군님의 뜻을 거슬러 눈살 한번 찌프린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였다. 그도 주위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거문고에만 여념이 없는 랑군님을 대할 때면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의 방아소리는 더욱 그를 시름겹게 만들었다. 안해의 푸념에 거문고뜯기를 멈춘 백결은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쉬더니 안해의 손을 더듬어쥐였다.
《그렇소. 세상에 그 누가 구차한 살림을 원하여 귀한것을 싫다하며 명아주(능쟁이)가 먹기 좋아서 명절날까지 먹자 하겠소. 그러나 운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또한 따르지 않는 그것을 구태여 쫓고싶지 않으니 이제 그를 물어 무엇하겠소.》
백결은 다시한번 한숨을 몰아쉬더니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내 오늘까지 구차한 살림이나마 한갖 안해의 충정만을 믿고 거문고를 락으로 자족하였거늘 이자리에서 새삼스럽게 그를 탓하는것은 짐짓 나의 기대한바가 아닌가 하오.》
호젓한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다음순간 백결은 또다시 거문고를 손에 잡았다. 그는 집안이 울리게 껄껄 소리를 내여 웃고는 안해를 자신의 곁에 끄당겨앉히였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그렇소. 우리도 지금부터 설맞이를 하기오. 떡방아를 찧지 못해 그렇게 상심이 된다면 우리 집에서도 떡방아를 찧으면 되지 않겠소.》
백결은 거문고소리로 떡방아를 찧기 시작하였다.
《쿵쿵 쿵덕궁 쿵덕쿵덕 쿵덕궁
쿵쿵 쿵덕궁 쿵덕쿵덕 쿵덕궁》
어깨춤도 들썩 흥겨웁게 흘러나오는 거문고소리는 갈데없는 떡방아찧는 소리였다. 역시 백결은 거문고의 명수였다. 누구나가 들으면 떡방아소리로밖에 달리는 새길수 없는 흥겨운 노래가락이 초가를 새여나와 온 마을에 퍼져갔다.
들썩이던 마을은 이미 곤한 잠에 들었으나 백결의 집에서만은 새

벽이 가깝도록 떡방아의 선률이 쉬임없이 흘러나왔다.
　이날 백결선생의 《방아소리》는 다시 없는 명곡으로 완성되여 후세에 전해지게 되였으며 오늘날 방아타령의 연원으로 되였다 한다.
　백결이 부른 방아타령은 《대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전하여졌다. 그날에 안해와 함께 부른 백결의 방아타령의 원형은 알아낼 길이 없으나 《시용향악보》에 《상저가》라는 이름으로 방아타령이 수록되여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의 방아타령중에서 가장 오래된것이라고 한다.

듥기동 방해나 디히히얘
게우즌 바비나 지어히얘
아바님, 어마님께 받잡고 히야해
남거시든 내머고리 히야해 히야해
(듥기동—덩기덩기
디히히얘—찧어서
게우즌—겨우
지어히얘—지어서
받잡고—드리고
남거시든 내머고리—남은것은 내 먹으리)

　시인의 한사람이였던 김종직은 자기의 시 《방아타령》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동쪽집엔 떡치는 소리
서쪽집엔 겨울옷 다듬질
온 이웃이 두드리는 소리
설맞이 밑천들이 넉넉도 한데

우리 집엔 쌀 한톨 없고
우리 집엔 천 한끝 없어

줄줄이 기운 옷에
나물죽을 먹고 살지만
이대로도 편안하여
배부르고 따뜻하네

안해여, 안해여 근심하지 마오
부귀야 구한다고 될 일이겠소
팔을 베고 누워도 재미가 있으니
가난한 사람끼리 의좋게 삽니다

이와 같이 《방아타령》은 백결선생이 거문고로 방아소리를 낸데서부터 생겨난것이라고 전해진다. 때문에 거문고를 들자면 백결이 따르고 백결을 말하자면 자연히 거문고를 들지 않을수 없다.

백결에게는 자작시 한편이 전해진다.

하늘이 사람을 내였으니
모든것이 하늘에 매였노라
임금을 잃고 또 얻음이
그역 하늘이 할 일이로다
얻거나 잃거나가 모두가
한갖 나를 위함이 아니려니
오거나 가거나를
탓하여 무엇하리
세상에 별한 락 없나니
한갖 내 천명을 따르리라

절절하게 울리는 이 시를 보면 그 무엇인가 리면에 피치 못할 사연이 있다는것을 짐작케 한다. 아무튼 백결은 일생을 청결한 산촌의 정기그대로 거문고에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음악가로 알려진다.

이름난 화가 솔거

솔거라고 하면 사람들은 황룡사벽에 그려진 늙은 소나무와 함께 그 가지에 앉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는 뭇새들을 그려보게 된다. 올라앉으려다가는 미끄러져 떨어지고 그래도 또 가지에 오르고 싶어 부리를 쪼으며 바라오르는 새들의 모습, 금방 바람이 불어오면 우수수 잎새를 흔들며 나무잎을 떨구어 내릴듯한 늙은 소나무. 소나무는 무릇 새들뿐아니라 사람들의 가슴도 시원하게 해준다.

전기신라때 화공이였던 솔거의 경력에 대하여서는 전해지는것이 없다. 다만 그의 뛰여난 그림솜씨만이 사람들의 입을 거쳐 대를 이어 오늘에까지 와닿은것이다.

솔거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려 동네어른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살림이 하도 구차한데다가 산간오지벽촌에 있었으므로 선생의 지도를 기대할수 없었고 더우기는 화구들을 구할 길이 없었다.

《삼국사기》 렬전기록에 의하면 솔거는 특히 미천한 집안출신이였다고 한다. 따라서 솔거가 유명한 화가로 이름떨치게 된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남다른 천성과 노력에 의한것이다.

솔거는 살아나가기 위한 고된 로동속에서도 그림을 그렸다. 밭에 나가 쉴참이면 호미끝으로 땅바닥에 그려나갔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칡뿌리를 뽑아 그것으로 바위돌우에 그림을 그렸다.

(아, 난 언제면 마음먹은대로 그림을 척척 그려낼수 있을가!)

솔거는 그리고 또 그리였다. 그리고 그는 매일밤 신령님께 그림을 잘 그리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었다.

《신령님이시여! 어찌하면 나는 그림을 잘 그릴수 있을런지. 원컨대 신령님은 미천한 저에게 그림그리는 길을 밝혀주소서.》

선생도 없이 혼자서 그림을 그려가자니 줄곧 안타깝기가 그지없었다. 옆에서 그림그리는 일을 도와줄만한 사람은 고사하고 깊

은 산골이라 그림에 대해 들을 소리조차 없었으니 얼마나 애가 탔겠는가. 때문에 솔거는 백날불공을 드리기 시작했던것이다. 어디에 계시는지 신령님만은 꼭 자기를 도와줄것만 같았다. 솔거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어느날 밤 그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신령은 수염이 땅에 끌리고 흰옷을 단정히 차려입은 백발의 로인이였다.

《이애 솔거야! 나는 이 나라 시조인 단군이라는 신령인데 너의 그 큰 열성에 감동되여 이곳에까지 왔노라! 그래 내 이자리에서 너에게 신의 큰 힘을 주노니 네가 그림그리기에 더욱 힘쓴다면 장차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화공이 될지어다!》

깜짝 놀라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나보니 아쉽게도 신령은 벌써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아, 신령님께서…》

솔거는 그날부터 큰 힘을 가지고 꿈에 본 산신령의 화상을 천장이 넘도록 그리고 또 그리였다. 앉아서도 그리고 서서도 그리고 그저 그리는것뿐이였다.

그는 온 심신을 기울여 그림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솔거의 그림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늘어갔다.

이것은 후세사람들이 솔거의 비범한 그림재간을 두고 지어낸 이야기일것이다. 그러나 솔거가 당대에 감히 견줄이가 없는 유명한 화공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피타는 노력을 바쳤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뜻깊은 일화이다. 솔거의 이름은 점차 고을지경을 벗어나 왕궁에까지 크게 알려졌다. 566년(진흥왕 27년) 가을 어느날 솔거는 새로 지은 황룡사의 벽화를 맡아 그리라는 왕의 어명을 받게 되였다.

황룡사로 말하면 고구려 동명왕무덤앞에 있던 정릉사, 백제의 미륵사와 함께 세나라시기 가장 큰 절들중의 하나이다.

황룡사는 북남중심축우에 남으로부터 중문, 탑, 금당, 강당이 놓이고 네모진 회랑에 의하여 둘러막혔으며 금당 좌우에는 동당과 서당이 놓여있다.

1탑3금당형식의 절간으로 설계되고 지어진 황룡사는 고구려자(약 35㎝의 자)에 의해 매우 정교하게 건축되였다.

여러 건물들가운데서도 특히 중심부의 금당은 길이가 약 45.5m, 너비가 23m로서 그 규모에 있어 당시 가장 큰 목조건물의 하나였다.

봉건귀족들은 이 절간건설에 무척 많은 힘을 들이였는데 무려 13년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쳐 완공시켰다.

이런 건물의 벽화를 담당하게 되였다는 사실은 솔거의 그림재간이 얼마나 뛰여났었는가를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솔거는 자신이 이처럼 나라의 큰 절간에 벽화를 그리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러기에 솔거는 날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몸을 깨끗이 씻고 정신을 가다듬은 후에야 비로소 붓을 들군 하였다고 한다.

솔거는 대웅전외벽에 커다란 반송(가로뻗은 소나무)을 그리였는데 이 로송이 바로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림이다. 그가 한번 붓을 들어 꾹 찍어 휘둘러나가면 늙은 소나무가지가 펴지고 두번, 세번 잔붓질을 해나가면 솔잎새들이 돋아나 살랑살랑 가을바람에 놀아옜다. 뿌리를 흙속에 깊숙이 파묻고 의젓하게 서있는 로송의 모습은 금시 살아움직이는것만 같았다. 실로 신묘한 재간이였다.

《과연 뛰여난 명화요!》

《금방 살아 흔들릴것만 같구려!》

량반들도 백성들도 보는 사람마다 탄복해마지않는다.

청청하고 무성한 나무잎, 비늘이 일어선 룡의 잔등과 같이 껍질이 우둘투둘하고 주름이 깊은 나무줄기, 활짝 펴진 가지의 생김은 더운 날이면 누구라없이 그늘밑에서 한숨 땀을 들이고 갈 생각이 저절로 나게 한다. 바람만 불면 금시 흔들흔들하며 쏴—하고 소리를 낼것만 같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저 보는데만 그치지 않고 다가들어 손으로 만져보기도 한다. 그리고 또 신기한것은 그 늙은 소나무를 보고 사람들만이 아니라 날짐승들까지도 그앞을 지날 때면 쉬여갈 생각으로 이따금 날아들다가 그만 부리를 쫏고 땅에 떨어지는것이다.

과연 그림은 산것이였다.

그후 수백년세월이 흘러 솔거도 세상을 떠나고 황룡사의 벽화도

색이 날아 희미해졌다. 하여 절의 중들은 이름이 났다는 화공들을 불러 그 소나무에 단청을 하게 되였다. 퇴색했던 늙은 소나무는 다시 생신한 빛을 띠고 아름답게 물이 올랐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후부터는 소나무에 다시는 까치도 참새도 날아들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솔거의 뛰여난 그림솜씨를 말해주는 실화이다.
이처럼 솔거는 평민출신의 재능있는 화공이였다.
솔거는 반송뿐아니라 불화를 비롯하여 이곳에 많은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는 여기서 백성들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산 내용을 채집하여 벽화에 옮겨놓았으며 다채로운 선과 색채, 원근법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화폭을 사실주의적으로 창조하였다.
황룡사 로송의 성공적가치는 이 시기 풍경화가 독자적인 미술의 한 분야로 분화되여 회화의 높은 발전에 당당히 이바지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조선화의 기법으로 산수화에서 특출한 재능을 나타낸 솔거는 인물화분야에서도 풍부한 자질을 시위하였다.
솔거는 경주의 분황사, 진주의 단속사를 비롯한 이름있는 절들의 중심적인 불화들인 《관음보살상》과 《유마상》들을 훌륭히 그려내여 인물화에서 이름을 날리였다.
《사람의 솜씨가 아니라 꼭 귀신의 재간이외다.》
《아니, 귀신도 울고 가겠수다, 원…》
절을 찾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혀를 내두르며 감탄을 했다.
하기에 당시는 물론 기나긴 세월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솔거의 이름은 그의 대표작인 《황룡사의 늙은 소나무》와 더불어 친근하게 전해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례의 그 그림은 현재까지 남아있지 못하다. 황룡사가 그후 불에 타버림으로써 늙은 소나무그림도 없어져버리였다. 다만 이야기로만 살아있을뿐이다.
하지만 민족이 낳은 재능있는 미술가인 솔거의 이름은 오늘까지도 이웃나라들에까지 널리 알려져있다.

명필, 서예가 김생

가을바람이 우수수 단풍잎을 몰아오는데 자그마한 석굴앞에서 한 젊은이가 가랑잎에 글을 써가고있다.

먹을 찍어서는 나무잎에 한획한획 정성을 다해 쓰고 또 찍어서는 다른 나무잎에 쓴다. 그옆에는 이미 글을 쓴 가랑잎이 무둑히 쌓였지만 그는 글씨쓰기에 여념이 없다. 해가 지는것조차 가늠하지 못하는것 같다.

어느덧 황혼이 짙어간다. 어둠이 서서히 굴앞을 감돌면서 막아서더니 이어 바람이 몰려온다. 글씨를 쓴 나무잎들이 우수수 삭풍에 날려 앞도랑으로 흘러든다.

《아, 벌써 저무는가. …》

길을 재촉하는 해가 야속하기만 하다. 금방 아침을 맞은듯 한데 벌써 저녁이 되여 별이 총총 돋아나니 하루해가 어떻게 가버리는지 알길이 없다.

아쉬운 마음으로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난 젊은이는 주섬주섬 주위를 거두고 석굴안에 들어가 시들해진 산나물을 무쳐 끼니를 에운다.

이러기를 벌써 수십년.

벌써 몇번이나 친구들이 석굴에서 내려오라고 일러왔지만 아직도 자신의 글씨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은것 같아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아직 한두해는 걸려야 될것 같구나. 넘겨짚는 획이 바르지 않는걸, 글씨란 정교하게 써야 하는것이지.)

이렇게 되뇌이며 그는 머리를 젓는다.

그가 바로 당대에 명필, 서예가로 이름을 남긴 김생이다. 그는 집안이 비천하여 그 누가 돌봐주는이도 없이 자력으로 이 굴속

에 들어와 결심품고 글씨공부를 하고있는것이다.

사실 어떤 자그마한 물건따위를 좋은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여도 정력을 들여야 하며 남들이 쉴 때 쉬지 말아야 한다. 열매란 품을 들인것만큼, 노력을 기울인것만큼 나타나는 법이 아닌가.

그러니 김생이 명필로 되기까지 얼마만한 힘을 쏟아부었겠는가에 대해서는 과히 짐작이 간다.

김생에게는 밤낮의 가림이 따로 없었고 산이나 들이 다 종이고 문방구였다. 땅에 앉으면 손가락으로 흙을 종이삼아 글을 썼고 꼬챙이가 눈에 뜨이면 꼬챙이로, 산에 나무하러 가면 낫으로 련습에 련습을 거듭하였다. 한마디로 모든것을 오직 글씨쓰기에 집념하였고 글씨체의 박력과 조형미를 완성하는데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이렇게 피타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김생은 후날 당대의 자랑으로 뭇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천민의 자식이기에 그 출생에 대하여서는 기록이 남은것이 없다. 뉘집 자손인지, 어느 가문인지를 누구도 모른다. 그가 점차로 이름을 떨치게 되면서 그후의 많은 문집들에 일면적으로 전해지고있을뿐이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김생은 부모가 비천하여 가계를 알수 없으나 711년에 출생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는데 일생에 다른 학문은 공부하지 않았다.

나이 80이 넘도록 붓을 놓지 않고 글씨를 썼으며 예서나 행서, 초서에 모두 신묘한 필법이 있었다. 지금도 이따금 그의 필적들을 볼수 있는데 학자들이 전해오면서 이를 보물로 여긴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김생은 집안이 구차하였지만 한번 먹은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목적한바를 닦기에 고령의 평생을 기울여 전심전력하였다.

한편 홍량호의 문집에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있다.

《김생은 우리 나라 서예의 조상으로서 일찌기 신라의 석굴가운데 들어가 나무잎을 따서 거기에 글씨를 쓰면서 40년이나 나오지 않고 글씨의 신묘한 법을 체득하였다.》

뿐만아니라 성근묵의 문집인 《과재집》에서는 《김생이 〈김생굴〉에서 글씨공부를 할 때 단풍잎에 글을 써서 샘물이 다 까매졌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나무가지로 땅바닥에 글씨를 써서 신묘한 경지에 들어갔다고 찬탄하여마지않았다. 그가 얼마나 노력을 들이였는가는 《김생굴》이 생겨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알수 있다. 그 호명은 곧 누가 무어라 하든말든 오랜 세월 인적드문 굴속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 기울인 그의 진지한 인품에 대한 만사람의 존경과 공인으로 된다.

여기에 이런 일화가 있다.

12세기초 고려의 학자 홍관이 사신을 따라 송나라에 들어가 연경에 숙소를 정하였는데 그때 그곳의 대관들인 양구, 리혁이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와서 족자에 글을 쓰고있었다. 그들의 글씨란 보잘것 없는것이여서 홍관의 눈에도 들지 않았다.

홍관은 빙그레 웃음을 띠더니 보짐을 풀어 김생이 쓴 책 한권을 슬며시 밀어놓았다. 이것은 김생이 남겨놓은 행서와 초서를 묶어놓은 일부였다.

《아니, 이게 웬것이요?! 오늘에 와서 왕희지의 필적을 뜻밖에 여기에서 얻어볼줄이야!…》

그들은 놀라면서 펄쩍 뛰는것이였다.

《아 참, 어제밤 내 꿈을 잘 꾸었더니 이런 희귀한것을 여기서 보게 되였구려.》

양구의 어쩔줄 모르는 말이였다.

《아니올시다. 이건 왕희지의 글씨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신라의 명필이던 김생의 글씨올시다.》

홍관이 약간 어깨를 으쓱하며 알려준다.

(왕희지란 중국의 동진때 활동한 명필이였는데 우군벼슬을 하였기에 왕우군이라고도 불렀다.)

《아니, 천하에 왕희지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훌륭한 글씨를 썼겠소.》

리혁이 김생의 글씨를 이쪽저쪽 돌려가면서 다시금 뜯어본다. 아무리 해도 믿지 못할 일이였다. 홍관은 이들에게 김생이 어떤 피

나는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의 글씨를 완성하고 성공하였는가를 거듭 설명하였다. 그래도 그들은 의연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비문의 마지막에 쓴 김생이란 부분을 찾아보고서야 저마다 놀라움을 표시한다.

《아, 과시 명필이요!》

《왕희지가 놀라 땅속에서 살아나오겠구려.》

그들은 연신 머리를 끄덕이며 또다시 감탄하는것이다.

《김생의 글씨는 참으로 신비롭소이다. 천하에 더 견줄이가 없는 이런 서예의 대가가 이웃나라에 있었다는것을 여직껏 모르고있은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소이다.》

그들은 요구대로 값을 후히 내겠으니 제발 김생의 그 필적을 팔아달라고 사정사정하였다.

《이웃끼리 무얼 팔겠소. 선물로 가져온것이니 그냥 받아두시구려.》

양구와 리혁은 대관의 체면도 잊은채 서둘러 책장 몇장씩 뜯어내여 싼 다음 그 무슨 보물이라도 간수하듯 소중히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홍관에게 이처럼 귀중한 선물을 가져온데 대하여 거듭거듭 사례를 표시하는것이였다.

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김생의 글씨의 신묘함을 알게 된다.

하기에 조상들은 그의 글씨를 고려이전 명필중에서 단연 첫자리에 놓았으며 보면 보는 사람마다 열렬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동국리상국집》에서는 고려이전 우리 나라의 4대명필을 들면서 김생을 첫자리에 꼽았고 《파한집》에서는 《계림사람 김생이 붓쓰기를 귀신같다.》고 적고있다. 또한 성현의 《용재총화》에서도 김생의 글씨에 탄복하여 이렇게 쓰고있다.

《우리 나라에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비록 많으나 해법을 갖춘자 적은데 김생은 능서가로서 아무리 가는 글씨라도 다 정묘하였다. 섬세하되 털끝만치도 소홀한데가 없고 모두가 정교하다.》

고려의 이름있는 작가였던 리규보는 그의 글씨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하였다.

아침이슬 맺힌듯
저녁연기 서린듯
성난 룡이 날치는듯
신령한 봉새가 날개를 펼치는듯

지금까지 전해진데 의하면 771년에 주조된 유명한 봉덕사종의 허리에 쓴 일부 글씨도 그가 생전에 남긴것이라고 한다.

김생의 글씨가 얼마나 정교하고 힘이 넘쳤던지 《청생집》에서는 그 글자 한획이 마치 천근짜리 큰 활을 당겨 단번에 일천 군사를 쓸어눕히는것 같다고 하였으며 《서예의 조상》이라고 할만큼 섬세하고 줄기차면서도 고상하고 개성적인 글씨체라고 쓰고있다.

《파한집》의 필자는 김생의 글씨에 매혹된 나머지 《김생굴》의 전설을 전하면서 이렇게 읊었다.

김생굴 에서 글씨 익힌 김생
단풍잎 따서 글씨를 쓰니
샘물이 다 검어졌더라
김생굴밑에 흰구름 나는데
단풍잎 어지럽고 비탈은 가파로워
길조차 아득하여라
먹붓의 물은 아직도 뚝뚝 떨어지는가
마치 붓에 찍어 글쓰기를 기다리는듯

이와 같이 그의 글씨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없이 모두가 칭찬을 그치지 않았다.

또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김생이 사망한 후 100년이 지났을 때에도 그의 글씨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대사로 있던 단묵이라는 중은 김생의 글씨가 하도 귀하여 한자두자 모아두었는데 고려의 광종이 사망한 후 이것으로 비

문을 새겼다고 한다. 이 비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였다. 이곳저곳에서 모아놓은 글씨이건만 대소장단에 구애됨이 없이 얼마나 조화가 잘되였는지 모두가 혀를 찼다.

《그 한자획이 1천근의 쇠뇌의 무게를 가지고도 남음이 있겠소.》

《과연 신묘한 필법이요. 하늘의 신령님도 내려왔다가는 그냥 가질 못하겠소.》

수많은 학자, 시인들이 찬사에 찬사를 더했다. …

리황은 자기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창주와 종황의 옛 글씨를 오랬다 말라
우리 나라에도 김생이 몸 바친지 천년이라
기이한 필법이 바위와 폭소에 스몄거니
괴이쩍구나 사람의 핍전함을 한탄함이 없음이여
(창주—고대문자의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
종황—중국의 서생으로 알려진 인물)

이와 같이 80이 넘을 때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한번 다진 결의를 끝끝내 실천하여 서예예술의 찬란한 꽃을 피워낸 김생의 이야기는 실로 감동을 자아내는것이다.

김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같은 시대에 행촌의 자앙이라는 인물과 현룡비문을 남긴 류황이 또한 글씨로 이름을 떨쳤다. 뿐만아니라 80살에 건원릉비문을 썼다는 독곡의 글씨재주와 그 필법에 있어서 마치 산것이 꿈틀거리는듯 하였다는 세종왕시기 안평대군에 이르기까지 서예예술은 또다른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면서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력사는 이 모두에 앞서 서예예술의 교본다운 첫장을 장식한 김생의 공적을 귀중히 평가하고있다.

청해진의 장보고

바다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데 큰 칼을 허리에 찬 장보고(?—841)는 청해진을 돌아보고있었다.

250여리나 되는 섬둘레를 자신이 직접 돌아보고 진을 세우려는것이다. 지세에 따라 망루도 쌓고 배도 무어야 하였다. 배라는것도 별로 변변한것이 없으니 새로 만들어내야만 하였다.

장보고는 2 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우선 나무부터 찍어내여 건조시켰다.

(새로운 형의 배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가?…)

장보고는 군사들이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 살피며 좋은 배를 뭇기 위한 생각에 골몰하였다. 군항을 개설하고 바다를 지키자면 배가 절실히 필요한것이기에 이 일부터 시작한것이다.

장보고는 락동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금이라는 로인을 불렀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고안한 배의 도면을 보여드리겠소이다.》

로인의 말이였다.

얼마간 지나 로인은 흰 나무판에 먹으로 그린 훌륭한 배의 설계도를 내놓았다.

《배의 넓이는 다른 배들에 비해 세곱이 넘소이다. 여기에 이렇게 뚜껑이 있고 이것을 닫게 되면 자라처럼 보이지요. 또한 앞뒤가 속력을 낼수 있도록 급하게 되여있사옵니다.》

장보고는 만족하였다. 그는 금이로인에게 배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련이어 배들이 무어지고 군사들은 훈련을 시작하였다. 장보고는 모든 군사들이 바다에 익숙하고 창과 칼에 능하도록 모든 힘을 다하였다. 수십년만에 고국에 돌아와 제 나라, 제 땅, 제 겨

레를 위하여 일을 하니 힘이 절로 났다. 아울러 청해진은 활기를 띠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성을 쌓고 울장을 올렸으며 창고들도 갖추었다. 당나라에서 지내던 시기는 벌써 먼 옛날처럼 느껴졌다.

얼마전 고국으로 돌아온 장보고를 만난 흥덕왕은 청해(전라남도 완도)에 진을 꾸려 왜구와 당나라해적들을 엄중히 단속하며 바다방비를 튼튼히 해보겠다는 그의 충정을 장히 여겨 이곳 대사로 일하도록 신임을 주었다.

남해의 푸른 바다가에서 태여나 모래밭우를 딩굴며 자라난 장보고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차게 달려와서는 바위에 부딪쳐 산산쪼각이 나는 물보라, 그 물결에 주저없이 뛰여들어 드넓은 바다를 힘껏 그러안으며 파도를 헤쳐가는 두 소년, 물속에 자취를 감추었다가도 멀찍이 불쑥 다시 솟구쳐올라 서로 얼싸안는 그들의 마음은 가없이 넓은 바다처럼 한없는 기쁨에 설레인다.

《오늘 물속달리기에서도 형이 졌어.》

《그래, 그건 당해내지 못하겠구나.》

이들이 바로 앞날 해상왕자로 이름을 떨친 장보고와 정년이란 소년들이였다.

정년은 물에만 들어서면 물고기도 미처 그를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 또 수십리를 물밑으로 달리여도 숨이 막히지 않는다는 이름난 잠수가였다. 장보고도 이에 못지 않았지만 물밑에서만은 그에게 첫자리를 내주군 하였다.

그들 둘은 언제나 서로 한몸이였다.

《형, 우리 바다건너 멀리 가보지 않을래?》

《어디루?!…》

장보고는 아직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지라 눈이 둥그래서 바라보았다.

《당나라루 가지 뭐. 여기서 백년을 있어봤댔자 뼈빠지게 일이나 했지 장수로도 못될걸.》

정년의 불평스런 말이다.

장보고도 당나라에 가서 활약해보고싶은 마음이 불쑥 치밀었다. 이리하여 이들 둘은 그날부터 배를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친구들을 끌어들여 일곱이 되였다.

한껏 꿈에 넘친 이들은 드디여 당나라를 향해 바다길에 올랐다. 그곳에 가서 성공해보겠다는것이 이들모두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소망이였다.

아무리 가고가도 바다는 끝이 없었다. 길을 잘못 들어 다시 판정해보기도 하고 또다시 며칠밤을 보내기도 하면서 그들은 마침내 당나라의 포구를 찾아내였다.

《야, 포구다!》

그들은 날듯이 기뻤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맨손의 일곱소년은 우선 먹고 사는것부터가 문제였다.

다행히도 그들은 한 신라사람을 만나 형편을 알게 되였고 그의 주선으로 남의 집 노복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일은 힘들고 고되였다.

하지만 장보고는 하루일을 마치고나서 의례히 정년과 무술훈련을 하였다. 이것은 어길수 없는 그들의 일과였다.

창쓰기, 활쏘기에 땀을 흘려가는 가운데 그들의 무술은 나날이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날 주인집 양들을 지키고있는 가위에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어 옆에서 놀고있던 어린애를 덮쳐물고 달아나려는것이 아닌가.

장보고는 금시 들고있던 쟁기로 이리를 그자리에서 때려눕히고 다 죽게 됐던 주인집 어린애를 안아일으켰다.

《어디 상한데는 없느냐?》

어린애는 없다고 머리를 살레살레 흔든다. 옆에는 포악한 이리가 늘어져있다. 실로 눈깜짝할 사이의 일이였다. 동네사람들이 모여들고 소식을 들은 주인도 달려왔다.

《아니, 우리 집 머슴애가 그렇게 주먹이 드세단 말이요?!》

《한번 보셨더라면 주인님도 아마 까무라칠번 했을거외다. 어서 인사나 드리시우.》

《아, 인사만 해서 되겠소. 상도 후히 주어야지!》
주인도 주인이지만 옆에 선 사람들이 더 대견해하며 누구라없이 한마디씩 칭찬을 늘어놓는다.
또 며칠뒤에는 한동네에서 사는 어떤 소년과 창쓰기시합이 있었다.
그도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장보고에 비해보면 아직 어리였다. 그날 시합에서도 장보고는 온 동네를 들었다놓았다. 저녁에는 그 소년에게서 대접도 한상 잘 받았다. 그리고 소년의 집에 같이 있으면서 훈련을 하게 되였다.
세월이 감에 따라 그도 이제는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는 당나라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무예시험에 나설것을 결심하였다.
앞에는 시험관들이 엄숙히 앉아있고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사들의 재주를 지켜보고있는데 그속에서 장보고는 단연 장원으로 입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장수로 되였으며 당나라무관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였다.
하지만 장보고는 두고온 고향과 조국을 잊지 않았다. 더우기 그를 격분케 한것은 당나라해적들이 우리 사람들과 수많은 어린이들을 랍치하여 저들의 종으로 마구 부려먹는것이였다. 그들의 생활이란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 옷은 다 해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몰골이 처참하였다.
어느날 장보고는 일이 생겨 동주에 갔다오던중 고역에 시달리는 신라소년들을 만나게 되였다. 그애들이 끌려오게 된 사연을 듣고난 장보고는 분통이 터졌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장보고는 그애들을 데리고 신라방으로 왔다. 그리고 옷도 새것으로 입히고 먹을것도 주어 생활을 안착시켰다.
그러나 생각은 착잡하였다. 그애들에게서 들으니 그들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장보고는 자기의 종살이시절이 떠올랐다. 그러니 더는 참을수가 없었다.

드디여 그는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였다. 그까짓 당나라의 벼슬같은것이 문제가 아니였다.

장보고는 배를 준비하고 량식을 마련하여 신라소년들을 한배 가득 태운 후 그리운 고국으로 배길을 잡았다.

아이들은 좋아서 어쩔줄을 모른다.

《야아! 엄마, 아빠가 있는 우리 마을로 간대. 장보고장수가 우리를 데리고가신대.》

《정말 고마운분이시지. 우릴 구해주고 집에까지 데려다주시니 우리 커서 꼭 장군의 부하가 되자.》

소년들을 싣고 여러날을 거쳐 신라땅에 닿은 장보고는 락동강하류에서 어린애들은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곧바로 왕궁으로 향하였다.

상감은 당나라의 높은 무관에까지 이르렀던 그가 불현듯 돌아온것이 의문스러워 여러가지로 물었다.

《그대는 그곳에서도 영광을 지닐수 있는 몸인데 무슨 연고로 돌아왔는고?》

《상감마마, 저는 신라사람입니다. 제 일시 바다 저편이 어떨가하여 가보았지만 역시 고향이 고향이옵니다. 더우기 당나라해적들에 의해 끌려간 신라의 소년, 소녀들이 노예로 고역을 치르는것을 차마 볼수가 없었나이다.》

상감에게는 들으니 첫소리였다. 대궐의 높은 룡상에만 앉아있으니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길이 없는것이였다.

《소신이 보건대 당나라해적들은 우리 연해를 제 집 뜨락 다니듯 하옵니다. 상감마마, 바다수비가 되여있지 않으니 도적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물산을 마구 로략해가고있소이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변방수비에 힘을 돌리셔야 옳을듯 하옵니다.》

《그렇다면 경은 그 무슨 좋은 묘안이라도 가지고있는것이 없는가?》

왕은 어두운 기색으로 신하들을 둘러본다. 어전에는 금시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대신들은 아직까지 이런것을 한번도 상감께 알리지 않았으니 그 실책이란 씻을수 없는것이였다. 대신들

은 서로들 눈치만 보면서 움츠리고있을뿐이였다.

그러자 장보고는 다시금 상감께 아뢰였다.

《상감마마, 남해에서는 옛적부터 청해땅이 당나라와 일본을 련결하는 요충지로서 해상교통에서는 놓칠수 없는 고장이옵니다. 여기에 진을 베풀어 해적을 치고 나라방비에 힘쓴다면 서라벌문전초소로서도 그 역할이 자못 클것이라고 여겨지나이다.》

그리하여 828년 4월 국왕은 장보고의 소행을 기특히 여기여 오늘의 완도인 청해에 진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에게 수군병사 1만을 주어 청해대사로 임명하였다.

청해는 신라의 교통과 해상관문의 하나였다. 당나라와 일본이 해상거래를 하자고 해도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만 했다.

새로 무은 배에 올라 물우를 미끄러져 달려가는 장보고의 가슴은 바다처럼 활 열리였다.

이제는 배도 어지간히 갖추고 망루를 새롭게 하였으며 성도 튼튼히 쌓아올렸다.

장보고는 그동안 군민모두가 힘을 합쳐 수고한 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는 당나라도 일본도 청해진을 지나가려면 이전처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대사인 장보고에게 미리 의뢰서를 내여 그것을 허락받은 다음에만 통과할수 있었다.

장보고는 해안을 정상적으로 순찰하여 맞다드는 해적들을 용서없이 징벌하였다. 조금이라도 맞서는자들은 무자비하게 쳐갈기고 꿇어앉는자들에게서는 항복서를 받아내여 다시는 해적질을 하지 못하도록 다짐을 두었다.

특히 기회를 노리여 남해기슭 마을들에 달려드는 왜나라해적들은 한놈도 살려두지 않고 물속에 처박았다.

그리하여 장보고가 청해진대사로 임명된 후로는 해안연선에 어떤 해적들도 얼씬 못하게 되였다.

그렇게 됨으로써 해안백성들의 생활은 안착되였으며 자기들의 생업에 열중할수 있었다.

해상권을 완전장악한 장보고는 청해진을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발

전시키였다.
그 시기 신라의 상품들은 당나라와 일본에서 비싼 값으로 팔리였다. 그만큼 질이 좋았던것이다.
장보고는 일본에 상품을 싣고 가서 무역을 크게 벌리였고 또 중개자의 역할도 하였다.
교통운수수단이 아직 미약하였던 때이므로 무역은 대체로 배로 진행되였다. 일본에서 당나라에 가는 류학생들이나 다른 나라의 사신들까지도 장보고의 배를 돈을 내고 빌려썼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일본의 이름있는 중이였던 엔닌이 당나라에서 불교를 배우고 돌아가기 위해 그곳에 주재하고있던 신라대신 최운에게 의뢰서를 내였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그 의뢰서가 적혀있는데 한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여있다.
《순례가 끝나면 적산포에 돌아와 청해진을 통과하여 귀국하려고 합니다. 바라옵건대 이런 사정에 대하여 장대사님께 잘 말씀드려주십시오. 그때 신라배의 왕래가 있게 되면 저희 일행을 함께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그러우신 귀하의 마음을 믿을뿐이옵니다.》
장보고는 신라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산동 문등현 청녕향 적산촌에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세우고 그 절의 재산으로 1년에 쌀 5백석을 거두어들일수 있는 땅을 사주는 조치도 취하였다. 이 《법화원》으로 말하면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바로 당나라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라사람들의 무역거점이였다. 장보고는 자신이 배와 매물사(물건을 팔고 사는 관리)를 보내여 무역거래를 하게 하였다.
그리 크지 않은 진의 변방군구 대사에 지나지 않는 장보고였지만 군사에서나 무역에서나 권위가 서고 세력이 늘어남으로써 조정에서도 그를 소홀히 할수 없게 되였다.
일본과 당나라에서도 그의 명성은 대단하였다.
다른 하나의 이야기로서 일본의 당당한 승려인 원인이 당나라를 순례하고 무사히 돌아간 사실이 있다.

원인일행은 838년 7월 양주부에 이르렀으나 당나라의 승인을 얻지 못해 그만두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들은 다음해인 839년 2월 양주를 떠나 초주에 도착하여 9척의 배를 겨우 얻어 신라사람 60여명과 운하를 나오게 되였다. 이후 그들은 법화원에서 신라사람들의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당나라의 려행허가증을 기다렸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안정을 잃고 갈팡질팡하던 그들은 장보고의 부하인 리원좌를 만나 그의 알선으로 려행허가증을 받게 되였고 후일에는 신라대사인 장영의 방조로 김진의 배를 얻어 타고 일본으로 돌아갈수 있었다.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모두가 장보고 관할하의 사관들이였으며 무역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어 안면이 넓고 권위가 있던터였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더라도 9세기경 조선남해와 조선서해의 모든 통제권은 장보고가 틀어쥐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당나라와 일본도 신라의 도움으로 무역을 하는 형편이였다.

한편 이 시기 신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고 왕궁은 여러 세력들로 얽혀있었다. 과중한 조세와 부역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왕실내부의 권력쟁탈이 그칠줄 몰랐다.

836년 흥덕왕이 사망하자 그를 기화로 사촌인 균정과 오촌인 김제륭사이에 왕자리를 노리는 불같은 싸움이 날마다 계속되였다. 여기서 결국 균정은 살해되고 제륭이 왕권을 쥐였다.

이때 균정의 아들인 우징과 장수 김양도 이 싸움에 끼여들었는데 김양은 부상당하고 우징은 도망쳐서 청해진의 장보고에게 와있었다.

838년 김명을 위시로 한 하나의 파가 또다시 정권을 쥐기 위한 란을 일으키자 제륭은 자살하고 김명이 왕위에 올랐다.

한편 청해진에서 장보고의 후한 대접을 받으며 복수를 벼르던 우징은 이곳 군사들의 열병행진을 보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어

느 군대도 이에는 따르지 못하리라 생각되였다. 만이 넘는 군대의 모습은 하나와도 같았다. 위엄차고도 민첩한 대렬동작은 그만 그를 격동시켰다.

우징은 장보고에게 이제 자신의 일이 성사되면 그의 딸을 태자비로 맞아들이겠다는 언약을 하고 원병을 요청하였다.

장보고는 어릴 때의 친구인 정년에게 군사 5 000명을 주어 우징과 김양을 원호하였다.

그리하여 839년 장보고의 원병은 김명을 항복시키고 우징을 왕자리에 올려놓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우징은 그 뜻을 펴보지도 못한채 갑자기 병이 나서 죽고 그의 아들 경응이 왕위를 잇게 되였다.

자기들의 왕권수립에서 장보고의 은공을 잊을수 없었던 경응은 그를 진해장군으로 봉하였다. 그러나 약속된 딸은 태자비로 삼지 않았다.

궁성의 간신들이 반대해나섰던것이다.

《상감마마, 장보고는 장군이라고 하나 섬에서 난 미천한 딸을 태자비로 들인다는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 아니겠나이까?》

이 소식은 장보고의 마음을 몹시 언짢게 하였다.

《무엇이라구, 미천하다구?! 뉘덕에 왕이 돼가지구… 괘씸하구나!》

장보고는 도무지 분을 삭일수 없었다.

한편 해상의 제왕으로 이름 떨치고있던 장보고의 위엄을 조정에서는 은근히 우려하였고 그 존재자체에 대하여 두려움을 금치 못하였다. 더우기 태자비에 대한 원한으로 그 무슨 실력행사라도 한다면 그를 누를만한 힘도 없으니 그대로 두기는 곤난한 일이였다.

마침내 그들은 장보고를 없애기로 결말을 보았다.

그리하여 옛날 장보고의 수하심복으로 있던 염장을 조정을 배척하고 그에게로 온것처럼 꾸미여 날랜 장수 몇과 함께 자객으로 보내였다.

《조정의 신하가 갑자기 무슨 일로 여기에 나타났소?》
장보고는 의아하게 생각되여 물었다. 하지만 교활한 염장은 능청스럽게 대답하는것이였다.
《조정의 일이란 어디 마음에 드는것이 있어야지요. 지내보니 믿을만한분이란 그래도 옛날 장군밖에 더는 없더이다. 이젠 마지막까지 장군의 막하에서 보내도록 해주시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장보고는 의문이 가셔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옛날 데리고있던 군인이고 어려울 때 다시 찾아왔으니 돕는것이 옳겠다고 생각되였다.
장보고는 그를 청하여 풍성한 주연을 베풀었다. 하지만 기회만 엿보던 염장은 술을 드는척 하면서 장보고에게만 련속 권하여 그가 취하도록 만들었다. 한잔 하니 장보고는 상감부자의 행실에 더욱 기분이 잡치였다. 딸을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 했지만 그는 좀처럼 듣지 않고 울기만 한다.
장보고는 실눈을 짓고 만취되도록 마시였다. 그러나 순간순간 검은 흉계의 마수가 조여들고있었으니 이때라고 여긴 염장은 함께 온 군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한편 깊숙이 품었던 비수를 꺼내여 번개같이 장보고의 가슴을 찔렀다.
《으악!―》소리와 함께 선혈이 샘솟듯 하였다.
그는 그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그리하여 당대 이름난 수군지휘관이며 해상활동가였던 장보고는 왕궁대관들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였다.
오직 저들의 리속과 자리만을 지키려는 족속들이였기에 나라의 인재도, 해안방비도 안중에 없었다. 대가 굳고 정직하며 옳은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주저하지 않는 장보고의 힘이 두려웠던것이다.
장보고의 부하들과 청해진의 군사들은 격분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이에 당황한 봉건정부는 즉시 청해진을 페지하고 막아버렸으며 군사들과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이주시켰다.

자기들의 대사를 죽인 놈이 염장이라는것을 알게 된 청해진군사들은 분격하여 그를 없애치우려고 주먹을 쳐들었다. 바빠맞은 그놈은 이에 겁을 먹고 급히 일본으로 도망쳐버리였다.

장보고가 죽고 청해진이 페지됨으로써 해안연선에는 또다시 그 전날처럼 해적들이 나타나 백성들의 재물을 로략질하고 노비로 잡아가는 처참한 일들이 날마다 벌어졌다.

백성들은 청해진을 다시 설치할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정권쟁탈에만 열이 오른 군신들의 귀에 그 청이 들릴리 만무하였다.

이처럼 장보고는 청해진을 내오고 해적들을 물리쳤으며 능란한 외교활동으로 나라의 대외무역발전에 이바지하였지만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나라형편을 보지 못하고 통치배들과 타협하였으며 왕권쟁탈에 말려드는 커다란 실수를 하여 종당에는 그 희생물이 되지 않을수 없었다. 하건만 장보고의 이름은 청해진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가야금을 만들어낸 우륵

비단치마저고리에 가야금을 휘감고 고운 손을 물결치듯 놀려가면서 노래부르는 녀성들의 맑은 목소리, 이것은 참으로 신비경이다. 우리 나라 어디서나 가야금의 우아한 선률은 흥겨웁게 울리고 그에 맞추어 부르는 민족고유의 노래가락은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과연 가야금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담았다고 할수 있다.

가야금을 만들어 나라의 음악발전에 기여한 우륵은 6세기 가야의 뛰여난 음악가였다.

그는 이름있는 작곡가였고 무용에도 조예를 가진 예술가였다. 우륵은 생애의 전부를 음악창작에 바쳤고 음악후비를 교육하는 등 나라의 예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6세기 전반기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 민족음악전통이 형성되던 시기이다. 4세기경에는 고구려의 음악가 왕산악에 의해 거문고가 개작되였고 5세기경에는 백결이 이를 이어나갔다. 6세기경에 이르러서 우리 음악은 독자적인 예술의 한부분으로 제 얼굴을 드러내면서 그 전통이 이룩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주변나라들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우륵은 그 출신자체가 인민들속에서 나왔으므로 생애와 출신에 대해서 기록된것은 없다. 다만 대를 이어 전해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오늘에까지 이르고있을뿐이다.

우륵은 락동강류역 대가야의 성열현이라는 곳에서 출생한것으로 알려진다. 남달리 음악에 깊은 뜻을 두고있던 그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그 어떤 소리도 그냥 스치지 않았다. 바람이 나무가지를 흔드는 소리도 노래로 받아들였고 물을 길으려 동이를 이고 우물에 모여선 녀인들의 맑은 웃음소리도 노래로 귀에 담았다.

우륵은 조상들이 이미 이룩한 음악의 성과들을 열심히 익혔으며 자기의 새로운것을 창조하기에 지혜를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우륵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우수한 음악가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는 수려한 강토와 그속에서 아름답게 피여나는 인간들의 생활을 마음껏 담을수 있는 음악적수단과 방법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던중에 가야금을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는 그때 널리 리용되던 슬(민족줄악기의 한가지, 모양이 가야금처럼 생기고 줄은 25개가 있다.)의 부족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수년간 고심어린 노력으로 마침내 오늘의 가야금으로 불리우는 악기를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그 시기 우륵이 만든 가야금은 인민들속에서 널리 퍼지였고 비파와 함께 기본현악기의 하나로 일러졌다.

가야금을 완성한 우륵은 사랑하는 제자였던 니문과 함께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타면서 수십년간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니였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에서 우륵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속에 가야금을 탔으며 가난한 그들의 살림을 동정하여 함께 울고웃었다. 이러한 방랑생활과정에 우륵은 자신과 다를바 없는 천민들의 처지를 절감하였고 그에 뜨거운 동정을 보내였다. 그는 이러한 하층백성들의 절절한 감정을 선률에 재현시켜 가야금에 담았으며 흥겨운 로동속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와 춤을 음악적언어로 만들기에 힘썼다.

《삼국사기》 악지에 의하면 우륵은 가야금곡으로서 12곡을 창작하였는데 그것은 《하가라도, 상가라도, 보기, 달기, 사물, 물혜, 하기물, 사자기, 거렬, 사팔혜, 이사, 상기물》 등이다.

우륵이 뛰여난 재간을 가진 음악의 명수라는 소문은 신라의 여러 지방에까지 퍼지게 되였으며 마침내 진흥왕에게까지 미치였다. 진흥왕은 우륵을 받아들이여 국원에 안착시켜 살게 하면서 법지, 계고, 만덕을 붙이여 가야금음악을 전수하도록 하였다. 우륵은 여기서 창작활동과 함께 후대양성에 적지 않은 힘을 들였다. 그 세사람은 각기 소질에 따라 가야금, 노래, 춤을 배웠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게 되였다.

어느날 이들은 우륵이 이미 가야에서 창작한 열두곡중에서 열한

개 곡까지를 익히였는데 서로 의논하기를 《이 음악은 번잡하고 또 음탕하여 아악과 정악으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합심하여 다섯개곡으로 완성하였다. (아악—궁중에서 정식으로 제정하여 쓴 음악. 정악—속되지 않은 정식의 고상한 음악)

처음 우륵은 곡들을 다시 편성하자는 말에 성을 내였으나 그들이 만든 다섯곡을 들어보고는 감탄하였다고 한다.

《흥겨운감을 주면서도 방탕에 흐르지 않았고 애달픈 맛이 있으나 비애조로 되지 않았으니 과연 정악이라고 이를만 하다. 그대들은 임금앞에서 이를 연주케 하라.》

그러던 어느 봄날 우륵과 그의 제자들은 왕의 부름을 받고 하림궁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계고는 가야금을 뜯고 법지는 노래를 불렀으며 만덕은 춤을 추었다.

그런데 음악연주회에 참석하여 왕의 곁에 붙어앉았던 한 간사한 신하가 진흥왕에게 이렇게 아뢰는것이였다.

《저 가야금에서 울려나오는 음악은 가야국을 망친 음악이니 장려할수 없다고 보나이다.》

수염을 싹싹 내리쓸고 두손을 매만지면서 왕의 비위를 맞추어보려 간살을 떠는 신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륵은 통분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즉시 왕앞에 나서서 자기의 생각을 주저없이 아뢰였다.

《대왕님, 우륵이 아뢰나이다. 말로나 행동으로 감히 다 표현할수 없는 기쁨이나 슬픔을 전하거나 토로하자고 한것이였으니 그것이 어찌 나라쇠락의 근원으로 되겠나이까? 음악이 나라의 쇠락과 멸망의 근원으로 된다면 이 세상에 성하는 나라에는 음악이 없을것이고 망하는 나라에만 음악이 있어야 할것이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음악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음악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다고 보나이다. 흥하는 나라에선 음악을 바로 쓰고 망하는 나라에선 음악을 바로 쓰지 못할뿐이라고 보나이다.》

누구도 감히 어쩌지 못할 사리정연한 우륵의 론거에 왕도 감동되여 두손을 내저었다.

《네 말이 옳거니. 가야가 망한것은 가야왕이 음탕하고 란잡

하여 정사를 바로 못한탓이지 음악에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러니 어찌 나라의 태평과 어지러움을 음악에 달려있다고 하겠느냐.》

왕은 우륵의 말대로 음악에는 죄가 없다 하면서 간사한 신하를 돌아보았다.

《대체로 성인이 음악을 제정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정서에 따라 그를 조절억제하도록 한것인바 나라가 태평하고 어지럽고 하는 것은 음률과 곡조에 관계되는것이 아니다.》

말을 꺼내였던 신하는 그만 게면스럽게 머리를 숙이고말았다.

왕은 우륵과 제자들이 작곡해낸것을 나라의 주되는 음악으로 삼았다.

그후 가야금곡은 궁중음악으로 되였고 하림조, 눈죽조 등 두개의 조가 생겨나 모두 185개의 가야금곡이 남게 되였다고 한다.

궁중에 있으면서도 우륵은 나라의 높고낮은 산언덕에 오르기를 즐기였으며 그속에서 재능있고 근면한 백성들의 소박한 생활을 가야금에 담았다. 그리고는 버들방천에 앉아 열정에 넘쳐 가야금을 뜯음으로써 아름다운 노래가락을 이 마을, 저 마을로 실어보내였다.

여기에 우륵의 인간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우륵과 함께 궁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만덕의 가슴은 뛸듯이 기뻤다. 가야금을 만들어내여 온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둘도 없는 스승인 우륵이 자기의 외딸을 며느리로 삼겠다니 이어인 일이냐? 자신과 같이 보잘것 없는 악공의 딸에게 귀한 아들을 장가들이겠다니 예상치도 못했던 경사였다.

얼마전 자기 집에 들리였던 그가 다 큰 딸을 보고는 인물맵시와 례의범절에 깊이 탄복하여 오늘아침 정식 청혼해왔던것이다.

《우리 서로 사돈이 됨이 어떠하오. 우리 애녀석과 집의 딸이 내 보기에는 짝이 될것 같은데.》

《아니, 황송하기 그지없나이다!》

만덕은 이 좋은 혼처를 놓칠가 두려워 한시바삐 딸과 의논하여 곧 성례를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만덕은 집에 들어서자바람에 이 기쁜 사실을 부인과 딸에게 전하면서 어서 빨리 준비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딸은 기뻐할 대신 금시 수심에 잠기였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결심한듯 아버지앞에 나섰다.

《아버님은 저더러 언제나 사람은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옵더니 오늘은 어찌하여 소녀를 다른 곳으로 시집가게 하시나이까?》

딸의 말에 만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우륵의 제자들인 만덕과 법지는 동갑이였는데 그들 둘은 장가도 같이 들고 신통히도 자식까지 같은 날에 보게 되였다. 만덕은 딸을 낳고 법지는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기쁜 나머지 그날에 혼사까지 정해놓고말았다.

그런데 법지의 내외간은 불행하게도 몹쓸 병을 만나 일찌기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은 노비로 사는 녀인이 하도 불쌍하여 데려다 길렀다. 한데다 어찌된 일인지 뒤날 그 아들은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만덕은 친우의 우정도, 그때에 맺았던 사돈도 다 잊어버리고 이미 법지의 아들을 사위로서는 제쳐놓은지가 오래였다.

그런데 딸은 오늘까지 그 일을 잊지 않고 아버지의 친분을 중히 여겨 새삼스럽게 그 일을 들고나오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달래고 얼리여도, 또 욕을 해도 막무가내였다.

《저는 아버님의 말을 따를수 없나이다. 우륵의 아드님으로 말할진대 인물도 잘나고 재간 또한 당할이가 없으니 그런분이 제 아니고 다른 처녀를 구할수 없겠나이까.》

아버지도 할 말이 없었다. 딸의 말이 옳았다.

(그래도 고이 기른 외딸을 어찌 법지의 병신자식에게 내여줄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딸은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는다.

《그가 앞못보고 말도 못하는 병신이기에 절대로 홀로 세상을 마치게는 할수 없나이다.》

만덕은 큰소리를 쳐댔다.

《벗의 도리도 도리지만 부모자식간의 도리라는것도 있지 않느냐! 이건 우륵선생과 결말을 맺은 혼사이니 이제는 달리 할수 없

느니라. 당장 몸단장을 잘하여라!》
이튿날 아침 궁궐에 나가 일을 보다가 딸의 거동을 살피려 들어가본 만덕은 그만 깜짝 놀라 기절초풍할번 하였다. 딸의 삼단같던 머리채는 간데 없고 그 예쁜 얼굴은 금시 얽은것처럼 검은 점으로 뒤덮여 차마 눈뜨고는 볼수 없을 형편이였다. 딸 필란은 간밤에 제 몸을 이렇게 만든것이였다.
(이 꼴을 보면 총각도 우륵선생도 혼사를 물리겠지. 아버님은 내가 잘되기를 원하여 법지의 아들을 그만두라 하지만 그것은 천벌을 받을 일이다.)
만덕은 부들부들 떨면서 딸을 그러안았다. 그러나 이제 당장 어쩔수 없는 일이였다.
이런 일을 당하고 대궐로 다시 나간 만덕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우륵은 그의 어깨를 가벼이 짚었다.
《아니, 갑자기 몸이라도 편치 않아 그러오?》
《아니오이다. 글쎄, 글쎄, 세상에…》
만덕은 그 사연을 눈물로 이야기하였다.
전후사연을 듣고 한동안 눈을 감은채 깊은 생각에 잠기였던 우륵은 심중한 어조로 뇌이는것이였다.
《우리가 얼마나 큰일을 저지를번 했소. 친우의 도리를 저버릴번 한것도 큰일이지만 우린 음악을 하는 사람들로서 더 좋은 노래를 지을수 없고 더 훌륭하게 가야금을 탈수 없게 될번 했소. 친구의 도리를 어긴 우리가 노래를 지은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또 남의 행복을 앗은 우리들이 가야금을 탄들 백성들의 경탄을 어찌 자아낼수 있단 말이요. 어서 빨리 두 젊은이의 성례를 잘 치르기요.》
우륵은 곧 옛 제자인 법지의 아들과 만덕의 딸의 혼례를 치르자고, 이 경사에 자기도 한몫 끼우겠다고 하며 흔연한 웃음을 지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더니 필란의 극진한 지성에 법지의 아들은 칠년만에 앞을 보고 말을 하게 되였다.
또한 랑군을 구완하는 과정에 좋다하는 약물이란 약물은 다 달이면서 맛을 보니 필란의 얼굴도 예전같이 이뻐지고 머리채도 치

렁치렁 늘어졌다.

법지의 아들은 장인인 만덕에게 거듭거듭 절을 하였다.

《아버님이 도리를 지켜 저에게 필란을 주어 돌봐준 은혜 황공할따름이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인간의 도리를 굳게 지키시는 아버님의 마음이 아마도 하늘을 감동시켜 저를 구해준것 같소이다.》

만덕은 그만 쑥스러워 아무말도 할수 없었다.

이때 이 광경을 그윽히 바라보던 우륵이 나섰다.

《내 평생 내 가야금이 내는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것이 없다고 생각했더니 도리를 지켜가는 필란의 마음은 참으로 노래보다 아름답구나. 내 오늘 노래가 아름다와야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와지기보다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와야 노래 또한 아름다와짐을 다시 한번 느끼는 바이로다.》

우륵은 두 젊은이의 등을 오래도록 두드려주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원하였다.

이렇게 우륵은 진실을 노래에 담으려 했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실으려 했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사랑했다.

인민의 음악가에 대한 백성들의 사랑은 깨끗한것이였다.

충주의 《월락탄》은 우륵이 유람한 곳이라 하여 후세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고 견문산에 있는 《탄금대》는 그가 가야금을 타던 곳이라 하여 이름을 바꾸었다 한다.

우륵은 전생애를 통하여 참된 음악을 창조하기에 힘썼다. 그가 초기에 지었다는 곡명만 보더라도 열두곡중에서 세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야국의 지방고유명칭들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륵의 창작이 백성들의 생활과 나서자란 고향의 자연풍토와 련결된 풍속적이고 향토애적인것임을 알수 있게 한다.

우륵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나라의 음악발전을 공고히 하고 풍부화한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5~6세기에 벌써 가야금대합, 중합 등 기악곡들이 창작되고 널리 퍼지였다는 사실은 16세기에 들어와서야 기악의 독자적인 형성이 이룩된 서유럽나라들과 비해볼 때 발전된것이라고 볼수 있다.

봉덕사의 종을 주조한 박한미

《뗑－뗑－뗑－》

은은하고 장중한 종소리가 들판을 지나 린근고을로 유유히 퍼져간다. 더 이를데 없는 숭엄한 감정이 사람들의 가슴에 공명의 파문을 일으킨다.

한번 듣기만 하면 긴 여운을 남겨주는 봉덕사의 종소리.

이 마을, 저 마을로 무게있게 울려가는 봉덕사의 종소리는 즐거운 설이나 추석이면 더욱 백성들의 걸음을 자기에게로 불러들인다. 그 신비로운 울림과 륜곽의 웅장함을 몸가까이 느끼게 되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들의 덧없는 생활에 얹힌 갖은 설음을 깨끗하게 가셔줄 행운의 봄우뢰를 련상하는것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으로서 가장 큰것이 바로 771년에 주조된 이 봉덕사(경상북도 경주)의 종이다. 12만근이나 되는 질량, 3.33m의 높이에 2.47m 직경의 아구리와 7.12m의 둘레, 26㎝의 두께를 가지고있는 이 종은 형태가 풍만한감을 주며 아름다울뿐아니라 겉면에 새겨진 우수한 치레조각과 여운있는 장중한 음향으로 하여 어느 종과도 비교할수 없는 독특한 미를 가진다. (재래식으로 무게를 다는 단위로서의 한근은 600그람에 해당한다.)

봉덕사의 종을 주조한 기술자들은 모두 4명인데 종우에 새겨진 그 이름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지워져버리고 다만 《박한미》라는 이름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

박한미는 평민출신의 기술자이므로 그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봉덕사의 종과 함께 그의 이름이 오늘에 와닿은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 다른 범종들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양상의 구상과 뛰여난 기교로 만들어진 봉덕사의 종이 그 증견자

로 남아있을뿐이다.

박한미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종을 주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나라에는 이미 여러개의 종들이 제조되여 리용되고있었다. 그들은 현존하는 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다른 나라 종들과 우리 종의 특징도 대비해보면서 거기에서 우월한 점들을 찾아 예술적으로 구현하기에 힘썼다.

박한미네들이 만든 봉덕사종의 예술적구상과 조형적특성을 보면 먼저 머리부분부터가 색다르다. 결고리로 되여있는 머리부분은 대모양을 한 원통과 이를 휘둘러 꿈틀거리는 룡의 형상을 줌으로써 조선종의 독특한 특색을 살리였다.

내려가면서 몸부분은 치레조각이 조화롭게 되였는데 정교하고도 섬세한 보상화무늬로 띠를 두르고 어깨부분에서는 유곽이라 불리우는 4개의 네모진 륜곽의 방형을 만들었으며 그속에 각각 9개씩의 도드라진 젖꼭지모양의 돌기물을 준것과 함께 아름다운 둥근 꽃무늬로 이채롭게 장식했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아구리부분에 8릉형을 립체적으로 적용하여 원주의 둥근 곡선에 약간의 은은한 변화를 보태줌으로써 좋은 효과를 얻었다.

또한 허리부분에는 종이 제작된 유래와 제작자들의 이름을 1 000여자의 글씨로 새겨넣었는데 여기에서도 두 부분으로 균형있게 나누고 그가운데는 《천인》의 조각을 생동하게 부각시켰다.

특히 지적해야 할것은 둥근형의 종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무미건조하게 될수 있는것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조형적변화를 준것이다. 즉 살아움직이는 룡의 형태에 강력한 곡선을 줌으로써 종전체에 운동감을 부여하였다.

뿐만아니라 《배부른 기둥》과 흡사한 팽창된 곡선을 허리부분으로 내려오면서 유순하게 줌으로써 그 웅장함과 기품을 더한층 높이였다. 그리하여 곡선조형에서 출중한 성과를 보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장식들과 띠들이 합당한 자리에 큼직큼직한 형태로 배치되여있어 종의 품위를 돋구어주었다. 또한 아구리부분에는 매듭마다 큰 무늬로 력점을 주면서 이에 따라 작은 무

늬로 공간을 메꾸어 장식했다.

제작자들의 이름가운데 새겨진 천인상도 자기 몫을 가지고 조형적으로 잘 통일되여있다. 꽃을 두손에 받쳐들고있는 녀인의 곡선미있는 몸매며 바람에 나붓기여 금시 하늘로 오르는듯한 옷자락들, 이를 잘 밑받침해주는 보상화무늬 등의 조화로운 얽음새는 참으로 기이하다.

더우기는 종머리에 오직 우리 종에만 고유한 소리통(삽기)이 있고 종을 달아 걸수 있는 고리로 된 룡트림조각이 있어 어디에나 들어서 걸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박한미를 비롯한 종주조가들의 조형적안목, 즉 예술적세계가 매우 높고 그것을 보다 현실적이고 방대한 주조실천에 반영하는 솜씨에 있어서도 또한 비상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봉덕사의 종에는 아름답지 못한 하나의 일화가 전해오고있다. 민간에서는 이 종을 《에밀레종》이라 부르기도 한다. 종이 울릴 때 어딘가모르게 《에밀레-》라는 소리를 낸다는것이다. 그것은 《어미》를 원망하여 울리는 소리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 종을 주조할 때 봉덕사의 중들이 백성들에게서 황동을 모아들이였는데 어느날 한 중이 외봉덕이 집에 들리였다.

《나무아미타불, 쇠걸립을 왔소이다. -》

바라갱쇠 굴러치며 중이 들어서자 애어머니가 외봉덕일 품에 안고 아장아장 걸어나왔다.

《여보시오 스님, 쇠걸립줄것 전혀 없으니 이를 어찌할가?》

《놋이라도 좋고 동이라도 좋고 무쇠라도 좋으니 주옵기만 하면 받아가겠소이다.》

봉덕 어미는 이에 또한 해쭉 웃으며 입 가볍게 대꾸했다.

《무쇠, 놋쇠 하나도 없으니 우리 외봉덕이나 줄가.》

중이 하는수없이 생년월일이나 적어달라고 했다.

봉덕사의 중들은 이렇게 전국의 방방곡곡을 참빗으로 누비듯 다니며 집이건 절간이건 가리지 않고 놋쇠들을 모아들이였다. 그

리고는 골풀무와 대풍구들을 묻어놓고 흑탄, 백탄 다 가져다가 불을 피운 후 이것들을 녹여내여 마침내 종을 부었다.

그런데 어인 연고인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였다. 아무리 종을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어느날 대사는 중들을 모두 모아들이였다.

《여봐라. 인가에 내려가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을 해보아라.》

《방방곡곡 다 댕겨도 짐승 한마리 죽인 일 없고 비린 음식 한꼬치 먹은 일 없으니 죄란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오이까?》

《그리할진대 어이하여 종이 되지 않느냐? 바른대로 말하여라!》

이때 그속의 한 중이 나서며 한마디 아뢰였다.

《아래마을 셋째 집에서 시주할것이 없다면서 외봉덕일 주길래 생년월일을 적어왔나이다.》

대사는 봉덕이를 시주로 주면 받아올것이지 생년월일은 왜 적었는가고 법석댔다.

《이 길로 바삐 가서 외봉덕일 데려다 종을 다시 하여라.》

중은 홍련화 세송이를 꺾어내여 바랑안에 집어넣고 외봉덕이네 집에 들어섰다.(바랑—중이 등에 지고다니던 보따리같은 큰 주머니)

《엄마, 엄마, 저 중이 날 잡으러 왔소. 어서 무쇠구멍에 감춰주오.》

중은 어머니에게 물 한그릇을 청했다. 우물에도 물이 말라 물을 길어오자면 십리가 실히 되는 곳으로 가야만 하였다. 봉덕 어미가 물을 길으려 동이 이고 나가자 중은 홍련화를 꺼내들고 어린애를 꾀여댔다.

《봉덕아, 봉덕아, 이 홍련화를 네가 가지려무나.》

어린애의 천진한 마음이라 기여나와 그 꽃을 냉큼 쥐자 중은 순간에 아이를 덥석 바랑안에 잡아넣어 걸머지고 사라져버리였다.

봉덕 어미가 물을 길어가지고 집에 들어서니 이미 중도 외봉

덕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불길한 생각이 눈앞을 덮어 《아이고, 아이고.》 하고 땅을 치며 따라나섰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중이 봉덕이를 업고가다가 바위우에 바랑을 벗어놨더니 금시 두쪽으로 바위가 갈라지면서 봉덕이는 그속으로 들어가고 바위는 도로 아물어붙는것이다. 뒤미처 봉덕 어미가 달려와 애걸복걸 울며 빈다.
능청스런 중이 넌지시 뇌이였다.
《봉덕이를 업어다가 초당에 독서재 짓고 글공부시켜서 과거급제 보면 팔자 고칠것이니 무얼 그러오.》
《아니 그게 정말이시우? 그럼 우리 외봉덕이 날 보고싶어 울거들랑 금의옥식 시켜주고 목이 말라할 때면 영천수로 적시여주오.》
역시 어리석은 녀인이라 중의 이 능치는 말도 곧이 듣는다.
잠시 말이 없던 중이 외봉덕일 낳을 때 태를 무엇으로 잘랐는가고 묻는다. 봉덕 어미는 이에도 사실대로 대답해주었다.
《뒤동산 새잎으로 태를 잘랐지요.》
외봉덕의 어미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중은 인츰 산에 올라 새잎을 뜯어다 바위를 켜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어인 변고인가. 굳게 다물렸던 바위가 스르르 갈라지고 그속에서 외봉덕이 기여나온다. 어머니품에서 떨어져 눈물에 젖은 어린애는 중의 장삼자락을 부여잡고 애걸복걸한다.
《은을 줘도 몇배로 주고 금을 줘도 몇배로 줄터이니 나를 살려주옵소.》
하지만 대사의 명이라 사정볼새 없는 중은 끝내 외봉덕일 업고와서 끓는 쇠가마에 집어넣었다. 한번 뒤척이면 살이 녹고 두번 뒤척이면 뼈가 녹는 가운데 어미를 원망하는 애절한 웨침이 산곡간에 차고넘치였다.
이렇게 다시 종을 부어 달아놓고 중들이 모여 쳐보니 그 소리 또한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니 《에밀레―》 하는 여운이 길게길게 끌렸다 한다. 이에 대해 당시 민간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한번 치면 에미에미
두번 치면 예미예미
세번 치면 어미어미
삼십삼천을 굴리치면
에밀에밀 하는구나

이것은 불교승들이 얼마나 악착하고 교활하게 백성들을 기만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것 역시 그 누가 지어낸것이겠지만 이 이야기는 민간에 널리 퍼져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다.

세나라시기 봉덕사의 종뿐아니라 여러개의 웅장화려한 종들이 제조되였는데 그 규모와 형태, 특이한 장식으로 하여 당대는 물론 오늘에까지 관심을 모으고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754년에 주조한 황룡사의 종만 보더라도 길이가 1장 3촌, 두께가 9촌, 질량은 49만 7천 581근(봉덕사종의 4배이상)으로서 세계 으뜸이였다.(13세기 원침략자들에 의하여 황룡사와 함께 없어진것으로 본다. 1장=10자 곧 3.03m)

또한 강원도(남) 평창 상원사종(725년), 선림사종(804년), 우좌팔번궁종(904년)…은 그 치레수법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봉덕사종의 뛰여난 조형미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1930년대에 도이췰란드국립미술박물관의 동아미술부장이라는 전문가는 이 종을 보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박물관설명서에 《조선제일》이라고 쓴것을 자신이 직접 《세계제일》이라고 고쳐쓰고 《이는 실로 〈세계제일〉로 말할것이지 〈조선제일〉로 할것이 아니다.》라고 도리질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뛰여난 재간으로 세인을 경탄시켰다.

대려행가 혜초

혜초의 소원은 불교가 발생한 인디아에 가보는것이였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큰 포부가 아니겠는지. 대양을 건느는 려행수단으로는 돛단 배밖에 쳐다볼것이 없었던 당시의 형편에서 볼때 혜초의 이 소원은 분명 지나친 욕망에 치중된것이였다.

하지만 혜초는 기어이 결심을 실천에 옮길 용단으로 인디아를 향해 당나라의 장안을 떠났다.

사나운 바다길에 나서니 돛을 단 배는 파도에 허궁 들리워 춤을 추듯 들까불리고 승객들은 겁에 질려 오금도 변변히 펴지 못하였다.

그러나 혜초는 너무도 태연자약하였다. 낯색의 자그마한 변화도 없이 목탁만 똑딱똑딱 단조로이 두드려대고있는것이다.

《불교와 그 문화가 발생한 오천축국을 보지 못하고 무슨 착실한 불교도라고 하겠소.》

스승으로 모시였던 인디아의 중인 금강지의 말이 다시금 그의 귀전을 울린다. 못잊을 스승의 당부이자 제자신의 변함없는 의지이기도 한 그 말의 무게가 더 과중하게 실려옴을 온몸으로 느끼며 혜초는 격랑이는 바다의 먼끝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혜초는 704년경에 태여난것으로 알려진다. 불교가 성행(527년=법흥왕 14년에 불교를 받아들임.)하면서 그는 집을 떠나 절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다. 아직 나이가 어렸던 혜초는 열심히 불교를 파고들었다.

절간생활이란 한줌의 낟알을 시주 받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집집의 대문을 두드리기도 해야 하는 구차스러운것이였다. 그러나 혜초는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다. 오직 불교교리를 익히는데만 심혼을 쏟아부었다.

그가 중이 되게 된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혜초는 동계천에서 동네아이들과 놀다가 산등성이를 타고내려온 산돼지를 잡게 되였다. 그는 이것을 끌고 집으로 돌아와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마당구석에 버렸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둘러보니 뼈가 간곳없이 사라진것이였다. 다만 마당뒤켠으로 엷은 피자욱이 나있을뿐이였다. 혜초가 그 자욱을 따라가보니 산돼지의 굴에 닿아있었다.

여기서 그는 다섯마리의 새끼를 품에 꼭 껴안고있는 다른 어미산돼지를 보게 되였다. 이것은 그를 몹시 놀라게 하였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저 새끼들이 어미를 잃게 하다니!》

그후 혜초는 중이 되여 장삼을 입었다고 한다.

중이 되여 얼마 지나니 그는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싶어졌다. 생각하던 끝에 혜초는 절간주지에게 자기의 뜻을 말하였다.

《스님, 당나라에 가서 더 배우고싶소이다.》

《어서 그리 하여라. 거기에는 귀한 책들도 있고 불교교리에 밝은분들도 많다고 하더라.》

그리하여 혜초는 스승이 써주는 편지를 받아들고 당나라로 떠나게 되였다.

당나라에서 그는 그곳 중들에게 뒤질세라 열심히 배워나갔다. 혜초는 짧은 기간에 놀라웁게 성장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벌써 불교교리에 정통했고 이어 다른 학문들에도 조예가 깊어졌다.

그는 이른나이에 당나라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고승으로 되였다.

그러던중 남쪽 관동지방에서 인디아의 중인 금강지를 만나게 되였다. 금강지는 그래도 불교를 하자면 오천축국을 보아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언제인가는 반드시 가보리라 하던 곳인데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은 더욱 그곳으로만 달리였다.

그리하여 이렇게 배에 오르게 된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것인가는 당나라 현장이 남긴 저서 《대당서역기》를 읽으면서 깊이 알게 되였다. 인디아

로 가려면 불모의 땅인 사막을 가로질러 나가야 하며 또 빠미르고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말이 쉽지 순식간에 모래산을 만들기도 하고 또 허물어버리기도 하는 고립무원한 사막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의 몸으로 지난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빠미르고원 역시 고향의 뒤동산을 넘는것과는 다른것이였다.

하지만 혜초의 굳은 결심은 이젠 움직일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내 기어이 가고야말리라.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태운 돛배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지나고 스리랑카를 거쳐 인디아땅에 들어섰다.

정말이지 간고하고도 장구한 로정이였다. 그 어간에 여러차례에 걸쳐 배를 갈아타고 또 수없이 걷기도 하였다. 벌써 장안을 떠난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여기로 오는 도중에서도 그는 많은것을 배웠고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도 드려주었다. 가장 가슴아픈것은 항구마다에 몰켜서서 먹을것을 구걸하는 거지들이였다.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내 너희들을 구원토록 할것이다.)

혜초는 뜨거운 동정을 보내고 또 보내였다.

간지스강어귀에 이른 혜초는 인디아의 허물어진 옛 성곽들을 주의깊은 눈으로 돌아보았고 불더위를 이겨내면서 무성한 숲을 헤치여 마케타국왕의 지경안에 있는 절간인 마하보리사에 도착하였다. 그는 금불상앞에서 념불을 외우면서 목탁을 두드려 배례를 올리였다. 그리고 석가가 중생을 불법에로 인도했다는 《록야원》에 들어섰다.

석가모니가 생존해있을 때는 이곳에 사슴떼가 뛰놀고있었기에 《록야원》이라 하였다는것이다.

그는 석가가 《구시나》도를 깨우쳐 부처가 되였다는 《왕사성》도 돌아보았다.

불교의 성지를 눈앞에 마주한 혜초는 평생의 숙원이 성취된것이 너무 기뻐 그자리에서 시 한수를 지었다.

늘 생각했더니라 보리사가 아득하고
이제사 멀리 하랴 록야원이 여긴것을
가파른 길 험하다고 사람들은 탓하지만
그 무슨 장애라도 나는 개이치 않으리
불적의 여덟탑을 보기란 진정 어려운 일
허나 이제는 이리저리 털리고 소실되여 어지럽구나
여덟탑 뵈오려는 소원을 채울이 그 몇이던가
그런데도 오늘아침 이자리에서 나는 보았노라

혜초는 불교의 본고장을 돌아보았으나 가슴은 어인 일인지 성차지 않았다. 걸음을 더 크게 내짚어 드넓은 이 세상을 한꺼번에 모두 알고싶어졌다.

그리하여 혜초는 동천축국을 돌아 중천축국의 도성인 갈라급을 찾았다.

당시 인디아에는 《오천축국》(다섯개의 천축국—동, 서, 북, 남, 중)이 존재하고있었다. 그는 중천축국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문물풍속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었고 당시 왕에게는 900마리의 코끼리가 있으며 신하들은 각기 직급에 따라 200～300마리를 가지게 된다는것까지 알게 되였다.

천축국들에서 혜초는 그곳의 개별적인 절간들도 보았다. 그리고는 그 특징적인 면에 대해서 목책에 빠짐없이 써넣었다.

석달이라는 기간을 거쳐 중천축국을 일일이 돌아본 혜초는 다시 남천축국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그곳 백성들이 돌을 쫓고 굴을 뚫러서 지었다는 네면이 300보나 되는 큰 절간에도 들어가 참배를 드리였다.

인디아라면 불더위가 사정없이 내려쪼이는 고장이 있는가 하면 또한 눈속에 파묻혀있는 곳도 있다.

혜초는 길도 없는 숲속을 무더위와 싸우면서 초행길을 헤쳐 걷고 또 걸어 이번에는 서천축국에 이르렀다.

이곳의 특징적인것을 모두 적어놓은 혜초는 마지막에 이 지방에서 서쪽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은으로 돈을 만들어 쓰고있다는

것까지도 빼놓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백성들은 노래를 몹시 즐긴다는것도 써두었다.

혜초는 또다시 북으로 발길을 돌려 석달을 넘게 걸어서 인디아에서는 가장 추운 북천축국에 들어섰다. 더 나가자면 히말라야산줄기의 험산준령을 넘어야 하건만 그는 조금도 주저없이 설산(히말라야산줄기의 높고 험한 곳인데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있다.)을 넘어서고야말았다.

결국 혜초는 설산을 걸어서 넘은 조선사람중의 첫 인물이 된셈이다.

온통 눈으로 뒤덮인 설산에 이르니 모든것이 눈같아 보이고 세상은 얼음속에 파묻힌것만 같았다. 그렇듯 백설로 뒤덮인 험준한 설산을 넘어섰다는 긍지와 희열은 그에게 시를 낳게 하였다.

그는 그자리에서 격조높이 이런 시를 지었다.

사나운 눈 얼음과 맞붙고
매운 바람 땅을 가르네
바다는 성에강으로 단을 이루고
강물은 얼어붙어 언덕을 먹어드누나

룡문에는 폭포마저 끊어지고
우물엔 서린 뱀 달렸구나
불을 짝하여 해에 올라 노래도 한다마는
어떻게 저 빠미르고원 넘는단 말인가

혜초는 또다시 걷고 또 걸어 페르샤만연안에 자리잡은 페르샤(이란)에 다달았다.

이곳에는 아직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짐승들을 잡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여줄것을 하늘에 비는 행사였다.

혜초는 파사국, 대식국, 대불림국(동로마제국), 소불림국(수리아) 등을 모두 도보로 차례차례 돌아보았으며 가는 곳마다에

서 술한 문물, 풍속, 국가제도자료들을 묶어나갔다.

대식국에서 녀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으며 모직으로 덧옷을 만들어 입는 특이한 풍속이 있었다.

대불림국에서는 군대에 각별한 힘을 넣고있었는데 그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고 규률도 있으며 훈련도 맹렬히 하고있었다.

혜초는 이외에도 동남아시아에 속한 여러 나라들을 돌아 귀로에 올랐다.

그는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중앙아시아의 마베란나흐르지방의 9개의 소국들을 돌아보았으며 식닉국에 들려서는 이 나라의 왕과 친교까지 맺었다. 얼마간 같이 지내는 사이에 친근해진 왕은 혜초의 고달픔을 헤아려 하늘소를 선물로 주면서 타고가라고 하였지만 그는 그것 역시 굳이 사양하고 도보로 길을 떠났다.

혜초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고 빠미르고원을 단독으로 넘었으며 소륵국과 구자국을 지나 또다시 5 000리가 넘는 우전국으로 갔다.

혜초는 727년 11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 도착하게 되였다.

이것은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치는 힘겨운 로정이였다. 혜초는 이렇게 순전히 걸어서 10만여리의 기나긴 로정을 답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혜초는 어려운 려행길에서도 언제나 나서자란 고향과 조국땅을 잊지 않았으며 그 그리움을 다음과 같은 시구절에 담아 노래하였다.

달밤 남천축국 길우에서 하늘을 보니
뜬 구름만이 머물머물 흘러가누나
네 가는 편에 소식 적어 부칠수도 있으련만
빠른 바람결은 아는체도 않누나

내 나라는 아득한 하늘 저 북쪽인데
남의 땅 대지의 서쪽 끝에 와있노라
무더운 여기엔 기러기조차 없거니

그 누가 날 위해 고국소식 전해주랴

혜초는 답사과정에 체험하고 본것, 들은것, 느낀것들을 대장편기행문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책에 남기였다.

혜초의 이 려행기는 민족의 국보이며 세계문학의 재보이다.

혜초는 수십개의 나라들을 편답하면서 그 나라들의 통치체제, 기후풍토를 비롯한 자연지리적조건, 그곳 사람들의 생활형편, 문물, 풍속세태, 기술의 발전정도, 종교 등에 이르는 인간생활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특히 그는 자기의 려행기에서 매개 나라들의 지리적특징들과 환경, 도시이름, 특산,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포괄적인 내용들을 꺼들어 상세히 서술하였다.

물론 시대적제한성과 중이라는 신분으로 하여 그가 남긴 글에는 종교적색채와 함께 일부 부정확한 평가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의 간고한 려행은 결코 헛된것이 아니였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혜초의 저서는 인류문화보물고에 특출한 기여를 하고있다.

그의 려행은 금시 태양이 땅우의 모든것을 태워 말아올려갈듯한 열대의 불더위며 사람의 몸에 닿기만 하여도 화상을 입는다는 열파, 이쪽의 웅장한 모래산을 순식간에 저쪽 언덕에 덧쌓아 무져놓는 사막의 놀라운 모래바람이며 모든것이 눈속에 묻히고 얼음속에 잠겨있는 고산지대를 넘어야 하는것으로 하여 보통의 결심이나 의지로써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때문에 저서 《왕오천축국전》은 그의 비상한 의지와 고귀한 노력의 열매로서 8세기경 인디아와 중앙, 동서남 아시아나라들을 연구하는데서 가치있는 밑천으로 되며 세계문화사에서도 특수한 자리를 차지한다.

혜초는 당나라로 돌아와 자기의 옛 스승인 금강지를 찾아보고 계속 불교를 연구하였다. 그의 《왕오천축국전》은 여러 사람들이 베껴서 보게 되였고 온 당나라땅에 퍼져나갔다.

혜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저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

으며 계속 읽히웠고 여러가지 해석들도 붙게 되였다. 당나라의 혜림이라는 중은 이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되는 《일체경음의》라는 책을 내였다.

그러나 한때 불교는 수난을 겪게 되였다. 크게 억압을 당하고 많은 불교사원들이 털리웠으며 중들이 절을 떠나게 되였다.

따라서 혜초의 《왕오천축국전》도 차츰 없어지게 되였다.

그런데 1910년 중국 감숙성 돈황현의 한 석굴속에서 혜초의 이 저서가 발굴되자 학계에서는 커다란 파문이 일어났다.

돈황의 석굴로 말하면 오랜 옛적부터 승려들이 절간으로 꾸리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던 곳이였다. 그런데 1900년경 돈황사 주지로 온 왕도사가 절을 돌아보던중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 흙으로 매몰한 입구 비슷한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곧 흙벽을 터치고 들어가니 그 안쪽 방에 희귀한 책들이 가득차있는것이 아닌가.

그 책들의 특징과 여러 조사결과로 미루어보아 그것들은 약 1 000여년전에 절의 한 중에 의하여 숨겨진것이라는것이 판명되였다.

이 소식이 퍼지자 프랑스학자 펠리오는 1910년 돈황으로 가서 이 책을 사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펠리오는 붓으로 적은 글씨와 종이를 검증하고나서 틀림없이 천여년전 당나라의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는 고대, 중세에 자기들보다 훨씬 앞서나갔던 동방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고있었다.

그런데 책을 보던중 그는 어딘가 혜림이 쓴 《일체경음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두 책을 맞추어보니 틀림이 없었다.

이렇게 되여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다시금 해빛을 보게 되였다.

기행문 《왕오천축국전》은 원본이 상, 중, 하로 되여있었다.

이것은 《일체경음의》에 기록된 사실이다. 그러나 어언 1200여년이 흘러간 뒤라 책은 제 모양을 보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아쉽게도 발굴당시 책은 원전의 앞뒤와 중간부분이 떨어져 류실

되고 중, 하권의 일부만이 남아있었다.

《왕오천축국전》에서 혜초는 남인디아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중앙인디아로부터 남쪽으로 석달 남짓하게 가면 남인디아의 국왕이 사는 곳에 도달하는데 왕은 코끼리를 800마리나 가지고있다. 땅은 매우 넓고 큰데 이곳에서 남쪽으로 가면 남해바다가에 이르고 동쪽으로 가면 서해에 이른다. 북쪽으로 가면 중앙인디아와 서인디아 및 동인디아나라들과의 경계선에 접하게 된다. …

의복과 음식 및 민속은 중앙인디아와 비슷하고 말소리만은 조금 다르다. 기후는 중앙인디아보다 덥고 토산물로서는 목화와 코끼리, 물소와 황소가 있다.

얼마간의 양들도 있으나 하늘소와 락타 및 노새 등은 없다. 벼 심는 논은 있으나 기장이나 조와 같은것은 없으며 명주나 비단 같은것은 전혀 없다.》

혜초는 인디아와 우리 나라의 농토산물, 풍토, 생활풍속들을 대비하면서 중앙인디아로부터 동, 서, 북, 남 인디아의 왕들이 가지고있는 코끼리의 수자까지 빠짐없이 적어나갔다.

또한 중앙인디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기후가 매우 따뜻하고 꽃이 늘쌍 피여있으며 서리나 눈이 오지 않고 떡과 국수 및 우유는 먹지만 장이 없고 소금이 있으며 백성들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 왕은 말을 100마리 가지고있고 지방귀족들은 3～5마리 가지고있으나 백성들은 한마리도 못 가지고있었다.》

또한 가락국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썼다.

《그 나라는 산속에 있는 나라로서 시내물과 골짜기가 좁고 작으며 북남으로는 길고 동서로는 짧으며 산세는 험준하며 그늘진 산이 많았다. 지대는 몹시 춥고 겨울에는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며 여름에는 가지각색 풀들이 무성하게 대초원을 이룬다.》

뿐만아니라 혜초는 티베트는 남자와 녀자의 옷이 꼭같다고 하였다. 페르샤사람들은 명주와 솜을 가지고 중국과 무역을 하며 짐승을 죽인 그 손으로 무엇을 먹으면 복이 온다고 하면서 손으로 집어들 먹고있었다는데 대하여서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호나라의 녀자형제가 남자형제들의 부인이 되는것과 아직 미개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토카스리탄, 바이얀 등 나라들에서 여러명의 남자들이 하나의 부인을 얻는 특이한 풍속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10년세월 보고 듣고 느낀것들을 비교대조하면서 걸음걸음 적어넣은 이 책은 당시 사회의 모습을 연구하는데서 실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하기에 펠리오는 《왕오천축국전》에 대하여 이렇게 평하였다.

《8세기의 불교를 상대로 하여 묘사한 현대에 있어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1960년 미국의 예일대학의 교수인 죤한라다는 책의 진실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마르꼬뽈로〉의 〈동방견문록〉에는 조작이 있지만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모든것이 있는 그대로 기록된것이니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고전문헌중의 한 중요한 자료이다.》

이처럼 세계에 이름을 떨친 불교의 중이며 대려행가인 혜초는 당시 동방을 연구하는데서와 우리 조상들의 의지력과 탐구심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귀중한 문화재보를 남긴 학자였다.

《왕오천축국전》은 현재 프랑스 빠리국립도서관에 보관되여 있다.

혜초의 스승이였던 금강지는 자기의 유서에서 제자 6명을 짚었는데 그 두번째로 혜초를 들었다고 한다.

《…밀교(불교의 한 분과)의 경전을 완전 익혀서 일가를 이룬 제자가 8명이 있었으나 이제는 6명이 남아있게 되였는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금강사의 함광과 신라의 혜초… 등이다. 그리고 밀교를 배우고저 하는 이들중에서 의문에 부딪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여섯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주어서 밀교의 법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 …》

하지만 혜초는 당나라의 장안에서 그처럼 그리던 고국땅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채 생을 마치였다.

학자이며 작가인 설총

어느 봄날 이름난 중인 원효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길 한복판에 나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자루없는 도끼를 누가 주어 맞춰줄것인가. 하늘 고일 기둥을 찍어야 할터인데.》

길가던 사람들은 그 뜻을 알리 없어 서로 의아한 표정들이다.

《갑자기 왜 저러우? 정신이 나간게 아니우?》

《이름난 중이 미쳤구려.》

이 일은 당시 왕이였던 신문왕에게도 알려졌다. 글귀에 밝았던 신문왕은 이것을 인차 깨닫고는 회심의 미소를 띄우는것이였다.

《아마 이 법사가 귀한 집 딸을 얻어 착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가보다. 나라에 큰 인물이 있는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왕은 마침 궁중에 있던 과부공주를 속으로 생각하였다.

《얘들아, 그 스님을 대궐로 모셔드려라.》

이어 신하들은 어명에 따라 문천교에서 일부러 물에 떨어져 옷을 함뿍 적신채 누워있는 원효스님을 만나 궁중으로 데려왔다. 왕의 분부에 따라 신하들은 그의 젖은 옷을 말리면서 다른 옷을 갈아입히였다.

이로 하여 원효스님은 궁중에서 하루밤 묵게 되였다. 그런데 그 후 공주는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그가 바로 설총이였다고 한다.

이것은 설총의 출생과 관련한 설화이다.

설총은 그 이름자체가 총명하다는 뜻이다. 그의 다른 이름도 총명하다는 뜻을 담아 총지라고 불렀다 한다.

이와 같이 설총은 7세기 유명한 중이였던 원효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못하며 다만 뛰여나게 총명하였다는것이 전해지고있을뿐이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여있다.

《그의 성질은 총명하고 예민하여 어려서부터 도술을 알았으며 방언으로 9경(아홉종류의 경서)을 읽어 후배들을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를 존경하고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당대의 큰 학자이며 특히는 후대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는것을 짐작하게 된다.

그는 벼슬로 한림학사를 지내였고 주로 왕의 정사에 의견을 내는 식으로 기여한 사실들이 많다고 한다.

설총은 어린시절 아버지한테서 교육을 받아 경서와 력사 등을 열심히 공부하여 모르는것이 없는 박식한 인물이 되였다. 그는 당시 신라의 손꼽히는 10명 학자들중의 기본인물로 지목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의 공로는 전하여지지 않고있다.

단편적이기는 하나 그는 말을 글로 써서 음그대로 나타내는 방법을 깊이 연구하였다고 한다.

그때까지는 세나라시기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여온 리두식표기법을 많이 리용하였다.

설총은 이 리두식표기법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완성하였다. 그는 이것으로써 9경을 번역하였는데 당시의 학문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설총이 체계화한 리두식문자로는 동방민족의 언어에서 쓰이고있는 물건들의 이름을 적을수 있었고 문학적인 글들이 씌여졌다.

또한 설총은 이 리두로 후배들을 가르쳤다. 때문에 고려시기까지도 학자들속에서는 그를 학문의 조상으로 우러렀고 존경하였다.

설총은 글을 특히 잘 지었다. 지금 남아있는것으로서 그가 썼다는 비문들이 더러 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난 뒤라 글자들이 흩어져

서 읽을수 없으므로 그 내용을 알수 없다.

오직 《화왕계》라는 우화소설이 유일하게 대표작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어느해 5월이였다.

때이르게 장마가 몰려들어 비가 계속 내리더니 어쩌다가 금시 날이 개이면서 해별이 흘러들었다.

높고 밝은 자리에 올라앉은 신문왕은 울적한 기분을 달래기 위하여 앞에 앉아 열심히 글을 읽고있는 설총에게 말을 떼였다.

《오늘은 궂은비가 멎고 남풍이 불어 서늘한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과 듣기 좋은 음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상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적한 마음을 펴는것만 못할것이다. 너는 반드시 색다른 소문도 얻어들었을터인데 어찌 나를 위하여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느냐?》

설총은 일순간 임금님에게 충고가 될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왕의 비위를 거슬리거나 기분을 잡치게 해서는 안되겠기에 마음은 몹시도 착잡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기회를 놓침이 없이 교훈으로 될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전날 자기가 들은 이야기라 하면서 넌지시 말을 시작하였다.

《상감마마, 그럼 들어보시오이다.》

하늘을 쳐다보던 설총이 말꼭지를 떼였다.

옛날옛적 화왕(모란꽃)이 처음 왔을 때 향기롭고 아름다운 동산에 정히 심고 푸른 장막으로 곱게 둘렀더니 봄이 되자 온갖 꽃들중에서도 뛰여나게 희한한 꽃으로 피여났다. 먼곳의 꽃들도, 가까이에 있는 꽃들도 자기를 어여쁘게 단장하고 화왕의 주위에 몰려들어 서로 그의 환심을 사보려고 별의별 노죽을 다 부리면서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날 새빨간 얼굴에 흰이를 살짝 드러내보이며 금방 하늘에서 내려온듯 요염하게 차린 미인이 나타났다. 이 미인은 수집은듯 눈을 반쯤 내리깔고 얌전하게 왕앞에 나타나 정중히 인사

를 올리더니만 자기 소개를 하는것이다.

《나로 말하면 흰눈같은 모래가에 자리를 잡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물에 얼굴을 비치며 봄비에 몸을 씻어 때를 벗겨버리며 청풍을 즐기는 한가로운 장미올시다. 임금님의 높으신 덕을 삼가 듣자옵고 향기로운 당신을 곁에 모시기를 원하오니 임금님께서는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나이까?》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한 장부가 별로 단장도 아니하고 베옷에 가죽띠를 띠고 성성한 백발에 지팽이를 이리비틀 저리비틀 하면서 화왕앞에 나서는것이였다.

《나는 저 토성밖의 큰길가에 살면서 아래로는 창망한 벌판을 내려다보며 우로는 높이 솟은 산세에 부지하여 봄철에 피는 할미꽃으로 아뢰나이다.》

그리고는 인사를 드리고서 한걸음 더 나서며 자기의 진속을 하나하나 터놓는다.

《저의 생각에는 좌우에서 임금님께 올리는 음식이 비록 풍족하여 고량진미로 창자를 채우고 향기로운 술로 심신을 맑게 하며 롱과 상자에 의복을 쟁여두었더라도 좋은 약으로 원기를 돋구며 독한 약으로 병독을 없애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그러므로 옛글에 실과 삼으로 만든 좋은 옷감이 있더라도 풀이나 갈과 같이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야만 모든 사람이 아쉬운것이 없다 하였으니 대왕께서도 혹 이런 생각을 두시는지요?》

그옆에 앉아있던 신하는 두명이 이렇게 왔는데 누구를 두고 누구를 보낼것인가에 대하여 화왕께 물어왔다.

그러나 화왕은 우물거리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

《령감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여쁜 녀인은 얻기가 어려운것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가?…》

왕의 미적지근한 대답에 장부가 한걸음 썩 나서며 거침없이 자기의 뜻을 전한다.

《나는 화왕이 총명하고 의리를 안다기에 왔더니 이제 알고보니 틀렸습니다그려. 무릇 임금된자치고 간사한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이가 흔치 않으며 바르고 옳은자를 멀리 하지 않는이가 드무나

이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큰 성인은 한평생 불우하였고 큰 인물도 시골에 파묻혀 늙어버렸으니 낸들 어찌하겠나이까!》

장부는 세상에 믿을자가 없다는듯 두손을 내저으며 한탄하는 것이다.

그러자 불시에 화왕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잘못하였다.》

화왕은 거듭 사죄하더니만 요사한 장미를 밀어버리고 할미꽃을 받아들이였다.

이것이 그날 설총이 들려준 《화왕계》의 간단한 내용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난 신문왕은 무엇인가 깨닫는바가 있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 이야기는 진실로 깊은 뜻이 있으니 기록하여두고 왕자의 훈계로 삼도록 하라.》

설총의 이야기에서 화왕인 모란은 임금님이고 장미란 미인은 간신을 의미하며 할미꽃이란 장부는 바로 충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설총은 화왕과 함께 대조되는 두 꽃을 등장시켜 왕의 가슴이 뜨끔하게 폭로풍자하고 교훈을 준것이다.

왕이라는 타고난 직분을 걸고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꾀에 빠져 충신들을 배척하는것이 바로 당시의 일반적인 현상이였다. 이것을 설총은 우화적인 수법으로 징계하였던 것이다.

모란꽃인 화왕의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겉으로는 위엄이 풍기고 현명한체 하지만 속으로는 량겨드랑이에 녀인들을 끼고앉아 간신들의 속삭임에 넘어가 정사에서 옳고그른것 하나 변변히 분간해 처리하지 못하는 왕의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날카로운 할미꽃의 충고야말로 설총이 왕에게 언제든지 하려했던 말이기도 하였다.

설총의 《화왕계》는 7세기 대표적인 우화산물로서 그 시기 문학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다.

설총이 《화왕계》를 사전에 지어놓았던것인지, 아니면 어느 누

구의 이야기에서 소재를 취한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 긴장한 순간에 머리에서 착상한것인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임금님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앞에서도 꺼리낌없이 이런 이야기를 엮어나갔다는것은 그가 얼마나 총명한가를 알게 하는 동시에 설총이 왕권앞에서도 솔직성과 대담성을 발휘한 인물이였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왕의 말 한마디나 손짓 하나면 목이 달아나는 판에 이처럼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제 할 말을 쏟아놓았다는것은 그의 배짱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설총의 《화왕계》는 그때부터 후날 왕들이 교훈으로 삼는 지침으로 되였다 한다.

때문에 고려시기에 와서까지도 현종왕은 설총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설총의 글은 국내에서뿐아니라 일본에서도 그 이름이 났었다. 어느해 설총의 손자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는데 그곳의 권위있는 한 학자는 그에게 시를 써보내면서 서문에 이런 글을 함께 넣었다고 한다.

《…듣건대 신라사신 설씨가 바로 설거사의 손자라고 하니 비록 그의 할아버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손자를 만난것이 기뻐서 이에 시를 지어 보낸다.》

이 글을 놓고보더라도 당시 일본의 문화발전경위에 대하여 알수 있고 그들이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존경하였는가에 대하여 느낄수 있다. 설총이 이와 같이 총명하였던것과 같이 그의 아들 설판관도 아버지의 기지를 이어받아 어떤 문제에서든지 밝았고 문장에서도 뛰여났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설총은 세나라시기의 학자였으며 좋은 글을 후세에 남긴 작가였다.

《해동성국》을 일떠세운 대조영

고구려땅을 강점한 당나라침략자들은 안동도호부라는 통치기구를 만들어놓고 백성들의 피땀을 가혹하게 짜냈다.

대를 두고 물려온 귀중한 재보들을 되는대로 략탈하는가 하면 고구려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였다. 그리고 수많은 유민들을 영주지방(오늘의 료녕성 조양)으로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들의 관할하에 두었다.

당나라통치배들은 고구려사람들이 몇사람만 모여앉아 고통스러운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여도 잡아다가 두들겨팼고 걸핏하면 죽여버리였다. 게다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무리로 굶어죽었다.

그런데도 도독 조문홰는 고구려사람들과 말갈족, 거란족을 더욱 못살게 들볶아대였다.

더는 참을수 없었던 고구려유민들은 영주에서 말갈족, 거란족과 련합하여 696년 5월 당나라침략군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조문홰부터 잡아죽이라!》

《도호부를 들부셔라!》

곳곳에서 하늘을 뒤흔드는 함성과 불길이 솟아오르고 성난 백성들은 서로서로 어깨를 겯고 노호처럼 영주성으로 밀려갔다.

폭동이 시작된지 10여일이 되여 벌써 그 수는 수만명에 달하였는데 그들은 무엇도 주저하지 않았다.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술놀이에 빠져있던 당나라통치배들은 기겁하여 무작정 수많은 군대를 급파하였지만 폭동군을 당해낼수 없었다. 몇개의 성들이 벌써 폭동군의 손에 함락되고 동부와 서부로 나뉘여진 폭동군은 싸움마다에서 당나라주력군을 몰살시

켰다.
이때 고구려유민들로 꾸려진 동부의 부대를 지휘한 사람이 대조영이였다. 이전 고구려국가 귀족의 아들인 대조영은 이곳 영주땅에서 고구려유민들을 묶어세우면서 반드시 옛 대고구려를 다시 찾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였다.
대조영은 말갈인들의 추장인 걸사비우와 손을 잡고 동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리하여 9월에는 벌써 료서지방의 여러 성들을 당군의 수중에서 빼앗고 각지에 흩어진 고구려유민들을 부대에 인입하면서 대오를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697년 4월에 이르러 돌궐족이 간섭해나서고 거란인대장이였던 리해고의 변절로 난관이 조성된 조건에서 훈련되지 못한 백성들을 이끌어 당군과 싸운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대조영은 천연지형을 리용하여 적을 치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폭동군을 이끌고 지세를 살피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폭동군의 앞장에 서서 대조영을 떠밀어주고 받들어주던 아버지 걸걸중상이 나이많은 몸으로 어려운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였다. 생명의 마지막순간 그는 아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지혜와 힘을 다해야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될것이라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불행한 고구려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고 숨을 거두었다.
대조영의 심장에서는 뜨거운 피가 치솟아올랐다.
《내 기어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리라!》
대조영의 결심은 확고한것이였다.
기나긴 대오의 앞장에 선 대조영은 698년 고구려인들을 이끌고 천문령이라 부르는 밀림속으로 들어갔다. 사방을 살핀 그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장정들을 이곳저곳에 매복시켜놓으면서 뒤따라오는 당군과의 싸움준비를 갖추었다. 적들은 기세등등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목숨이 귀하거든 어서 내려와 무릎을 꿇어라!》

《대조영도 빨리 내려오는게 상책이다!》

적들은 저들의 수적우세만을 믿고 분별없이 덤비였다.

하지만 이미 유리한 골짜기들에 든든히 자리를 잡은 고구려폭동자들을 당해낼수가 없었다. 싸움이 시작되자 고구려사람들은 불화살을 날리고 바위들을 밀어굴리였다. 이어 그들은 그 무엇도 주저없이 질풍같이 달려나가 당군을 족치였다.

겁에 질린 당군은 달아나려 하여도 좁은 골짜기들에 막혀 뛸수가 없었다. 이 싸움의 대장으로 나섰던 배신자 리해고가 졸병들에게 후퇴하라고 고아댔지만 길은 이미 막혀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겨우 얼마 안되는 병졸들을 데리고 골짜기를 헤여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다!》

고구려사람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승리는 대조영대장님의 공이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조영을 추어올렸다.

이것이 바로 698년 봄에 있은 천문령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당군을 쳐부심으로 하여 고구려사람들은 강대국이였던 옛 고구려를 그려보게 되였고 다시 그러한 나라를 세울것을 바라마지않았다.

대조영은 고구려사람들을 인솔하여 동쪽으로 진군하여 휘발하를 건느고 부이령산줄기의 동모산에 자리를 잡았다.

대조영은 동모산(중국 돈화부근)을 근거지로 하여 이전 고구려령역안의 많은 유민들을 집결하였으며 적들의 침입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봉건세력집단이 형성되게 되였다.

대조영은 698년에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였으며 국호를 발해로, 년호를 천통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전 관습대로 고구려로 쓰는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것은 동방대국이였던 자기들의 옛 조국을 언제나 잊지 못해하는 사랑의 표시일것이다.

대조영에 의하여 발해국이 세워짐으로써 고구려사람들은 다시금 자기들의 옛 땅에서 당당한 주권을 행사하며 나라를 발전시켜나갔다.

대조영은 처음 수도를 동모산으로 정했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동북쪽으로 300여리 떨어진 상경룡천부(오늘의 동경성)로 옮기고 웅장한 대궐을 꾸리였다. 상경룡천부는 발해국이 존속하는 전기간 수도로 되여있었다. 성은 외성, 궁성, 황성으로 되여있었다. 그중 외성은 두리가 40여리나 되였다 한다. 성안에는 왕의 궁전과 함께 관청들과 절간들이 위엄있게 배치되였다. 그리고 동서로 정연한 도로들을 질서있게 뽑아놓았다.

이것은 옛 고구려의 방법그대로였다.

《삼국유사》의 《신라고기》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고려(고구려)의 옛 장수 조영의 성은 대씨인데 그는 멸망후 패하고 남은 군대를 모아 태백산 남쪽(백두산을 이름)에 나라를 세워 나라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고 한다.》

《신당서》 발해전에도 발해국가가 그 초기 동모산에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은 영주(오늘의 조양)의 동쪽 2 000리에 해당하는 곳이며 그때 발해국의 령역은 이미 남쪽으로는 신라와 접하였으며 동쪽은 바다, 서쪽은 거란과 접하였다고 쓰고있다. 그리고 또한 발해는 더욱 강대하여지면서 령토를 확장하여 동북방의 말갈족을 비롯한 여러 종족들을 종속시키였으며 《해동성국》으로 되였다고 전하고있다.

주변나라들은 발해국의 성립을 축하하여 자기들의 사신을 보내여왔고 친선과 문물교환을 요구해왔다. 705년에는 당나라까지도 그 위력에 어쩌지 못하고 화친을 제기해왔다.

대조영은 건국 첫해인 698년 돌궐에 사신을 보내여 이에 응하였고 친선을 도모하였다.

그후 발해는 일본과도 련계를 깊이 하였다.

발해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여 나라성립을 정식으로 알리였고 첫 국서에 《발해국은 고려(고구려)의 옛 령토를 회복하고 부여(옛날 부여국)이래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고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왕은 답서에 《귀국이 고구려의 령토를 회복하고 이전 고구려때와 같이 우리 나라(일본)와 국교를 가지게 된데 대하여 매우 축하하는바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대조영은 나라를 세운 후 국토를 완정하고 정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기에 힘을 돌리였다.

발해는 경제가 발전하였는데 그것은 고구려의 옛땅을 차지하여 건립되였으며 고구려의 발전된 경제적기초를 이어받았기때문이다.

발해인민들의 경제생활에서 기본은 농업이였다.

발해에서는 여러가지 곡식과 남새, 과일 등이 생산되였다.

또한 발해에서는 철제농기구를 많이 썼다.

그리고 돼지, 말, 소, 양 등도 많이 길렀는데 특히 말은 군마와 교통수단으로 리용되였고 외국에도 수출되였다.

문화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도 역시 고구려의것을 토대로 한것이였다.

이와 함께 고구려에서 이어받은 애국사상과 상무적기풍이 있었다. 이것은 갓 나라를 건립한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빠른 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한 밑바탕으로 되였다.

당시 주변나라 사람들은 발해인들의 씩씩한 기상에 탄복하여 발해사람 셋이 모이면 맨손으로도 호랑이를 때려잡을수 있다고 하였다.

뜨거운 고구려의 피를 지니고 굴할줄 모르는 의지로 강대국 고구려의 후손답게 발해국을 세운 대조영은 왕이 된지 20년이 되는 719년 생을 마치였다.

그후 대조영의 아들인 대무예가 발해의 2대왕으로서 나라를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나갔다.

그러나 후기 봉건통치배들의 부패무능과 거란의 침입으로 하여 발해국은 근 230년간 존속하다가 926년에 자기의 존재를 마치였다.

후기신라의 시인 최치원

《야, 어느것을 쥘가? 활일가, 칼일가?》

《아니야, 책일지도 몰라. 이 집안이야 대대로 선비가 아니냐.》

돌상이 차려지고 숱한 사람들의 기원속에 색동옷 차려입고 고운 꽃신을 신은 어린애는 그 무엇을 잡으려고 화려한 돌상에 나섰다.

서글서글한 눈에 귀 또한 어찌 큰지 동네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야단들이다.

어린애는 조금도 주저없이 커다란 붓을 넝큼 집어든다.

사람들은 손벽을 치며 어린애를 버쩍 들어올렸다.

《아니 신통하구료. 제꺽 붓이구만.》

《아무렴, 어련할라구요.》

사람들의 축복속에 어린 최치원은 돌생일상을 받았으며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속에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였다.

최치원은 857년 경주에서 태여났다.

최치원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였고 10살에 벌써 4서3경을 모두 통달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4서3경은 유교교리를 적은 책인데 그것을 익히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는 제 또래들중에서도 뛰여나게 글을 잘 썼다고 한다.

최치원은 자를 고운 또는 해운이라 하였다. 그의 초상에 대해서는 고려시기의 학자였던 리인로의 기록이 있다.

《최치원은 원래 구름과 같은 수염에 빰은 옥과 같이 희였고 그의 머리우에는 항상 흰구름이 깃든듯 하였다.

그의 초상은 그가 기거하던 서재에 걸려서 지금도 남아있다.》

그가 12살에 이르던 어느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채로 불러앉히였다.

《사내나이 12살이면 다 자란셈인데 이제는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여라.》

사대주의가 우심하던 그 시기 량반들의 생각이였다.

최치원은 아들이 큰뜻을 이루게 하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정든 고향산천과 사랑하는 부모곁을 뜨고싶지 않았다.

《아버님, 소자는 고국땅에서 떠나고싶지 않소이다. 내 나라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사이다.》

아들은 절절하게 호소했지만 아버지의 말이면 그 가정의 법으로 되고있던 때이니 이것은 한갖 부질없는 애원이였다.

《항차 나라를 빛내여나갈 사내대장부가 되자면 부모의 슬하에서 떠나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최치원은 12살에 붓과 필통을 등에 지고 고국땅을 하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버지는 떠나는 아들에게 엄한 훈계를 하였다.

《네가 만약 10년안에 과거급제하지 못한다면 내 아들이 아니다. 또 항차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쪼록 글공부에서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애처로와 눈물을 흘리며 바래웠다.

《부디 몸성히, 무사히 오너라. 인편이 있거들랑 자주 소식을 전해야 한다.》

어머니는 또다시 돌따서서 옷고름에 눈물을 찍었다.

이렇게 최치원은 일찌기 부모의 슬하를 하직하였고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였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명심하고 열심히 배웠다.

남들이 백가지를 읽을 때 자신은 천가지를 알리라는 독심을 가지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열심히 읽고 또 읽어나갔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음운을 뗄수 있었는가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내 본시 리를 구해서가 아니며 다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이지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였노라.》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6년간 지식을 쌓아 18살에 진사잡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답안지를 본 시험관들은 뛰여난 그의 문장에 놀랐다. 이름을 부르니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것도 조선사람이다.

최치원은 중국의 률수현위(강소성 률수현의 고을원 다음가는 관리)로 임명되여 벼슬살이를 시작하였고 직무를 잘 감당하여 그 후 더 승진되였다.

그는 이렇게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장안, 락양, 률수현 등에서 벼슬을 하면서 열심히 학문을 닦아나갔다.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그것도 젊은 나이에 당나라의 적지 않은 벼슬을 지내였다는것은 최치원이 얼마나 문장이 바르고 재능이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최치원의 초기창작생활은 당나라에서였다.

그는 재능있는 문필가로 당나라문인들을 감동시켰으며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이 시기 그의 작품들은 그의 저서인 《중산복궤집》(5권)에 묶어져있다.

이때 그의 작품들중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것은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한것이였다.

자신이 태여나고 자기를 젖먹여 길러준 고향의 부드러운 땅과 맑은 물이 언제나 최치원의 눈앞에 삼삼히 안겨들군 하였던것이다. 그의 이런 심정은 5언절구시인 《비오는 가을밤에》에 그대로 노래되였다.

내 가을바람에 부쳐 쓸쓸히 노래 부르나
세상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누나
창밖엔 밤비만 구슬피 내리는데
고향 만리길이 등잔앞에 떠오른다

시는 수만리 이국땅 찬비내리는 스산한 가을밤의 고독을 담으면서 어린시절 떠나온 고향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절절히 노래하였다.

또한 시 《봄바람》에서는 이렇게 쓰고있다.

바다건너 저 먼 나라에서
네 아마 갓 불어온게로구나
새벽부터 웅얼대고앉아
생각을 다잡지 못하노라

딱하여라 이따금 서재로 들어
부산히 장막을 설레이는건
꽃철이 곧 다가온다고
저 멀리 고국소식 전하렴인듯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로서는 이밖에도 《산양에서 고향친구를 만났다가 헤여지면서》, 《상태위에게》, 《동풍》, 《바다가를 한가로이 거닐며》, 《바다가에서 봄을 맞으며》 등 많은 작품을 들수 있다.

이 시기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쓴 시만 해도 《상자에 차고넘치였다.》고 전해진다.

최치원의 가까운 친구였던 당나라의 시인인 고운은 그를 두고 이렇게 찬양하여 노래하였다.

내 들으니 바다우에 큰 자라 셋이 있어
높고높은 산을 머리에 이였다네
구슬, 자개, 황금대궐 산마루에 솟았고
천만리 넓은 바다 그 산밑을 둘렀네
그곁에 자리잡은 계림땅 푸른 한점
자라산의 정기 어려 기이한 인재 태여났네
열두살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그 문장이 온 당나라천지를 감동시켰네
십팔세에 과거시험장에 들어가
한살로 장원급제를 쏘아맞혔네

고운은 최치원의 시구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찬양하였다.

《학파인즉 고래가 바다물결을 뽑는듯 하고 문장기세인즉 날카로운 검이 은하수를 의지하고 서있는것 같다.》

최치원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고운은 이런 시를 지어 그와의 리별을 서러워하였다.

바람을 따라 선경을 따라
달과 함께 인간세상을 왔던가
정처없이 살 곳을 찾지 못하여
막막한 길 다시 선경으로 가려는가

최치원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화답하였다.

무협중봉의 해에
베옷으로 당나라에 들어와
은하렬수의 해에
금의로 동쪽으로 돌아가노라

하지만 그는 역시 귀족이였다. 관료생활이 그로 하여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것이였다. 그것은 당시 온 당나라땅을 뒤흔들며 짓밟힌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일떠선 황소농민폭동(875～884)을 눌러버리는데 쓰이게 될 글을 그가 써준데서 드러났다.

최치원은 고병의 청탁으로 명문을 골라 격문을 써주었다.

그는 여기에 이런 구절까지 써넣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를 죽여야 한다고 할뿐만아니라 이 땅밑의 귀신들까지도 이미 그대를 죽이기로 의논하였노라.》

이 글을 읽고 황소는 자기를 죽이려드는 량반부자놈들에게 천추의 원한을 품게 되였다.

이것은 최치원의 글에서 커다란 흑점으로 되였다. 귀족들은 그 격문을 놓고 황소를 토벌한것은 칼의 힘이 아니라 최치원의 글

의 힘이라고 최대의 걸작으로 추슬러올렸지만 피의 원한을 씻으려 목숨도 두려움없이 싸움길에 나선 봉기자들은 끝없는 저주와 격분을 보냈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치는 이국에서의 귀족생활은 점차로 이러한 그에게도 모순으로 가득찬 현실을 가려보게 하였고 비판적으로 대하게 하였다.

결국 그는 이 어지러운 모든것을 내던지고 고향으로 떠나올 결심을 하였다.

최치원은 885년 28살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그의 생애의 두번째 단계가 시작되였다.

귀국후 그는 한림학사의 벼슬을 거쳐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사의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진성녀왕은 그에게 아찬이라는 급이 높은 벼슬등급을 주었다.

최치원은 이 시기 근 10년간에 걸쳐 여러건의 개혁안들을 왕에게 제출하기도 했고 문란해진 법들을 바로잡기 위해 894년에는 진성녀왕에게 10가지 종목으로 된 《시무책》을 써서 시사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정당한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완고한 보수적장애가 있는 한 자기의 의견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음을 깨달은 최치원은 벼슬길에서 물러나 여러곳을 유람하면서 은거생활을 하게 되였다.

이러한 복잡한 심리정서적체험과정은 그에게 권력을 쥔 세력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낳게 하였고 반대로 진정으로 땅에 발을 붙이고 백성들의 생활을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였다. 그의 이러한 심리적변화와 고충은 글귀에 그대로 반영되였다. 이 시기 최치원은 현실이 안고있는 모순과 부정적인 현상들을 폭로하는 사회적문제들을 들고나왔고 이것은 그의 글에서 가장 주되는 주제령역으로 되였다.

그는 풍자와 비판의 검을 들고 시문단에 이채로운 모습을 나타내였다.

시 《강남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읊고있다.

강남에 풍속이 음탕하여
부유한 집 처녀들 교만함이
바느질하는것을 부끄러워하고
분 바르고 거문고만 타는데
그 곡조 고상치 못하고 음탕하다

그리고 청춘이 천년 갈듯 여기며
이웃집 가난한 처녀들이
온종일 비단 짜는것 비웃어 말하기를
《너희들 아무리 비단을 짜도
그것 한오리 입어 못보리라》하네

이 시는 날마다 분이나 바르고 음탕한 곡조의 거문고만 뜯고 있는 부자집 녀자들과 해종일 베틀에 앉아 바디를 놀리면서 쉴새없이 일하는 녀인들의 고달픈 생활을 대조하면서 량반집 딸들의 기생충적인 리면을 비판하였으며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생활을 동정하고있다. 권세만 믿고 잘난체 하면서 자기들의 뼈심을 들여 부를 창조해가는 백성들을 조소하는 세도가문의 악습에 신랄한 조소를 보냄과 함께 해종일 비단을 짜도 비단옷 한벌 입어볼수 없는 녀인들에게 심심한 동정을 보내고있는것이다.

시에서는 이와 같이 대조의 형상을 통하여 당대의 근본적인 모순을 발가놓고있다.

또한 최치원은 봉건관료배들의 허위와 위선에 가득찬 더러운 몰골을 짐승에 비교하여 조소했고 명예와 리속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짓도 서슴지 않는 량반들의 더러운 안속을 시라는 무기로 여지없이 드러내였다.

시 《소박한 생각》, 《붓길 가는대로》는 그 대표작으로 된다.

시 《소박한 생각》에서 최치원은 봉건관료배들을 교활한 여우나 삵에 비유하였다.

여우가 조화를 부려 미인이 되고

삵이 변하여 선비가 된다네
그 누가 알랴 짐승의 무리들
사람으로 둔갑하여 나타난것을

겉모양 변하기는 쉬우나
속마음 바로가짐은 진정 어려워
참과 거짓을 분별하려거든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하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권력자들을 《짐승의 무리》로 락인하고 제 안속만 차리는 교활하기 이를데 없는 간사한자들이 겉보기엔 멀끔하게 차리고 나서서 세상을 속이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백성의 살을 저며내고있음을 시사했다.

시 《붓길 가는대로》에서는 량반귀족들의 출세욕과 탐위욕을 풍자하면서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찬 그들의 세계를 드러내였다.

버리라, 원하노라, 리욕의 문 굳게 닫고
나의 한몸 그런것에 더럽히지 않으리
권세와 탐욕을 다투는 추악한 무리들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물속까지 뛰여드네

부귀를 탐내면 티끌에 물들기 쉽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그 잘못 씻기 어려우리
깨끗하고 맑은 삶을 그 누구와 의논할고
세상사람들모두가 단술만 즐기고있네

하지만 시들에서는 백성을 죽이고 나라를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간사한 무리들을 쳐없애버릴데 대하여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날카로운 비판과 더불어 도덕적수양을 쌓을데 대하여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고말았다.

농사는 해마다 흉하고 정사는 날마다 더욱 문란하여 가슴에 맺

힌 원한을 풀기 위해 백성들이 곳곳에서 들고일어나 나라안은 더없이 어지러운차에 현실은 그에게 후백제 견훤의 폭정에 이런 격문까지 보내게 하였다.

《근자에 삼한땅의 운수가 비뚫어져 전국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많이 나라를 반대하여 일어서고 논밭은 모조리 적지가 되였으므로 내란의 위험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재산을 구원코저 이웃과 우호선린관계를 맺었더니 과연 수천의 땅이 농사를 짓고 누에치는 잠업을 즐기고 7～8년을 두고 군사가 한가하게 되였다.

그런데 그대로 말하면 털끝만한 리익에 눈이 어두워 첩들을 모조리 붙들어가고 보물을 모조리 빼앗아 수레에 실어갔으니 그 원흉으로 말하면 걸주보다 더하고 그 잔인함을 말하면 짐승보다 더하여 나의 원한은 하늘이 무너질듯 지극하다.》

울분으로 하여 울적한 나날을 보내던 최치원은 모든것을 버리고 가야산으로 들어갈 용단을 내렸다. 그는 40대 초반인 898년 가야산으로 들어가 세상과 담을 쌓았다. 그의 이 행동은 물론 적극적이 못되기는 하지만 권력에 대한 항거의 표시였다. 자신의 시에서도 쓰고있듯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리욕의 문을 닫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며 한생을 순결하게 마치려는것이였다.

최치원은 그 어떤 미련도 없이 모든것을 버리고 처자권속들을 데리고 일생을 같이하려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가야산으로 들어갔다.

이 시기가 최치원의 생활에서 세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가야산에 독서당을 짓고 들어앉은 최치원은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 작품들은 별로 전해지지 못하고있다.

시 《독서당》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비유하였다.

내리는 골물이 산속에 뿜어대니
지척에서 하는 말도 들을수가 없구나
두어라 뜬 세상 시내소리 하도 귀찮아
골물로 하여금 막으려 함이로다

최치원의 창작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향악잡영》이다. 이것은 그 시기 벌어지고있던 《대면》, 《속듬》, 《산예》, 《금환》, 《월전》 등 5가지 놀이의 내용과 그 과정을 시로 옮긴 관극시이다. 여기에서 《대면》, 《속듬》, 《산예》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탈춤이고 《금환》은 교예형태의 작품이며 《월전》은 어리광대들의 풍자극의 형태이다.

최치원은 《향악잡영》에서 이것들을 조화롭게 엮어 중세 극예술의 얼굴과 그 특징에 대하여 그려내였다.

이것은 오늘까지도 그 시기 극예술에 대한 귀중한 자료로 된다.

최치원은 생애의 전기간 수많은 글을 썼다. 그의 글들은 가장 오랜 문집인 《계원필경》(20권)과 《사륙문집》 등 여러 문집들에 수록되여 전해지고있다.

총체적으로 최치원의 시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대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그는 모든것을 비교적 진실하게 그렸으며 고향과 산천에 대한 사랑과 함께 중요하게는 부정적면에 대하여 정당하게 비판해나섰다.

물론 그는 량반관료로서 그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날수는 없었고 출신과 시대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당대사회에 대한 비판의 무기를 들었다는데 그의 시문학의 진보성이 있는것이다.

최치원의 글에서는 중세소설의 싹을 보여준 산문들도 있다. 대표작으로 전설을 기초로 한 환상체소설인 《두 녀자의 무덤》이 있다.

주인공은 최치원자신으로 되여있다.

소설은 최치원이 률수현 남쪽에 있는 초현관을 유람하다가 잠자리를 정했는데 그앞 언덕에 있는 두 녀자의 무덤돌문에 그들 두 녀인을 위한 시 한수를 써놓는것으로부터 발단된다.

시는 이렇게 되여있다.

뉘집의 두 녀인이
이 무덤에 묻혀있어
적막한 황천살이

몇봄이나 겪었느뇨

시내가 밝은 달 그림자아래
형용만 남아
황량한 묘두에는
이름마저 찾기 어렵구나

꽃다운 정 꿈에나마
서로 통하고저
기나긴 밤인들
한 나그네의 정을 탓하리

만일 외로운 려사나마
회포를 나눌수 있다면
서로 시를 주고받아
락천의 원혼 위로하고저

그런데 그날저녁 무덤의 두 녀인이 그에게 찾아온다. 그 녀인들로 말하면 이고장 부호인 장씨의 두 딸인데 언니는 팔랑자이고 동생은 구랑자이다.

그들은 최공에게 자기들이 무덤속으로 들어오게 된 사연을 눈물로 하소한다.

《저와 제 동생은 률수현 초성땅 장씨네 집의 두 딸이였나이다. 아버지는 벼슬에 뜻이 없고 장사를 주로 하여 큰 부자가 되였으며 갖은 향락을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소녀가 18살이 되옵고 동생이 16살이 되였을 때 저는 소금장사의 안해로, 동생은 차장사의 안해로 보내기로 정하였사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둘이는 다같이 불만을 품고 시집갈 생각이 없었사와 딱한 심정을 풀길 없었나이다.》

녀인들은 오랜 세월 마음에 드는이를 만나지 못하다가 드디여 최공을 만나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였다. 그들은 장밤을 서로 시를 주

고받으며 즐겁게 지내다가 새벽이 되자 시 한수씩 남기고 바람처럼 간곳없이 사라진다.

작품은 두 녀인의 형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개성을 막아나서는 낡은 관습의 부당성에 대하여 드러내고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녀인들의 지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설이 장사군은 싫다 하면서도 최공을 리상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녀인들의 형상을 긍정적으로 그려낸것은 선비인 저자 자신의 제한성에서 나온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런 부족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중세소설의 싹으로서 수이전체문학이라는 산문형태를 개척하고 형상에서 특이한 수법들을 취한것으로 하여 자기의 뚜렷한 자취를 남기였다.(수이전—비현실적이며 기이한 이야기들로 엮어진 책)

이처럼 최치원은 시와 산문을 다 들어 우리 문학사에 커다란 자욱을 남긴 인물이다.

최치원은 문학뿐아니라 력사, 철학, 민속, 서예 등 여러 부문에서 자기의 재능을 보여주었다.

철학에서도 그는 일부 유물론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성인》은 태여나면서부터 모든것을 다 안다고 하는 그릇된 견해를 비판해나섰으며 사람은 비록 타고난 총명을 가지고있더라도 배우지 않고는 사물의 리치를 깨달을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농부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무지에서 벗어날수 있고 인재로 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최치원은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세워지는 복잡한 시기에 활동한 사람으로서 또한 관료생활을 하였고 선비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것으로 하여 여러가지 제한성이 없지 않으나 현실자체를 랭정하게 비판하고 고향산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절절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의 이름과 작품들은 력사에 길이 남게 되였다.

유감스럽게도 최치원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가에 대해서는 전해지는것이 없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농촌마을의 하나인 가은현의 나지막한 둔덕우에서 아자개라는 사람이 벌써 퍼그나 자란 아들 견훤(867～936)을 앞에 앉히고 무거운 낯빛으로 말을 이어가고있었다.

어느때든지 아들이 크면 해주려고 하였고 또 반드시 하여야만 되겠다고 속에 굳히였던 말이였다.

《이 아비의 말을 명심하여 듣거라. 너는 본래 신라사람이 아니고 원본이 백제 명문가의 후손이다.

그런데 그 몹쓸 신라가 당나라군대를 끌어들여 이 땅을 망하게 하였구나.》

아버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떨어지고 아들의 가슴에서도 쓰디쓴것이 울컥 솟구쳤다. 물론 아들로서는 처음 조상의 본적을 알게 되였으나 그것이 곧 망국의 사연과 잇닿아있는 수난의 증견인지라 주먹이 쥐여지지 않을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백제의 멸망사를 자세히 일러나갔다.

백제의 마지막왕이였던 의자왕이 정사는 줴던지고 향락에 푹 빠져 헤여나오지 못하게 되자 국력은 쇠약해졌으며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이때 기회를 노리던 신라는 제힘으로는 안되겠으니 당나라를 끌어들였고 얼마후에는 백제를 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신라의 노예가 되였고 그렇게 기세가 당당하던 우리 가문도 이 모양이 되였구나. 그러나 너희 후손들은 이를 잊어서는 안되느니라.

저 미련한 제비들도 제 고장을 잊지 않고 하늘땅 끝인 강남으로 갔다가 다시 찾아드는데 인간인 우리가 제 조상의 혼을 잊어서

야 되겠느냐?》

아버지는 쩍 벌어진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라볼수록 미더운 아들이였다.

문득 그애가 어렸을 때 있었던 범상치 않은 일이 떠올랐다.

견훤이 어려서 아직 강보에 있을 때의 어느날 아버지가 들에 나가 밭을 가는데 마침 점심참이 되여 어머니는 밥을 날라오려고 아기를 숲속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커다란 호랑이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아기에게 정성스레 젖을 먹이고 유유히 사라지는것이였다.

그야말로 꿈만같은 놀라운 광경이였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은근히 기대를 걸고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지켜볼수록 성품과 기질이 남달랐다. 생각이 웅심깊었고 지혜가 또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부자사이에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은지 한달이 되여가던 어느날 깊은 밤 견훤은 아버지에게 작별인사를 올리였다.

《아버님, 부디 몸성히 계시옵기를 바랍니다. 내 한몸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빼앗긴 땅을 찾겠나이다. 백제왕국을 재건하고야 아버님을 다시 뵙겠소이다.》

《오냐, 어서 떠나거라. 그것은 내 소원이고 우리 가문이 바라는바이다. 한번 먹은 뜻 굽힘이 없어야 하느니라.》

《명심하겠소이다.》

견훤의 눈에서는 맹세의 눈물이 번뜩이였다. 하늘에서는 커다란 보름달이 길을 멈추고 이들을 환하게 비치고있었다.

토방돌에 닿도록 머리를 깊숙이 조아렸던 견훤은 벌떡 몸을 일구어 주저없이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달도 따라서며 그의 앞길을 밝히였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자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자개는 묵묵히 그자리에 서있었다.

그러며 아들의 성공을 바라고 또 바라였다.

이렇게 10대의 소년으로 집을 떠난 견훤은 20여년간 모진 풍랑고초를 겪으며 자기가 목적한바를 이루려 하였다.

한덩이의 밥을 위해 남의 집 삽짝문을 두드리기도 하였고 몰아대는 눈서리를 피하여 알지 못할 산중절간에서 하루밤을 묵어가기도 하였다.

그뿐이랴. 부자집의 상노로 사래긴 밭을 갈기도 하였고 군사에 들어가 한밤이 지새도록 무술을 익히고 장수힘을 키우기도 하였다.

견훤은 군인이 되여 창을 베개로 삼고 서남바다쪽에 나가 적을 지키였는데 그 공로로 비장이 되였다.

홍안의 소년으로 굳은 맹세안고 집문턱을 넘어선 그였으니 벌써 주위에 많은 세력을 끌어들이였으며 어느때든지 거사할 기회만 노리고있었다.

《아, 내 기어이 백제를 되찾아 조상의 원한을 풀고 왕좌에 앉고야말리라.》

시꺼먼 턱수염밑으로는 항시 사나이의 바위같은 기상이 흐르고있었다.

진성녀왕이 재위(887년)한지 6년이 되는 해였다. 력대 임금들중에서도 가장 무능하였던 녀왕은 일신의 향락과 부귀만을 일삼던 나머지 젊고 얼굴이 훤하다는 남자란 남자는 모두 궁중으로 끌어들여 수욕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날에 날마다 음주방탕으로 세월을 보내였다.

그러다나니 나라안 여기저기에서 꼬리를 물고 백성들이 들고일어나 궁중의 대들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은 강원도땅에서 일어난 궁예의 무리였다.

궁예로 말하면 왕의 서자로서 왕후들의 시샘의 희생물이 된 인물이였다. 때문에 그는 늘 신라왕실에 앙심을 품고있었고 그 원을 풀 기회를 노리며 농민들의 힘을 빌어 세력을 확장하고있었다.

사방에서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막급한 소식을 듣고서야 잠에서 깨여난 진성녀왕은 문무백관들을 모이게 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으라 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성큼 나서는자가 없었다.

진성녀왕은 나라를 구원할 생각들은 어째 하지 않는가고, 자기를 동네집 아낙네로 여기는가고 소리를 질러댔다.

이때 한 늙은 신하가 요즈음 마한땅에서 장군으로 소문이 자자한 견훤이라는이가 있으니 그를 불러 령을 내리면 능히 궁예의 무리를 막고 나라의 위기를 면할수 있을것이라고 귀뜀하는것이였다.

사경에 처하여 지푸래기라도 걷어쥘 판이라 녀왕은 당장에 견훤을 대령시키라고 야단쳤다.

이리하여 견훤은 왕명으로 신라의 서울인 경주에 가게 되였다.

사실 신라왕실에 반감의 칼을 품은 사내대장부로서 그것도 방탕무실하기로 소문난 녀왕의 치마폭밑에 엎드려야 한다는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거슬리는 일이였다. 그런데다 자기를 불러놓고는 마중도 하지 않는다.

분이 치민 견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왕궁까지 왔던 걸음을 되돌아가고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진성녀왕은 애매한 파수병들의 볼기를 치면서 다시금 견훤을 불러들이는 소동을 피웠다.

그리하여 견훤은 진성녀왕앞에 나서게 되였다.

녀왕이 바라보니 과연 듣던바 그대로였다. 산같은 몸집에 억센 두다리로 아무런 주저도 없이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오는 장대한 모습은 그저 놀라움을 자아낼뿐이였다.

진성녀왕은 궁예의 무리를 쳐없애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 순간 견훤의 가슴은 말할수 없는 야욕으로 끓어올랐다.

(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 네년을 꿇어앉히고 술을 치게 하고야 말리라.)

이튿날 1천의 군사가 왕궁을 나섰다. 그앞에는 말을 탄 견훤이 가고있었다.

견훤은 왕궁을 떠나자 서남쪽 고을들을 치면서 하나하나 먹어나갔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백성들이 호응하여나섰고 군사들이 그의 휘하에 합류되였다. 그리하여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군사는 5천으로 늘게 되였다.

마침내 견훤은 무진주를 습격하여 타고앉고는 그곳을 거점으

로 하여 새 왕조를 세울 자기의 지반을 닦아나갔다.
청천벽력같은 이 소식에 크게 놀란 진성녀왕은 이제는 다되였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왕위를 조카에게 넘겨주고 눈물속에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900년에 이르러 견훤은 서쪽으로 세력을 계속 뻗치여 옛 백제의 전령토를 차지하였고 완산주(전주)까지 점령하였다.
20여년간 파란곡절을 겪으며 분투해오던 뜻을 비로소 이룩하게 되였으니 아무리 근엄한 사나이라 할지라도 그의 눈에서는 어쩔새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아버지는 세상을 하직하였고 근친들도 별로 남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하랴. 내 이제 백제국을 선포하리라!)
견훤은 늘어선 군졸들에게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백제가 나라를 창건한지 6백여년만에 당나라 고종이 신라의 요청으로 장군 소정방을 보내여 13만명의 군사가 바다를 건너오고 신라의 김유신이 또한 휩쓸어와서 황산을 거쳐 당나라군과 합세하여 백제를 멸망시켰으니 내 어찌 지금 도읍을 세워 오랜 원한을 씻지 아니하랴.》
견훤은 거대한 의식을 차리고 백제의 재건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후백제》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 큰 가슴을 쭉 펴고 서서히 룡상에 올랐다.
견훤은 그 다음해에 동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주변성들을 차지하였고 907년에는 10여개 성을 신라로부터 탈취하였다.
그도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였으며 그의 말도 전장의 피먼지에 어지러워졌다. 견훤은 마지막용단을 내리였다.
(신라왕실을 치고 내 선대의 원한을 깨끗이 풀리라!)
그리하여 견훤은 927년 경주까지 들이쳤다.
때마침 신라의 경애왕은 궁녀들속에 에워싸여 포석정에서 술놀이판을 펴고있었다.
그런데 기별도 없이 급기야 후백제군이 쳐들어와 남쪽별궁에 몸을 숨기였으나 더 갈데없는 갇힌 몸이 되고말았다.

순간 견훤이 추상같은 호령을 내렸다.

《여봐라, 술상을 차려들여라!》

견훤은 그 옛날 의자왕이 마지막을 림하여 적장수에게 술을 붓는 치욕을 당하였듯이 오늘은 신라왕이 자기에게 술을 붓게 하여 그 원을 풀려고 하는것이였다.

잔을 받아드는 견훤의 얼굴에 드디여 포만의 웃음이 가득 실리였다.

《하하하, 드디여 원한을 풀었도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지도 어언 3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에게는 10여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본처의 소생인 신검, 량검, 룡검은 그가 임금이 되기 전에 본 아들들이고 넷째인 금강으로부터 내려오면서는 그후의 아들들이였다.

견훤은 넷째인 금강을 제일 귀히 여겼다. 몸집이 장대하고 또 무엇에서든지 형들보다 낫다고 생각되였다. 이제 견훤도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줄 때가 되였으므로 금강을 태자로 내정하고있었다.

한편 신검을 왕위에 올려앉히고 1등공신이 되려 꾀하던 신하 능환은 견훤의 앞에서는 금강이 좋다하고 금시 달려가 신검에게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해바쳤다.

그러지 않아도 왕자리를 두고 내심 생각이 많던 신검은 능환과 짜고들어 일을 꾸미였다.

신검은 멀리에 있는 두 동생을 급히 부르고 여러 신하들을 끌어들여 일을 성사시켜나갔다.

마침 견훤이 등창이 나서 자리에 누운것을 기화로 불공을 드리면 낫는다고 중들을 불러들이였고 며칠안으로 금산사에 가기로 하였다.

다음날 임금의 범접할수 없는 으리으리한 행차는 아들들의 호위속에 금산사로 떠났다. 수레마다에는 절간에 시주할 가지가지의 물건들이 가득차있었다.

견훤은 자기앞에 어떤 위험이 가로놓여있는지도 모르고 아들들의 그 《성의》가 고마와 가마안에 누운채로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대견해하였다.

《자식들두, 불공할 생각을 다하구…》

그런데 금산사에 도착하니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하고 공기가 좋지 않았다. 불공준비도 해야겠기에 정해진 방에 들어가 누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별이 없었다.

《여봐라, 게 누가 없느냐?》

그래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 또다시 찾았으나 마찬가지이다. 문을 열어보았더니 앞에는 살창으로 가려졌는데 늙은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우리안에 갇힌 늙은 호랑이처럼 소리를 질러댔으나 누구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잠시후 신검이 오더니 《하늘의 뜻으로 이제는 상왕으로 모시려 하나이다.》하는것이였다.

(이 아니 마른 하늘의 벼락이냐? 이 불효한 자식들이 아버지를 살창에 가두어넣고 왕이 되려 하다니!)

기가 막혔다. 그러나 하소할데없는 갇힌 몸이였다.

견훤은 신검이 금강까지 살해하고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였으며 측근들을 끌어들이고있다는것을 첩인 고비를 통하여 알게 되였다.

견훤이 금산사에 갇힌지도 어느덧 석달이 가까와왔다.

그동안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신한 자식들을 능지처참할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견훤은 고려지경에로 넘어가 왕건에게로 갈 결심을 내렸다.

물론 후백제와 고려사이에 여러가지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왕건의 덕망으로 보아 그래도 그곳으로 가는것이 상책일듯싶었다.

견훤은 고비를 통하여 파수병들을 녹여낸 후 금산사를 몰래 빠져나와 왕건에게로 귀순하였다.

왕건은 곧 많은 신하들과 40여척의 배까지 내여 견훤을 맞아오도록 하였으며 극진히 환대하였다.

늙은 견훤의 눈에서는 서글픈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폐하, 망국지주 이 늙은것이 폐하에게 몸을 맡기려 하나이다.》

왕건은 견훤에게 《상보》라는 존호를 붙이고 궁궐의 남궁을 내여 거처를 정하게 하였으며 양주를 식읍으로 떼여주고 남녀종

40여명과 말 10필까지 내주었다.
견훤은 왕건에게 마지막청을 드렸다.
《대왕전하, 청컨대 군사들을 푸시여 왕관만 알고 의리도 모르는 저놈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쳐없애주시옵소서. 저것들은 자식이 아니라 역적으로 화했소이다.》
왕건으로서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실현할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왕건은 견훤의 청대로 약 1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후백제를 들이쳤다. 후백제는 질풍같이 달려드는 고려군을 당할수가 없었다. 드디여 후백제는 손을 들고 항복하고말았다.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신검에게 왕건은 큰소리로 말하였다.
《룡상이 탐나서 아비를 가두고 동생을 죽이고 나라마저 망하게 하였으니 그러고도 살기를 바란단 말이냐?!》
왕건은 령을 내려 왕자들을 꾀여낸 능환의 목을 치고 량검과 룡검왕자들은 귀양을 보냈다. 그리고 신검은 항복한것을 귀히 여기여 고려국의 벼슬을 주도록 하였다.
견훤은 936년 9월 황산사에서 생을 마쳤다.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를 돌이켜보았다. 더우기 자신을 왕건과 대비해보았다.
왕건은 삼국통일을 원하는 겨레와 시대의 지향을 실현하는 길에 한생을 바쳤지만 자신은 백성과 겨레를 위한 꿈이 없었다. 또한 조상의 원한을 풀어 나라를 찾고 재건하였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다.
마지막에 와서야 시대와 력사의 지향을 실현하는 길에 한몸 바쳐야 한다는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였으며 이로 하여 자신은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견훤이 그처럼 바라마지않던 후백제는 시대와 백성의 지향인 세나라 통일위업에 부합되지 않았다.
견훤은 이것을 때늦게야 리해하였다. 그러나 그는 후백제라는 무시못할 배경을 가지고 고려국에 귀순함으로써 이 거대한 력사적위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태봉국을 세운 궁예

높다란 룡상에 올라앉아 세상에 제가 제일인양 허세를 부리는 궁예의 심술은 날마다 더해만가니 어느날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알수 없었다.

어느날 외통눈인 궁예왕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곤룡포(왕이 입는 정복)를 훌쩍 벗어던지고 평복을 갈아입더니 대궐문을 열어제끼며 나서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철원장안 이곳저곳의 절들을 찾았다.

그런데 절간들에서는 자기가 요즘 써내려보낸 《궁예대왕경》을 읽는것이 아니라 석가모니요 뭐요 하는따위만을 주얼대고있었다. 자기의 명을 허술히 대하는것들이 대체 어떤자들인가를 눈여겨보아둔 궁예는 또다시 다른 절간으로 가서 익혀두었다.

(이놈들, 《궁예대왕경》은 읽지 않고있단 말이지. 어디 두고보자. 네놈들의 목숨이 몇날이나 붙어있겠는지. …)

궁예는 외통눈을 더욱 부릅뜨고 씩씩거리며 궁궐로 돌아왔다.

궁예는 원래 신라 헌안왕의 서자로 세상에 태여났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라 헌안왕의 첩이 임신하여 친정에서 궁예를 낳았는데 어떤 조화인지 새로 태여난 그는 놀랍게도 이발이 돋아있었다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이 황급히 헌안왕에게 알리였다.

《괴이한 일이옵니다. 이 아이를 그대로 둔다면 장차 이 나라에 무서운 재난이 닥쳐올것으로 아뢰나이다.》

금시 얼굴빛이 달라진 헌안왕은 사람을 보내여 즉시 처리할것을 명하였다.

왕이 보낸 사람이 갓난 궁예를 높은 대우에서 아래로 집어던

질 때 이를 가엾게 여긴 유모가 그를 살리려고 잽싸게 받다가 그만 손가락이 한쪽눈을 찔러 눈이 멀게 되였다고 한다.

점차로 커가면서 유모로부터 이 사연을 알게 된 궁예는 신라왕실에 대한 분노와 보복의 마음이 돌연 굳어졌다.

궁예는 선종이란 이름으로 일찌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여 절간에 숨어 지내다가 891년 개산군(경기도 안성군 죽산)에서 일어난 기훤이 거느린 농민군을 찾아갔다.

그러나 워낙 마음씨가 곱지 못한 궁예는 기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 인차 그곳을 빠져나와 그 시기 세력이 가장 강하였던 량길폭동군에 가입했다. 언제나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벼리면서 처음부터 왕이 될것을 꿈꾸던 궁예는 어떻게 해서든지 폭동군내에서 지휘권을 잡을것을 타산하였다.

처음 량길은 궁예를 신임하여 기병 100여명을 주어 북원동쪽 부락들과 명주(강원도 강릉)관내의 주천 등 10여개의 군, 현을 공격하게 하였다.

때가 왔다고 여긴 궁예는 치악산 석남사에 자기의 거점을 정하고 주천, 내성, 울오(평창), 어진 등 고을들을 련이어 들이쳐 모두 타고앉았다.

궁예는 894～895년사이에 오늘날 강원도지방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였는데 894년 그의 부대가 명주를 먹어들어갔을 때에는 농민군수가 3 500명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14개의 대오로 편성된 궁예의 부대는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궁예는 부대지휘관들을 사상(부대장)이라 하였고 자신은 《장군》이라 칭하였다.

일이 이렇게 번져지자 궁예는 벌써 량길농민군과는 다른 세력으로 나섰으며 량길을 배반하여 그의 지시를 거절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는 계속하여 여러 성들을 점령해나가면서 독자적인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량길과 완전히 갈라진 궁예는 897년 제가 선손을 써서 량길의 농민군을 습격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이에 격분한 량길도 궁예에게 접어들었지만 2년만에 패하고말았다.

그 과정을 말할 때 898년에 이르러 궁예는 패서도(례성강 서북쪽)와 한주(경기도 광주)판내의 30여개 성을 차지했으며 점령한 곳들에 농민군부대 지휘관들을 《성의 우두머리》로 임명하였다.

궁예는 자기 부하인 정기대감 왕건으로 하여금 량길농민군 주둔 산하지역들을 공격하여 충주, 청주, 괴산일대의 농민군 두령들인 청길, 신훤 등을 흡수하게 함으로써 세력을 더욱 넓혀 나갔다.

궁예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충청북도 북부일대까지 차지하게 된데는 옛 고구려지역이였던 그 지방 백성들의 신라통치배들에 대한 반감을 리용하였기때문이다.

궁예는 자신이 고구려를 재건한다고 기만함으로써 일시나마 그곳 인민들의 환심과 지지를 얻을수 있었다.

궁예는 백성들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댔다.

《옛적에 신라가 당나라에 출병을 요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하였기에 평양 옛도읍이 풀숲만 무성하게 되였으니 내 반드시 그 원쑤를 갚겠노라.》

궁예는 드디여 901년 자신을 《왕》으로 자칭하고 나라이름도 《후고구려》라 하였다. 그리고 904년에 이르러서는 나라이름을 《마진》으로 고치고 《무태》라는 년호를 정했다. 궁예는 도읍을 송악(개성)으로부터 철원으로 옮기고 년호를 《성책》으로 고치였으며 충주의 주민 1 000여호를 이주시켜 수도의 체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911년에는 나라이름을 또다시 《태봉》이라 고치고 년호도 《수덕만세》로 하였다.

궁예는 이에 앞서 신라, 후백제와 전쟁을 계속하는 한편 후방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905년 패서(대동강서쪽)에 13진을 설치하고 이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나갔다.

그는 자기의 특색을 살려 관청이름도 신라와는 다르게 하였으며 광평성이라는 최고관청을 두고 그 장관의 칭호를 광치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밑에 서사, 외서를 두었고 내봉성과 그외에 조위부를 두어 국가재정을 맡아보게 하였다.

궁예는 자기가 세운 태봉국이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는것을 보이기 위해 관청기구의 명칭은 물론 대신들의 등급까지 모두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애썼다.

이렇게 왕좌를 공고히 한 궁예는 906년 상주(경상북도)를 공격할 무렵부터 손을 들고 넘어오는 신라주민들까지 모조리 목을 침으로써 그 포악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신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의미에서 신라의 수도를 《멸도》(망하는 수도)로 불렀다.

원래 궁예는 어렸을 때부터 심술에서는 당할자가 없었다고 한다. 물을 이고오는 녀인의 물동이에 돌팔매질하기, 철없이 노는 아이 상투를 끄당겨 엎어놓기… 가지각색 못된짓이란 못된짓은 다 하였다. 때문에 궁예의 외통눈에 대해서는 이런 설까지 돌아가게 되였다.

궁예또래들중에는 욕심이 하늘같다고 일러오는 꿕룡이라는 애가 있었다. 두 녀석이 욕심으로 배짱이 맞아 어느날 합천 해인사로 같이 가게 되였다.

그들 둘이 부처님앞에 꿇어앉으니 《령험하신》 부처님이 《어험》 기침을 두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오늘 너희들은 무슨 일로 나에게로 왔느냐? 누구든 잘못을 먼저 비는 놈보다 후에 비는 놈이 더 큰 소원을 성취하리라.》

이들 둘은 서로 나중에 빌기를 원하면서 눈치만 보고있었다. 이윽토록 서로 눈짓을 해가며 먼저 빌라고 했지만 남을 디디고 올라서서 더 잘되기를 바라는 속심들이라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이때 심술이 사나운 궁예가 한발 나서며 부처에게 《제 눈 하나를 멀게 해주소서.》하였다. 그래서 궁예는 한쪽눈이 멀고 꿕룡은 그 갑절로 두눈이 멀었다고 한다.

이런 설까지 나돌게 한 궁예이기에 그 포악성에서 따를자가 없은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궁예는 자신이 소원하던 왕이 되였다는 쾌감으로 우선 화려한 궁전과 별장들을 짓는데 막대한 로력과 재물을 탕진했다. 그로 하여 백성들에 대한 수탈은 배로 늘어났다.

궁예가 평복을 입고 절간들을 돌아보면서 렴탐을 한 다음날 태봉국에서는 강도회(도를 강의하는 모임)를 연다는 어명이 떨어졌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여있었다.

《길은 탄탄한 큰길 하나뿐인데 백이 백가지 말을 하고 천이 천가지 말을 하여 세상사람들이 갈 길을 모르게 하고있다. 내가 바로 강도회를 열고 이 하늘밑의 학자들을 모아 도를 론하려 하니 〈궁예대왕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과 그밖의 다른 교를 읽은 승들도 모두가 모여 옳고그름을 비교할것이다.》

다음날 나라의 여러곳에서 한다하는 신도들이 서울로 모여왔다. 궁예는 금빛찬란한 황금고깔을 쓰고 보기에도 희한한 의관을 차린 후 금실은실로 말갈기를 길게 장식한 흰말에 거들먹거리며 올라앉았다. 그리고 수십의 소년, 소녀들로 향불과 꽃을 받쳐들고 앞에서 길을 인도하게 하였으며 녀승 200여명이 노래를 부르며 뒤를 따르게 하였다. 좌우에는 악공을 늘이여 장엄한 풍악을 울림으로써 자기의 위풍을 한층 돋구었다. 거기에 그를 둘러싸고 가는 군사가 3 000명이 되였으며 《궁예대왕경》을 옆에 끼고 가는 사람들의 패가 또한 만여명이나 되였다. 그리고 뜻밖의 사변을 막아내기 위한 수많은 금군까지 오색의 기치를 휘날리며 행진해나가고 있으니 그 위세야말로 어디에도 비길데가 없었다.

《여봐라, 나는 한갖 땅우에서 태여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미리〉이다. 〈미리〉란 신선이여서 눈을 뜨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을 감으면 마음진속을 들여다보느니라.

너희들이 천리, 만리밖에 있다해도 이 〈미리〉의 눈에는 다 들어오니 결코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느니라.

가령 나를 〈미리〉가 아니라고 한다든가, 〈궁예대왕경〉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든가 하면 나는 제꺽 알아낼것이고 용서치 않을것이다.》

궁예는 이렇게 자신을 신으로 우상화하면서 그전날 절간에서 《궁예대왕경》을 읽지 않고 불교나 유교교리를 읽던자들을 결박지워놓고 제가 알아냈노라고 줴치였다. 그는 먼저 석총이란

중을 끌어냈다.
《네놈이 요전날 내 눈이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내가 내놓은 〈궁예대왕경〉을 무엄하게도 비방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자 석총이 머리를 들고 태연히 대답하였다.
《예, 그런 일이 있소이다.》
그의 당돌한 대답에 궁예는 발을 굴렀다.
《무엇이라구?! 네 이놈, 그리구 또 무슨 소리를 했느냐?》
《예, 궁예대왕님이 어릴 때 욕심을 부리다가 해인사에서 외눈퉁이 되였다고 하였나이다. 그리구 또 이제 더 심술을 부리면 한쪽눈마저 멀게 된다고 하였소이다.》
순간 옆구리에 찼던 궁예의 쇠몽둥이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네 이놈! 이놈아, 무엇이라구?!…》
석총은 피를 쏟으며 그자리에 쓰러졌다.
궁예는 이날에만도 20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쇠몽둥이로 쳐서 저세상으로 보냈다.
《나를 속일 궁냥은 아예 말어라. 나는 다 가려보는 신선이다. 너희들중에 아직도 겉과 속이 다른 놈들이 있거든 어서 내앞에 엎드려 빌어라.》
《궁예대왕경》을 강의한다고 해놓고는 숱한 사람들을 쇠몽둥이로 쳐죽인 그는 제김에 승이 돋아 궁궐로 돌아왔다.
궁예는 이렇게 자기를 하늘이 낸 인물로 높이 내세웠다. 그는 평상시에도 머리에 금고깔을 쓰고 방포(중이 입는 옷)를 걸치였으며 맏아들은 《청광보살》로, 막내아들은 《신광보살》로 칭했다.
날이 갈수록 더욱 포악해진 궁예는 제 뜻을 조금이라도 어기는자는 누구를 물론하고 사정을 두지 않았고 가혹하게 처형하였다. 죄없는 백성들은 말할것 없고 어느날에는 대신들의 목을 치는가 하면 또 어느날에는 한다하는 장수들을 잡아들였다. 그런가 하면 제기분에 따라 그들의 처자들까지 뭇매를 안기기도 하였다.
《페하, 20여년이나 닦아놓으신 공적이 한날한시에 물거품이 되옵니다. 안타깝소이다. 인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주소이다. 저는 농사집녀인으로서 왕후가 되여 분에 넘치는 호강을 하고있사오

지만 언제나 마음은 괴롭소이다. 백성을 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주시오이다.》

눈물로 하소하는 왕후의 애원이였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갈리 만무했다. 그렇게 사랑하던 왕후이건만 한순간에 궁예의 검은 마음이 기를 솟구었다.

(이년이 필경 다른 놈과 배가 맞아 하는 수작이로구나.)

궁예는 버럭 소리질렀다.

《듣기 싫다, 이년아!》

이 소리와 함께 쇠몽둥이는 벌써 녀인의 머리를 들부셨다.

이에도 성차지 않은 궁예는 그가 낳은 두 아들에게까지도 그 자리에서 쇠몽둥이를 안기고서야 속이 내려가 자리를 떴다. 이런 형편에서 백성들의 그에 대한 저주는 극도에 달했다. 수하장수들도 그를 그대로 두고서는 하루도 편히 마음놓고 살수 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지경이였다.

그리하여 918년 왕건을 위시로 한 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 등 수하장수들은 1만의 군사를 풀어 왕궁을 포위한 후 정변을 일으켰다.

마침 잠자리에 들었던 궁예는 급기야 들이닥친 변고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헤덤비다가 재빨리 옷을 바꿔입고 산속으로 허둥지둥 내빼였다. 그러나 극악무도한 그의 죄를 하늘인들 어찌 용서하랴.

얼마뒤 궁예는 부양(평강)지방 백성들에게 붙잡혀 응당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궁예는 태봉국을 세웠으나 20년도 채 못가는 비참한 력사를 남긴채 영영 망하고말았다. 새로 왕이 된 왕건은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이때로부터 겨레와 국토를 통일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은 왕건에 의하여 다시 시작되였으며 10세기초에 이르러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되였다.

고려의 태조 왕건

4월이라 봄이 한창 무르녹아 산과 들은 온통 푸른 빛갈로 단장을 하였는데 소나무가 많다하여 송악이라 일러온 개성의 나지막한 언덕으로 장삼을 걸친 그닥 보잘것없는 중이 이리저리 지세를 살피면서 스적스적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그런데 중은 문득 집터를 닦느라고 부산을 피우는 저쪽을 힐끔 바라보더니 한숨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아니, 기장을 심을 땅인데 삼을 심고있으니 딱한 일이 아닌가. …》

그리고는 발길을 돌린다.

그런데 마침 집터의 주인인 룡건의 부인이 이쪽으로 오다가 그 소리를 익혀듣고 남편에게로 달려가 사실을 알리였다.

《아니 이보세요, 방금 저기로 지나던 낯모를 중이 우리 집터를 유심히 보더니만 기장을 심을 땅에 삼을 심는다고 하면서 가는게 아니겠나이까.》

룡건은 급히 중을 쫓아갔다. 그는 숨가쁘게 가서는 공손히 절을 하고나서 중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방금전에 중이 한 말의 뜻을 물었다.

중은 마치 룡건을 구면이기나 한것처럼 허물없이 대하면서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 땅의 지맥은 북방 백두산 수모 목간으로부터 내려와서 말머리형상의 이 명당에 떨어졌으며 또 당신은 수명이라 마땅히 수의 대수를 쫓아서 36구의 집을 지을것 같으면 천지의 왕운에 부합하므로 명년에는 반드시 뛰여난 아들을 낳게 될것이니 그러면 그 이름을 건이라고 지어주라.》

그리고 중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써주었다.

《미래에 삼한을 통합할 나라의 군주 대원군자에게 삼가 백번 절하면서 글을 받들어올리나이다.》
중은 이것을 함부로 펴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스님, 성함을 어떻게 쓰시는지 좀 알려주시오이다.》
《소승은 도선이라 부르오.》
룡건은 깜짝 놀랐다. 도선대사라고 하면 온 나라가 다 알고있는 유명한 중이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문득 도선대사의 가르침을 받게 되였으니 더할나위없이 기쁜 룡건의 마음이였다.
동리산(전라남도 공성에 있는 산)의 도사인 도선은 풍수지리에 능한 중이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길에 이곳 산세를 둘러보다가 마침 룡건의 집터를 보았던것이다.
원래 룡녀인 원창왕후는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맏아들은 룡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룡건은 체모가 장대하였고 위엄이 있었으며 또한 서발이나 되는 흰수염을 늘이였다. 그는 도량이 넓고 일찍부터 세 나라를 통일할 큰뜻을 품고있었다.
어느날 밤 그는 아름다운 녀인을 만나 백년을 언약하는 꿈을 꾸었는데 후일 송악으로부터 연안성으로 가는 길에서 꿈에 본 그 녀인과 신통히도 꼭같은 녀인을 만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룡건은 그를 안해로 맞아들이고 꿈 몽자를 써서 몽부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던중 이렇게 도선대사의 가르침을 받게 된것이였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몽부인 한씨는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왕건이다.
이때는 바로 877년 1월이였다.
날을 따라 왕건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유별나게 큰 두눈에 주먹같은 코, 쩍 벌어진 두어깨로 하여 호남아의 기백이 차넘치는데 성격은 활달하여 무엇이든 주저하는 법이 없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사냥에서는 누구도 감히 그를 당해내지 못하였다. 특히 그의 궁술은 날아가는 까치도 단살에 떨구었다. 뿐만아니라 효성 또한 지극하여 온 가문의 자랑으로 되였고 온 마을

이 칭찬을 떨구지 않았다.

왕건이 태여난지도 벌써 17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날 느닷없이 도선대사가 또다시 이곳 송악에 나타났다.

룡건은 도사에게 아들을 인사시켰다.

《어서 절을 하여라. 하늘이 내려주신 우리 집의 은인이시다.》

왕건은 정중히 절을 올리였다.

《소승이 장차 세 나라를 통일할분의 절을 받게 되니 지극히 황송할따름이요.》

이날부터 도선대사는 왕건에게 천문지리, 륙도삼략(병서)을 깨우쳤고 진치는 법과 무술을 가르쳤다.

왕건은 근 2년간을 열심히 배워 당당한 장군이 되였다.

어느날 대사는 이들부자에게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였다.

《집을 짓는데서도 터를 잘 닦아야 하듯이 무슨 일에서든지 터전을 잘 마련하여야 하오니 먼저 궁예의 부하로서 있어야 되겠소. 그러면 점차로 큰일이 생길것이요.》

대사는 장삼자락속에서 책 한권을 내주면서 어려울 때 펴보라고 이르고는 떠나가버리였다.

이리하여 왕건은 895년 룡건을 따라 태봉국으로 넘어와 궁예의 부하가 되였다.

황금두건을 두르고 붉은 도포자락을 날리며 들어서는 왕건을 보자 궁예는 아직 어린 그를 시험하려들었다.

《그대는 백보앞에서 저기 수양버들 맨 웃가지의 끝에 달린 잎을 맞힐수 있는고?》

왕건은 궁예앞에 선뜻 나섰다.

《어디 한번 겨누어보겠나이다.》

왕건은 백보 뒤로 물러서더니 별로 겨냥도 없이 바람에 한들거리는 버들잎을 단살에 맞히였다.

그런데 그옆으로 마침 몇마리의 새가 날아갔다.

왕건은 또다시 새를 쏘아 단살에 떨구어버렸다.

궁예는 다시금 그의 칼솜씨를 알고싶어졌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관군의 대장으로 칼쓰는데서는 따를만한 무사가 없다고 하던 신숭겸이와 맞세웠다.

왕건은 말우에 훌쩍 올라 순간에 보검을 쥐였다. 신숭겸도 안장에서 칼을 빼들었다. 일시에 검과 검이 부딪치고 말들이 울부짖었다. 수많은 군사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손에 땀을 그러쥔다.

순간 왕건은 신숭겸의 투구를 칼에 꿰여가지고 궁예의 앞으로 척척 걸어나가 례를 올렸다.

《과연 처음 보는 장수요.》

《하나로써 천을 당하고도 남음이 있겠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탄하여마지않는다.

궁예도 만족한 기분으로 그에게 비장의 칭호를 주고 태수로 봉하였다. 얼마후 왕건은 왕명을 받들어 송악산에 발어참성을 쌓은 다음 성주로 되였다.

왕건은 수많은 싸움터마다에서 용맹을 떨치였고 913년에는 시중(최고관청의 장관)이 되기까지 하였다.

특히 바다싸움에서는 왕건을 당할자가 바이 없었다. 어떤 적이든지 그가 해전에만 나서면 그것은 이긴 싸움이였다.

왕건이 승전고 드높이 돌아올 때면 궁예는 수백척 적군함을 깨뜨리고 수천의 적군을 사로잡아온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풍악을 울리며 마중했고 자신이 직접 위봉루에 나가 비단 몇만필씩 내여 상도 후히 주군 하였다.

궁예는 수도를 철원으로 정하고 거기에 대궐을 지었다. 임금의 행차를 뒤이어 무사들이 따라섰다.

그앞에는 왕건이 서있었다. 그때 그는 28살의 젊은 대장부였다. 그의 대렬이 지나는 길에서는 숱한 백성들이 줄지어서서 손을 흔들었다.

《저렇게 새파란 젊은이가 벌써 이 많은 군사를 이끄니 이제 좀 더 있으면 필시 운이 트이겠소.》

《꼭 신선같소그려. 저분의 부친과 모친이야 무얼 더 바랄것이 있겠소. 저런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으니.》

늙은이들은 부러움을 금치 못한다.

왕건의 부대가 정주에 이르자 그만 날이 저물었다. 왕건은 하루밤을 묵어가기로 작정하였다.

큰 마을에는 수양버들이 실실이 줄을 늘이였는데 그옆의 우물에서 한 처녀가 동이에 물을 퍼담고있었다. 왕건은 그곁으로 다가가 물을 청하였다.

《물 한바가지 줄수 없겠소?》

처녀는 대답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청초한 버들가지의 잎을 훑어 물에 씻고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그우에 띄운다. 그리고 왕건에게 두손으로 정히 받쳐올리는것이다.

왕건은 물을 마시려니 버들잎이 가려 단숨에 들이킬수가 없었다.

《아니, 버들잎은 왜 물우에 띄웠소?》

이윽고 처녀는 조용히 얼굴을 들어 대답한다.

《목이 마를 때 급히 마시면 체하실가봐 천천히 불면서 마시라고 그리하였소이다.》

왕건은 크게 감동되였다. 그저 스칠 처녀가 아니였다.

그날 저녁 왕건은 그의 집을 찾아들어갔다.

류화의 아버지인 류천궁은 온 마을을 일깨워 군사들에게 밥을 지어 대접하도록 하고 왕건은 사랑채에 모셔들이였다. 그리고는 그에게 어제밤 꿈에 신통히도 신령이 나타나 자기 딸 류화를 왕건에게 주라고 분부하던것을 이야기하였다.

《류화가 배운것은 없고 못생기긴 하였지만 이제는 열아홉이라 정말로 장군이 거두어준다면 더 이를데가 없겠소이다.》

왕건은 이를 신의 계시로 받아들이였으며 로인앞에 그렇게 하기로 언약하였다.

한밤을 꿈같은 신방에서 보낸 왕건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 놓인 큰일을 위해 그는 그밤의 온기를 털어버리고 일어섰다.

《내 꼭 그대를 데려가겠소. 기다려주오.》

왕건은 한편으로 궁예를 경계하면서 신임을 얻었으며 다른 한편

으로는 자기의 지지자들을 묶어세웠다.
왕의 망녕이 날마다 더해가니 온 나라는 가렴잡세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백성들의 한숨소리와 살 곳을 찾아 정든 땅을 뜨는 사람들의 행렬로 살풍경을 이루었다.
그러나 궁예는 궁궐안의 향락에 푹 젖어 이것을 살필 형편이 못되였다. 그는 날마다 놀이터를 늘이고 궁녀의 수를 불구었다. 그의 행차란 말그대로 상상밖의것이였다. 비단으로 온통 장식한 백마에 앉아 수백명의 궁녀들을 앞세우고 200여명의 중들이 념불을 외우며 뒤따라서게 하였다.
백성들은 숨도 바로 쉬지 못하고 떨고있었다.
한편 왕건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왕건은 918년 6월 드디여 무관들인 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 등과 함께 정변을 일으켰다.
깊은 밤 류화부인은 장검과 갑옷을 손수 왕건에게 받쳐주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을 축원했다.
조금전 여느때없이 술안주로 햇오이를 가져다달라면서 자기를 내보내려 하는 왕건의 행동이 미심쩍어 잠시 자리를 피하는척 하면서 그가 수하장수들과 하는 말을 다 엿들었던것이다.
《성공을 비나이다.》
류화부인은 속으로 거듭 속삭이였다. 더구나 그는 수만 백성들이 하나와 같이 왕건을 자기들을 구원해줄 은인으로 여기면서 극구 임금으로 추슬러올리는것을 들을 때마다 더욱 가슴이 설레이군하였다.
왕건은 여러 장수들의 호위속에 1만의 군사로 궁예의 왕궁을 들이쳤다. 왕건이 거리에 들어서니 어떻게 알고 백성들이 떨쳐나 눈물로 환호성을 올린다.
《폭군을 몰아내고 어질고 후한 왕건대장군을 임금으로 모셔올립시다!》
《만세, 만세, 왕건대왕 만세!》
깊은 잠에 빠졌던 궁예는 때아닌 밖의 소요에 눈을 번쩍 떴다.

그런데 부하신하가 달려들어오며 소리치는것이 아닌가.
《상감마마, 왕건장군이 란을 일으키고 쳐들어오나이다!》
《무엇이라고?! 고얀 놈, 어서 목을 쳐라!》
그러나 목을 쳐줄 신하가 없었다.
궁예는 덤벼치며 어쩔바를 모르다가 옷을 바꾸어입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하건만 자신이 저지른 죄로 하여 평강지방 백성들에게 붙들려 응당한 징벌을 받고야말았다.
왕건은 궁예의 태봉국을 정복한 다음 즉시 새 왕조를 세우고 임금이 되였다. 당년 그의 나이는 41살이였다.
그는 나라이름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고려》라고 하였고 《천수》라는 년호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 들어가서는 그의 집안이 오래전부터 세력을 쥐고있던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였고 그 이름을 개경(개성)이라 부르도록 하였다.
정권을 쥔 왕건은 개성에 먼저 왕궁을 건립하고 거리들을 꾸리였으며 행정구역을 나누었다. 그 시기 개성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등 5개의 부로 정하였다.
고려의 태조인 왕건은 자기의 터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안으로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왕건은 《기인제도》, 《사심관제도》를 두어 지방장관들을 특별히 우대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조세도 낮추어줄것을 약속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3년동안 세금과 부역을 면제시켰다. 그리고 919년 8월에는 오산성을 례산현(충청남도 례산)으로 고치고 500여세대의 농민들을 이주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노비들은 량인의 신분으로 하여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궁예집권시기 노비로 되였던 1천명을 본래신분으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왕건은 밖으로는 후삼국을 통일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는 신라와 후백제를 통일하기에 앞서 지방세력들인 성의 우두머리들과 관료들을 포섭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왕건은 918년 8월 사신들을 각 지방으로 내려보내였다.

《여봐라, 성, 현들에 내려가 새 왕조의 성립을 알려 나에게로 오도록 하라.》

《네, 알겠소이다.》

왕건은 자기에게로 온 지방장관들에게는 후한 상과 함께 특전을 베풀었으며 높은 벼슬까지 주었다.

왕건은 벽진군의 관료인 리총인에게도 사신을 보내여 힘을 합칠것을 전하였고 그가 동의해나서자 그 고을의 우두머리로 명하였다. 이와 함께 이웃고을까지 록으로 주었으며 쌀 2 200섬과 소금 1 785섬을 례물로 봉하였다.

927년 8월에 넘어온 흥달에 대해서는 그의 세 아들을 청주, 진주, 장천의 지방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왕건은 자기 수하에 들어온 량반들에게는 왕가성을 주고 자기들의 가계와 혼인을 맺게 함으로써 인입포섭하였다.

왕건은 귀순한 명주관료 순식에게는 대광이라는 벼슬과 함께 왕가성을 주었고 그의 아들 장명은 왕렴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강주관료 윤웅의 아들인 일강을 왕족의 누이와 혼례를 치르도록 하여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만들었다.

왕건은 건국초시기부터 군사력을 키우는데 큰 힘을 들이였고 후기신라와 후백제와의 대소격전들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였다.

특히 싸움뒤에는 그들도 역시 고려로 넘어오도록 설복하여 귀순시키는데 많은 공력을 들이였다.

그리고 그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온 나라 곳곳의 산수가 수려한 고장들에 절간을 세웠다.

왕건은 세 나라의 통일을 위해 먼저 후기신라에 손을 뻗치였다.

이 시기 신라로 말하면 봉건토호들의 진출과 농민들의 줄기찬 폭동으로 하여 령토가 분할되여있었고 국력은 심히 쇠퇴되였다. 더우기 혜공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신라의 비극은 150여년어간에 무려 20여차례에 걸쳐 왕권이 교체되는 기록적인 쟁탈사를 새기였다. 이에 편승하여 후백제의 견훤도 신라를 먹어보려 덤비

였다.

고려와 후기신라와의 관계는 920년 1월 두 나라의 방문으로 하여 첫 문이 열리였다.

신라와 국교를 맺은 왕건은 후백제의 침략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였고 《호의》를 보여줌으로써 무조건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930년 1월 고려군은 고창군 병산밑에서 후백제를 크게 이기였고 련속적인 격전에서 계속 승리를 가져왔다. 그때마다 왕건은 이 소식을 제일먼저 신라왕궁에 알리였다. 이제는 자신들의 처지가 명백하여진것을 알아차린 신라의 집권자들은 935년 10월 고려에 사신을 보내여 귀순하겠다는것을 알리였다.

신라의 마지막왕인 김부(경순왕)는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것이다.

왕자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땅을 쳤다.

《천년이나 내려오던 이 땅, 이 나라를 어찌 그리도 쉽게 남의 손에 넘긴단 말이오이까! 우린 전장에서 떳떳이 죽겠소이다!》

울분에 젖은 왕자는 그길로 개골산에 들어가 일생을 삼베옷과 풀뿌리로 이어가다가 없어졌다고 한다.

왕건은 정식으로 신라의 수도를 방문하였고 그해 8월에는 고관대작들에게 많은 례물을 보내였다. 그리하여 신라왕은 935년 11월 왕실귀족들을 이끌고 완전히 고려로 넘어왔다.

이렇게 되여 고려에 의해 신라는 존재를 마치였다.

신라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고려로 넘어올 때 그 일행이 앉은 수레와 보물짐은 연 30리에 이르렀다고 한다.

왕건은 이것을 철저히 보호해주었으며 자기 딸 락랑공주를 왕에게 주어 안해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위국공신 락랑왕》으로 책봉하였으며 식읍 8천호를 주고 천섬의 쌀을 록봉으로 주었다.

왕건은 신라라는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였으며 수도였던 자리를 경주로 고치고 김부가 사심관으로서 통제하도록 하였다.

이후 왕건은 자기의 무력을 동원하여 사탄(락동강상류)에서 후백제의 대군을 보기 좋게 격멸하였다.

그 시기 고려와 후백제의 관계는 고려성립후 견훤이 먼저 사신을 보내여 태조의 즉위를 《축하》한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920년 견훤은 공작새털부채와 함께 오대산의 참대로 만든 멋진 화살을 왕건에게 선사하고 그후 다시 얼룩말을 또 보내여 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교적인 술책이였다.

견훤은 왕건과 당초에 맞설 힘이 없으므로 우선 신라와 겨루어 령토를 넓히고 병합해보려고 서둘러댔다.

그러나 고려와 신라가 《동맹자》관계에 있었으므로 고려와 후백제의 대결은 역시 불가피한것으로 되였다.

견훤은 932년 9월 수군을 보내여 고려의 례성강으로 쳐들어가 100척의 배들을 불사르고 황해도 안악군에 들어가서는 말 300필을 빼앗아낸것을 비롯하여 일부 전투들에서 우세를 보이였으나 그때마다 고려군의 타격이 뒤따랐다. 그 결과 934년 후백제의 30여개의 성이 일시에 고려에 귀속되고말았다.

후백제의 결정적인 붕괴는 견훤의 맏아들인 신검의 정변에 의해서 시작되였다. 견훤은 10여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에서도 넷째인 금강을 가장 귀하게 여기였고 그를 태자로 삼으려고 하였다. 이에 시샘이 난 맏아들 신검은 두 동생과 짜고들어 배다른 형제인 금강을 살해하고 애비까지도 금산사에 가두어넣고말았다.

이런 때 고려의 왕건은 후백제에 압력을 가하고 배후타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관할구역과 넘어온 구역들을 순찰하면서 40여개의 고을을 또다시 확보하게 되였다.

그러자 견훤은 자기의 처지와 아들의 소행을 원망하면서 왕건에게로 귀순할것을 결심하였다.

《내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고.… 지금에 와서 그길밖에 다른 길이란 없지.》

견훤은 자기로서 왕건에게로 가는 길이 가장 현명한 처사라고 보

았다.
《아, 이렇게 끝나고마는가.》
속이 탔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왕건은 이들도 받아들여 개경에 들어오도록 하였고 높은 대우를 해주었으며 관할구역까지 식읍으로 떼주는 정사를 폈다.
936년 9월 왕건은 드디여 후백제에 대한 총공격을 진행하였다. 3군으로 편성된 고려군은 용기백배하였다.
기병 1만과 보병 1만으로 우익을 삼고 또 그와 같은 병력으로 좌익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 기병 2만 9천 5백명과 보병 3천으로 중군을 삼았고 기타 기병 3백과 여러 성의 군대 1만 4천 7백은 응원군으로 배치하였다. 모두 8만 7천 5백명에 달하는 병력으로 후백제를 꺼꾸러뜨리는 마지막대결에 나갔다.
3군은 일제히 큰 북을 치면서 좌우로 공격해들어갔다. 그들은 먼저 지휘부를 일거에 점령했다. 그러자 후백제군은 일시에 무너져내렸다.
최후의 결전인 일리천싸움에서 고려군은 후백제군 3천 2백명을 포로하고 5천 7백명을 살상하였다.
이렇게 되자 후백제의 귀족들은 저저마다 달려나와 손을 들었다.
이리하여 고려는 또다시 후백제마저 완전히 점령하였으며 드디여 세 나라 통일의 성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왕건은 18년이라는 기나긴 기간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세 나라 통일에 성공하게 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60이였다.
세 나라 통일에서 왕건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고려가 세 나라를 통일할수 있은 기본요인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이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이 실현되기를 원하였으며 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섰다는데 있다.
이와 함께 태봉국의 군사적실권을 장악하고있던 왕건이 새 왕조의 집권자로 등장하여 고구려의 옛 의지를 실현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군사에 힘을 넣은것은 시대의 지향에 부합되는 훌륭한 결실이 하루빨리 이룩될수 있게 한 커다란 추진력이였다.
또한 왕건의 포섭정책 역시 삼국통일의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이렇게 왕건은 단군조선의 첫 통일국가의 태조로 되였다.

력사적인 세 나라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예로부터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로 우수한 풍속과 문화를 함께 이룩해온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의 순결하고 자랑찬 모습을 세상에 더 찬란히 빛내일수 있었으며 혈연적, 문화적공통성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게 되였다.

왕건은 통일성업을 이룩한 후 봉건적인 통치체제를 정비강화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토지제도를 개편하고 행정통치기구를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군사제도, 신분제도, 형벌제도를 다시 작성하고 특히는 나라방위에 주력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왕건의 후손들도 거란침략자들과 홍두적을 비롯한 탐욕스런 외적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안기고 고려의 명예를 고수하였으며 동방강대국으로 이름을 떨치였다.

왕건은 943년 5월에 사망하였다.

그는 유훈으로서 《훈요십조》를 남기였다.

거기에는 도선스님이 남긴 불교와 풍수지리설을 존중히 하라는것, 왕위는 맏이에게 물리되 그가 어리석을 때에는 다음아들 순위로 해야 한다는것, 서경을 중요시해야 한다는것, 거란을 멀리 할데 대한 문제, 군신은 백성을 사랑하고 옳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문제, 유능한 인물을 등용하여 쓸데 대한 문제, 벼슬아치들의 상벌을 공정히 할데 대한 문제, 특히 군신은 덕을 쌓아야 한다는것들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능란한 군사외교가 서희

어느날 아침 신일이 마당에 일감을 가득 펴놓고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그의 집에 뛰여들었다. 사슴은 귀엽게 생겼는데 불쌍하게도 몸에 화살이 박혀있었다. 신일은 그 어린 사슴의 몸에 박힌 화살을 뽑고 뒤뜰창고에 숨겨주었다.

이윽고 사냥군이 허둥지둥 달려드는것이였다.

《여기로 활에 맞은 사슴이 지나가는것을 보지 못했는지요?》

《나는 모르겠는데…》

사냥군은 이상하다는듯 망설이다가 사슴을 찾아 다른쪽으로 가버렸다.

사냥군이 멀리 사라지자 신일은 사슴을 끌어내여 잔등을 쓸어주며 놓아주었다. 그러자 사슴은 제법 꾸벅꾸벅 절을 하더니 저 멀리 산등성이로 사라지는것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밤 신일의 꿈에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것이다.

《사슴은 나의 아들인데 다행히 그대의 도움을 받아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는단 말이요. 이제부터 그대의 자손들은 대대로 재상이 될것이요.》

이런 말을 남기고 신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까지도 전해내려오는 《은혜갚은 사슴》에 대한 설화이다.

그후 신의 예언대로 신일은 나이 80에 장사들인 세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후에 재상이 되였다고 한다.

이 신일이 바로 서희의 할아버지이다.

서희의 아버지 서필은 신일의 맏아들로 태여나 그 벼슬이 대광내의령에까지 올랐는데 강직한것으로 하여 이름이 높았다.

서필이 강직한것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왕이 대신들에게 금품을 선사하였는데 유독 서필만은 받지 않고 만류하는것이였다.

《어찌 그대는 받지 않는가. 무슨 의견이라도 있는가?》

왕이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것이다.

《왕의 신하로서 제자신이 그런 사치한것을 쓴다면 내 아래사람들은 또 어떤것을 쓰겠나이까. 그래서 사양하는바이옵니다.》

이에 왕도 더 다른 말을 할수가 없었다.

서필은 높은 급의 신하로 있었지만 사치를 몰랐으며 왕의 실책에 대해서는 묵과함이 없이 충고하였는데 임금의 대노를 무릅쓰고라도 할 말은 반드시 하고야마는 성미였다.

서희가 명문대가의 출신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강직하고 대바르게 한생을 나라위한 일에 바친것도 바로 부모들의 이러한 성품을 물려받은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서희는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이 완수된 후인 942년 내의령으로 있던 서필의 아들로 개경에서 태여났다. 그의 가문은 할아버지대까지만 해도 별로 이름이 없었으나 아버지 서필의 대에 와서 번성하여 나라의 높은 관직에까지 이르게 되였다고 한다.

어느날 서희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그앞에 무릎을 꿇고앉았다.

《얘야,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저 하느냐?》

아버지가 묻자 어린 서희는 금시 일어나 대답하는것이였다.

《아버님, 저는 열심히 학문을 닦아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군이 되겠소이다!》

《응, 그래야 하느니라.》

아버지 서필은 아들의 대답에 만족하였다.

서희는 자기가 결심한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17살에 벌써 과거에 급제하였고 30전에 광평원외랑을 그리고 내의시랑을 거쳐 태보내사령의 높은 직위에까지 올랐다.

그는 972년 외교사신으로 10년간 국교가 중단되였던 송나라에 가게 되였다.

이때 송나라왕은 젊은 고려사신의 다감하고도 박식한 학식과 단정한 례의범절, 위엄이 풍기는 용모에 크게 경탄하여 그에게 그 나라의 높은 관직인 《림교병부상서》라는 벼슬을 주기까지 하였다.

서희는 이때부터 당당한 위풍으로 린접나라들의 고관대신들을 경탄시켰고 선망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고려의 위신을 더욱 높였다.

고려에 돌아와서도 그의 강직한 성품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시기 공빈렬, 정우현이라는 사람들이 성종왕의 그릇된 정사에 대하여 상소문을 올리였다.

왕은 대노하여 이들의 행동을 주제넘는짓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씌워 처형하려 하였다. 그래도 형식은 형식이니 문무백관들이 모인 곳에서 의향을 물었다.

이때 관저의 대신들은 왕의 행동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고 머리를 조아리였다.

그러나 서희만은 일신의 위험을 두려워함이 없이 나섰다.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으려 하는데 어찌 신하의 관직이 높고낮음을 따지여 형을 내리겠나이까. 그리고 정우현이 들고나선 문제는 제 소견에도 과히 옳다고 보나이다.》

왕은 이에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랐다.

《내 좀 생각해보겠다. 다들 물러가라.》

왕은 서희의 단호한 태도에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았으며 자신도 이에 동감하여 결심을 취소하였고 마침내는 정우현을 등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서희는 정의감이 강하였고 옳은것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인 993년 10월말 거란은 수십만의 침략군을 내몰아 고려를 침입해왔다.

서희는 중군사로 임명되여 고려군을 지휘하게 되였다.

적장 소손녕은 고려를 위협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수가 80만명에 못미쳤지만 그 수를 늘여 공포하여 위세를 보이면서 오늘의 천

마를 거쳐 구성으로 나오는 길을 따라 봉산성(구성남쪽 30리 지점)으로 침입해들어왔다.

당시 봉산성을 지키고있던 군사들은 적의 포위공격을 물리치면서 용감하게 저항했으나 워낙 그 수가 엄청난것이므로 한개 성의 력량으로는 막을수가 없었다.

봉산성방어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서희는 주력부대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성을 탈환하는 한편 적군에 강력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거란침략자들은 제놈들이 이미전에 《고구려 옛땅을 차지》하였으므로 고려가 고구려 옛땅에 들어오는것은 자기 나라 땅에 대한 《강점》으로 된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들고나왔다. 그러면서 최후통첩으로 고려가 옛 고구려의 땅을 내놓지 않으면 소탕하겠다고 위협공갈하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려군대와 인민을 협박하며 침략적목적을 달성하려는 철면피하고 교활한 책동이였다.

고려의 백성들과 군사들은 적들의 술책에 넘어가려 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적들을 족쳐댈 결의로 충만되여있었다.

하지만 왕을 비롯한 조정의 관료배들은 적의 협박앞에 겁을 먹고 두손을 들려고만 하였다. 침략자들과의 강화문제를 토의하는 심각한 어전회의가 열리였다.

《지금 우리의 력량으로는 적을 견제하기가 힘드옵니다. 적들의 령토적야심을 얼마간 충족시켜 서경이북땅을 떼여주고 황주로부터 절령(황해북도 자바령)에 이르는 계선을 국경으로 하면 어떠하겠는지.》

《소신도 그 말이 옳을듯 하옵니다. 먼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뒤날 기회를 보아 회복하는것도 하나의 계책이 아니겠는지요?》

이것은 적에게 굴복하여 국토와 인민을 침략자들에게 넘겨주고라도 저들의 생명과 봉건정권만을 유지하려는 매국배족적인 망발이였다.

이때 서희가 성큼 왕앞으로 나섰다.

그의 두눈에서는 금시 불이 쏟아질듯싶었다.

《상감마마, 그것은 절대로 아니됩니다. 적이 강하다 하더라도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내주다니 이런 후세망국한 일이 어디 또 있겠소이까? 처음부터 손을 들면 적은 더욱 교만해져 다음에는 우리를 삼키려들것입니다.》

서희는 먼저 적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장수 리몽전을 적진에 파견할것을 제기하였다.

적진에 들어갔던 리몽전은 소손녕의 태도에서 변화가 없다는것을 아뢰였다.

서희는 이것을 보고 예리한 외교적안목으로 적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결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산악처럼 일어선 고려인민의 기세에 겁을 먹고있는 저들의 취약한 내심이 내보일가봐 허세를 부리는데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리였다.

그러나 국왕은 심한 동요를 일으켜 서경창고를 헤쳐 량곡을 대동강에 처넣으라는 령까지 내리였다.

서희는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는 군량이 넉넉하면 성을 능히 지켜낼수 있을뿐더러 싸움도 이길수 있는것이다, 싸움의 승패는 결코 강약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알아내고 군사를 움직이는데 있다, 하물며 백성의 생명인 식량을 어찌하여 강물속에 처넣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거란의 동경과 고려의 안북부사이에는 녀진인들이 끼여 사는데 지금 거란은 고려가 광종때 청천강이북을 수복하고 쌓은 가주(운전군), 송성 등 일부 성을 탈취하려는데 지나지 않으며 고구려 옛땅을 전부 강탈하겠다고 나오는것은 오히려 고려를 두려워하는데서 오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희는 임금앞에서 자기의 주견을 굽히지 않았다.

《서경이북땅을 떼여준다면 삼각산(서울)이북도 모두 고구려 옛땅이므로 침략야욕을 가진 놈들이 또다시 그 땅마저 떼여달라고 나올것이옵니다. 국토를 떼여준다는것은 만대의 죄악으로 되는 일이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는 결코 허락될수 없는 일

이옵니다.》

그는 적들과의 대결을 다시금 강력히 주장해나섰다.

적들은 고려의 통치층내부에서 강화문제로 론의를 거듭하면서 전선에 주의를 덜 돌리는 기회에 가주, 송성 등지를 거쳐 얼어붙은 강을 건너 안융진으로 공격해왔다.

그러나 작은 토성에 지나지 않는 성안백성들은 중랑장 대도수의 지휘밑에 적들에게 만회할수 없는 된매를 안기였다.

안융진싸움이 있은 뒤 거란놈들은 허리 구부러진 승냥이모양으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고려의 비겁한 통치배들에게 항복만을 요구해나섰다.

고려의 성종왕은 담판문제를 놓고 누가 적진에 들어가 대군을 누르고 만대의 공을 세우겠는가고 하였으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이때 서희가 왕앞에 나섰다.

《상감마마, 소신을 보내주사이다.》

그의 태도는 죽음을 각오한 의젓한 갖춤새였다.

성종은 서희를 미더운 눈길로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경을 믿겠소. 나라의 운명이 경의 두어깨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주오.》

서희는 군졸 두명을 데리고 당당히 거란진영에 들어갔다.

서희가 도착하자 소손녕은 고려측대표는 뜰아래에 엎드려 절을 해야 한다고 오만한 요구를 들고나왔다. 이것은 고려측대표의 기세를 처음부터 꺾어놓아 자기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자는 날강도적흉심에서부터 나온 불법무도하고 파렴치한 행위였다.

서희는 놈들의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고 일 대 일의 공정한 담판을 완강하게 주장하여나섰다.

《여보시오,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뜰아래에서 절을 하는것은 례법에 있는 일이나 두 나라 대신들의 담판에 어찌 상하가 있을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

서희는 격분에 넘쳐 자기 처소에 누워 일어나지도 않았다.

수십만이라는 대군이 우글거리는 적의 진중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는것은 누구나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대담무쌍한 행동이였다. 이렇게 되자 적장은 서희의 위엄있는 태도에 위압되여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동서로 마주앉아 일 대 일의 담판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담판이 시작되자 적장은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들고나왔다.

《고려라는 나라는 신라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어째서 우리를 침범하는가? 또한 당신들은 우리와 땅을 린접하고있으면서 어찌하여 바다를 건너 송나라와 거래하는가?》

그러면서 고구려 옛땅을 제놈들에게 떼여주며 송나라와의 국교를 끊고 자기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서희는 그들의 부당한 주장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였다.

《아니다. 우리 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후계국이다. 그러므로 나라이름도 고려라고 부르고있다. 그리고 지경을 가지고 말한다면 당신네 나라의 동경(료동)도 우리 국토안에 들어와야 하겠는데 어떻게 우리더러 침범했다고 말할수 있는가?》

서희는 사리정연한 론거로 적의 주장을 단호히 물리쳤으며 거란과의 국교문제는 녀진인들을 내몰고 성을 쌓은 후 길이 열리면 정상화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녀진인들이 살고있는 압록강안팎의 땅이 고려의 령토라는것을 강조하는것과 함께 이 지대를 되찾으려는 고려의 립장에 대한 완벽한 표명이였다. 실로 서희는 능숙한 외교관으로서의 솜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적장은 그의 믐믐한 품격과 도도하면서도 사리정연한 론거, 능숙한 외교술에 완전히 위압되였다.

궁지에 빠진 적들은 드디여 《화의》했다는 구실밑에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철회하지 않을수 없었다.

담판이 끝난 후 소손녕은 고려측대표를 위해 연회를 차리려 하였다. 그러나 서희는 이를 가벼이 물리쳤다.

《모든 사람들이 싸움에 나선 이때에 어찌 잔치를 베풀고 즐기겠는가.》

《두 나라 대신들이 서로 만났는데 환영례식이 없어서야 어찌 되겠는가.》

적장은 저들의 체면을 봐서 사양말아달라고 빌붙으며 굳이 연회를 차리였다. 또한 적장은 일주일간의 담판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서희에게 락타 10필, 말 100필, 양 1 000마리와 각종 비단 500필을 선물로 주었다. 이것은 저들의 철수시 고려군의 추격과 기습을 미리 막는 동시에 송나라와의 싸움에서 고려가 중립을 지켜달라는 외교적인 암시였다. 온 나라 군사들과 백성들은 개선장군 서희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의 겸손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서희는 그후 거란이 담판의 약속을 뒤집어엎고 두 나라가 함께 성쌓는 일을 시작하자는 등 고려의 진출을 막아보려고 획책하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을 엿보는데 대하여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된타격을 가하였으며 거란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서희는 휴전직후부터 압록강이남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성축성사업에 주력하였다.

그는 994년 평장사관직에 있으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진출하여 청천강이북의 녀진족들을 축출하였으며 장흥진, 귀하진, 곽주, 구주, 선주, 맹주 등 서북지방 요충지들에 굳건한 성을 축성하는 사업을 직접 지휘하였다. 이 성들은 2차, 3차 거란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 능숙한 외교활동과 군사활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서희는 998년 56살을 일기로 개국사에서 생애를 마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임금은 그에게 장위라는 시호를 내리였다.

명장 강감찬

어느 봄날 늦은밤 하늘에는 뭇별들이 총총한데 임금의 명을 받은 한 신하가 말에 올라 경기도 시흥의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빛이 일어나더니 제일 큰 별이 서서히 꼬리를 끌며 어느 집의 지붕우로 떨어지는것이다.

이것을 본 신하는 하도 신기하고 이상스러워 갈길도 잊은채 마을의 그 집을 찾아들어갔다.

그런데 더우기 의문스러운것은 다른 집들엔 등잔불 하나 없는데 이 집은 대낮처럼 밝은것이 아닌가! 그리고 솟을대문안에서는 갓난애기의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문을 두드리니 잠시후 심부름군아이가 나왔다.

《이 집이 뉘댁이냐?》

《삼한벽상공신 강궁진어른댁이시옵니다.》

《주인어른을 좀 불러다고.》

잠시후 주인이 나타났다.

신하는 이 집에 오게 된 사유를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하늘의 별이 글쎄 땅에 떨어지자 사내자식이 태여났다니 거저볼일이 아니옵니다. 나라의 큰 인물이 틀림없나이다. 어르신께서 잘 키워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워주시오이다.》

신하는 례를 표하고 제갈길을 떠나갔다.

그날밤에 태여난 어린애가 바로 강감찬이였다.

그후 그 별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속에 계속 전해졌다.

강감찬이 나라의 재상으로서 송나라에서 온 사신을 만나게 되였는데 그때 그는 강감찬을 보자 황급히 뜰아래로 내려가 절을 하면서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내 일찍부터 문곡성(별의 이름)이 오래동안 나타나지 않아 지

금 어디 가서 있는가 하였더니 바로 공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기록되여있다.

강감찬의 어린시절 이름은 은천이였다. 그런데 그는 몸집이 체소하고 키가 다섯자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잘 생기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는 신동이라고 불리웠다.

벌써 3살에 아버지로부터 천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5살에는 《론어》, 《맹자》, 《례기》를 다 떼고 4서3경을 읽었으며 7살부터는 병서에도 막힘이 없었으므로 어른들을 놀라게 한 사실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리고 10살이 되였을 때에는 천문, 지리, 술서, 병법을 모두 통달하였다.

은천은 무엇이든 손에 쥐면 다 떼고야마는 성미였고 성격이 언제나 침착하고 생활에서 매우 검박한것으로 소문이 났다. 그리고 아이때 전쟁놀이를 하면 제일 조그마한것이 언제나 대장이 되여 그가 시키는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이긴 싸움이였다. 하기에 저보다 곱이나 나이를 먹은 아이들도 그의 명령에만은 철저히 복종하였다.

그는 결단성이 있었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는 법이 없었다.

17살에 이르러서는 불교까지 완전히 익혔다.

그러나 20살이 지나고 30이 넘어도 벼슬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다. 다만 학문에만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다.

어느날 아버지가 그를 불러 물었다.

《너는 과거를 볼 마음이 없느냐? 이젠 나이가 적지 않은데 나라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님의 뜻을 알겠으나 아직 저로서는 학문에 썩 깊지 못하오니 좀더 수련을 한 연후에 벼슬을 하여 막힘이 없도록 하겠소이다.》

《네 뜻이 그러한걸 내가 몰랐구나. 이젠 나도 70이 넘었으니 나라벼슬하는것을 보는것이 소원이 되여서…》

강감찬은 그후 학문연구에 더욱 힘을 넣었다.

그러던 그가 나이 35살이 되는 해인 983년 과거를 보려 개경으로 올라갔다.

《강감찬이 장원이요!》

시험관이 크게 웨치자 장내는 일시에 웅성거렸다.

진사과에 단연 장원으로 뽑힌 강감찬이 어전에 나서자 사람들은 금시 놀라는것이다.

《아니, 저렇게 작은 선비가?》

《속이 익겠지, 겉이 익겠소?》

《볼품은 없긴 없구만.》

누구나가 한마디씩 뇌까린다.

그러나 그가 얼굴을 드니 두눈만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가 없었다. 거기에서는 알지 못할 세찬 빛이 곧추 내비치였다.

《그대는 뉘집 자손인가?》

《시흥의 삼한벽상공신 강궁진이 제 부친이옵니다.》

벽상공신이란 왕건이 통일을 이룩할 때 그를 도와 공을 세운 공신을 말한다.

《글쎄, 다르다 했더니만 갈데가 있겠소?》

이날 강감찬은 임금으로부터 양주목사로 임명받았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호랑이가 많아 사람들이 무척 해를 입고있었다. 대낮이나 밤이나 별반 다를바없이 호랑이가 내려와서는 집짐승들을 물어가고 때로는 어린애들까지도 해치는 란사가 일었다.

부임지에 도착한 강감찬은 마을을 돌아보며 이곳이 군사에서도 중요한 곳이므로 백성이 편안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였다.

그는 이곳 백성들을 동원하여 주변숲을 베여 정리하고 먼 곳까지 나무 한대없이 벌판을 만들었다. 또한 사냥군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덫을 만들고 곳곳에 함정도 파게 하였다.

강감찬은 호랑이잡이에 여념이 없었다. 날마다 많은 호랑이를 잡아들이였다.

호랑이가 없어지자 강감찬은 나무를 벤 땅을 묵이지 말고 갈아엎어 곡식들을 심도록 하였다.

얼마간 지나자 호랑이는 그림자도 없고 곡식은 풍성하게 자라니 마을사람들은 그제야 강감찬이상 없다고 좋아들 했다.
그후 강감찬은 경주부사로 부임되였다. 부임지로 떠날 때 양주사람들은 멀리까지 따라나와 그와 헤여지는것을 서운해하였다고 한다.
경주에 도착해서도 그 작은 몸집으로 하여 처음 백성들은 그를 시원해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소문에 듣던바대로인지 그의 재주를 시험하려들었다.
며칠후 마을평민 몇이 찾아오더니 강감찬에게 말하였다.
《사또님께 아뢰옵나이다. 이 고을 늪에서는 밤마다 개구리가 너무 울어 온 마을이 잠을 자지 못하나이다. 이를 조처하여 백성들이 잠을 잘 자도록 해주소이다.》
그들의 속내를 단번에 꿰뚫어본 강감찬은 기꺼이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소원을 잘 알았다. 그러나 개구리도 생물이니 영원히 울지 못하게 해서는 안되느니라. 그대들이 정 소원이라면 오늘밤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할터이니 그리들 알고 물러들 가라.》
강감찬은 즉시 아전을 불러 마을들에 방을 붙이도록 하였다.
《본관은 모든 개구리들에게 오늘밤만은 울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였다. 그런즉 백성들은 마음놓고 잠을 자도록 하라.》
경주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개구리를 울지 못하게 한다구?》
그러면서 입을 싸쥐고 웃어댔다.
그런데 어인일인지 한밤이 다 가도록 개구리소리 한번 들리지 않았다.
해떨어지기 바쁘게 귀청을 때리던것들이 옴짝을 안했다.
《어찌된 일인가. 사또의 령이 정말 개구리에게도 미쳤는가?》
《거 참, 어제밤 잘 자긴 했다만 조환 조화야. …》
그들로서는 알수 없는 일이였다.
강감찬은 그날밤 심복부하들에게 긴 장대를 주어 비밀리에 늪에 내보낸 후 물과 풀숲을 온밤 휘젓게 하였던것이다. 이때부터 사람

들은 강감찬을 따르며 받들었다고 한다.

그후 이 사실을 들은 임금도 강감찬의 수에 감탄하여 그것 참 신통하다고 하였다 한다.

10여년간의 지방장관벼슬을 한 강감찬은 46살이 되는 해에 수도로 올라왔다.

그런데 이때 거란의 침략이 시작되였다.

10세기초부터 강대한 세력으로 등장한 거란족(료나라)이 북중국과 발해를 강점한데 이어 993년 고려에 대한 1차침입을 개시하였던것이다.

소손녕이 이끈 수십만대군이 쳐들어왔으나 한덩어리가 되여 일떠선 고려인민의 힘을 당해낼수가 없었다. 특히 서희를 비롯한 뛰여난 장수들의 지략으로 무수한 죽음을 남긴채 쫓기우고말았다.

거란을 물리치는 싸움은 비단 나라를 지켜내는데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결합된것이였다.

당시 고려는 대동강이남의 후백제와 신라는 물론 고구려의 옛 령토와 발해주민전체를 포괄하는 강대한 국가를 세울것을 목적하고있었다. 그러나 거란이 우리의 동족인 발해를 먹고 그 땅을 차지하고있었으므로 고려의 북방진출은 매우 어려웠다.

적들은 우리의 념원과 지향을 짓밟고 나아가서 병탄하려는 음흉한 속심으로부터 대대적인 침략의 길에 나섰던것이다.

1차침입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거란놈들은 이번에는 왕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40만대군으로 2차침입(1010. 11)에 나섰다.

고려의 군민들은 치렬한 항전을 벌리였다. 특히 도순검사 양규가 지휘하는 흥화진싸움은 성을 끝까지 고수하고 적의 후방을 차단하였으며 적후의 인민들을 원쑤격멸에로 추동하였다.

하지만 거란군은 그 어떤 손실을 보더라도 빨리 개경으로 쳐올라가 왕의 항복을 받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술책밑에 모험적인 진격을 계속하였다.

거란군이 개경으로 접근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대신들은 겁에 질려 항복할것을 주장해나섰다.

사태는 위급하였다.

12월 27일 현종왕은 급히 어전회의를 열었다.

대신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시꺼먼데 대부분이 항복하자는것이였다.

이때 단호한 태도로 비겁분자들의 제의를 누르고 나선 대신은 당시 예비시랑으로 있던 강감찬 하나뿐이였다. 그는 오직 나라의 위험을 하루빨리 가시려는 일념으로 불타고있었다.

《상감마마, 그렇게는 안되오이다. 지금 강동 6주를 내주고 항복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오랑캐의 노예로밖에 달리는 될수 없소이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국방에 힘을 넣는다면 문제될것이 없는줄로 아옵나이다.》

《좋은 방책이라도 가지고있는가?》

《현재 우리의 력량으로 그들의 힘을 꺾기는 어려울것이오이다. 그러니 시간을 얻어내기 위해 화평을 제의하여 적이 공격을 일시 멈추게 하여야 하오이다. 상감께서는 남쪽으로 피난하시고 우리는 적이 지칠 때를 기다려 쳐갈겨야 하나이다.》

어전은 잠시 약간의 화기가 돌았다.

임금은 힘을 얻은것 같았다.

강감찬은 오늘의 처지는 바로 당시 방어군 총사령이였던 강조의 경솔한 행동에 있다는것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잠시 적의 예봉을 피하면서 력량을 재정비하고 군민을 동원시킨다면 반드시 이길수 있다는것을 구체적안을 가지고 론증해나섰다.

이것은 당시 형편에 대처할수 있는 가장 옳은 전술적대안이였고 주장이였다.

－고려는 적에 의해 일시 력량이 분산되였지만 강대한 무력과 서부국경지대에 구축된 견고한 요새들이 있으며 특히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떠선 인민들의 잠재력이 있다. 적은 현재 승전한다고 하지만 후방도처에서 우리 인민들의 항전으로 진퇴량난에 빠져있다. 때문에 타산을 잘하고 군민을 옳게 불러일으키기만 한다면 승리는 결

정적이다.
강감찬의 주장은 곧 나라의 전략으로 되였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고려의 애국적군민들은 도처에서 적을 요정냈다.
몸이 비록 가루가 되더라도 천년위업을 길이 받들 결심을 안고 40만대군의 포위속에서도 굴함없이 성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적의 력량을 분산약화시키고 련속적인 참패를 안긴 흥화진군민들의 영웅적투쟁은 그 모범이였다.
거란놈들은 끝내 쫓겨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강감찬은 한림학사로 되였다가 이제는 중추원사로서 국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담당하고나섰다.
1012년 4월 거란왕놈은 그 나라에 간 고려사신에게 고려왕이 직접 자기 나라를 방문할데 대한 이른바 《국왕친조》를 요구하였으며 그것이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고려가 청천강이북지방에 쌓아놓은 6개성을 차지하겠다는 강도적요구를 들고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파렴치한 요구가 고려에 용납될수 없었다. 조정에서는 모두 머리를 싸쥐고앉았는데 강감찬이 일어섰다.
《예로부터 우리 대왕님이 다른 나라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인 일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는 일이오이다. 지금 거란의 친조라는것은 강동 6주를 강점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자는것이옵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임금도 좋은 방책이 없어 한숨만 내그었다.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하나이다. 그리고 그 방비를 서둘러야 하나이다.》
강감찬은 거란과 함께 동녀진족들도 우리 땅을 노리고있기에 여기에 대한 수비를 먼저 해야 앞으로 거란과 마음놓고 싸울수 있다는것을 깨우쳤다.
그는 중추원사로서 자기가 가지고있던 논밭 12결을 남김없이 임금에게 바치였다.
《나라를 지키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군사를 양성해야 하옵니다. 거란군의 침입이 이번으로 끝났다고 할수 없소이다. 그리

고 국민을 정신적으로 단결시켜야 하나이다. 그런데 군대에 나간 그 가족들이 헐벗고 굶주린다면 누가 안심하고 군사로 되겠사옵니까? 비록 신의 논밭이 얼마 되지는 않사오나 이것을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주어 누구든지 기꺼이 군대에 나서도록 하여주시오이다.》

여기에 감심된 임금은 그때부터 검소한 생활을 꾸리였으며 대신들도 모두가 군사가족들에게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그러자 장년들은 저저마다 앞을 다투어 군대에 들어왔다.

임금은 1018년 강감찬에게 다시 평장사라는 벼슬(정2품)을 주어 서경으로 보내면서 그 임명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기까지 하였다.

《경술년(1010년) 거란의 침략군은 한강변에까지 이르렀도다. 그때 강공의 묘책이 없었던들 우리는 모두 오랑캐의 족속이 되고 말았을것이로다.》

강감찬은 임금의 치하에 감격하면서 이 무거운 책임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그는 부임지에 간 날부터 젊은이들을 뽑아 군사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켰다.

용맹한 장수밑에 약한 군사가 없듯이 강감찬이 앞장에서 지휘하니 고려군은 두려울것이란 없게 되였다.

그러던 1018년 12월 거란의 성종은 사위인 소배압에게 또다시 10만의 군사를 주어 제3차침략을 시작하였다.

적들은 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병력으로 들어옴으로써 고려군과의 도중싸움은 될수록 피하고 곧장 개경으로 쳐들어가 고려왕의 항복을 받아보자는 계략이였다.

적의 기도를 알아차린 고려는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하는 20만 8 300여명의 강력한 방어군을 편성하고 전선 총지휘부는 녕주에, 주력은 그 이북지대에 배치하였다.

나라방위의 중책을 지닌 강감찬은 이때 나이 벌써 70살의 고령으로 백발이 성성하였으나 향토와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 못지 않았고 정력과 투지는 더욱 세차게 타올랐으며 지략은 무

궁하게 샘솟았다.
온 나라 백성들은 강감찬을 바라보았다. 강감찬은 흥화진으로 나가 먼저 그 일대를 자신이 직접 순찰했다. 그리고는 슬며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벌써 머리속에는 적을 무찌를 작전적구상이 다되여있었다.
《오랑캐는 내 손바닥우에 놓인거나 다름이 없다.》
진막에 이른 강감찬은 부원수에게 명령하였다.
《부원수는 날랜 군사 1만 2천을 뽑아 거느리고 저쪽 골짜기에 가서 숨으시오. 그리고 말울음소리가 들리거든 일제히 적을 공격하여 쓸어눕히시오.》
그리고 수하장수들에게는 다른 지시를 떨구었다.
《수백장의 소가죽을 모아 한데 꿰여매여라. 그것으로 강상류의 물목을 막아 림시제방을 만들도록 하여라.》
강감찬은 여기저기 말뚝을 박고 소가죽을 설치하게 하였다.
소배압은 이번에는 자신있다고 큰소리를 치며 기세좋게 달려들었다.
《어찌 고려군에 우리앞을 가로막을 장수가 있을소냐. 일제히 강을 건너 성부터 무너뜨려라.》
소배압은 소리를 질러대면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때이른것이였다.
적이 강 한복판에 들어서자 강감찬의 명령이 내려졌다.
《소가죽을 터뜨려라!》
순간 강물이 천지를 뒤흔들며 사품쳐 덮쳐들었다.
《악, 악! 사람살려라!》
원쑤들이 아우성치는데 매복했던 고려군사들이 또다시 노도처럼 쓸어나왔다.
물에 밀리고 창에 찔리고 말발굽에 밟히우며 적들은 낯설은 땅에서 어찌할바를 몰랐다.
흥화진싸움에서 돌이킬수 없는 참패를 입은데 뒤이어 적은 래구산(평성), 마탄(승호군 봉도리) 등지에서 거듭 몰살당하였다. 소배압은 기겁하여 어찌할바를 몰랐다.

《아, 아. 내가 한평생을 싸움터에서 살아왔지만 이번같이 비참한 꼴을 당하기는 처음이구나. 적장 강감찬이 이렇게 전략에 밝은 명장인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내가 무슨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가 임금님을 대한단 말이냐.》

소배압은 칼을 뽑아 제 가슴을 찌르려 했지만 그것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예로부터 싸움의 승패는 병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하였사옵니다. 부디 힘을 내시여 의분을 푸셔야 하옵나이다.》

군사들이 달려들어 말리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소배압은 심히 난처한 립장에 놓이였다. 군사들의 말대로 돌아갔다 다시 오자 하여도 될 일이 아니요, 이제 더 맞서싸우자 해도 승패가 뻔하였다.

생각끝에 소배압은 겉으로는 화의를 제기하고 뒤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들이 전선에 나간 틈을 타서 비여있는 개경으로 들어갈 기회만을 노리였다.

하지만 걸음걸음 막아나서는 고려군의 기세앞에 좀처럼 발걸음을 옮겨놓을수가 없었다.

강감찬은 서경에 대기시켰던 무력을 동원하여 적들을 추격전과 불의기습타격으로 피로약화시키는 한편 청야전술로써 궁지에 몰아넣었다.

강감찬은 분별없이 날뛰는 적을 견제하기 위해 개경에는 계엄상태를 선포하고 병마판관 김종현이 1만명의 군대를 이끌어 지름길로 적을 앞질러가 수도방어군에 합세하도록 하였으며 동북면 병마사가 보낸 3 300명의 응원군도 여기에 붙이였다.

강감찬은 개경밖의 주민들을 모두 성안으로 이주시켜 그 주변 100리 들판을 비워놓고 한알의 쌀, 한마리의 짐승, 한묶음의 마초, 한모금의 물도 남겨두지 않게 하였다.

거란군은 개경에서 100여리 떨어진 신계부근까지 왔으나 더는 나갈수가 없었다. 벌써 식량이 떨어진지 오래고 가는 곳마다에서 쫓기다나니 병사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였다.

그들은 원래 병사 한명에 타초곡기라는 기병 한명씩 배속시켜 강

점지역에서 그날그날 략탈하는 방법으로 군량과 마초를 해결하여왔다.

그러나 강감찬의 청야전술에 걸려들었으니 어쩔수가 없었다.

강감찬은 개경을 바라고 온 적들에게 《뼈다귀세찬》을 안기였다.

모든것을 걷어내고 오직 돼지, 말, 소뼈다귀만 구뎅이에 남겨놓은것이다.

강감찬은 퇴각을 운운하며 기습전을 꾀하는 적들의 간계를 꿰뚫어보고 100여명의 날랜 군사들을 어둠을 타서 은밀히 보내여 놈들의 척후병들까지 몽땅 잡아죽이였다.

또다시 된벼락을 맞은 놈들은 더는 지체할수 없었으므로 개경을 한번 공격도 못해본채 쫓겨가지 않을수 없었다.

드디여 강감찬은 총공격령을 내렸다. 고려군은 적을 추격섬멸하는 격전에 나섰다. 강감찬의 지략으로 벌써 의주로부터 태천에 이르는 적의 퇴로가 차단되고 적들은 함정에 빠져들었다. 기세차게 두드리는 북소리는 하늘을 진감했고 적의 비명과 아우성소리가 이에 합쳐졌다.

《이제 고려의 흥망이 이 싸움에 달려있다. 있는 힘을 다해 적을 찔러라. 다시는 적들이 이 땅을 넘겨보지 못하도록 매우 쳐라!》

강감찬의 힘찬 웨침이 산악을 울리였다.

《한놈도 놓치지 말라. 모조리 무찔러라!》

고려군의 기세는 무서웠다. 창과 칼들이 부딪쳐 불꽃을 튕기고 적들의 투구와 갑옷, 시체가 온 벌판을 채웠다.

1019년 2월의 《구주대첩》이 이루어지는것이다. 적은 삽시에 녹아났다. 적의 피는 시내를 이루고 주인잃은 말울음소리가 도처에서 울리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3대대첩》의 하나를 장식하는 구주(구성)대격전은 이렇게 고려의 커다란 승리로 막을 내리였다.

하기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리순신의 《한산대첩》과 더불어 강감찬의 《구주대첩》은 우리 민족의 자랑인것이다.

고려군은 곧 추격전으로 넘어가 구성 황화천을 건너 반령까지 뒤쫓아가면서 가증스러운 침략군을 모조리 쓸어눕혔다.

결과 소배압이 이끈 거란군은 10만가운데서 살아돌아간 놈이 수천에 불과했다고 한다.

고려군은 수많은 적을 생포하고 헤아릴수없이 많은 말과 락타, 갑옷, 무기들을 로획하는 전과를 올리였다.

적은 얼마나 혼이 났는지 거란의 패전이 일찌기 이렇게 큰적은 없었다고 아우성을 쳐댔다.

이렇게 강감찬은 71살의 늙은 몸이였지만 제일선에서 적을 쳐물리침으로써 근 30년간에 걸치는 거란의 침략을 완전히 일축해버리고 고려의 존엄을 지켜냈다.

고려의 승리는 물론 제 땅, 제 나라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애국적군민의 희생적인 노력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러나 강감찬을 비롯한 우수한 지휘관들의 뛰여난 지략과 애국충정을 떠나 그 응당한 결실을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모든 력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결전에로 군민을 옳게 동원하였을뿐아니라 능숙하고 뛰여난 전술로 전투마다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한 강감찬의 공적은 반거란전쟁사에 뚜렷이 남아있다.

당시 동방에서 《강국》으로 자랑하던 거란통치배들에게 거듭되는 참패를 준 고려인민의 승리는 이웃나라 인민들과 종족들에게 고려의 위력에 대한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녀진인들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 《대국》이라고 동경하면서 고려의 영향밑에 들어오게 되였으며 송나라통치배들속에서도 고려의 지원을 받아 거란의 남침을 물리쳐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였다.

대장기를 높이 추켜들고 승전고 울리며 70고령의 강감찬이 개경으로 돌아올 때 거리와 마을들에는 환호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이였고 현종왕도 너무 기뻐 영파역까지 마중을 나왔다.

강감찬이 영파역에 도착하여 포로와 로획물들을 바치고 승전보고의 의식을 끝내자 준비되여있던 가설무대에서는 풍악이 울

리는데 왕은 그의 손을 잡아쥐며 금꽃 여덟송이를 머리에 꽂아 주었다.

《정말 고맙소. 경과 같은 충신이 없었던들 이 숱한 백성들은 오랑캐의 노예가 되였을것이 아니겠소.》

《저는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오이다.

거란군을 무찌른것은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친 결과이오지 어찌 신의 공로이겠나이까.》

개경에 돌아온 왕은 다시금 3일간에 걸쳐 큰 잔치를 차렸으며 그에게 검교태위문하시중, 천수문개국남의 벼슬을 내리고 식읍 500호를 주었다. 그리고 그가 개선한 영파역을 《홍의역》으로 고쳐부르게 하였다.

강감찬은 70이 넘었는지라 여러차례 왕에게 의례하여 조정에서 물러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일신의 안일보다도 나라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였고 교외에 은퇴하여 소박하고 평범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개경에 외성이 없는것이 못내 걱정되여 이를 축조할데 대한 건의서를 올리였다.

《거란이 두번째로 쳐들어왔을 때 개경이 쉽게 적의 손에 들어간것은 여기에 성이 없었기때문이라고 보아지나이다. 하루빨리 외성을 쌓아 국가유사시의 방비를 튼튼히 해야 할것이오이다.》

그리하여 개경에는 둘레가 2만 9천 7백보(약 55리)에 달하는 토성이 쌓아지게 되였다.

강감찬은 1031년 83살의 일기로 생을 마치였다.

그는 저작으로 《락도교거집》, 《구선집》을 남겼다고 하는데 오늘에까지 전해지지는 않고있다.

평양이 낳은 시인 정지상

정지상은 서경(평양)출신으로서 11세기말과 12세기 전반기 서정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는 풍치수려한 아름다운 평양을 위주로 금수강산 이 나라의 자연과 그속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진실한 인간들의 인정세태를 기묘한 필치로 섬세하게 그려내였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생애는 기구하여 어느때 어떻게 출생하였으며 가정주위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고 다만 1135년에 죽었고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지냈다는것만이 남아있을뿐이다.

그리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엄격한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지상은 벌써 5살에 《천자문》을 다 떼고 《사략》과 《통감》에 정통했다고 한다.

어느해 류두날 서경의 이름있는 시인들은 대동강을 돌아 산책하면서 부벽루아래에 머물러 시를 짓기로 하였다.

화창한 봄날이라 서경의 경치는 한창 무르녹고있었다.

버들가지 실실이 늘어지고 양각도를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의 물결은 더 이를데 없었다.

하기에 저저마다 자기의 재주를 뽐아보려 하였다.

그런데 그속에는 5살밖에 안되는 정지상도 끼여있었다.

《저애는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시흥이 깨여지겠소.》

《조꼬만게 기분을 잡치게 하는군.》

모두가 언짢아하는 기색들이였다.

그러자 정지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나이는 어려 5살이나 시와 글은 약간 할수 있으니 함께 있

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소이다.》
《그래 너는 누구의 자손이냐?》
《저는 홍부에 사는 정지상인데 아버님은 정록사입니다.》
대답을 마친 그는 좌중에 있던 한 로인에게 말을 붙이였다.
《오늘은 류월 류두날이 아니옵나이까. 흐를 류에 머리 두자를 써서 류두라 함은 먼 옛적부터 우리 조상들이 동쪽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에 긴 머리태를 정히 감으면 그해 1년은 머리가 깨끗하고 어지러운것이 없어진다고 하여 생긴 풍속으로 알고있소이다.》
소년의 당돌한 언변은 금시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다.
《아니다. 그것은 중국의 주공이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남녀로소 같이 부정을 풀었다는데서 생긴것이니 네가 잘못 아는것 같구나.》
《아니옵니다. 저도 글에서 그런것은 읽은바 있으나 우리의 류두는 그런것과는 다른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아무것이나 중국에다 붙이는데 제 어린 소견에도 이는 큰 나라에 대한 뜻만 따르려는 그릇된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류두풍속은 우리 조상대대의것이옵니다.》
더 이를데 없는 당돌한 대답이였다.
로인도 이에 더는 대꾸를 못하고 우리 다같이 글을 지어보자 한다.
로인은 시제목을 《장상백조》로 하고 운자는 물결 파로 정했다.
모여든 모든 시군들은 제나름의 시를 꾸미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떤이는 대동강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는가 하면 또 어떤 시인은 제 혼자 웅얼대며 기둥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제가끔 제나름의 별의별 인물이 다 있었다.
그런데 이때 정지상이 또 냉큼 일어나는것이였다. 남들은 아직 운자를 두고 모색중에 있는데 그는 벌써 시가 다된것이다.

하인이 장백필하여
을자를 사강파오

(어느 사람이 흰 붓을 가져
을자를 강물결에 썼는고)

《아, 과연 기막힌 문장이요.》
《우린 저애에 비하면 아직 젖먹이요.》
운자를 뗀 로인은 오늘 시회는 이만하자고 선포하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헤여지지 않고 정지상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누구의 자제인가? 어디서 그런 글이 나오는가? 네가 과연 5살이 옳긴 옳은가? 무수한 질문속에서도 그는 거침이 없으며 때로는 시로써 그들을 또다시 놀라게 하였다. 이렇게 정지상은 5살에 벌써 서경땅에서 모르는이가 없게 되였다. 다재다감하였던 정지상은 홀어머니의 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그후 넓은 곳으로 나가야 안목이 트인다는 어머니의 강경한 요구로 개경에 올라가 국자감(《성균관》)에서 학문을 계속 닦아나갔다.
역시 개경은 개경이였다. 서경에 없던 책들이 국자감에는 이루 헤아릴수없이 많았고 여러 스승들의 지도도 받을수 있었다.
그리하여 1112년 3월 장원으로 과거급제한 정지상은 시를 좋아하던 예종왕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종5품벼슬인 기거사인으로 있게 되였다.
그의 이름은 서경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알게 되였다.
예종의 뒤를 이어 인종이 왕위에 올라 서경을 돌아볼 때에는 임금앞에서 경서를 강연함으로써 더욱 감동케 한것이다. 그가 한 강연이란 무일편으로서 임금이 풍류를 즐긴다 해도 어느때나 백성을 잊어서는 안되며 그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이 강연에 감동된 임금은 그에게 상을 내리였고 또 정지상의 어머니에게는 쌀과 옷, 여러개의 패물을 보내도록 하였다고 한다.
정지상이 비록 임금의 총애를 받고 궁신으로도 활약이 컸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는 시로써 이름있는 사람이다.
그는 오랜 력사와 문화, 경치수려함을 자랑하고있는 서경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노래한 시인이였다.

그는 시 《서경》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도성밖길 봄바람이 건듯 불더니
실날같은 가랑비 고이 뿌리네
티끌은 말끔히 가시고
버들가지 실실이 늘어졌네

푸른빛 붉은빛 단청한 집들
그속에서 노래소리 울려나오니
이것이 모두다 무예 배우던
리원제자의 집들인가

(《리원》이란 고려시기 예술을 익히던 곳이며 리원제자란 노래와 춤을 배우던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시에는 수백년 고구려문화를 자랑하는 서경의 모습과 함께 슬기와 재능을 겸비한 평양사람들에 대한 시인의 감정이 짙게 깔려있다.

그는 자기의 많은 시들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서경에 대하여 소리높이 구가하였으며 이를 민족의 더없는 자랑으로 내세웠다.

또한 정지상의 시에서 인상적인것은 자연풍경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생활을 노래하였다는것이다.

당시 이름있다고 하는 많은 시인들은 대체로 산천이 어떻소, 시내물이 어떻소 하는데 치우치고있었으나 그는 자연을 그리는데서도 어디까지나 그속에서 사는 인간들의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반영하기에 힘썼다.

서경사람들의 아름다운 인정세계를 그려낸 시 《벗을 보내며》에서는 손잡고 뛰놀던 고향친구와의 리별의 정을 아쉬워하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자연풍경과의 조화속에서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뜰앞 나무잎 지기 시작할무렵
잠자리엔 벌레소리 요란한데

덧없어라 떠나는 그대의 발길
멈춰세울 길 없구나
아득히 그 어디메로 가려느냐

산돌기 끝난 곳에서 못견디게 그리운 마음
달밝은 밤이면 혹시
외로운 꿈되여 찾아들려나
래년봄 포구의 물결 푸르러지거든
그대 부디 잊지 말게나
우리 다시 만나잔 언약

시에서는 풀벌레소리 요란히 들리는 가을밤 친근한 벗과 헤여져야 하는 서정적주인공의 리별의 슬픔을 노래하면서 래년봄 포구의 물결이 푸르러질 때 다시 만날것을 간절히 바라는 벗들사이의 진실한 우정을 잘 드러내고있다.

시 《대동강》에서는 대동강반 남쪽에 자리잡고있는 남포나루터에서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는 녀인의 서글픈 심정을 담고있다.

비 그친 긴 동뚝에
풀빛 짙은데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노라

대동강 흘러가는 저 물결아
어느때에 가서 마를소냐
떠나고 보내는 리별의 눈물
해마다 흘러가는 물결을 더하거늘

시는 비온 뒤 봄날의 정서와 함께 그리운 님을 떠나보내는 서정적주인공의 착잡한 심정을 노래하고있다.

서경은 옛 고구려의 수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갔으며 또 만

나고 헤여지는 곳이였다.

시인은 이러한 인간의 정을 대조와 과장의 수법으로 재치있게 그려내였다.

그 옛날 눈물로 더해지는 리별의 강으로 되였던 대동강의 모습도 선명하고 그속에서 손을 놓기 저어하는 인간들의 인상도 뚜렷하게 안겨든다.

또한 정지상의 시에는 자신이 한림학사라는 벼슬까지 지냈으나 량반들과 불교승려들의 기생충적인 그릇된 생활에 동화되지 않고 이를 배격하며 자유롭고 보람찬 생활을 념원한 흔적들이 다분히 남아있다. 이것은 그의 시 《등고산》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자드락길 구불구불
이끼는 아롱다롱
이끼길 다 지나서
절문이 나서네

산은 높아 하늘에도
거의 닿을듯
중은 흰구름만
마주보고 앉아있네

해살 따뜻하니
제비도 날아들고
달빛밝은 밤엔
잔나비도 울어라

사나이 이 세상에
큰뜻품고 살리로다
이 산골에 초라하게
숨어살진 못하겠네

시인은 절에 파묻혀 념불이나 외우고 백성들의 땀을 짜내여 할일없이 세월이나 보내는 중들의 덧없는 생활을 풍자하면서 그속에서 《초라하게 숨어살진 못하겠다》는 자신의 생활적지향을 드러내고있다. 이것은 구속을 원치 않으며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시인의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정지상은 서경이 낳은 시인으로서 내 나라의 아름다움과 함께 인간의 내면세계를 노래하는데서 자기의 특이한 얼굴을 드러낸 작가이다.

그러나 정지상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력사에는 《묘청의 란》으로 기록된 서경을 중심으로 한 량반통치배들사이의 권력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을 묘청이 지휘하였다.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어난 묘청의 란은 처음에는 거세차게 번져졌으나 통치배들의 강력한 진압으로 얼마 못가 쓰라린 참패로 끝나고 폭동자들은 《역적》이라는 죄명을 쓴채 억울하게 처형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정지상은 여기에는 깊이 관계하지 않았으나 이 란을 진압하러 내려왔던 포악한자인 김부식의 시기와 질투로 하여 살해당하였다.

폭동이 있기 전부터 정지상은 김부식과 알륵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1130년 6월 어느날 밤 정지상은 개성에 있는 안화사에 바람을 쏘일겸 놀러 가게 되였다.

당시 시단의 인재로 소문을 떨치던 정지상인지라 그가 왔다는 소문은 삽시에 퍼져 한다하는 시군들이 안화사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의 재능을 뽐내면서 제나름의 시를 지으며 시간을 보내였다.

역시 정지상의 시는 사람들을 경탄시켰다.

그런데 이자리에 문장에서 제노라는 김부식이도 있었다.

사람들은 정지상의 시에 매혹되여 김부식의 존재는 알은체도 하지 않았다.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김부식은 속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흥, 촌바우같은 정지상이 뭐란 말인가.》
그러나 주위를 살피면서 정지상의 시구들을 들어보니 자기로서도 감탄할만 한것이였다. 그러니 김부식은 정지상에게 첫자리를 빼앗긴셈이다.
정지상을 제껴버릴 힘이 현재 자기에게는 없었다.
밤도 깊어 시군들도 돌아가고 정지상도 잠자리로 물러가려 하는데 김부식이 그의 뒤를 슬금슬금 따랐다. 방금전에 귀가 솔깃해지는 시구를 그가 혼자소리로 웅얼대는것을 들었기때문이였다.
김부식은 다짜고짜로 정지상의 어깨를 치며 이자 그 시구를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청탁하였다.
정지상은 모르는체 하면서 되물었다.
《대감, 무얼 말이요?》
그러자 김부식이 낮추 붙기 시작하였다.
《방금 그 시구말이요. 절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니 하늘은 씻은듯 맑아라… 그것말이요. 나한테 넘겨주면 내 기막힌 시로 완성하겠소.》
그러자 정지상은 코웃음을 치는것이였다.
《미쳤군. 남의 시구를 달라는 사람이 어데 있소? 그것도 문장의 대가라는 사람이.》
체면을 깎이운 김부식은 속에서 불이 일었으나 어찌할수 없었다. 다만 후날 반드시 두고보자는 속심이였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묘청의 란이 터지자 김부식이 《토벌》대장으로 이것을 진압하라는 임금의 령을 받았다. 그는 군사들을 이끌어 서경으로 오게 되였다.
김부식은 이때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정지상이 묘청과 내통했다는 죄목을 만들어 붙들어서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였다고 한다.
만족한 김부식은 이제는 자기를 당할자가 없다고 속으로 쾌재를 올리면서 봄날에 대한 시 한구를 읊어내려갔다.

버드나무가지는 천오리로 푸르고
복숭아꽃은 만첩으로 붉어라

그리고는 제멋에 겨워 정지상이 아무리 시재라 해도 이 시를 들으면 화답을 못할것이라고 시물거렸다.

그런데 그날밤 그의 꿈에 느닷없이 정지상이 불쑥 나타났다.

《이놈아, 네가 버드나무가지가 천오리인지 복숭아꽃이 만첩인지 세여보았느냐? 고얀 놈같으니라구.》

추상같은 호령에 그는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여보니 다행히도 꿈이였다. 그는 시급히 시를 써놓은 착지를 찾았다.

그리고는 시구를 고치였다.

버드나무가지는 실실이 푸르고
복숭아꽃은 점점이 붉어라

그리고나서 김부식은 혀를 내둘렀다.

《아, 문장의 힘은 권세로도 누를수 없구나.》

이 이야기에서 볼수 있는것과 같이 정지상의 마지막길은 기구하였다.

자기의 시적재능을 다 펴보지도 못하고 모략에 걸려들어 아까운 한생을 끝마치였던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 인민의 세태풍속과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한 많은 시들을 썼으나 자기 작품집 하나 변변히 남기지 못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문집들에 섞이여 한두편씩 전해지고있을뿐이다.

그 역시 봉건귀족이였기에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자기의 시에서 시대적제한성을 면할수 없었다.

그러나 유구한 서경의 력사와 더불어 정지상의 시들은 이채를 띠고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김부식은 문종29년인 1075년 개경(개성)에서 김근의 셋째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신라의 위력한 가문으로서 모두 경주에서 살았으며 그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문장가로 이름이 있었다.

김부식은 30살 전후에 과거에 올라 벼슬길에 들어선 후 나라의 요직들을 지내였으며 례부시랑, 호부상서, 한림학사, 승지를 거쳐 평장사, 문하시중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당시로서는 외교에도 이름난 재상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교경전에 정통했으며 벼슬에 있으면서도 책을 놓지 않아 문장에서는 손꼽힌다고 하였다.

그는 궁중에서 임금에게 《상시》를 강의하는가 하면 과거시험관인 지공지로서 나라의 인재들을 선출하기도 하였다.

그의 문장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해인가 왕이 불교를 내세우는데서 큰공을 세운 대각국사 의천의 비문을 윤관이라는 사람에게 씌웠는데 글이 잘되지 않았다.

윤관으로 말한다면 북방의 녀진족을 치는데서 장군으로 되였고 문하시중이였으며 문장에서도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였다. 그리고 김부식의 선배였다.

김부식은 윤관이 쓴 글에 손을 대는것이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여 거듭 사양하였지만 왕의 어명이므로 거절할수가 없어 이것을 고쳐 다시 써내였다.

《음, 이제야 제대로 된것 같구나.》

김부식이 고쳐쓴것을 보고 임금이 하는 말이다. 임금도 국자

감에서도 모두 좋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흡족한 왕은 김부식에게 큰상까지 내리였다.

이후 윤관의 아들의 오해로 일은 상서롭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으나 김부식은 이로 하여 더욱 이름이 나게 되였다.

문장가로서의 그의 이름은 해외에까지 널리 퍼지였다. 때문에 송나라의 이름있는 사신들까지도 그 묘리를 알려고 애를 썼으며 나중에는 그의 초상까지 그려다가 소개하였다고 한다.

김부식은 송나라에 사신으로 출입할 때에도 능숙한 외교문장으로 사람들을 탄복시킨 이야기들이 있다. 때문에 이름난 평론가였던 성현은 후날 여러 문인들에 대하여 평하면서 김부식의 글은 그닥 화려하지는 못하나 뜻이 풍부하다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또한 송나라사람인 서긍은 《고려도경》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몸집이 크고 얼굴이 검으며 눈이 유별나게 튀여나왔다. 그러나 아는것이 많고 글을 잘하여 따르는 선비가 많고 그의 재주를 당해낼만한 사람이 없다.》

김부식은 이런것으로 하여 송나라 휘종왕으로부터 손수 그린 《추성흔락도》를 기념으로 받게까지 되였다.

김부식은 책에 관심이 높았으며 송나라에 가면 의례히 돌아올 때 책을 사가지고 오군 하였다.

김부식은 고집이 센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왕의 가시애비인 리자겸의 대우문제가 론의될 때에도 왕의 옆에 붙어선 공신들이 저저마다 높이 우대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끝내 반대해나서고야말았다 한다.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수 없듯이 땅에도 두 임금이 어찌 있을수 있겠사옵니까. 임금의 아버지라 하여 신하이상의 대우를 할수는 없으며 신하이상의 이름을 드릴수는 없는것이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어김이 없이 임금과 신하의 법을 지켜야 하나이다.》

그리하여 대궐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두 파로 나뉘여졌으며 마침내 김부식의 주장이 이기고야말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문종이 죽은 후 41년사이에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예종을 거쳐 인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정사에서는 여러가지로 의견들이 생기였다.

그리하여 김부식을 비롯한 여러명의 공신들이 왕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10가지 건의서를 올린 후 4일동안 대궐앞에 엎드려 대답을 기다리였다.

그러나 임금은 자기 권위에 손상이 간것으로 하여 괘씸하게 여길뿐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

몇명의 공신들은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바빠맞은 인종왕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신들도 제자리에서 일을 보도록 하였다는것이다.

김부식의 고집은 정사에서뿐아니라 군사, 외교, 글에서도 나타났는데 그 누구도 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김부식의 업적을 말한다면 당시까지 전해오는 삼국시기의 력사를 정리하고 그를 체계화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한것이다.

김부식은 《정신이 혼미하여 건망증이 생기며 붓대를 잘 옮길수 없는 지경》이 되였을 때까지도 문필활동을 계속 벌리였으며 력사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전해오지 못하지만 그의 문집들로는 근 20권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보문각 시제로 있을 때 승중, 정극영들과 함께 《예종실록》과 《인종실록》도 편찬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고려력사실록들은 오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김부식의 저술사업에서 기본을 이루는 《삼국사기》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보존되여있는 력사책들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으로서 세나라시기의 력사를 여러 부문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삼국유사》와 더불어 세나라시기의 력사연구에서 쌍벽을 이루는 저작이다.

김부식이 활동하던 시기는 대체로 전쟁이 없었고 나라에 질서가 잡혀가고있는 때였다.

나라안에는 학문을 숭상하는 기운이 높았고 임금들도 학문을 귀히 여기였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력사편찬사업도 활발하게 벌어지고있었다.

그전 시기에는 고구려때 《류기》(100권, 고구려초기)와 그를 요약한 리문진의 《신집》(5권, 600년)이 나왔고 백제에서는 고흥에 의하여 《서기》가 집필되였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거칠부 등에 의하여 《국사》(545년)가 편찬되였다.

이 사업은 그후 고려에 이르러 더욱 왕성해졌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리조시기에 와서는 하나의 정상적인것으로 되였다.

《삼국사기》는 세나라 다시말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조직사를 서술한 문헌으로서 그것은 전체 50권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 책의 가치는 큰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삼국사기》는 당시의 임금인 인종의 령으로 하여 씌여지게 되였는데 이전부터 전해내려오던 《구삼국사》를 정리한것이라고 한다.

김부식은 문헌편찬에 앞서 많은 사료작업을 하였다. 그는 《구삼국사》는 물론 삼국시기에 나온 《삼한고기》, 《해동고기》 《신라고기》, 《신라고사》 그리고 후기신라때 출판된 최치원의 《제왕년대력》, 김대문의 《화랑세기》 등 자료들을 주로 많이 인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국의 《한서》이후의 정사들과 여러가지 류서들, 《자치통감》 등을 참고하였다.

《삼국사기》는 《정사》로서 그 서술체계는 중세력사서술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기전체형식이다.

따라서 이것은 본기, 년표, 지, 렬전으로 분류되여있다.

김부식은 저술에서 1～12권까지는 신라본기, 13～22권까지는 고구려본기, 23～28권까지는 백제본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9

～31권까지는 년표를 주고 32～40권까지에 해당한 지에는 미신적인 제사, 음악과 무용, 봉수제도, 봉건통치배들이 리용하는 수레와 가옥제도, 세나라의 지리와 벼슬 등에 대한 기사들이 들어있다.

41～50권까지는 렬전인데 여기에는 봉건왕조와 통치배들의 리익을 위하여 적극 복무한 인물들과 봉건국가를 반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봉건도덕을 선전하는데 본보기로 된다고 보는 인물 등의 간단한 전기들이 실려있다. 렬전에는 또한 태봉국과 후백제를 세운 궁예와 견훤에 대한 전기도 들어있다.

특히 렬전에는 《을지문덕전》을 비롯하여 많은 이름난 인물들의 전기가 실감있게 반영되여있으며 《온달전》, 《설씨녀전》《도미전》, 《효녀지은전》과 같이 소박하고 평범한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도덕적풍모에 대한 이야기도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또한 가야금의 유래와 솔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다.

뿐만아니라 《삼국사기》에는 일식, 월식 등 천문기상관측에 대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삼국사기》는 세나라시기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참으로 그 가치가 큰것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우리 인민의 재보로서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저자자신의 계급적, 세계관적제한성과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유감스럽게도 많은 부족점들을 가지고있다.

먼저 《삼국사기》에는 봉건적사대주의의 색채가 진하게 깔려있다.

김부식은 고조선건립에 대해서도 중국사람이 날조한 《기자설》을 인정하여 서술하였으며 사료취급에서도 사대주의에 빠져 중국의 자치통감《수서》에 들어있는것들을 무턱대고 인용하고있다.

그리고 서술에서도 중국력사적형식을 그대로 취하였고 우리의것을 무시하고 홀시하는 페단들이 나타났다.

《삼국사기》의 중요한 약점은 또한 통치배들의 립장에 서서 서

술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여기에서는 백성들의 등뼈를 깎아내는 착취와 수탈에 더는 참을수 없어 칼을 들고나선 농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모두 《도적》들로, 그 지휘자들에 대해서는 《도적의 우두머리》로 야비하게 써놓았거나 일부는 외곡하는 표현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신라왕조의 후손이라는 봉건적문벌관념에 푹 배여있던 나머지 신라의 건국년대를 외곡하여 고구려보다 앞에 놓는 실책을 범하였다.

뿐만아니라 렬전에서도 신라본위로부터 출발하여 고구려의 용감한 무사들과 백제의 이름있는 인물들을 매우 적게 배치한것이다.

또한 신라시기 선덕녀왕이 녀성으로서 왕위를 계승하여 왕좌에 오른데 대하여 부당하게 평하면서 가부장적인 봉건륜리관을 로골적으로 드러내였다.

서술에서도 신라방언을 위주로 하는 등 신라본위를 주장해나섰다.

그리고 왕조들에 따라 년대순위로 사건들을 기록한 년대기에 때로는 신비하고 괴이한 설화적표현들을 섞어놓은것들도 있다. 그것은 신라본기 박혁거세조에서 《5월 봄에 룡이 알영우물에 나타나 오른편옆구리로 계집아이를 낳았다.》고 하였고 신라본기 유리니사금조에서는 《금성우물에서 룡이 나타나고 좀 있다가 소나기가 서북으로부터 몰려왔다.》는 등 설화들을 넣었다. 이것으로 하여 신라를 돋보이려고 한것이다.

김부식은 1145년 《삼국사기》를 완성하여 왕에게 바치면서 이런 글을 함께 올리였다.

《신하 부식이 말씀드리오니 고대(중국) 여러 나라들에서도 사관을 두어 사실을 기록한것이 있어 후손들에게 옛날일을 깨우쳐주고있다 하나이다. 우리 동방의 세 나라에 있어서도 세월이 흘러 마땅히 그 사실들을 책에 기록해야 할것이므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여 이것을 짓게 하신것이온데 저의 글재주와 학문이 부족하여 어찌할바를 모르겠나이다. …지금의 학자 대부분들이 오경

과 제자의 책들이나 진, 한, 대의 사기들은 잘 알고 자세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소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일에 대하여서는 도리여 까맣게 그 시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할 일이옵니다.》

이것은 김부식자신의 《삼국사기》편찬목적에 대하여 밝힌것이라고 볼수 있다.

다시말하여 후손들에게 력사책들이 필요하며 그래서 이를 통해 모든것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는것이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완성하였을 때는 벌써 그의 나이가 70살이였다.

《삼국사기》는 1174년 이전에 첫 목판본이 나오고 1394년에 두번째 목판본이 출판되였다.

이때에는 경주부사로 있던 김거두가 《삼국사기》의 인멸을 우려하여 자신이 팔을 걷고 인쇄해낸것이다. 그후 1512년 경주부사 리계복이 다시 이를 재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정덕본》이다.

주체48(1959)년 과학원출판사에서 상, 하 두권으로 묶어 원전과 함께 번역출판하였다.

《삼국사기》는 귀중한 문헌으로서 외국에까지 널리 퍼지였다.

《삼국사기》는 이와 같이 우리 나라 고대 및 중세력사연구에서 중요한 사료로 되지만 피치 못할 결함들을 내재하고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비판적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김부식은 1151년 7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전장의 꽃 설죽화

반거란전쟁이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난 후 고려민간에서는 그 누가 지었는지 이런 노래가 불리워지고있었다.

그 모습 아릿다워 설죽화라 하였더냐
굳은 절개 고이 지켜 설죽화라 불렀더냐
설한풍 몰아쳐도 푸른빛 잃지 않는
갸륵하고 예쁜 마음 설죽화라 부른다네

전장의 꽃으로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 아름다운 처녀 설죽화를 잊지 못해 백성들이 부르고부른 민요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녀자란 부엌에서 밥이나 짓고 남정들의 뒤바라지나 하는것이 고작이던 당시에 나어린 처녀의 몸으로 전장에 달려나가 거란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나서자란 고향땅을 굳건히 지켜낸 설죽화에 대한 이야기는 대를 두고 뜨겁게 전해지고있다. 처녀인 그가 붉은 댕기를 남자의 검은 끈으로 바꾸어매고 장구를 갖춘 후 안장에 올라 피어린 전장으로 나선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설죽화는 반거란전쟁에서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리관의 딸이였다.

힘이 센 장수로 또한 대바르기로 이름이 났던 리관은 마음씨 고운 홍씨부인과 외딸 설죽화를 데리고 부모들과 구주성에서 살았다.

하루일을 마치고 뜨락에 들어서면 귀여운 딸이 어깨에 매여달리고 현숙한 부인이 정중히 맞이하는 가운데 부친께 인사를 올리고 단란한 저녁을 보냈다.

설죽화는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고향의 강변을 거닐기를 좋아하였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어린 그에게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고

려에 대한 이야기, 고향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옛말처럼 들려주었다.

《아버지, 나도 말타고 갑옷입구 원쑤놈들 꼼짝못하게 하겠어요.》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보고 또 보아도 싫지 않은 딸애의 얼굴에 한가닥 아쉬운 생각을 얹군 하였다.

(저것이 아들애라면 장수로 키울수 있으련만…)

이런 때 전쟁의 참화가 이 집 뜨락에도 미쳐왔다.

리관은 결연히 부친이 내여주는 큰 칼을 받아들고 거란침략자를 반대하는 싸움터로 떠나갔다.

《설죽화를 잘 키워주오.》

하지만 리관은 싸움터에서 돌아오지 못하였다.

원쑤와의 싸움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것이다. 할아버지는 주인없이 외롭게 돌아온 리관의 장검을 쓸고 또 쓸어만지며 모여온 마을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고로 대장부란 전장에서 성벽을 베고 죽어야 떳떳한것이니 나는 그애를 우리 가문의 자랑으로 생각하오.》

홍씨 역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근엄한 시부모들의 모습에 그늘을 지으는 일이기도 했지만 강직한 성품인 그로서도 남편의 장한 최후에 눈물을 보이고싶지 않았다.

(어디 나 혼자만의 슬픔인가. …)

더 과묵해진 홍씨는 그후 침통한 얼굴로 더욱 부지런히 일손만 놀리였다.

겨우 열살밖에 안되는 설죽화는 아버지의 장검을 보며 울고 또 울었다. 다시는 아버지의 그 넓은 가슴에 매여달릴수 없고 기둥같은 목에 감길수 없다고 생각하니 끝없는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하지만 그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울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불쑥 일어섰다.

(아니다. 내 기어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원쑤놈들을 백배, 천배 복수하리라.)

설죽화는 작은 주먹을 쥐고 힘있게 맹세했다.
가슴은 마냥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쑤에 대한 분노로 세차게 끓어올랐다.
그날부터 설죽화는 등불심지를 돋구어가며 아버지가 보던 병서를 읽어나갔다. 락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사랑방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못잊어 잠못드는 긴긴 가을밤에도 설죽화의 그 등불은 꺼질줄 몰랐다.
어느날 설죽화는 자기의 뜻을 어머님께 말씀올렸다.
《어머님, 무술을 배우려고 하나이다.》
어머니는 뜨거운 눈길로 설죽화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새 내 딸이 몰라보게 자랐구나. … 헌데 남자들도 힘에 겨워하는 그 일을 하물며 처녀애가 꽤 해낼런지.)
어머니의 눈길을 바라보던 설죽화는 대담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기어이 해내고야말겠사와요. 남자들이 열번할 때 나는 백번을 해서라도 무술을 익히고 원쑤를 갚고야말겠사와요.》
딸의 결심은 비장하였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더니 리씨집안의 딸이 분명하구나. 우리 문중에 녀장수가 생기는가보다.》
어머니의 가슴은 슬하에 아들을 두지 못한 서운함으로 하여 또다시 쓰리고 아파났다.
(아, 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아들 하나 두지 못하였던가.)
하지만 이제는 할수 없는 일이였다.
《어머니, 내 꼭 아들구실을 하겠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굳세졌다. 딸애와 생사를 같이할 결의가 다져진것이다.
《그래라. 한번 검을 들면 반드시 장수가 되여야 하느니라. 그래야 저승에 가서도 아버지를 기쁘게 만날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딸과 어머니는 그 누구도 모르게 무술익히기에 나섰다.
녀자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못하는 때이니 모녀의 놀라운 행동이 사람들의 눈에 띄여서는 안되였다.
훈련은 낮에 밤을 이어 계속됐다. 휘영청 달밝은 밤이면 그간 못

다 익힌것을 련마하는 모녀의 쟁기 다루는 소리가 오래도록 밤의 고요를 흔들었다. 처음하는 훈련이니 갈수록 온몸이 나른해지고 칼들 기력조차 없을 때가 드문했다.

그럴 때면 근엄한 어머니의 눈빛이 설죽화를 일깨웠다.

《일어나거라. 아버님이 보고계신다.》

설죽화는 이를 사려물며 자신을 이기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찌르고 또 찌르고 바위를 부시고 또 부시고 시위를 당기고 또 당기고…

어느날 모녀의 이상한 거동을 넘겨짚은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앉혔다.

《얘야, 내 너희들의 뜻을 모르지는 않는다만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하나밖에 없는 저것마저 전장에 내보내면 너는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생각은 기특하다만…》

할아버지는 말끝을 흐리였다.

《아버님, 죄송하나이다. 하지만 제힘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는 저애의 마음을 막아내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오랑캐들이 아직도 우리를 넘겨다보고있으니 제 생각도 같소이다.》

할아버지는 더 말리지 못하고 먼 하늘을 바라볼뿐이였다.

모녀는 무술익히기에 더욱 힘썼다.

세월은 류수와 같이 흘러 설죽화도 어느덧 15살이 되였고 의젓한 처녀꼴이 잡히였다. 할아버지는 그 청아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근심만 커갈뿐이였다.

(시집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

동네아낙네들은 그의 탐스런 모습에 하나같이 며느리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야단들이다. 아버지를 꼭 닮았다느니, 어머니의 재간있는 그 손과 꼭같다느니 모두가 지나갈적이면 한마디씩 하군 한다.

《어느 집 며느리가 되겠는지 그 집 대통운이 트이겠다.》

《어느 총각이 데려가겠는지 좋기도 하겠다. 아니 글쎄 저런 고운 색시가 어디에 있겠소.》

수다스런 아낙네들은 저희들이 더 좋아들 한다.

그런데 한가지 일이 생기였다.

밤낮으로 설죽화의 장래를 생각하던 할아버지가 모녀와는 의논도 없이 배나무집총각과 혼사말을 건네였던것이다. 녀자란 제 서방만 만나면 모든것을 다 잊어버리기마련이니 무술훈련도 그만둘게 아닌가 하고…

설죽화와 어머니는 아연해졌다. 아직 큰뜻은 앞에 있는데 이 어인 일인가.

어머니도 물론 가슴이 아팠다. 남들처럼 시집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챈 설죽화가 먼저 말을 떼였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나가야 할 자식이옵니다. 저는 자신의 본분을 절대로 잊지 않고있소이다.》

할아버지도 손녀의 결심이 이러하니 어쩌는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딸을 불러앉히고 그앞에 아버지의 장검을 내놓았다.

《자, 그렇다면 이 검을 받아라. 이제는 때가 된가부다.》

설죽화는 아버지의 뜻이 담긴 피의 장검을 정중히 받으며 눈물을 떨구었다.

그들모녀는 다음날 행장을 꾸려가지고 굴암산으로 떠났다. 거기에는 검술을 가르치는 도승들이 있었다.

《부디 몸조심하거라. 기다리겠다.》

할아버지의 간곡한 바래움을 받으며 어머니와 딸은 발길을 재촉했다.

어느덧 굴암산에 이른 설죽화는 애써 무술을 닦아나갔다.

피타는 훈련의 두해가 지나갔다. 그때 원쑤놈들이 또다시 고려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그동안 설죽화는 어엿한 장수로 자랐고 그의 검술은 막힘이 없었다. 검술을 가르치는 도승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얘야, 어서 전장으로 떠나거라. 나도 뒤따르겠다.》

설죽화는 어머님의 말씀대로 산을 내려 싸움터로 달려갔다.

온 나라가 애국의 더운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군사들과 백성들 모두가 떨쳐나 감히 이 땅을 삼키려 덤비는 오랑캐들에게 철추

를 내릴 판가리싸움을 준비하고있었던것이다. 개경을 노리고 달려들던 적들이 쫓기여 구주성쪽으로 밀려든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1019년 1월도 저무는 어느날 고려군대의 총사령관인 강감찬은 진막에 홀로 앉아 구주성으로 몰려드는 원쑤를 쳐부실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한겨울이라 찬바람이 진막을 휘감았건만 청동화로에서는 시뻘건 불이 이글거리였다.

로년의 장군이므로 여러가지로 궁리를 익혀가는데 한 병사가 들어오더니 어떤 소년이 대감님을 찾아뵈러 왔다고 전갈하는것이였다.

《소년은 투구를 쓰고 장검에 좋은 말까지 타고 왔소이다.》

《이 밤중에 웬 소년이란 말인고?…》

강감찬은 이상스러운감이 없지 않았으나 들여보내라고 이른다.

《대감님, 문안드리옵니다.》

소년의 다기찬 모습과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진막안을 울리였다.

《너는 누구인데 나를 찾아왔느냐?》

어린 소년이 무엄하게도 상원수대감의 진막에 찾아든데는 필시 어떤 사연이 있음직하였다.

《대감님, 소년의 아버지는 거란놈들과 싸우다가 전장에서 숨지였소이다. 저는 아버님의 원쑤를 갚으려고 그동안 여러해 무술을 닦았으니 부디 대감님옆에서 싸우도록 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소년의 말은 절절하게 울리였다.

강감찬의 가슴에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옳거니, 장하다. 그래 무술은 얼마나 익혔기에 여기까지 찾았왔느냐. 나를 넘어뜨릴만 하냐?》

《대감님을 놀래우기는 어려우나 원쑤놈들은 한놈도 용서치 않겠소이다.》

빛나는 소년의 눈길은 볼수록 귀여운데가 있었다. 꼭 집에 두고온 손녀애 같았다.

(녀자애처럼 곱기도 하구나.)

강감찬은 복스러운 그의 모습을 뜯어보면서 혼자말을 이었다.

(싸움은 이긴것이다. 저렇게 작은 소년들까지도 주저없이 전장에 뛰여드니 원쑤놈들이 어디라구 감히…)

강감찬은 진막안을 천천히 거닐며 시 한수를 읊어나갔다.

이 땅에 오랑캐가
천만번 침노한들
고려의 아들들이
두려움 있으랴

후손들도 우리처럼
싸우리라 믿기에
장검을 비껴들고
이 몸 바쳐 달리노라

소년의 눈가에 한순간 눈물이 가랑가랑 고이였다. 귀에 익은 시구였다.

어머니가 이 시구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이야기를 하고 또 하지 않았던가!

강감찬은 소년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이 시는 전사한 리관이란 군사가 남긴것이다. 아, 그의 후손들도 어디엔가 있으련만…》

강감찬은 소년을 자기의 진막에 두었다.

그 《소년》은 바로 17살의 처녀 설죽화였다. 굴암산을 내린 설죽화는 곧장 강감찬의 진막으로 찾아들었던것이다.

소원이 풀린 그는 너무 기뻐 속으로 울며 웃었다.

설죽화가 구주성에 이른지 얼마 지난 2월 초하루 싸움이 벌어졌다.

하늘은 눈이 쏟아질듯 몹시 시꺼먼데 소배압이 거느린 거란군은 검은 기치를 앞장에 날리면서 기병부대를 선봉으로 하여 기여들기 시작하였다.

《둥, 둥, 둥…》

장중한 북소리와 함께 성문이 열리고 창검을 비껴든 군사들이 쏟

아져 내달렸다. 치렬한 격전이 벌어졌다. 치고받고 창검이 부딪치는 소리, 땅을 구르는 말발굽소리… 구주등판은 싸움으로 한낮이 되였다.

설죽화도 그 한복판에서 원쑤를 찌르고 치며 족쳐나갔다. 그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고 손과 발은 적의 숨통을 사정없이 들이쳤다. 그의 번쩍이는 칼밑에 련속 원쑤의 비명소리가 터지고 적의 목이 험상궂게 딩굴었다. 치고 또 쳐도 진할줄 모르는 힘이 솟구쳐올랐다.

하지만 적들은 검질기게 달려들었다.

적진을 살피던 설죽화는 순간 정신이 피뜩 들었다. 날랜 적기병 한무리가 강감찬의 진막으로 기여들고있는것이다. 지휘자를 노리는것이 틀림없었다.

《어림도 없다, 이놈들아.》

설죽화는 장검을 비껴들고 적들이 기여드는 골짜기로 비호처럼 말을 몰았다.

고려군사들도 그뒤를 따랐다.

《이놈들, 이 검을 받아라!》

설죽화는 앞선 놈부터 후려갈겼다.

《으악.》

비명과 함께 그놈의 목이 날아났다. 설죽화는 가로세로 싸움판을 가르며 적들을 족쳐댔다.

번개같이 휘두르는 칼날에 창대들이 부러지고 적의 군사들이 말에서 떨어져 피를 토했다.

바빠맞은 적들은 이 용감한 무사부터 없애야겠다고 작정하고 일시에 여덟놈이나 달려들었다. 장창과 여러개의 칼이 동시에 날아들었다.

순간 설죽화는 눈앞에 번쩍 불꽃이 튀였다.

추켜들었던 장검이 툴렁 떨어졌다. 동시에 그 역시 말에서 미끄러져내렸다.

처절한 싸움은 서쪽하늘에 황혼이 깃들무렵에야 끝났다.

《둥, 둥, 둥…》

승전의 북소리가 전장을 울리였다.

하지만 설죽화는 일어설줄을 몰랐다. 그의 애마만이 곁을 뜨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애처롭게 땅을 허비였다. 고려군사들이 설죽화를 안아 일으켰을 때는 이미 숨이 진 뒤였다.

군사들은 《소년장수》를 둘러싸고 추연히 서있었다.

강감찬이 무거운 걸음을 옮겨 다가왔다. 슬픔에 잠긴 그는 설죽화의 시체를 조심히 안아올렸다.

이때 군사들을 가르고 홍씨부인이 나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붉은 댕기를 꺼내 《소년》의 머리에 정히 달아주는것이였다.

사람들은 눈이 둥그래졌다.

강감찬이 부인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소년을 아는고?》

《대감님, 저는 지난 전쟁때 전장에서 전사한 리관의 처올시다.》

《아니, 정녕 리관의 처란 말인가?!》

《그렇소이다. 이 〈소년〉은 저의 외딸 설죽화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 지키는 싸움에 목숨을 바치였으니 장하게 생각하옵니다.》

홍씨는 설죽화를 품에 꼭 껴안았다. 백년을 이대로 안고있고싶은 딸이였다.

《아, 어쩐지 했더니 꽃같은 처녀였구나. 설죽화, 처녀장수야, 싸움은 이기고 승전고 울리는데 너는 진정 간단 말이냐. 내 너를 위해 무엇인가 할수만 있다면… 이 늙은 목숨도 아깝지 않으련만…》

강감찬은 비통한 안색으로 허연 수염을 천천히 쓸어내리였다. 그리고는 먼 하늘을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이렇게 꽃같은 처녀 설죽화는 장검을 비껴들고 나라위한 싸움터에 나섰다가 승전의 노을과 함께 이 땅에 고이 안기였다. 영원히 전장의 꽃으로 피려는듯…

열정의 애국시인 리규보

12세기말～13세기초 고려의 이름난 시인인 리규보를 불러 사람들은 열정의 시인, 애국의 시인이라고 하였다.

그는 1168년 1월 경기도 황려현(려주)에서 리윤수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여러곳으로 다니다가 7살에 개경으로 와 거기서 청소년시기를 거의 보내였다.

리규보는 벌써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를 하였는데 9살에 글을 지어 기동이라 불리웠고 11살에는 널리 알려진 다음의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래웠다.

꽃은 웃어도 소리가 안들리고
새는 울어도 눈물을 볼수 없네

이 시는 어린시절 그의 관찰력에 대하여 짐작하게 한다.

리규보의 세계관형성과 문학수업에 큰 영향을 미친것은 1170년 무신정변직후 집권자들의 포악무도한 전횡을 피하여 정계를 떠나 방랑의 길에 올랐던 《해좌7현》문인들과의 접촉이였다.

무신정변으로 하루아침에 벼슬과 처자를 몰살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이른 리인로, 림춘, 오세재, 황보항, 조통, 리담지, 함순 등 《해좌7현》의 문인들은 자기들의 처지로 하여 당대의 현실을 강한 비판으로 대하였으며 이것은 하나의 문학사조를 이루게까지 되였다.

리규보는 이들과 사귀면서 현실을 다시 보게 되였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구에 동감해나섰다.

《해좌7현》성원들도 리규보의 시적재능에 감탄했으며 그를 매우 사랑하였다.

《해좌7현》중의 한사람인 오세재는 그보다 나이가 30년이나 우였으나 동년배처럼 대해주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비난까지 하였다.

《오선생은 규보를 왜 그렇게 존대합니까? 그러다가는 젊은이가 교만하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오세재는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자네들이 알바가 아니네. 규보는 비범한 사람일세. 앞으로 반드시 높은 경지를 개척할것이네.》

리규보는 오세재가 이처럼 자기를 대하여주는데 대하여 《오동각세문의 조수론문에 대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제가 완미하고 어리석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관쓰기 전부터 벌써 동무들을 떠나서 선생같으신 어른을 모시기 좋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문이 넓으시고 깊으신 참다운 선비로서는 선생님과 같으신 어른이 없으시여 제가 모시게 되여 날마다 듣지 못한것들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저보다 무려 30년이나 년장하시여 자식이나 아우벌밖에 되지 않는 저를 벗으로 허락하시니 제 어찌 이를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리규보는 《해좌7현》의 작가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간것이 아니였다.

그는 그들의 제한성을 깊이 포착했으며 때문에 이를 극복해나가면서 독창적인 자기의 시가창작에 온갖 정열을 바쳐나갔다.

그는 당시 집권계급이 숭상하던 과거시문체를 멸시하였기에 그렇게도 재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과거시험에 여러차례 락제하였고 아버지의 강요로 다시 칠 때에는 진사시험에 하등으로 급제하였다.

그는 과거시험장에서 이런 시를 지었다.

태고엔 벼슬이 높고낮음이 없더니

그 누가 인간을 귀천으로 나누었노
이 제도 생긴 후에 더욱 심하게
아름다운이들 구해본적이 없네

당대 현실에 대한 이러한 불만으로 하여 그는 과거에 급제한 후에도 벼슬살이를 원치 않았으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어 천마산(개성)속에 들어가 세상과 등지고 자신을 백운거사라고 하면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백운이란 흰 구름이란 뜻인데 리규보는 자기의 호를 그렇게 한데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대저 구름이라는것은 뭉게뭉게 솟고 훨훨 피여서 산에 걸리거나 하늘에 매이지 않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마음대로 오고가는데 꺼리낌이 없다. 또 잠간동안에 변화하여 앞뒤를 짐작할수 없으며 활활 퍼질 때에는 군자가 세상에 나타난것과 같고 슬며시 뭉칠 때에는 고인 벼슬을 탐내지 않고 고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종적을 감춤과 같으며 비가 되여서는 가물에 마르던것을 살리니 어질다 할것이요, 와도 반갑지 않고 가도 그립지 않으니 탁 트였다 할것이요, 빛은 푸른것, 누른것, 붉은것, 검은것이 다 구름의 본빛이 아니요, 오직 희고 문채없음이 본빛인것이다.

덕이 벌써 그러하니 빛도 그러한것이다.

만일 이것을 모범하여 배우면 세상에 나가서 사물에 리익을 주고 들어오면 허심하여 그 흰빛을 지키고 문채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귀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신선의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구름이 나인지 내가 구름인지 모르게끔 되면 옛사람이 공부에서 얻은 결과에 가까울것이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구름처럼 자유롭게, 비처럼 훌륭하게 살려는 그의 소박한 념원을 반영하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한갖 념원에 지나지 않았다. 왕권에 장악된 착취사회에서 그의 생각은 어디에도 통할수가 없었다.

리규보는 울분과 불만의 가슴을 부여안고 천마산에서 오직 창작

에 전력했다.
그는 자기의 대표작이라고 볼수 있는 서사시 《동명왕편》은 26살에, 《천보영사시》는 27살에,《3백2운시》는 28살에 내놓았다. 이것은 모두 천마산에서 썼다.
이와 같이 리규보는 매우 일찍부터 즉흥시와 장시들을 썼는데 이것들이 모두가 새롭고 창발적이고 언어가 다양하고 기운이 장대하였으며 섬세하고 호방하였다.
그는 어렵고 힘든 운에 대해서도 한번 붓을 들기만 하면 단번에 백장이라도 써내려갔다.
그러나 그의 글들은 옛사람들은 본따려 하지 않았고 자기의 뚜렷한 얼굴이 있었다.
천마산에서의 그의 생활은 근 10년이나 계속되였다. 당시 그는 어찌나 가난하였던지 자기가 입고있던 옷을 저당잡히기까지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리규보는 1199년 31살에 전주의 사록겸 장서기로 벼슬길에 나섰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벼슬살이가 시작되였다.
리규보는 벼슬을 할 때에는 매우 겸손하였으며 친구들이나 아래사람들이 장한 일을 하였을 때면 언제나 내세워주고 받들어주었다.
그가 한림학사로 있을 때 그아래에 있던 손득지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이에 대하여 리규보는 《지금껏 손군이 이런 훌륭한 재주가 있는줄은 알지 못하였다.》고 칭찬하면서 그가 그후에도 많은 글을 쓰도록 도와주었다.
때문에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를 정직한 인물로 평가했다.
아첨을 모르다나니 리규보는 여러차례 벼슬이 오르내렸으며 하급관리로 지방생활도 하였다. 그리고 1230년 겨울에는 위도에 정배를 가 고초를 겪게 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농민들과 많이 접촉하였고 그들의 고달픈 생활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집권자들에 대한 증오와 불만의 감정을 품

게 되였다.

이런 곡절많은 길이 바로 그로 하여금 농민적인 시가작가로 되게 하였다.

그는 1232년 원침략자들이 쳐들어오자 늙은 몸으로 싸움의 길에 나섰고 이 과정에 시대를 노래하는 좋은 글들을 남기였다. 그는 병석에 누워서도 시를 썼고 70이 넘어서도 시를 썼다.

그는 자기를 시짓는것과 떼여놓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로 하여 그는 생존기간 실로 수많은 시들을 지었다.

리규보는 산문도 썼다. 그는 문예평론, 설화형식의 패설, 의인전기체작품들, 려행기, 풍자산문 등을 썼다.

그러나 시인자신이 말년에 그 대부분을 불살라버리였고 더러는 분실되였다. 그후 남은것들을 정리하여 《동국리상국집》(53권)을 묶었는데 여기에는 2천여수의 시와 7백여편의 산문이 담겨져있다.

리규보는 자기의 창작에서 일련의 문제들을 제기하였는데 중요하게는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데 대한 문제, 형식만을 위주로 하는 모방주의, 도식주의를 반대할데 대한 문제 등을 들수 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쓰고있다.

《마음에서 새여나온바는 반드시 글에 나타나는것이기때문에 그 글로써 족히 그 사람을 알수 있다. …

구름과 노을의 고음과 달라 이슬의 정기와 벌레와 물고기의 기이함과 새와 짐승의 기괴함과 움돋고 꽃피는 초목의 천만가지 현상이 온 천지를 장식하는것을 너는 서슴지 않고 닥치는대로 취하여 열에 하나도 남기지 않으며 보는대로 읊어 옹긋종긋한 삼라만상을 붓끝으로 옮기지 않는것이 없다.》

그는 시를 곱게만 꾸미려고 할것이 아니라 형식보다도 내용을 위주로 보아야 하며 철저히 새것을 창조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리규보는 젊었을 때부터 즉흥시를 많이 썼는데 모두가 자기 모습이 비꼈다. 그는 한번 붓을 들어 써내려가면 자기의 생각을 잠간사이에 옮겨놓군 하였다.

리규보의 창작에서 주되는 주제는 농민들을 동정한것이다.

중세기시인들은 대체로 산수를 노래하거나 인정세태에 머무를뿐 근로농민들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창작에서 누구보다도 근로하는 농민을 먼저 들고나왔으며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끝없이 동정하고 이들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봉건관료배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강하게 토로하였다.

이 분야에서의 대표작으로는 《농부를 대신하여》, 《농사군이 맑은 술과 흰쌀밥먹기를 금지하는 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햇곡식의 노래》, 《동문밖에서 모내기를 보면서》, 《비내리는데 밭갈이하는것을 보고 서기에게 주노라》등 많은 작품들을 들수 있다.

《농사군이 맑은 술과 흰쌀밥먹기를 금지하는 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에서는 이렇게 썼다.

장안에 호사스레 잘사는 집엔
보배가 산더미로 쌓여있도다
구슬같이 흰쌀밥을
개나 돼지가 먹기도 하고
기름같이 맛있는 맑은 술을
심부름군아이들도 마음대로 마시누나

이것은 모두가 농사군이 이룩한것
그들에게 본래 무엇이 있었으랴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모아선
제 팔자 좋아서 부자가 되였다네

한평생 일해서 벼슬아치 섬기는
이들이 바로 농사군이라
누더기로 겨우 살을 가리고
온 하루 쉬지 않고 밭을 갈지

벼모가 파릇파릇 자랄 때부터
몇번을 매 가꾸어 이삭이 맺었건만
아무리 말아야 헛배만 불렀지
가을이면 관청에서 앗아가는것

남김없이 몽땅 빼앗기고나니
내것이라곤 한알도 없어
풀뿌리를 캐여 연명을 하다가
굶주려 마침내 쓰러지고마누나

시에서는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그대로 노래하면서 이들과 착취자들을 대조시켜 놈들이 모은 재산과 부귀영화는 농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리규보는 농민들의 처지에 대하여 심심한 동정을 보내면서 봉건정부가 부당하게도 이들이 흰쌀밥과 맑은 술을 먹을수 없다는 법령을 낸것이 잘못되였다는데 대하여 이렇게 쓰고있다.

구슬같이 희디흰 흰쌀밥과
고인 물같이 맑은 술은
바로 농사군이 만든것이라
그들이 먹는것을 하늘인들 허물하랴

여보게 내 말 듣게
나라의 명령이 잘못되였네
높은 벼슬아치들은
술과 밥도 먹기 싫어 썩이고있고

시골선비도
언제나 술쯤은 마시고 사네
놀고먹는자들도 이러하거니

농사군을 왜 이리 천대하는가

이와 같이 시에서는 농민들에게 동정을 보내면서 봉건정부에 대하여 분노와 저주를 금치 못하고있다.

또 다른 실례로 백성들의 생활처지에 대하여 심심한 련민의 정을 표시한 시 《천보영사시》에서는 이렇게 읊고있다.

추위 막는 목석화
명주비단 훈훈한 향기에
방은 따스하기 봄철 같은데
임금은 오히려 서늘하다고
추위 막는 목석화를 사랑하느니
하건만 동지섣달
눈은 쌓여 석자나 깊었으니
가난한 오막살이에는
얼어죽은 사람이 어이 없으랴

시는 당나라 현종이 따스한 기운을 내뿜는 목석화란 꽃을 귀히 여겼다는 옛전설을 가지고 부화방탕하고 자기들의 리속밖에 모르는 집권층의 생활태도를 풍자하였다.

또한 시 《군수 몇이 뢰물을 받다가 죄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에서는 흉년에 더욱 악착하게 걷어들이는 봉건관료배들을 검은 쥐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대체 네놈들은 몇개나 입을 가져
만백성의 살을 모조리 다 먹느냐

이런 실례를 보아 농민들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동정과 통치배들에 대한 저주와 울분의 감정을 알수 있다.

그는 수많은 시들에서 농민들의 생활을 취급하였으며 심심한 동정을 보내였다.

그러나 그는 량반이였기에 동정에만 그쳤지 억눌리고 짓밟힌 백성들을 일으켜세워 싸움에 나서도록 부르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통치배들에 대한 비판에서도 왕을 비롯한 대신들을 다치지 못하고 주로 하급관리들에게 주목을 돌리였다는데 심중한 약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체의 계급적, 시대적제한성에 기인되는것이다.

리규보의 글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1216년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던 거란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항전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많은 시들을 창작한것이다.

그는 자신이 반거란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문필활동으로써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

이 시기 대표작들을 보면 《보정문을 지키며》, 《나의 시름》, 《원쑤들이 강건너에 왔단 말을 듣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고하노라》, 《다시 쓰노라》, 《10월의 번개》 등 작품들을 들수 있다.

리규보는 시 《10월의 번개》에서 이렇게 썼다.

번개야 너
원쑤의 머리를 내리치려마
그러면 제 철은 아니로되
때를 맞추었다 하리로다

그리고 《다시 쓰노라》에서는 우리 인민의 최후승리에 대하여 쓰고있다.

오랑캐무리 모질다 하나
악을 써 짖어대는 개나 갈나니
사람에게 덤비며 짖는 개신세
제 명에 죽기 어려우리라

또한 《원쑤들이 강건너에 왔단 말을 듣고 온 나라 사람들에

게 고하노라》에서는 침략자들을 이렇게 단죄하였다.

오랑캐무리 비록 사나우나
강을 건너오진 못하리라
놈들도 그것을 아는 까닭에
저렇게 칼날만 번뜩임이라
그 누가 강가에 원쑤를 끌어오라
물에만 이르면 무리죽음을 주리라
만백성 모두 놀라지 말고
베개를 높여 편히 잠들라
원쑤는 고대 물러가고
나라는 다시 편안해지리라

또한 리규보의 창작활동은 서사시를 쓴것으로 하여 문학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서사시 《동명왕편》은 우리 나라 건국설화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이것을 이제 서술하여주지 않으면 뒤세상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으랴. 그러므로 내 노래로써 이 사적을 기록하노니 우리 나라가 본래 성인이 이룩한 나라임을 온 세상에 알리고저 함이라.》

이와 같이 리규보는 이것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하면서 동명왕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황당하고 괴이한것 같지만 여기에는 신성한 자취가 깃들어있다고 쓰고있다. 나라의 력사를 귀히 여기고 길이 남기려는 그의 애국적지향의 표시로 보아야 할것이다.

해모수이야기로 시작된 서사시는 해모수와 류화의 이야기, 주몽의 성장과정, 고구려건국과 류리의 남다른 재능에 대하여 썼으며 후세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야박해지고 풍속이 어지러워졌다고 현실을 비판하였다.

예로부터 제왕이 일어날 때는
성스러운 징조 이렇게 많았지만
그다음 자손들이 게으르고 거칠어
조상의 업적을 잇지 못하나니
옛법을 잘 지키는 임금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스스로 경계하도다

임금은 언제나 너그럽고 어질어
례와 의로 백성을 다스리며
이 법 자자손손 전하여
천만년 지내도록 나라를 편히 하리

서사시는 12세기 후반기 고려의 현실태를 드러내면서 동명왕과 같은 《어진 왕》이 나타나 정사를 할것을 바라는 소박한 념원을 표현하였지만 중요하게는 중세기문학에서 처음으로 창작된 서사시라는데 의의가 있다.

리규보는 이밖에도 패설과 의인전기체소설 등 많은 문학유산을 남기였다. 물론 자신과 시대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약점들을 가지고있지만 리규보의 작품들은 우리 나라의 문학사를 장식하고있는것이다.

삼별초군과 배중손

배중손은 1270~1273년 원침략군과 사대망국사상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용감성을 발휘한 고려의 군사지휘관이며 애국자이다.

배중손의 가문과 출생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있으나 《고려사》에는 부당하게도 역적으로 찍혀있다.

하지만 그는 역적이 아니라 원침략군을 반대하는 의로운 싸움에 목숨걸고 나선 삼별초군의 유능한 지휘자였다.

당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북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장성했던 원침략자들은 어리석게도 고려를 먹어보려고 여섯차례나 대군으로 쳐들어왔다.

그러나 용감한 고려군민의 단합된 힘은 그때마다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굳건히 지켜냈다.

하지만 그때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1260년 봉건몽골의 지지밑에 고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원종은 1269년말 몽골을 방문하여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려는 목적밑에 무신집권자들의 제거를 지원하는 군대를 파견해줄것을 요청하는 매국배족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1270년 5월 원종은 원나라군대의 호위밑에 귀국하면서 먼저 관리들을 보내여 일시 강화도로 옮기였던 수도를 개경으로 옮길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삼별초를 중심으로 한 애국적군민들은 그들과는 한길을 갈수가 없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우리는 목이 달아날지언정 독립고려국으로서 원에 피로써 항쟁해나설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결심이고 선언이였다.

수도(강도)를 지키는 기본무력이였던 삼별초군은 이렇게 매국적인 통치배들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결연히 일떠섰다.

삼별초는 3개의 별초부대인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가리킨것으로서 별초란 특별히 선발된 군대라는 뜻이다.

별초군의 출현은 고려병제상에서의 하나의 큰 변화였다. 12～13세기에 걸쳐 토지와 인민에 대한 봉건국가의 지배가 약화되고 부병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그 징모와 체계적인 지방군의 보충이 어렵게 되였다. 때문에 부병제도는 기본틀거리만 남게 되고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는 그때그때 징발되는 초모병으로 해결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유사시에 싸움을 보장하기 위해 날랜 군인들을 따로 뽑아 선봉부대를 꾸리였는데 이 부대가 바로 별초군인것이다.

삼별초군이 꾸려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고려사》 병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여있다.

《처음에 최우는 국내에 도적이 많음을 근심하여 용사들을 모아서 밤마다 순찰시켜 폭행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을 〈야별초〉라고 불렀다. 그후에 도적이 각 도에서 일어나자 별초군을 나누어 파견하여 이를 잡게 하였는데 이 별초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드디여 좌, 우별초로 나누게 되였다. 또 고려사람으로서 원에서 도망해 돌아온 사람들을 모아 한개 부대를 조직하여 〈신의군〉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삼별초라고 하였다.》

지방군과는 달리 삼별초는 중앙상비군의 주력이였다. 《고려사》에도 있는바와 같이 이 시기 농민전쟁이 벌어지는데 당황한 집권자들은 힘이 세고 날랜자들을 뽑아 야별초를 조직하여 야간순찰을 시키군 하였다. 그후 이것이 점차로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여졌고 신의군까지 생기면서 삼별초로 된것이다.

삼별초는 어디까지나 나라의 상비무력이기는 하지만 주로 피압박인민들의 출신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원나라침략군을 반대하는 무신들의 세력이 강하게 침투되였기때문에 백성들의 편에 서서 원쑤놈들을 반대하여 싸울수 있었다.

국왕 원종은 항전을 계획한 삼별초의 굳은 결심을 움직일수 없

게 되자 장군 김지저를 강화도에 보내여 삼별초의 해산을 선포하고 그 명단까지 빼앗아갔다.

《아니, 우리 삼별초명부는 왜 뺏어가는것일가?》

《아마 우리 명부를 저 원침략자들에게 넘겨주어 장차 우리를 도륙할 작정인가부네.》

《이제는 이래도 죽는 목숨이요, 저래도 죽는 목숨이다. 그렇다, 싸우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이러한 때 그 앞장에 선 사람이 바로 배중손이였다.

저 멀리 파도는 거세차게 밀려오는데 군사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는 금시 불꽃이 튀여나올듯싶었다.

《장차 원침략군이 쳐들어와 백성들을 모조리 살해하려고 하니 나라를 도우려는 사람들은 모두 저 격구장(무예를 련습하는 장소)으로 모이라!》

그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군사들과 백성들을 싸움에로 일으켜세웠다.

배중손은 수도의 무기고를 열어 사람들을 무장시켰으며 무서워서 배를 타고 도망치는 관리들과 비겁한자들을 단호히 그자리에서 징벌해버렸다.

배중손은 순식간에 강화도전역을 차지했으며 인민들을 묶어세우고 군사들은 필요한 부문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왕족인 승화후온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꾸렸으며 줄기찬 항전을 벌려나갔다.

삼별초와 함께 궐기한 백성들은 배중손의 지휘밑에 항전개시 3일만인 6월 3일 강화도를 떠나 조건이 유리한 진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배중손은 삼별초군인들과 백성들앞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여러분, 우리앞에는 두갈래 길이 놓여있다. 저 썩어빠진 조정을 따라 륙지로 나가서 침략자들의 노예로 되는 길이 있고 또 한길은 멀리 섬속으로 들어가 비록 일생을 고생으로 넘길망정 독립고려국을 지켜 적들과 맞서 항쟁하는 길이다. 그러니 우리와 뜻

을 같이하려는 사람들은 이리로 와서 저 배를 타라!
강화도를 떠나는것은 물론 가슴아픈 일이다.
하지만 원종을 비롯한 개경정부가 원침략자들과 결탁해나선 조건에서 이 섬에 그냥 눌러있기는 힘들게 되였다. 그것은 원침략자들의 손에 이미 우리의 비밀이 넘어갔기때문이다. 그리고 개경정부를 40리밖에 두고서는 우리 내부에 어떤 동요와 불안이 생길지 누가 알겠는가. 그대신 진도로 말하면 개경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고 거기는 물살이 급한 울돌목(명량해협)을 사이에 두고있어 원침략자들과 관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매우 유리한 곳이다. 또한 진도를 거점으로 서남해의 여러 섬들을 장악하고 륙지인민들을 싸움에 불러일으키면서 땅과 바다를 활무대로 하여 싸운다면 그 어떤 원쑤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것이다. 가슴에 피가 끓고 의기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배에 오르라!》

그의 피끓는 웨침은 군중의 심장을 높뛰게 하였고 바다를 끓게 하였다.

군사들은 앞을 다투어 배에 올랐고 섬에 살던 의로운 사람들은 가족들과 재물을 걷어싣고 주저없이 따라나섰다.

《배장군을 따라가자!》

《거기에 우리의 살길이 있다!》

군사들과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치며 배에 올랐다. 그리하여 천여척의 배에 갈라탄 항전군은 조선서해의 거세찬 물결을 헤가르며 남으로, 남으로 향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공포와 불안에 싸여 황급히 추격부대를 편성하여 파견하였으나 그 위세에 눌리워 감히 범접도 못한채 도망가고말았다.

배중손은 항전군을 능숙하게 지휘하여 8월 19일 70여일만에 드디여 진도까지 전군이 무사히 도착케 하였다.

근거지를 옮긴 배중손은 룡장성을 새로 쌓아 항전기지를 튼튼히 하는 한편 줄기찬 활동을 벌려나갔다.

그는 이 땅을 더욱 굳건히 지킬 결심으로 주변의 크고작은 여러

섬들을 일거에 틀어쥐였으며 자기들의 대오에 호응하는 륙지인민들로써 그 대렬을 계속 늘여나갔다. 한편 전라도일대를 제압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서 장흥부로 쳐들어가 개경의 관군을 격파하고 그 지휘관을 포로한 후 많은 기재와 식량을 로획하여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11월초에는 남해상의 중요한 군사기지인 제주도를 공격하여 그곳을 지키던 개경정부군을 전멸시키고 섬을 완전히 차지함으로써 제2의 투쟁기지를 확보하였다.

배중손은 삼별초군의 기세를 돋구기 위해 오색기발을 만들어 여기저기에 날렸고 전함에는 사나운 짐승을 크게 그려붙이도록 하였다. 하기에 진도의 군민들은 너나없이 그를 존경하였다.

《우리 배장군은 정말 생각이 트인분이야. 이런 묘한 생각까지 해내는걸 보면 하늘이 낸 사람이 분명해.》

《암, 그렇구말구.》

군민들은 원침략자들이 그 룡대가리만 봐도 기절초풍할것이라고 자기들의 지휘관을 자랑했다.

배중손은 수십회의 전투마다에서 언제나 군사들의 앞장에 섰다. 그는 적함선들을 포위속에 몰아넣고 활과 포석으로 맹사격을 퍼부었으며 불살을 쏘아 적함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적의 갑판우에 선참으로 뛰여올라 창과 칼을 휘둘러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그리하여 그가 싸움마당에 나타나면 바다우에는 적의 시체와 깨여진 함선쪼각들이 한벌 쭉 덮이군 하였다.

배중손은 함선을 잘 위장하고 자연지리적조건을 옳게 리용할뿐아니라 수군과 륙군의 배합작전을 잘 짜고들었으며 특히는 싸움군들의 사기를 돋구어주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그러기에 싸움이 붙으면 영낙없이 전과를 올릴수 있었던것이다.

진도에서의 삼별초군의 항전이 날로 더 크게 벌어지는데 당황한 원침략자들은 1271년 3월 흔도를 시켜 6 000여명의 군대를 끌고들어가 황주, 봉주, 김주 등에 주둔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둔전군을 설치하게 하였다. 적들이 둔전군을 설치한것은 일본에 대한 침

략준비를 다그치며 당면하게는 항전군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놈들은 한편 회유를 목적으로 배중손에게 사람들을 파견하였다.
《대장님, 이놈이 편지를 가지고왔소이다.》
《어디 보자, 무슨 수작을 했는지.》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배중손은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라도 항복하면 죄과를 묻지 않겠다구. 높은 벼슬자리도 주겠다, 하하하, 이놈의 목을 쳐라!》
배중손의 기상은 금시 노한 바다와 같아졌다.
《삼촌! 저는 심부름을 왔을뿐인데 목숨만은…》
편지를 들고오는자들은 대체로 배중손의 친척들이였다.
하건만 그는 사정을 몰랐다.
《누가 너더러 그런 심부름을 하라고 하더냐, 주대없는 놈. 당장 목을 쳐라!》
몇번이나 《사신》을 들여보냈지만 한놈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였다.
하건만 싸움이 어려워지면 변절자들이 생기는 법이라 그렇게도 드세찬 활동으로 나라를 지켜싸우던 삼별초는 아쉽게도 변절자의 밀고로 실패라는 쓰라린 참화를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항전군내부에 기여들었던 김지숙이란 놈이 항전군의 기본력량이 남해연안 여러곳에 진출한 틈을 타서 진도가 비여있다는 비밀을 적들에게 알려주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적들은 1271년 5월 100여척의 함선에 수천의 군사를 태우고 세개 방면으로 불의에 공격해들어왔다. 배중손은 이에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섬에 남은 군사들을 재빨리 기동시켜 최후의 혈전을 벌리여나갔다.
그는 지휘관들인 로영희, 김통정에게 많은 인원과 무기들을 주어 섬의 좌우를 막도록 하고 자신은 적은 군사들을 데리고 여울목을 지켜나섰다. 싸움은 그야말로 결사전이였다.
바다에는 적의 배가 까맣게 덮였는데 이들은 그 복판을 가로질러나갔다. 한쪽에서는 화포와 불화살을 날리고 또 한쪽에서는 적의 배에 뛰여올라 결전을 벌리였다. 칼과 칼이 부딪치고 배들이

깨여지고 바다는 온통 불길속에 휩싸였다.

하건만 우세한 적을 막아내기가 힘겨웠다.

력량상으로 대비가 되지 않는것이였다.

이 싸움에서 배중손은 온몸에 화살을 맞고 그만 쓰러지고말았다. 그는 마지막순간 군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도를 지켜내야 한다.

나는 그대들을 믿는다. 사나이로 태여나 제 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조상들앞에 무슨 체면이 있겠는가.》

그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전을 벌리였으며 김통정의 지휘밑에 대오를 수습하여 제주도로 항전기지를 옮기였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2～3중의 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는 한편 섬인민들을 적극 인입하여 만 1년간이나 제해권을 장악하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들을 통쾌하게 부셔댔다.

그러나 침략자들과 손을 잡은 통치배들은 오랜 준비끝에 1273년 4월 드디여 160여척의 전함과 1만명의 《토벌군》을 파견하여 제주도를 공격해들어왔다.

이 싸움에서 삼별초는 끝까지 싸웠으나 우세한 적의 무력을 당해낼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김통정을 비롯한 70여명은 산속으로 들어가 끝까지 항전을 계속하다가 모두 최후를 마치였다고 한다.

3년간에 걸쳐 서남해와 그 연안을 뒤흔들며 침략자와 용감히 맞서 싸우던 삼별초의 의로운 활동은 이렇게 끝났다.

삼별초군이 그처럼 대담무쌍하게 싸움에 나설수 있었던것은 봉건통치배들과 침략자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속에서 나온 군대라는것과 함께 중요하게는 그 지휘관이였던 배중손의 애국심의 발현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삼별초군의 불굴의 항쟁은 고려인민들을 원쑤격멸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켰으며 통치배들과 침략자들에게는 커다란 공포와 타격을 주었다.

하기에 외국의 이름난 한 력사학자도 원의 침략이 있는 곳에서 나라를 고스란히 지켜낸것은 오직 고려뿐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완강한 항거의식과 민족성을 찬양하였다 한다.

명학소의 폭동군대장 망이

동으로는 매봉산이 솟아있고 남으로는 소백, 로령산줄기들과 봉우리들이 보이며 서쪽으로 련이은 산줄기들이 병풍을 친듯 할뿐아니라 넓은 벌과 갑천이 흘러들어 아름답기 그지없는 명학소이다. 하기에 봄이면 백학이 쌍을 지어 날아들고 구슬같은 물소리, 새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한결 포근하게 해주었다.

하건만 사람들은 날마다 뼈를 에이는 눈물과 한숨으로 가슴을 적셔야 하였으니 그렇듯 이를데 없는 경치도 그들의 깊은 시름을 가셔주지는 못하였다.

그 좋은 경치에서 마음편히 농사짓고 아들딸 키웠으면 얼마나 좋으랴만 명학소는 당시 가장 천대받던 천민들의 마을이였다.

소란향, 부곡과 함께 봉건사회에서 가장 멸시를 당하는 부락이였던 이곳은 성도 가지지 못하는 특수행정단위로서 공주에 예속되여있었다.

《망소이,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죽는것만 못하지 않은가!》

《글쎄 형님의 생각까지 그러할진대…》

망이와 망소이는 해저무는 내천에 발을 잠그고앉아 소연한 물소리처럼 잠재울길 없는 가슴속울분을 한껏 터놓았다.

오늘낮에도 공주에서 내려왔다는 관리놈은 마을사람들을 개처럼 다루면서 있는것, 없는것 깡그리 긁어내여 싣고 가버리지 않았는가.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던데 어떻게 내처 참기만 하겠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형님?》

이들 둘은 선뜻 궁리가 나지 않아 멀어져가는 구름만 쳐다

보며 가슴을 쥐여뜯었다. 아무튼 무슨 일이 터져야만 시원할 것 같았다.

망이는 공주 명학소라는 이곳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여나 성도 못가진채 그저 망이로만 불리웠다.

기운이 장사이고 체격도 좋은 망이여서 동네의 어려운 일은 도맡아 해제끼고 거기에 의리가 깊어 남이 안타까와 하는 일은 따라가서 도와주고야 물러서는 성미라 무릇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존경하였다.

하건만 그들은 학대와 멸시의 대명사인 명학소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말도 못하고 살아야 했고 슬퍼도 울지 못하고 기뻐도 웃지를 못하는 처지였다.

더우기 망이가 살았던 12세기 후반기는 나라의 봉건적체제가 심히 약화되고 그 모순이 가장 첨예화되던 시기였다. 권세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량반토호들은 백성들을 제멋대로 다루었고 토지, 노비, 권력 등을 둘러싼 쟁탈음모가 더욱 성행하였다. 거기에다 인종의 뒤를 이어 왕좌에 앉은 의종왕은 방탕한 생활로 궁녀들을 끼고들어 해가 뜨는지, 해가 저무는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무슨 궁궐을 세우느라 농번기에도 백성들을 끌어냈다.

1157년에만 해도 왕은 수많은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수덕궁이란 궁궐을 세우고 4개의 커다란 별궁을 지었으며 또한 왕궁근처 50호의 민가를 헐어서 《태평정》을 세워 《태평성세》를 노래하였다.

이에 문신들의 차별대우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올라 정중부, 리고를 비롯한 무신들이 1170년 정변을 일으켜 마침내 의종을 거제도로 추방하고 명종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놈이 그놈이였고 세월은 매한가지였다. 다만 명색이 달라진것밖에 없었다.

망이는 이런 때에 태여나 자라났다.

글 한자 배운것 없었으나 그는 천성이 남달랐고 세상움직임에 류달리 민감하였다.

이날 강변에서 발을 씻으며 망이와 망소이는 드디여 자기들의 곤욕을 씻기 위해서는 쟁기를 들고일어나 싸우는 길밖에 없다는데 대하여 합의했으며 하루빨리 이것을 실천할것을 굳게 약속하였다.

망이와 망소이는 한동네에서 아이적부터 자라났기에 형제와도 같았다. 그들에게는 네것내것이 따로 없었다. 서로 도와주는것이 그들의 뜻이였다.

그들은 이날부터 폭동준비를 다그쳐나갔다.

비밀리에 자기들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모았으며 창, 칼 등 무기들을 벼리였다. 한편으로는 근거지를 정하고 여기에 모든것을 저축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통에 무엇이든 뿌리를 뽑아놓으리라 다짐하였다.

1176년 1월 드디여 망이는 명학소, 촌개소, 복수소 등 여러 소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폭동에 들어갔다. 폭동군은 망이를 《산행병마사》로 하여 자기들의 대장으로 삼았다.

망이는 서북지방에서 일어난 농민봉기군진압에 관군의 대부분이 나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출령을 내리였다.

망이폭동의 가장 특징적인것은 이처럼 철저한 천민부락에서 일어났고 그 지휘성원들도 모두 천민출신들이라는것이다.

망이농민군에는 한고장 사람들과 함께 당시 산곡간에서 이들처럼 들고일어났던 사람들이 합세하였다고 한다.

《산행병마사》란 이름자체가 산에서 행동한다는 뜻인것이다.

망이농민군은 처음으로 공주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하였다. 그것은 공주가 명학소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적중심지였다는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더우기는 자기들이 공주에 둥지를 틀고있는 관료배들의 직접적인 착취와 천대를 당해왔기때문이였다.

공주는 4개의 속군, 8개의 속현을 가진 행정중심지의 하나로서 어느 고을보다도 량반, 관료, 승려들이 집중되여있었다.

망이지휘하의 농민군은 60여리를 단숨에 달려가 그날로 공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악질적인 량반관료들과 토호, 승려들을 처단하였다. 그들은 창고를 털어서 곡식을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고

무기고를 열어 자신들을 무장하였다.

이 첫 싸움은 농민군의 전쟁선포로 되였다.

공주함락은 관내의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일으켰고 린접지역 사람들도 가슴을 끓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오는 불어나고 기세는 올라갔다.

이 소식을 들은 국왕과 관료배들은 아연실색하여 군사를 동원하는 한편 농민군을 《타이르며》 회유해보려고 하였으나 망이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당황한 국왕은 3 000명의 《토벌군》을 파하여 진압하게 하였다.

그러나 망이농민폭동군은 이들 거의 모두를 소멸해버리였다. 공주목에서 기다리고있다가 들어오는 족족 쳐갈기였다.

《토벌군》대장인 정황재는 겨우 살아나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두차례에 걸치는 큰 싸움에서 련속 이긴 농민군의 기세는 대단하였다.

그들은 계속 대렬을 늘여나갔으며 무기와 식량을 마련하여 저축하였다.

《글쎄 우리 대장의 칼에 두놈이나 단꺼번에 넘어지는 꼴이 정말 가슴후련하더군.》

《시체만 해도 몇백바리 잘 실어갔으니 임금님도 아마 알도리가 있을거야, 하하하.》

그들은 거듭되는 싸움의 성과에 흡족하여 밤이 깊어도 잠들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임금이 보낸 관리가 그들 진영에 나타났다. 궁지에 빠진 통치배들은 《토벌》만으로는 이들을 당해내지 못할것이라는것을 알아채고 회유기만술책으로 나왔다.

통치배들은 망이의 고향인 명학소를 현으로 급을 올려 《충순현》으로 하고 내원승 량수택을 현령으로, 내시 김윤실을 현위로 임명하여 내려보내겠다는것이다. 어떻게 하든 무마시켜보려고 하였다.

관리의 이 말은 망이와 그 폭동군들을 매혹시켰다. 그들은 왕의

《어진 정치》에 환상을 가졌던것이다.
《이제 우리 마을은 소가 아니라 현이 되였대.》
《그럼 우린 천민이 아니라 량민이란 말이지.》
《조세도 다른데와 꼭같이 받아가게 되겠구만.》
이들은 자기들이 거둔 《성과》에 만족하여 어쩔줄을 몰랐다.
망이와 폭동군은 파견된 현령과 현위를 자기들의 고장에 들어오게 하였고 1177년 1월에는 개경의 통치배들과 《화의》를 맺는 커다란 실책을 범하였다.
그리하여 망이자신은 개경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왕을 만나게 되였다. 왕은 겉으로는 망이를 부드럽게 대해주고 더우기는 후한 대접까지 하면서 폭동군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겠노라고 철석같이 약속하였다. 이것은 망이의 세계관적제한성에서 오는 돌이킬수 없는 실수였다.
그 후과는 곧 나타났다.
망이가 고향으로 돌아온지 얼마 안되여 정부군이 갑자기 달려들더니 그가 없는 사이 늙은 어머니와 처를 붙잡아 청주감옥으로 끌어갔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집은 텅 비여있는 형편이였다.
《아, 내가 속았구나.》
망이는 머리를 쳤다. 그들은 다시금 폭동에 궐기하였다.
1177년 2월 망이폭동군은 충청도 례산의 가야사를 습격하여 악질적인 중들을 처단하였다.
그리고 2월 19일에는 진주를 들이쳤고 이어서 경기도 려주를 공격했다. 려주는 한강중류에 있는 포구로서 조세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곳이였다. 때문에 이를 침으로써 군량을 해결하고 더욱 기세를 올릴수 있었던것이다.
망이농민폭동군은 련속적인 공격으로 청주목에 속하는 55개의 고을들을 모두 손에 넣는 전과를 거두었다.
망이는 홍경원이란 절간을 들이쳐 10여명의 악질중들을 처단한 후 주지를 붙잡아 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주어 개경통치배들에게 보내였다.

《이미 나의 고향을 현으로 올리고 현감을 배치하여 안무하더니 갑자기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을 하면서 나의 어머니와 처까지 붙잡아갔으니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창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포로는 되지 않고 반드시 개경까지 쳐가고야말겠다.》

이것은 배신에 대한 규탄과 악당들을 기어이 쳐없애고야말겠다는 굳은 결의의 표명이였다.

망이폭동군은 1177년 4월에 이르러서는 오늘의 충청북도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충청남북도의 전지역과 경기도의 일부를 포함한 고려의 중부와 서부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였다.

이것은 실로 광활한 지역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은 《화의》와 《양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전면적인 탄압에 달라붙었다.

집권자들은 5월 중순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그 격을 올려놓았던것을 취소해버리였다.

하지만 폭동군은 더 큰 공격으로 넘어가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대신 지난번의 《화의》에서 얻은 심각한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을 보내여 《화의》를 요청하였다. 이것은 당시 그들이 국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있었으며 왕의 《인자한 조치》만 있으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모든것이 저절로 해결되고 어려운 처지 또한 개선될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데서부터 오는 착오였다.

물론 망이의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있는 어머니와 처를 구원하려는 욕망이 컸을것이다.

봉건통치배들은 농민폭동군이 제기한 《화의》를 거절하고 리부, 정세유가 이끄는 관군으로 하여금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하였다.

망이농민폭동군은 점차 싸움에서 패하게 되였고 7월에 이르러서는 망이, 망소이들이 관군에 의하여 체포되였다.

결과 1년 7개월간에 걸쳐 서남지방을 중심으로 순수 천민들로써 일어났던 농민폭동은 실패하고 농민군은 뿔뿔이 흩어져버리

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망이와 망소이를 청주감옥에 넣었다가 잔인하게 학살하고말았다.

망이농민폭동군은 자기들의 계급적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한 제한성과 함께 더우기는 《어진 왕》에 대한 환상으로 하여 《화의》를 한 결과 실패하고말았다.

또한 린접지역에서 일어난 농민군들과의 련계가 없었고 전술적으로도 일련의 결함이 있었던것이다.

더우기 망이를 놓고보면 어머니와 처를 구원하려는 개인적욕망으로부터 통치배들과 더욱 견결히 맞서나서지 못하고 그들의 수에 넘어갔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망이농민폭동은 봉건통치배들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들의 진출로 하여 봉건지배층의 내부모순은 더욱 격화되였고 그들의 통치체계에 혼란이 조성되였던것이다.

뿐만아니라 천대와 멸시속에 신음하던 백성들에게는 보다 높은 계급의식을 심어주었다.

망이, 망소이농민폭동은 12세기 후반기 전국적으로 벌어진 농민전쟁사를 더욱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

문익점은 좌정언의 일을 맡은지 1년도 못되여 리공수의 서장관으로서 원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사신길에 올랐다.

사실 그때로 말하면 원나라가 고려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고려에서 간 사신들을 억류하는 등 비렬한 행위도 서슴지 않던 때로서 관리들은 그 나라에 가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익점은 나라일을 위해 한목숨 내걸고 이길에 나섰던것이다.

떠나기에 앞서 그는 고향인 진주에 다녀왔다.

수수한 초가집 나지막한 추녀끝에 향기로운 모기쑥연기가 피여올라 서려드는 저녁 문익점은 늙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안해 정씨와 중용, 중성 두 아들을 만나보았고 장인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여차하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정회는 더욱 깊었다.

한동안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고가는데 마당의 멍석우에 버들부채를 들고앉았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는것이였다.

그는 가거들랑 원나라문물을 잘 보고 오라면서 어디 가서든지 너는 고려사람임을 잊지 말고 한가지를 보고 백가지를 들어도 다 고려를 위해 보고 듣는다면 모든게 그저 보이지 않을게라는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일전에 원나라에서 온 상인을 만났는데 그의 말이 거기 농사에서 특이한것은 목화라는 풀솜내는 작물을 많이 심어 상하귀천이 따로없이 모두 그것으로 옷을 해입고 산다는것이였다. 그것은 질기고 따뜻하고 또 희기가 우리 명주와 짝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아버지는 거듭 력점을 두어 이야기하였다.

옆에 앉았던 장인 정천익도 사위에게 대견스런 눈길을 보내며 머

리를 끄덕이였다.
그는 어떤 책을 보니 그 목화라는것이 원래부터 중국에서 나는것은 아니고 저 남쪽 법국(인디아)에서 먼 옛날부터 심던것이라고 씌여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던것을 송강부지방에서 들여다 심기 시작한것이 벌써 백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어디서나 심고 있다는것이다.
없던 목화가 생긴것은 그 나라에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인물이 있었던 탓이고 우리 고려에 아직 목화가 없는것은 그런 사람이 나지 않은 탓이라면서 장인은 지금시절의 사람들은 어쩌다 이웃나라에 가게 되면 색다른 문물에 정신이 팔려 제 주머니 채울 생각은 해도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한숨을 쉬였다.
《두분의 말씀을 명심하겠소이다.》
문익점은 《어디 가서나 고려의 아들로서 나라와 백성을 잊지 않으리라.》하고 마음속으로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문익점은 1329년 2월 경상도 진주에서 문여준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때 아버지는 리부상서를 지내였다.
문익점은 8살에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20살때에는 당시 명성이 높았던 학자 리곡에게서 그의 아들 리색과 함께 열심히 배워 그 이름이 났었다.
그리하여 23살 되는 해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이름있는 량반의 후손이 아니므로 높은 관직에 등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학문연구에 정력을 다하였으므로 더욱 명성이 자자하게 되였다.
문익점은 32살에 가서야 별치 않은 벼슬을 받았다. 그는 벼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을 닦아 자기를 완성하기에 힘을 기울인 결과 이듬해부터 성균관 순유박사로 있게 되였으며 벼슬길에 나선지 3년만에는 학문과 재능이 조정에까지 널리 알려져 좌정언(정6품)이라는 벼슬을 받았다.
그는 이때 정력적인 활동으로 당시 국왕이였던 공민왕을 도와 우리 나라를 먹으려고 잔꾀를 부리던 원나라세력을 구축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 힘썼다.

그리하여 원나라 사신으로도 그가 추천되였던것이다.

문익점은 왕으로부터 국서를 받아가지고 일행과 함께 원나라로 갔다. 그런데 교활한 원나라지배층은 사신들을 억류하였고 문익점에게는 례부시랑이라는 관직을 줄터이니 자기들과 손을 잡자고 회유하면서 매수하려 들었다. 그를 고려침략에 리용하려는 수작이였다.

그러나 그 어떤 술책과 협박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수 없었다. 원나라황제는 문익점의 강직한 성품과 도도한 기상에 감히 어쩌지 못하고 기후가 나쁘고 맹수가 욱실거리는 운남지방으로 류배를 보내고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원나라사람들까지도 그를 동정하였고 그의 굳은 절개에 머리를 숙이였다. 원나라의 한 관리는 그의 애국심에 감동되여 이런 글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문선생의 마음은 사람은 몰라도 하늘은 반드시 구원할것이다. 〈종의〉는 옥에서 죽지 않고 〈소무〉는 북해에서 돌아왔다. 그곳에도 하늘이 어찌 없겠는가.》

(종의—중국 초나라사람으로서 전쟁포로가 되여 남관에 있다가 그의 강직한 성품과 재능으로 하여 돌아오게 되였다.

소무—중국 한나라사람으로 몽골지역의 흉노족에 포로되였으나 그 역시 강직한 성품으로 하여 돌아왔다.)

문익점은 산설고 물설은 이역땅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류배살이를 하였다. 하지만 그는 조건에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모든 정력을 독서에 바쳤으며 이곳 인민들과 친숙해지고 풍토를 연구하여 《운남풍토기》를 저술하였다.

이 시기 고려인민들은 조국강토로부터 원나라침략자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로 하여 원나라는 고려를 감히 포악하게 대하지 못하였으며 문익점일행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1363년 그들은 드디여 류형지를 떠나게 되였다. 문익점은 원나라땅 어디에서나 목화꽃을 보면 고향의 당부와 삼베옷을 입고 추

운 한겨울을 나는 동포들을 생각하였다.

하지만 목화씨를 가져간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당시 원나라에서는 목화씨를 다른 나라에 가져가는것을 엄금하였고 만일 몰래 가져가다가 들키는 날이면 엄벌을 받게 되여있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앉아서도 서서도 오직 목화씨에 대한 생각뿐이였다.

문익점은 자기를 낳아 키워준 그 땅과 형제들에게 무엇인가 보답하고싶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하지 않는가. 나를 살려준 고향과 형제들에게 목화씨를 가져가는 일인데 내 어찌 한 목숨 아끼랴.》

그는 미친듯이 목화송이를 움켜잡아 가슴속에 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살아 기어이 조국으로 가야 하며 목화씨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것인가?…)

순간 묘안이 머리에 번쩍 떠올랐다.

《붓대속에 넣어가자!》

그는 무릎을 쳤다. 이때 류배지에 가거나 풀려나는 죄인들에게는 한두권의 책과 붓이 허락되여있었다. 그러니 목화씨를 붓대속에 넣으면 귀신도 모를것이였다.

문익점은 너무도 기뻐 눈물을 머금고 좋은 씨앗을 골라 붓대속에 정히 넣었다.

그는 이 붓대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섰다. 진정 4년만에 돌아오는 그리운 땅이였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마저 모두가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것만 같았다.

어서 빨리 돌아가 목화씨를 이 정든 땅에 심어 가꾸고싶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도 순탄치 못했다.

어느날 아침 웬 군사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편지 한통을 전하는것이였다. 이것은 고려군사들에게 쫓기여간 변절자 최유가 리공

수에게 보낸 편지였다.

《…지금 공민왕은 덕흥군과 조금이라도 련루가 있는자들은 다 역적으로 잡아죽이고있다. 조정에서는 덕흥군에게서 벼슬을 받은바 있는 리공수를 지난 5월 계사일에 좌승지의 벼슬에서 파면시켰고 사신일행도 모두 역적으로 선포하였다.

…고려에 돌아가 역적으로 죽지 말고 덕흥군을 따라 료양으로 돌아옴이 어떠한가. 그렇지 않으면 화가 미치리라. …》

편지를 받은 일행의 리공수는 탄식과 한탄으로 사흘이 가고 닷새가 지나도록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였다.

당시 고려 충선왕의 서자인 덕흥군과 함께 원나라에 가있던 최유는 원나라왕실의 지지를 얻으려고 이들을 꾀였다.

문익점은 자기의 심정을 리공수에게 말하였다.

《소인은 죽어도 고려의 역적으로는 될수 없소이다. 고려를 등진다면 루명을 쓴 〈역적〉이 아니라 정말 역적이 될수밖에 없지 않소이까? 제 비록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지는 못했지만 부모처자까지 저버리는 무도불효한 자식이 되지 않도록 해주소이다.》

그는 리공수에게 절절히 호소하였다.

리공수도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행중의 배신자들은 원나라로 달아나고 문익점은 리공수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금 들어섰다.

그러나 고려에서 이들을 어떻게 대해주겠는가는 누구도 몰랐다. 일행중 부사를 비롯하여 몇은 적편으로 넘어가고 그들이 또한 쏠라닥질까지 하였으니 조정에서 어떻게 조처하겠는지 근심이 아닐수 없었다.

문익점은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강기슭에 서서 건너편 초막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한몸은 일없지만 이 목화씨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견마잡이로 자신과 같이 고생을 해온 달부를 생각했다. 문익점은 할말이 있다고 그를 불러 앉히였다.

《너를 믿고 하는 말이니 명심해듣거라. 이제 강을 건너 의주성에 들어가면 내가 붙잡혀 옥살이를 하거나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다.》

달부는 크게 놀라 눈이 둥그래졌다.

문익점은 달부에게 상감께서 지금 자기들을 모두 역신으로 여기고있으니 잡아가둘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르는것이였다.

《너는 견마군이니 볼기나 몇대 칠것이고 그러면 곧 이것을 가지고 진주로 내려가야 한다.》

그는 옷소매에 깊숙이 넣었던 목화씨가 들어있는 붓을 꺼내였다. 그가 붓뚜껑을 떼고 손바닥에 터니 그속에서 까만 씨앗 10여알이 쪼르르 쏟아져내리였다. 보기에도 기름기가 돌았다.

달부는 천만뜻밖이였다.

《달부야, 너는 이 씨앗을 목숨같이 귀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즉시 진주에 내려가 부친이나 장인에게 전하여라.》

문익점은 달부에게 내 나라 사람들이 한겨울 삼베옷을 벗고 이것으로 지은 옷을 입게 되면 내 몸은 죽는대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면서 달부의 큰 어깨를 내리쓸었다.

그런데 의주부사는 이들일행을 반겨맞으며 얼마전 나라를 반역한 최유일당이 처형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문익점은 지체없이 진주를 향해 떠났다. 그의 입에서는 리규보의 시까지 흘러나왔다.

> 낟알 한알한알이 어찌 가벼우랴
> 사람의 생사가 여기에 달렸으니
> 나는 농부를 존경해 부처님 모시듯 하노라
> 부처야 굶주린 사람을 먹여살릴수 없으니

문익점은 장인 정천익과 함께 건조한 곳, 젖은 곳 혹은 모래밭, 진흙땅 등을 구별하여 목화씨를 정히 심었다.

처음이니 재배리치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렇게도 고심했건만 자신이 심은 씨앗중에서는 겨우 두포기의 목화가 자랐는데 그나

마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말았다. 그대신 장인이 심은 밭에서 네포기가 자라나 그중 한포기에 열매가 달려 구름같이 하얀 목화송이가 피여났다. 그들은 그것을 부둥켜안았다.

거기에서 근 100여개의 씨를 받게 된것이다. 3년만에는 고향사람들에게 목화씨를 나누어주어 심게 하였는데 10년이 채 못되여 온 나라에 눈송이 같은 목화가 퍼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천을 짜는 일이 다 된것은 아니였다. 온 가족이 떨쳐나 이 일에 달라붙었다.

정천익이 목화씨를 뽑는 기구를 연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고 가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열을 쏟아부은 결과 마침내 처음으로 씨를 뽑는 《씨아》를 만들어내게 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을 보아야 할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문익점은 어느날 과거공부에 여념이 없는 아들과 손자들을 목화밭으로 불러앉히였다.

《나는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여 과거급제하고 큰 사람이 되려는것을 장하게 여긴다. 그러나 나는 아직 나를 구해준 이 나라와 형제들에게 아무런 보답도 못하고있구나. 내 비록 목숨을 걸고 목화씨를 가져다 키우긴 하였으나 목화로 천을 짜서 우리 사람들에게 입히지 못하였으니 어찌 자기 도리를 다했다고 할수 있겠느냐. 내 이 소원을 너희들이 풀어줄수 없겠느냐?》

이리하여 아들과 손자들은 과거공부도 전페하고 할아버지를 도와 목화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는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온 가족의 노력과 탐구를 거쳐 드디여 이 소원은 이루어지고야말았다.

문익점의 손자인 문래는 실을 뽑는 기구를 만들어내였는데 사람들은 그의 공을 잊지 않기 위해 그 기구의 이름을 《문래》라는 그의 이름으로 하였다. 그의 동생 문영은 천짜는 법을 연구해냈다. 그때부터 목화로 짠 천을 문영의 이름을 붙여 《무명》이라고 불러 그 업적을 후세에 전하였다고 한다. 문익점은 당시 고려왕조의 부패무능함에 벼슬을 단념하고 오직 학문연구에만 힘썼는데 자기 고향 시골에 초가를 지어놓고 그 집을 《삼우당》

이라고 이름지었다. 때문에 그의 호를 《삼우거사》라고 하는것이다.

1392년 고려가 망한 후 리조국왕은 여러번 그를 벼슬에 등용하려 했지만 문익점은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학문을 연구하며 결백한 생활을 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실학자 리수광은 문익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붓대의 신기한 공적은 영구히 남고 의복문화발전은 찬연히 빛났도다.》

문익점은 1398년 6월 70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림종의 시각 그의 머리말에는 부인 정씨와 네 아들, 또한 50을 넘긴 견마잡이 달부와 그의 처인 고비녀가 조용히 앉아있었다. 관청노비인 달부의 결혼식에 가볍고 폭신하기가 이를데 없는 햇솜이불을 하여주어 기쁘게 한 스승이기도 하며 친부모이기도 한 그였던것이다.

문익점은 맏아들 중용에게 자기가 쓴 《운남풍토기》와 연구성과들을 넘겨주고 다음은 달부를 찾았다. 달부가 다가서자 그는 낯익은 붓대를 꺼내주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이 붓대의 래력을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부끄럽지 않은 물건이니 자네가 맡아주게.》

문익점의 나라와 인민에 대한 애국적인 소행으로 하여 무명옷을 입게 된 백성들은 그를 높이 찬양하여 이 붓대를 《만만금의 붓대》라고 불렀다.

열대지방에서만 자란다는 목화가 이렇게 조선땅에서 활짝 피여나 온 나라 인민이 무명옷을 입게 된것은 실로 문익점의 애국심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은것이다. 그 따뜻한 무명을 만질 때 사람들은 문익점을 먼저 생각하며 신기한 그 붓대의 비밀도 그려보게 되는것이다.

《삼국유사》를 남겨놓은 일연

경상도 경주에서 조금 떨어진 장산군기슭의 자그마한 초가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앉아있었다. 아들은 9살의 조그마한 소년인 견명이고 아버지는 마을에서도 덕이 있어 이름난 선비 김언필이다.

《아버님, 죄송하나이다. 제 나이 벌써 아홉이니 아버님곁을 떠나 절에 들어가 배워볼가 하나이다.》

《아니, 절에?!… 공부하는것은 반대가 없는데 하필이면 어찌하여 절로 간단 말이냐?》

《어쩐지 조용한 그곳이 좋을것 같소이다.》

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아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자못 명상에 잠기며 그가 태여날 때의 태몽을 들려주었다.

어느날 밤 김언필의 부인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에 높이 솟아있던 해가 금시 지붕을 뚫고 방안에 들어와서는 온 집안을 대낮처럼 비치는것이다.

부인이 너무도 놀라 깨여나보니 꿈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꿈을 다음날 밤에도 또 그 다음날 밤에도 꼭같이 꾸었다.

량주는 범상치 않은 꿈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이 자기들에게 큰 복을 내려줄것이라고 기뻐하였다. 아닐세라 인차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후에 옥동자를 낳았는데 그애가 바로 견명인것이다. 그때는 1206년 6월이였다. …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용히 이르는것이였다.

《너는 바로 하늘신의 은덕을 입어 태여난것이니 어디에 가든 몸가짐을 정히 하여야 하느니라.》

9살에 무량사로 들어간 견명은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집에서 응석이나 부릴 애어린 나이였건만 견명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불교

뿐아니라 유교에도 전심하였고 여러가지를 하나같이 모두 익혀나갔다.

14살이 되면서 견명은 머리를 깎은 후 중이 되였고 이름은 회연으로 하였다. 그리고 착실하게 수련을 쌓기 위해 수행길에 나섰다.

회연은 온 나라 크고작은 모든 절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또 배워 견문을 넓혀나갔다. 7～8년이라는 사이 그의 이름은 나라안에 크게 번져졌다.

그 시기로 말하면 중들이 소란스러운 속세와 인연을 끊고 오직 불교만을 들이파는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고있었다.

또한 나라에서 불교를 장려하고있었기에 중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대우도 좋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중들은 권력에 붙어 영원한 안식을 찾으려 머리를 깎았던것이다.

그러나 회연만은 달랐다. 그는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배우기에 중이 되였다는것이다.

그리하여 22살이 되는 해 승려들의 과거인 승과에 응시하여 단연 상상과로 통과되였다. 상상과란 가장 뛰여나게 시험을 친것을 말한다.

시험에 나섰던 수많은 승려들이 그를 우러러보았다. 그래도 상상과라면 대체로 나이 쉰줄에 드는 인물들이였으나 오늘 입선한 회연은 아직 새파란 청년이였다. 그러니 선망의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이 시기 회연은 이름을 다시 일연으로 고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일연으로 남아있게 되였다.

1216년 거란잔여세력들이 불시에 고려를 먹으려 쳐들어오자 그는 고국땅을 짓밟으려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의 마음으로 하여 온몸을 떨었으나 자신은 중의 몸이라 어쩔수 없어 보당암에 거처하기로 하였다. 그후 그는 무수암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수양을 쌓아나갔다.

이름난 고승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일연은 32살에 삼중대사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하지만 일연은 더욱 분발하여 도를 닦는데 힘을 들이였다. 일연대사는 그후 선사의 칭호를 받게 되였고 다음에는 대선사가 되였다.

그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날마다 사방에서 찾아들어 스승으로 모시려 하였고 임금까지도 그를 존대하여 신의 가르침을 받으려 청해들이였다.

당시 원종왕은 일연대사에게 선월사를 지어주고 거기에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연은 흙냄새 풍기는 시골이 더 좋았다. 여러차례에 걸쳐 왕에게 청을 드려 승낙을 받은 일연은 경상도 영일군의 운제에 있는 오어사로 내려갔다. 그후 원종왕은 불교경전인 8만대장경을 만든것을 기념하는 성대한 모임을 운해사에서 벌리도록 하였는데 그 책임을 일연대사에게 맡겼다.

8만대장경이라 한것은 판목이 8만 1천 1백 37매나 되므로 이렇게 부른것인데 지금까지도 경상남도 가야산의 해인사에 있다고 한다.

8만대장경 초판은 부인사에서 원침략군에 의해 불타버렸으며 그후판도 4천여권이나 되였으나 역시 원침략군에 의해 거의다 없어지고말았다.

그후 다시 인쇄한것이 현재의것이라 한다.

이것은 긴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것으로서 불교에 대한 연구에서는 매우 귀중한것이다.

락성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일연대사는 인흥사로 내려와 제자들을 키우는데 전심전력하였다.

새로 왕이 된 충렬왕은 일연에게 왕궁에 올라와 자신에게 설법을 해줄데 대하여 수차 청탁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굳이 거절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쉬임없이 수양을 쌓아나갔다.

그때 그의 나이는 70대의 고령이였다.

그런데 고향에는 아직도 늙은 어머니가 생존해있었다.

일연은 오래간만에 어머님을 뵙기 위해 고향집에 들리였다.

감회도 새로왔다. 어린시절 집을 떠나 오직 학문을 닦는데만 전심하며 한생을 다 보낸 그였으니 더욱 그러했다.

아버지는 돌아가고 다만 어머니가 눈물에 젖어 아들을 와락 그러안았다.

《어머님, 불효막심하옵니다. 아버님도 뵙지 못하고…》
일연은 말끝을 흐리였다.
어머니도 일연이 이제는 나라일을 보는 국사로 된것을 알기에 이를 조금도 탓하지 않았다.
《이제 국사는 부처님에게 온몸을 바쳤으니 어찌 이 조그만 에미옆에 두겠니. 세월이 빠르기도 하구만. 이젠 늙은이가 되였으니…》
일연의 어머니는 96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나라에서는 일연의 어머니에게 《락랑군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리였고 아버지인 김언필에게는 좌복야라는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일연의 공로는 불교교리에 충실한데 있는것이 아니다.
사실 일연은 대선사로, 국사로 이름을 떨치였고 불교를 믿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그리고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 많은 저작들을 남기였다.
불교에 관한 저서로서 《어록》(2권)과 《게송잡저》(3권)가 있었으며 이와 함께 근 1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저작이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들은 모두 없어지고 오늘에까지 이르고있는것은 《삼국유사》뿐이다.
그가 쓴 책들을 보면 필자자신이 불교의 독실한 신자였으므로 대부분이 불교에 대한 저술이였고 다만 《삼국유사》만이 력사문제에 관한것이였다.
침략자들이 쳐들어오자 다른 승려들은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니였으나 일연대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노력하였다. 그는 원쑤놈들이 파괴한 문화재들을 수호하기 위한 수집사업에 나섰고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편찬사업에 달라붙었다.
일연대사는 나라의 유구한 문화와 력사를 살리고 이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귀중한 력사자료로 전해지는 《삼국유사》집필이 시작되였다.
《삼국유사》는 그의 말년에 씌여진것이므로 축적된 깊은 지식이 담겨져있다.
《삼국유사》는 우리 나라 고대, 중세의 력사와 통치체계, 경제, 문화, 언어, 민속, 세태풍속, 사화, 전설들을 연구하는데서 실

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재보이다.

일연의 학문과 지식에 대하여서는 함께 활동하던 승려인 민지가 그의 사망후 쓴 비문에서 이렇게 지적한것을 보고도 알수 있다.

《한편으로 유교서적도 널리 섭렵하였으며 겸하여 〈제자백가〉의 학설을 통달하여 형편과 조건에 따라 마음대로 리용하는데 아주 능란하다.》

《삼국유사》는 전 5권 9개 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제1편은 왕력을 년표순위로 서술하였고 제2편에서는 고조선으로부터 10세기초까지의 력사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나라별로, 년대순으로 묶어놓았다.

다음편은 우리 나라에서의 불교의 전래와 보급문제, 승려들의 사적, 불교사적, 건축 등과 같이 불교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다음편들에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시까지의 귀중한 자료들이 있는데 특히 설화, 인물, 생활세태 등 여러 부문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삼국유사》는 매개 편들이 대체로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 내용에 맞게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설이 집중적으로 되여있다.

그는 자기의 저술에서 사료들을 비교적 정확히 취사선택하였다.

《삼국유사》보다 한세기전에 씌여진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보면 필자의 그릇된 관점으로부터 큰 나라의 비위를 맞추거나 봉건세력의 마음에 들도록 써놓은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연은 자기의 글에서 《삼국사기》의 저자가 중요하지 않게 보고 소홀히 취급한 문제들을 찾아내여 돋구어주고 빠진것은 보충하고 잘못된 부분은 자기의 안목으로 고쳐쓰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였다.

그는 《삼국유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를 중심에 두면서도 이에 국한시킨것이 아니라 줄수 있는 범위와 한도내에서는 세나라이전 고조선을 비롯하여 고대국가들의 사료와 그후 봉건국가들의 사료를 넣으려고 노력하였다.

때문에 얼핏 보면 《삼국유사》를 《삼국사기》의 속편이나 보충한것으로 여길수 있으나 그런것이 아니며 저자의 독자적인 주견

에 의해 자기의것을 서술한 저서이다. 때문에 《삼국사기》에 비할바없이 력사연구에서는 몫이 큰것이다.

특히 《삼국유사》의 《고기》에 인용한 단군신화는 우리 나라 고대의 사회력사를 연구하며 단군조선의 근원을 밝혀내는데서 중요한 사료이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당시 신화의 형태를 연구하는데서도 그 가치가 크다.

뿐만아니라 《삼국유사》는 우리 나라 고대구전문학, 고대가요, 설화연구에서도 사료적가치가 있다.

여기에 수록된 《만파식적》, 《황룡사9층탑》, 《김제상》, 《연오랑과 세오녀》, 《서동과 선화공주》 등 많은 설화들은 고대문화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물론 저자자신이 불교의 신도라는 점에서 일부 부족점이 있으나 우리 나라 력사문화연구에서는 커다란 자리를 차지한다.

일연은 구전문학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있었으며 여기에 취미가 있었다.

때문에 세나라시기에 구전으로 전해내려오던 14편의 향가를 《삼국유사》에 정식으로 기록하였고 그 창작경위와 작가들의 래력에 대해서까지 쓰고있다.

또한 《삼국유사》에서는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넣음으로써 군사에 관한 사상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일연은 생애의 말년을 왕이 직접 맡겨준 절간인 경상북도 의흥군에 있는 린각사에서 보내다가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치였다고 한다.

일연은 마지막으로 임금에게 자기의 글로써 인사를 올리였다. 그날밤 이상하게도 한자가 넘는 큰 별이 일연의 방에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일연은 저승에서 자기를 부르는것으로 알고 온몸을 깨끗이 씻고 사람들과 마지막말을 나눈 후 반듯이 누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전한다.

고려에서는 일연이 사망한 후 그의 공적을 평가하여 《보각국사》라는 칭호를 주고 탑을 세웠다고 한다.

외교관이며 문인이였던 리제현

성균관뜰에는 수천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모여 과거시험에 응시하고있었다.

40이 넘은 년장자들이 있는가 하면 10대의 코흘리개도 보였다.

그래도 대체로 나이로 보면 20대, 30대, 40대에 이르고있었지 리제현처럼 겨우 15살에 나는 선비는 없었다.

《저 소년도 시험을 받으러 왔는가?》

《아니, 그럼 이 마당에 선보이러 왔겠소?》

《그럼 저 애에 비해볼 때 우린 너무 나이를 헛먹지 않았소.》

《그러니 어쩌겠소. 부끄러워도 할수 없는 일이지.》

선비들은 리제현을 부러운듯 넘겨보며 시험받을 차비를 한다.

이윽고 시험관이 나오고 현제판이 걸리자 선비들은 재간껏 글을 지어바치느라 야단들이다.

리제현은 얼른 글귀를 골라 시를 쓰고는 눈을 꼭 감았다. 그는 제일먼저 글을 바치고 시험장에서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따라온 종들이 어찌되였는가고 묻는다.

《내 생각엔 도련님이 장원이 될것 같아요.》

《글쎄, 쓰느라고 했는데 어찌되겠는지.》

리제현은 그들과 함께 시험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지루하기 그지없었다. 그렇지만 어디에 가서 알아볼데도 없는 노릇이였다.

해가 다 질무렵에야 합격자의 휘장이 나붙었다.

《장원 리제현!》

리제현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온 마당은 장원이 된 리제현에 대한 칭찬으로 법석 끓었다.
《아니 글쎄 올해 열다섯살밖에 안된다지 않소.》
《그러게 말이요. 엉석이나 부릴 나인데 장원이라니. 그 집 부모님들은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었수다.》
한편 시험에서 떨어진 패들은 불미스런 모양을 하고 돌아갈 길이 아뜩해서 맥없이 쭈그리고앉기도 한다.
리제현은 백패(과거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흰 종이증서)를 정히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달려나오는 부모들께 올리고 절을 하였다.
《아버님과 어머님덕분에 이렇게 오늘 장원급제하였습니다.》
《장하다.》
리제현의 부모들은 아들의 손을 잡아 대청으로 끌어올리였다.
이날 아버지는 리제현에게 처음 상투를 틀어올려주었고 집안에서는 큰 잔치를 차리였다.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리제현에게 진사나으리라고 절을 하였다.
리제현은 1287년 1월 개성에서 리진의 아들로 태여났다. 그의 호는 익재 또는 력옹이라고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검교정승이란 군사부문의 벼슬도 지냈으나 무신들의 정변과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농촌에 내려와 살면서 그들의 내막을 드러내는 풍자시를 써 이름을 내였다.
리제현은 가정의 이런 영향을 물려받았다.
또한 그가 자라던 13세기 후반기는 원나라침략자들의 침입으로 하여 인민생활은 여지없이 령락되였다.
이런 시기에 그는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어린시절부터 독서에 열중하였고 선배들의 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하여 그는 15살이 되던 1302년 성균관시험에 장원급제하였으며 이후 유명한 시인이였던 국재 권부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1304년 17살에 《연경궁록사》라는 벼슬길에 처음 나섰다.
22살때부터 그의 시가창작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는 창작을 시작한 초시기부터 인민들의 념원을 자기의 작품에 반영하기에 애썼으며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파헤친것으로 하여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의 창작은 당시 고루한 량반들이 술상앞에서 선소리를 치면서 글귀나 맞추며 저들의 유식을 자랑하던 그런것과는 달랐다. 그는 자기의 시에서 백성들의 재물을 걷어모아 안일만을 추구하는 량반들을 폭로하였고 인민들에 대한 동정과 사랑으로 일관시켰다.

그의 초기작품인 《칠석》에서는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만날수 없는 견우와 직녀가 칠석명절이면 만나 그리운 회포를 나누는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바라는 그런 행복한 세월이 오리라는 기대를 반영하였다.

그후 리제현은 서해도 안렴사라는 직무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고달픈 생활을 깊이 알게 되였다.

리제현의 창작과 생활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것은 거의 반생에 달하는 근 30년간을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원나라에 왕래하거나 거기에 주재해있었던것으로 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충만된것이다.

그가 27살되던 해인 1314년 1월 리제현은 충숙왕을 따라 원나라의 서울로 갔다.

처음 원나라학자들과 대할 때는 몹시 불안하였지만 그것도 역시 별것은 아니였다.

원나라학자들은 젊은 리제현의 재주에 누구나가 다 감탄하였다.

《아직 젊은 시인인데 학문에는 깊이가 있소.》

《리공은 어쩌면 한시에 그렇게도 능숙하오. 우리도 따르기 힘이 드오.》

그때마다 그는 겸손하게 대꾸하였다.

《저야 아직 배우는 학생인데 무얼 그러십니까. 많이 배워주십시오.》

리제현은 해저무는 저녁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 한수씩

남기였다.

옛날 집을 떠나며 부른 리별가
애끓는 생각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고향땅으로 돌아가니
기쁜 눈물 어이 흘리지 않으리

이것은 원나라에 오랜 기간 체류해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지은 시이다.

리제현은 왕을 따라 외국을 려행하면서도 이런 글을 썼고 이후 조국에 돌아와서도 많은 창작품들을 남기였다.

외교에서 막혔던 곬도 기지있게 풀군 함으로써 당시 왕의 신임을 받게 되였다.

그에게는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

어느해인가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원나라의 한다하는 학자문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글을 지어 고려의 왕에게 바치였다.

그러자 왕은 답례로 시 한수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닭소리는 흡사 문앞의 버들이로다》라는 구절이 끼여있었다.

원래 글을 좋아하고 학문이 깊은것으로 소문이 났던 고려임금인지라 원나라학자들은 그 시를 받아들고 여러차례 곱씹어 읽더니 그 시에 깊은 뜻이 담긴것으로 여기고 이 구절을 짚으면서 옛글의 어디에서 가져온것인지 가르쳐달라고 정중히 청하였다.

그 당시는 자기의 글들에 옛글이나 문헌에서 문구를 따오는것이 하나의 류행으로 되여있었고 또 그런 글이라야만 신빙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임금은 그 시행을 옛글이나 이야기에서 따온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여 붓을 놀린것이니 대답이 참으로 궁하였다.

원나라학자들이 왕을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리는데 난처한 일이였다. 이것을 제꺽 알아차린 리제현이 불쑥 나섰다.

급히 사태를 수습하고 명답을 주어야 할 순간이였다.

순간의 비상한 사색끝에 리제현은 자세를 의젓하게 갖추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 나라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붕우에 해가 뜨니
누런 닭이 울음운다
꼬끼요 길게 뽑는 소리
늘어진 버들가지처럼 길구나

이 시에서는 닭울음소리를 버들가지의 가늘고 긴데 비기고있지요.

우리 임금님께서 지으신 시의 그 구절은 여기서 가져온것입니다.》

대답은 충분하였고 원나라문인들도 머리를 끄덕이였다. 리제현은 계속하였다.

《옛날 당나라시인 한유도 거문고를 노래하면서 〈뜬 구름버들꽃은 뿌리도 꼭지도 없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거문고소리를 버들꽃에 비긴것이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은 그의 대답에 탄복하였고 임금도 미더운 미소를 보내였다.

이 일화는 《청비록》에 있는데 책의 필자는 이렇게 쓰고있다.

《임금의 궁색함을 풀어주고 가히 나라를 빛내였다고 할만하다.》

과연 리제현은 고려문인들의 박식을 보여주고 나라를 빛내인것이다. 그는 외교활동의 길에서 이국의 들판을 보면서도 제 나라의 전야를 눈앞에 그렸고 고향을 생각하였다.

시 《말우에서》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무연한 벌판에 말을 달리며
누런 먼지 안장에 가득하구나
발곡식은 하마 무르익었는데
동터오는 아침해살 밝기도 하구나

조국을 위하여 받은 작은 괴로움을
어찌 슬프다 노래부르리
바라노니 그 귀한 때 비를 주어
우리 나라 인민을 편안케 해다오

시 《조국에 돌아가고파》, 《장안려관에서》, 《백구》 등에서도 제 땅에 대한 시인의 그리움을 력력히 찾아볼수 있다.

리제현은 원나라땅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 《력옹패설》(1342년)을 내놓았다. 이 책은 시이야기, 력사이야기, 구전설화 등으로 된 문집이다. 그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명전을 받고 부역에 이바지하는자는 백에 두세사람도 안된다. 토호들은 금과 옥으로 그릇을 지으며 장사치들의 아낙네들은 아름다운 비단옷을 끌고다니니 어찌 부화하지 않으랴! 입고 먹는자때문에 빚에 망하는자는 십중팔구나 된다.》

리제현은 당시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법으로 규정한것을 반대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는 《개혁》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것을 토지제도의 개혁에서 찾았다.

《과연 토지제도의 개혁을 실시한다면 기뻐하는 사람은 심히 많을것이요, 기뻐하지 않는자는 권세있는 수십명밖에 되지 않을것이다. 무엇을 꺼리여 실시하지 않는가?》

리제현은 당시의 정책에 대하여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비난하였다.

가는 베로써
도목을 만들었으니
정사가 실로 묵책이고나
기름에 저리고저 하나
금년에 삼씨조차 안되여
아, 그것도 못하겠구나

여기에서 비판의 화살은 도목정사 즉 관리명단을 묵책으로 만든 봉건통치배들의 부패한 정치에 직접 돌려지고있다.

리제현은 당시 구전으로 널리 창작보급되고있던 《사리화》, 《그리운 님》, 《장암》 등 민요들을 모아 악부시로 번역수록(《익재란고》)함으로써 후세에 전해지게 하였다.

여기에서 《사리화》, 《장암》같은 민요들은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무위도식하는 기생충들을 날카롭게 풍자조소한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고있다.

《사리화》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참새새끼 어디로 날아다니며
한해 다 가도 농사란 모르면서
늙은 홀아비 애써 가꿔놓은
조며 기장이며 모조리 먹어치우느냐

민요는 가렴잡세에 깡그리 빼앗긴 비참한 농민들의 생활처지의 일단을 통하여 이 현실을 빚어낸 비극의 원인을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략탈로 규명하고있다.

다른 민요 《그리운 님》에서는 부역에 나간 남편이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안해의 소박한 마음씨를 민족적정서가 넘치게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울타리 꽃가지에 까치는 지저귀고
거미는 상머리에 가는 줄 내리네
그리운 내 님 멀잖아 오시려나보다
어쩐지 마음이 이리 설레이니

리제현은 창작에서 뜻을 명료하게 표현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언어표현들을 참신하게 할것을 주장하였으며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는데만 급급하거나 남의 글을 모방하는데만 몰두하는 현상을 반대하였다.

때문에 리덕무(리조후기의 시인이며 실학자)는 리제현의 작품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였다.

《익재의 시는 그로 하여금 동방 2천년래의 대가로 되게 하였으며 그의 시는 빛나고 맑고 아담하여 삼한의 괴이한 수법을 벗어버리게 하였다.》

리제현은 1361년 홍두적이 침입해오자 70이 넘는 고령의 몸이였건만 분연히 싸움에 나서 신기한 전략들을 세웠으며 직접 싸움에 합치기도 하였다. 리제현은 말년에 고려의 력사를 편찬하는 사업에도 참가하여 많은 글을 남기였다.

그는 고려후기의 재능있는 시인으로서 그의 문학적재능은 일찍부터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진보적경향의 시들은 이 시기 문학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한다.

1367년 7월 리제현은 80살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외적과의 싸움에 한생을 바친 최 영

왜구와 고려군의 싸움은 3일째 계속되였다. 그러나 좀처럼 승패가 나지 않는다. 두편 다 사상자만 늘어날뿐이다.

삼교천이라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싸움인데 불꽃튀는 격전이 계속되였으나 아직 결판이 없어 두편 장수들은 모대기고있었다.

그런데 새벽공기를 깨뜨리며 적진영에서 이런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이젠 장수들끼리 붙어 판을 가르는것이 어떻겠느냐?》

왜군장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제가 나서겠다는것이다. 고려군에서도 름름한 장수 하나가 큰 칼을 빼여들고 안장에 올랐다. 고려군사의 칼을 받아넘기던 왜군대장은 순식간에 고려장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장수는 그만 말우에서 떨어졌다.

왜군진영에서는 좋아라 야단인데 고려군진막에서는 다른 장수가 나섰다. 그러나 이 장수 역시 아까운 목숨을 잃고말았다.

분통이 터져오른 고려군의 대장이 나서려고 말에 올랐다. 그러자 한 병졸이 그앞을 가로막는것이다.

《대장군님, 제 나가 저놈의 목을 베겠나이다.》

아직 애된 얼굴이나 다 자란 체구는 믿음직스러웠다.

《너는 누구냐?》

《얼마전에 입대한 최영이옵니다.》

고려군영에서는 어제그제 입대한 애숭이를 보내면 우리의 체면이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건만 최영은 두말이 없었다.

《네가 감히 적장의 목을 따올수 있단 말이냐?》
《믿어주사이다. 죽기를 각오한다면 성공할것이옵니다.》
《좋다, 내 말에 올라 네가 나가보아라.》
대장인 도순문사는 너무 기특하여 제 말을 내주며 어깨를 다독여준다.
최영은 장대한 체구에 위엄있게 달려나갔다.
《왜적대장은 내 칼을 받으라.》
적대장놈이 바라보니 이번에는 애어린 군졸이다.
그는 곁에 선 장수에게 이른다.
《네가 나가 해치우고 오너라.》
《알겠소이다.》
왜장수는 달려나오던 그길로 목이 뎅겅 달아났다.
금시 고려군진지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적대장은 또 다른 장수를 내보내였으나 꼭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
고려군진지에서는 또다시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그러자 이번에는 할수없이 적대장놈이 나섰다.
최영은 처음부터 마음을 다잡고 달려들었다. 적장 역시 만만치를 않았다. 벌써 수십차례의 접전이 있었으나 승부가 없다. 다시 붙고 또 붙고 백수십여합, 최영은 끝내 왜군대장의 목을 치고야말았다.
고려군진지에서는 장수들과 군사들이 마구 쓸어나와 적들의 진지를 향하여 달려갔다. 대장이 없는 적의 대오는 오합지졸이였다. 왜적들은 떼죽음을 남긴채 간신히 도망쳤다.
이렇게 최영은 첫 접전에서부터 용맹을 떨쳤으며 그의 이름은 조정에까지 올랐다.
최영(1316~1388)은 평장사 최유청의 5대손으로서 사헌규정(관리의 잘못을 다스리는 벼슬)을 지낸 최원직의 아들이였다.
아버지인 최원직은 성격이 강직하고 청렴하였다.
최영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게 되였다. 그러나 집안이 대대로 무관을 지내였으므로 그 역시 어려서부터 무예에 힘을 들이였다. 그

리하여 18살에 이르러서는 말타기, 창던기지, 칼쓰기, 활쏘기 등 막히는데가 없게 되였다. 특히 두드러진것은 검술이였다.
최영은 맨처음 병졸로부터 군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병졸이 바로 왜놈장수의 목을 따낸것이다.
싸움이 끝나자 도순문사는 그를 불렀다.
《그대는 뉘집 자손인고?》
《사헌규정을 지낸 최원직의 아들이옵니다.》
《음, 과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로다.》
최영은 이 싸움의 공로로 우달치(왕을 호위하는 군사)로 승진되였다.
이로하여 그의 일생은 크고작은 싸움의 련속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싸움을 치르게 되였으며 그가 나서기만 하면 또한 어김없이 승전고를 울리군 하였다.
최영은 먼저 원나라침략군이 점거한 땅을 도로 찾는 싸움에부터 참가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27차의 싸움을 벌려 적을 물리쳤으며 적선이 해안을 몇겹으로 조여들었으나 끝내 격퇴시키고야말았다.
1359년 12월 4만의 홍두적이 압록강을 넘어서 서경에까지 들어왔을 때 서북면 병마사로 있던 최영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서경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을 능숙하게 지휘하여 적들을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시기 싸움의 피해가 가셔지지 않아 백성들은 굶주리고있었다. 이때 최영은 자신이 구제민소를 곳곳에 널리 설치하여 리재민들에게 량곡과 종곡을 대여주며 그들의 살림을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러나 김용과 같은 역적들과 손을 잡은 홍두적이 다시 침입해왔다.
최영은 또다시 달려나가 배신자들부터 요정을 내고 적들을 일시에 지경밖으로 몰아내였다. 그런데 적은 다시 몰려들어 선주까지 차지했다.
최영은 도순위사로 임명되여 군사를 이끌고 안주로 달려가 싸움

을 지휘했다.

그가 나서면 군사들과 백성들은 이긴것으로 알고 용감히 싸웠다.

홍두적은 드디여 쫓겨가고 나라안은 평정되였다.

한편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리덕림, 신돈을 비롯한 이를 시기한 자들은 거짓죄를 만들어 왕에게 고해바쳤다.

어느날 최영이 사냥을 나갔는데 그 사이 왜구가 강화도에서 무고한 백성들을 로략질했다. 련락을 받은 최영이 군사를 이끌고 강화도에 이르니 왜구들은 빼앗은 물건들을 배에 싣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네놈들이 감히, …버릇을 가르치고 모두 물귀신으로 만들리라!》

최영의 벽력같은 고함소리에 왜구들은 줄달음을 놓았다.

하지만 그의 손탁에서 벗어날수는 없었다. 최영은 왜적들의 배에서 물건을 내려 주인들에게 모두 돌려주고 유유히 돌아왔다.

그러나 신돈은 최영이 사냥놀이를 갔기때문에 왜적이 덤벼들었다고 트집을 걸면서 죄목을 만들어 왕에게 간하였다. 모든것을 바로 식별해낼줄 모르는 임금인지라 신돈의 꼬임에 넘어가 최영은 벼슬이 떨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류형을 가게 되였다.

《상감마마, 소신은 벼슬을 바라지 않소이다. 그러나 간사한 무리들을 주의하시고 옥체보존하시옵소서.》

최영은 왕에게 례를 표하고 류형지로 떠나갔지만 신돈은 최영을 마지막까지 죽이려들었다.

이때 합포만호인 정사또가 이 사실을 상소하였다.

《전하, 최영은 아무런 죄가 없소이다. 그는 오로지 전하와 나라를 위하여 나서서 충성을 다한 무사이옵니다. 그에게 내린 형을 중지하도록 해주소이다.》

왕도 역시 아무리 생각해봐야 최영은 충신이였다.

그래서 즉시 형을 거두고 다시 등용시켰다.

이 시기 최영은 자기의 굳은 지조를 이런 시에 담았다.

눈맞아 휘였노라 굽은 솔 웃지 말아

봄바람에 핀 꽃이 언제나 곱기만 하겠느냐
바람 불고 눈이 날릴 때면 너야 나를 부러워할테지

굽은 소나무란 바로 최영이 자신을 두고 읊은것이다. 류형지에서 돌아온 그는 군사를 등록하고 군함들을 새로 건조해냈으며 군률도 엄히 다스렸다.

그런데 그 시기 제주도는 원나라인들이 타고앉아 좋은 말과 특산물들을 제마음대로 날라가고있었다. 게다가 명나라대신들이 또한 제주도말을 탐내여 계속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고려에서는 제주도의 원나라인들을 내몰고 징벌하는 일을 도통사 최영에게 맡기였다.

1374년 8월 최영이 이끈 2만 5 600명의 군사와 314척의 함선으로 편성된 원정군은 기세드높이 제주도에 상륙하였다.

그러자 원나라침략세력의 두목들은 3천명의 기병을 이끌고 명월포에서 대항해나섰으나 참패를 당하였다. 그후 여러 전투들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의 두목들은 파멸을 간파하고 자살하거나 항복하였다.

고려군은 적의 마지막지탱점인 제주성을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을 들이댔으나 적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최영은 여러가지 병법을 써보았으나 군사만 잃을뿐이였다.

여기에 최영과 한 농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성을 타고앉을 신묘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아 최영이 산등성이에 올라 허공중을 바라보고있는데 아래에서 보습으로 밭을 갈고있는 한 늙은이의 말소리가 그의 귀전을 때리는것이였다.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꾸물거려. 미련한 최영이를 닮았나, 쯔쯔.》

최영은 급히 말을 몰아 언덕아래로 내려섰다.

그는 치미는 분기를 애써 누르며 로인에게로 다가섰다.

《그대에게는 저 성벽을 둘러싼 가시덤불이 보이지 않는고?》

최영의 말에 로인은 주저없이 대답한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로 되지 않을줄로 아옵니다.》

최영은 순간 가슴이 섬찍하였다.

그날 최영은 로인과 무릎을 마주하고 적을 칠 안을 의논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로인의 집에 몰래 파수를 세웠다.

로인은 첫 열흘간은 집에 박혀서 자그마한 수십개의 봉지를 만들었다. 그다음 열흘은 조무래기들을 모두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띄우기싸움을 붙이였다. 그리고는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바다가에 나가 고기를 잡았다.

최영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로인과 약속한 정월대보름까지는 아직 71일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해에 례년에 없이 성안팎에 잡초가 무성했다.

그것은 로인이 풀씨를 넣은 봉지를 매단 연을 아이들을 시켜 띄우도록 하여 풀씨를 뿌려놓은것이기때문이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오자 로인은 날랜 군사들과 마을의 끌끌한 젊은이들을 앞세우고 적의 진지로 가서는 일시에 불을 질러놓았다. 성안은 봄내, 여름내 자란 풀덩굴로 하여 밤의 장막을 태워버릴듯 세찬 불길이 타올랐고 이때라고 본 최영과 농민은 군사들과 함께 성을 타고넘어 일거에 적을 항복시키고말았다.

백성의 힘과 지혜에 자기의 전법을 합친 최영의 벼락같은 공격이였던것이다.

어쩔수 없는 궁지에 빠진 적장은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하고말았다.

이렇게 최영은 제주도를 평정하였다.

이때부터 항간에서는 연띄우기가 더욱더 퍼졌다고 한다.

1376년 7월 왜구를 징벌하는 홍산싸움이 벌어졌는데 고려군은 첫 싸움에서 패하게 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최영은 즉시 출발할것을 제기하였다.

《상감마마, 신이 비록 나이 들고 재주는 별로 없으나 적을 무찌르는 싸움에 나갈가 하오니 허락해주시오이다.》

우왕은 머리를 저었다.

《경의 나이 벌써 얼마요. 내곁에서 나라일이나 살펴주오. 그간 세운 경의 공만 해도 내 잊지 못하겠소.》

《상감마마, 왜구의 기세로 보아 경험있는 장수가 있어야 할 것 같소이다. 적을 제때에 제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곤난을 당할 때가 닥칠것입니다. 제 비록 몸은 늙었으나 마음은 늙지 않아 나라를 지키려는 생각은 변함없으니 능히 적을 물리치겠나이다.》

최영은 끝내 허락을 받고 그길로 남으로 향했다.

《이놈들, 내 네놈들의 칼에 맞은 백성들의 원한을 기어이 풀어주고야말리라.》

홍산에서는 적의 기세가 등등한데 고려군의 어깨는 처져있었다. 최영은 전군을 휘둘러보고는 자신이 직접 선봉에 나섰다.

적군은 최영을 보고 비꼬아 말하였다.

《고려군은 장수가 이젠 다 죽었나보구나. 저런 늙은이가 나타난걸 보니.》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였다. 그가 큰 칼을 한번 번쩍 쳐들면 뒤따라 왜놈목 한두개가 영낙없이 땅에 떨어졌다.

이때 한쪽 나무옆에 숨어 이곳만 보던 왜군장수가 선봉의 최영에게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최영의 입술언저리를 맞혔다. 피가 주르르 흘렀다.

하건만 최영은 재빨리 돌아서 자기를 쏜 놈에게 화살을 날리였다. 그놈은 인차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그제야 최영은 입술의 화살을 천천히 뽑아버리였다.

《한놈도 살려보내서는 안된다, 모조리 쳐라!》

전군에 최영의 령이 떨어졌다. 백발로장을 선봉으로 하는 고려군은 적의 뒤꽁무니를 쫓아 해안까지 가서 수많은 원쑤놈들을 쓸어버리고야말았다.

최영은 언제나 이와 같이 군사들의 앞장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진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고려군은 이렇게 홍산싸움에서도 최영의 지휘밑에 왜구를 완전히 격파하고 대승리를 이룩하였다.

최영이 돌아오자 우왕은 너무 기뻐 대궐밖에 나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우왕은 그에게 시중이라는 높은 벼슬을 주었다.

그러자 최영은 이를 사양하였다.

《전하, 만일 제가 시중으로 된다면 용이하게 외부에 나갈수가 없을것이옵니다. 외적을 완전히 소멸한 뒤에라도 늦지 않을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최영은 철원부원군으로 임명되였다.

최영이 1384년 해도도통사로 있을 때 왜구의 침입으로 조정에서는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려는 계획이 세워졌다. 이때 최영은 처음부터 이를 반대해나섰으며 끝까지 철회시켰다.

그는 지금 현재 이것을 벌려놓으면 농사에 저애를 주고 백성들을 소란케 할뿐아니라 왜적에게 우리 령해를 내주어 더욱 형세가 불리하며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주장해나섰던것이다.

적들은 대규모로 배를 무어 서울을 향해 기여들어왔다. 최영은 부대를 이끌어 적들을 제압하였다. 적은 《최영부대만 격파하면 서울은 문제없다.》고 떠들면서 다른 진지들은 그냥 통과하여 그의 부대에 달려들었다.

이때 최영은 군사를 지휘하여 적의 익측을 공격하였고 완전포위섬멸하고야말았다.

이렇게 최영은 일생동안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판에 서있었다.

그의 성격은 강직하고 한창 싸움이 벌어질 때에도 거동은 태연하며 화살과 돌들이 비오듯 쏟아지는 속에서도 좀처럼 두려움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군사들이 적이 두려워 후퇴하거나 걸음을 주춤거릴 때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으며 그 앞장에서 달려나가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리하여 100여차례의 크고작은 싸움마다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는 장군으로 명성이 났다.

최영은 벼슬이 높아도 생활은 언제나 검박했고 보물을 탐내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언과도 관련된다고 한다.

최영이 16살때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한다.

《너는 언제나 금을 돌과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최영은 평생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였다.

비록 그 세력이 중앙과 지방에까지 뻗치였으나 그는 남의것을 건드리지 않았으며 먹고살기에 만족할뿐이였다.

당시 재상들의 집에서는 서로 청해다가 바둑을 놀면서 심심풀이를 하였는데 그 뒤끝에는 좋은 음식을 차려 자기들의 위세를 돋구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최영은 손님들이 왔어도 한낮이 지나도록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으며 저녁녘이 되여서야 겨우 기장밥에 나물 몇가지를 내놓으니 손님들은 너무 배가 고프던지라 한마디씩 뇌인다.

《아니, 장군댁 음식은 언제 봐야 맛이 있거든.》

《별것도 아닌데 특별하단 말이외다.》

그럴 때면 하는 최영의 대답이다.

《이 역시 용병지술(전술)이야, 하하하.》

한번은 최영의 가까운 친척되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잡혔다.

관청에서는 그가 최영의 친척임을 알자 자기들은 어쩔수 없고 하여 그 죄를 덜어 살려주려고 죄인을 장군의 관할하에 있는 관청으로 넘기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영은 대노하였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면 응당 법대로 처리할 일이지 무엇때문에 분주를 떠느냐? 당장 제자리로 데려다 법대로 처리하라.》

최영은 일생 국사에만 전념하였다.

한번은 나라에서 란을 누르고 보물들을 몰수해왔다. 문무대신들은 모두 부러운 눈매로 바라보았지만 최영만은 그런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최영이 해도도통사로 있을 때 그의 병이 위중하므로 다른 장수들이 그것을 보고하려 했지만 그는 허락치 않았다.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에 나와서 어찌 병을 고려할수 있겠소.》 라고만 할뿐이였다.

최영은 시중으로 임명되여있으면서도 그저 보낸것이 아니라 군함 30여척을 건조하여 요새들에 배치하였으며 군사훈련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왜적의 침입이 완화되고 백성들은 더없이 기뻐하며 농사에 전력을 쏟아부었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왕이 최영을 표창하려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굳이 사양하였다.

《지금 국가창고가 비여있다고 하는데 그리하면 안되나이다. 신에게 있는 얼마되지 않는 쌀이나마 군량미로 보탤가 하나이다.》

최영은 량곡 200석을 내여 군량미로 하였으며 그후 다시 80석을 제공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살림에 피해를 주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

한번은 우왕이 행차하여 여러곳에 사냥하러 다녔는데 그곳 백성들은 그 접대에 죽을 지경이였다. 그런데다가 또 연안부 큰 못에서 고기구경까지 하겠다는것이다.

최영은 임금앞에 선뜻 나섰다.

《상감마마, 요즈음 모든것이 발라 대왕님을 접대하기 곤난한 이때 졸지에 행차하시오면 백성들의 피해가 많을줄로 아옵나이다.》

최영은 끝내 여러차례 설복시켜 왕의 행차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하기에 우왕도 최영의 정직성과 청렴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던 1388년 2월 명나라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왔다.

《철령이북땅은 예로부터 우리 땅이였으니 명나라가 원을 굴복시킨 지금은 마땅히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할것으로 보아지니 조처하여주시오.》

터무니가 없는 요구였다.

최영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얼토당토않은 수작이냐. 뻔뻔스러운것들, 무엇이 어쨌다구.》

당시 최영은 문하시중이라는 막강한 벼슬을 하고있었다.

곧 어전회의가 열리였다.

《한치도 절대로 줄수 없소. 이번 기회에 그놈들을 징벌해야 하오. 고구려의 옛땅도 되찾고 또 그놈들의 코대도 단방에 꺾어놓아야 하는것이오!》

최영이 어성을 높이였다.

이에 리성계는 반대하여나섰다.

《적이란 달래여 어루만져야 하나이다. 세력이 날로 커가는 명나라와 맞선다는것은 좋은 일이 못되나이다.》

그러나 최영의 요구는 강경하여 우왕도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건만 리성계는 더욱 야단을 부렸다. 그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것이 어려우며 농사철에 군사를 일으키는것이 바랄 일이 못된다느니, 왜구가 노리고있다느니 하면서 조건을 들고나왔다.

잠자코 있던 최영이 입을 터쳤다.

《기회란 한번 놓치면 다시 얻기가 조련치 않은것이요. 명나라가 대국이라 하지만 북원과의 싸움으로 료동에서 힘을 쓸 형편이 못되여 료동은 지금 무방비상태에 있으나 다름이 없소.》

최영이 하나하나 짚어가는데는 리성계도 말문이 막혔다. 우왕은 모든것을 최영에게 맡기면서 제옆에서 떠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최영장군이 내곁에 있지 않고서는 허전해서 마음이 좀처럼 놓이지 않는구려.》

우왕은 리성계에게 군사를 주어 출동시키고 최영은 자기옆에 두었다.

1388년 5월초 리성계의 정벌군은 위화도에 이르렀다. 때마침 더운 때라 비가 세차게 내려부었다.

료동은 눈앞에 보이건만 리성계는 물이 불어 길이 막힌것을 좋은 구실로 하여 회군할것을 결심했다. 일부 장수들이 강경히 반대해나섰지만 속에 딴꿈을 품고있는 리성계는 굽어들지 않고 제 주장만 내세우면서 끝내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돌아오고말았다. 리성계는 이통에 제가 정권을 쥐려는 속심이였다.

반란을 일으킨 리성계일당에 대처하여 최영은 즉시 성문을 모조리 닫고 1천명의 군사로 방어군을 조직하였다.

《내 역적무리들을 성안에 절대로 들여놓지 않으리라!》

백발을 휘날리며 관군을 이끌고 자신이 직접 성문을 막아나선 최영은 철통같이 봉쇄진을 펴나갔다. 그러나 력량상 너무도 큰 차이였다.

리성계는 쉬이 성을 돌파할수 없게 되자 꾀를 생각해냈는데 한 군사를 시켜 동문밖에 가서 소라를 멋지게 불도록 하였다. 이 소리에 동요된 성안의 백성 몇이 그만 문을 열고 나왔다.

이때를 노리고있던 리성계일당은 벌떼같이 달려들어가 최영부터 찾기 시작하였다.

《최영이 어디 있어? 어디 있는가 말이야?》

리성계는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사태가 급함을 느낀 최영은 후원 화초밭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잡힌 몸이 되였다.

우왕은 최영을 눈물로 바래웠다.

리성계는 최영을 고봉현(경기도 고양), 합포 등지에 류배보냈다가 7월에 다시 끌어올려다 개경의 순군옥에 가두고 료동원정의 《죄》를 심문하였다. 그런 다음 충주에 류배보냈다가 그해 12월 드디여 처형하였다. 최영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였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도모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니 실로 원통하기 그지없다. 내 만일 일신의 영달을 꾀했다면 모르거니와 추호도 그런 마음이 없었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을뿐이니 이는 내가 죽은 후에 력력히 알게 될것이다.

내 평생에 조금이라도 내 욕심을 차렸거나 남을 죄없이 해쳤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내 무덤에는 결코 풀이 돋지 않을것이다.》

그가 사망한 후 과연 그의 무덤에는 영영 풀이 돋아나지 않아 《붉은 무덤》으로 전하여졌다.

최영은 한생 외적을 반대하여 싸웠지만 생애의 마지막은 이같이

간신들의 모해에 의해 72살의 고령에 참형을 당하는 비극을 남기였다. 그는 처형당하는 순간까지 안색 한점 변함이 없이 태연자약하였다.

최영이 참형당하던 날 개경의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모든 가게점들을 닫고 아이들과 녀인들은 눈물을 흘리였다고 한다.

참형된 그의 시체가 길가에 놓여졌을 때 길가던 사람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정중한 자세로 경의를 표시했다고 한다.

《망국고사》의 저자인 원천석은 배신자들의 손에 비참히 살해된 최영을 두고 이런 시를 지었다.

홀로 조정에서는
감히 맞서는자 없었거니
충성과 의로움으로
모든 어려운 일 맡아나섰도다

여섯도의 병력을 거느렸을 때는
백성들의 신망이 자못 높았고
침략의 무리 무찔러
내 나라를 편히 하였어라

함께 싸우던 영웅은
얼굴이 너무 두꺼웠으니
간사한 놈들 다 없애지 못한것이
뼈에 사무쳐 억울하였으리

이 땅에 다시 란리가 일면
그 누구와 큰일을 의논하랴
우스워라 지금 사람들
악독한 꾀 내기를 좋아하누나

배원정책의 기치를 든 공민왕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세나라통일을 완수한 고려는 후세에 이르러 그 존엄과 위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4대왕이였던 원종의 대에 와서는 몽골의 굴욕적인 간섭을 받기 시작하였다.

원래 1260년대에 들어와 고려와 몽골사이에 강화가 맺어지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봉건적국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통치배들은 저들의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정치군사적으로 결탁하게 되였다.

더우기 원침략세력을 반대하여 일어난 삼별초군의 항전을 원나라군의 도움으로 진압할수 있었던 고려왕실은 외세를 등에 업을것을 타산하였다.

다른 한편 고려인민의 희생적인 항전으로 고려의 국토를 완전히 가로타고앉을수 없었던 원침략자들은 왕실자체를 틀어쥠으로써 인적, 물적자원을 수탈할것을 획책하였다.

이로부터 고려와 원나라사이에는 괴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우선 두 나라 왕실이 혼인관계를 맺게 되였다. 이것이 처음으로 론의되기는 1269년경부터였는데 1274년 5월에 이르러서 고려태자(충렬왕)와 원나라 세조 구비라이 딸사이의 정식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후 공민왕에 이르기까지 이런 결탁은 계속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 봉건력사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였다. 이것은 두 나라 통치세력이 저들의 왕권을 유지하려는 공통된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산물이였다.

이와 같이 고려에 대한 원의 간섭은 30대왕이였던 충정왕에 이르기까지 90여년간이나 계속되였다.

이에 울분을 터뜨리며 외세를 몰아내고 나라의 권위를 세워야 한

다는 주장을 세운 임금이 바로 31대왕인 공민왕이다.

공민왕은 1330년 충숙왕의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어릴 때 그의 이름을 기라고 하였다.

그가 태여났을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밑에 있었다. 때문에 고려왕자들은 왕이 되자고 해도 원나라에 가서 그 나라 풍습을 익힌 뒤에야 왕좌에 오르게 되여있었다.

공민왕도 여러차례 원나라에 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1341년 11살 나던 해에 공민왕은 원나라에 가게 되였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은 끝까지 주장해나서는 기질을 가진 공민왕은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 나라 왕이 되는데 무엇때문에 원의 풍습을 익혀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허무하기 그지없었다. 부모의 슬하를 떠나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에 가서 당치 않게 원의 여러가지 법도들을 들으며 앉아있자니 속에서는 커다란 그 무엇이 치밀었다.

하늘을 쳐다보니 커다란 뭉치구름이 뭉게뭉게 고려쪽으로 흘러가고있었다.

《아, 나는 언제면 제 땅으로 돌아갈수 있을가?》

공민왕은 어지러운 원의 법도보다도 그림을 비롯한 예술에 마음을 쏟아부으며 10년을 넘기였다.

드디여 그는 고려에 돌아오게 되였으며 왕이 되였다.

공민왕은 왕이 되면서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내 기어이 고려를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풍습도 원의것이 아니라 우리의것으로 하고 빼앗긴 땅도 모두 되찾으리라.

우리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아야 할 리유가 없다. 지금까지 묵어온 원의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의것으로 하리라.》

공민왕은 원나라를 배척하는 정사를 펴나갔다.

공민왕은 왕이 되자 문무백관들을 불러들이였다.

《여봐라, 듣거라. 백성들모두가 원나라식의 머리를 당장 자르게 하고 옷도 그것들의것은 완전히 벗어던지게 하라. 그리고 제

사를 비롯하여 일체 원나라의 풍습을 없애고 조상대대의 고려식으로 하도록 하여라.》

《알겠소이다.》

《이를 어기는 놈은 엄벌에 처하여 형틀에 올려앉히고 된 볼기를 치도록 하여라.》

공민왕의 호령은 추상같았다.

그는 관리제도부터 바로하려고 정방(관리를 승진시키거나 임명, 파면시키는 일을 말아하는 기관)을 페지하였다.

《너희들은 내 말대로 오늘부터 정방을 없애치워라. 뢰물놀음이 성해서 안되겠다.》

당시 정방은 관리임명이나 파면을 원나라의 비호밑에 저들에게 아부하는자들을 모두 뢰물을 받고 하다나니 나라의 관리제도가 허물어져가고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원나라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여 공민왕을 협박하면서 왕을 갈아치우겠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공민왕의 태도는 의연히 도고하였다.

《네놈들이 감히 어디다 대고 이래라저래라 야단이냐. 제 떡이나 먹고 제 나라 백성이나 다스릴것이지.》

공민왕은 사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쫓아버렸다.

공민왕은 당시의 형편에서 원침략세력과 친원파관료들을 몰아내야만 자신의 권력을 든든히 할수 있다는것을 타산하였다.

공민왕은 원세력을 구축하는데서 우선 가장 큰 친원관료이며 반역을 음모하던 기가일족을 타도하는것부터 시작하였다.

이 일당의 우두머리인 기철은 원나라 순제의 제2황후로 있는 제 누이동생의 힘을 믿고 나라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있었다. 기철은 정동행성의 참지정사, 료양행성의 평장벼슬을 하였으며 대사도(원나라 벼슬)로까지 지내면서 공민왕에게 이제는 신하라는 말도 쓰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다. 특히 원나라의 황족인 제 누이가 낳은 아들이 황태자로 임명되자 이 일족은 더욱 기가 뻗쳐나 고려왕정에서 큰 세력을 차지하였으며 원나라의 힘을 빌어 손쉽게 고려왕자리를 가로채려고까지 하였다. 그리

하여 이자들은 원의 비호밑에 쌍성지방의 봉건세력들을 규합하여 고려왕정을 뒤집어엎기 위한 반란을 음모하였다.
공민왕은 왕위에 오른지 5년이 되는 해 5월 연회를 차리고 기가일족을 왕궁에 불러들인 후 일시에 체포하고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처형하도록 하였다.
《고얀놈들, 한놈도 남기지 말고 처리해치워라.》
공민왕은 높다란 왕좌에 올라 결박당한 기철의 일속들을 노려보면서 령을 내렸다.
다음으로 공민왕은 원나라가 일본을 징벌한다는 구실밑에 고려에 설치했던 《정동행중서성리문소》를 철폐하였다. 이는 사실상 원의 고려정부에 대한 간섭도구였으며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이때 사치와 놀음에 빠져있던 원나라측은 사방에서 농민들이 들고일어나자 고려에 사신을 보내여 반란군진압에 힘을 보태여줄것을 청해왔다.
이것을 좋은 기회로 여긴 공민왕은 충신 최영을 대장으로 파견하여 원의 실태를 알아오게 하였다.
원에 갔다온 최영은 사실을 그대로 아뢰였다.
《폐하, 원은 그전의것이 아니옵니다. 왕실모두가 타락한 놀이에만 빠져있으니 오래갈것 같지 못하옵니다. 우리 고려는 이 기회에 막강한 힘으로 그놈들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될줄로 아옵니다.》
공민왕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공민왕은 동북면과 서북면에 대군을 출동시켜 압록강이북과 쌍성지방을 동시에 들이쳤다.
1356년 병마사 인당이 인솔한 고려군은 압록강넘어 파사부(구련성) 등을 치고 원나라군의 군사거점을 녹여냈으며 침략자들을 모조리 쫓아버렸다.
또한 동북면에서는 애국적인 봉건세력, 인민들과 손을 잡고 《쌍성총관부》를 함락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계속 추격하여 원침략군을 이판령(마천령)에서 섬멸해버

렸다.

그리하여 고려는 99년만에 동북지방을 되찾는 전과를 올렸다.

이 일대에서 원침략군을 몰아냄으로써 함경도지방의 거의 전부가 고려의 손에 다시 장악되였다.

공민왕은 이런 군사적행동과 함께 원나라식으로 되여있던 모든 제도를 뜯어고쳤다. 지금까지 써오던 년호도 쓰지 못하게 하였다.

원을 반대하는 투쟁이 이처럼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은 이 투쟁에 인민들이 발벗고 함께 나섰기때문이다. 물론 공민왕의 강경정책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인민의 지향에 부합되였기에 백성들이 극력 따라나섰던것이다.

1356년 10월 공민왕은 정당문학 리인복을 원에 파견하여 고려가 《정동행중서성리문소》를 해체한것은 정당하며 쌍성과 삼살(북청)지방도 원래 우리 땅이므로 고려가 이를 되찾는것은 응당한 권리라는것을 선언하였다.

공민왕은 고려해안지방에 나타나 마을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략탈해가는 왜놈들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로써 제압하는 한편 홍두적의 침입을 막는데도 힘을 넣었다.

1359년 12월 어느날 서부국경일대에서 급보가 왔다.

《전하, 아뢰옵니다.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른 무리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오고있소이다!》

이리하여 고려인민은 홍두적과의 싸움을 벌리게 되였다.

원래 홍두적은 원의 지배를 반대하여 일어난 농민폭동군이였는데 점차 그 우두머리들의 변질로 하여 략탈자로 전락된 침략군이였다.

원나라통치시기 한족들의 폭동은 135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여러곳에서 힘차게 일어났는데 1358년 그들의 한 부대가 상도(원나라 제2수도)를 점령한 후 료동일대를 짓뭉개면서 1359년에는 압록강을 넘어섰던것이다.

4만의 홍두적과 대전한 이 시기 고려인민들의 투쟁은 서경탈환전투와 안우, 리방실의 지휘밑에 2만의 홍두적을 쓸어눕힌 함

종에서의 큰 승리를 계기로 전면적인 추격전으로 넘어갔으며 도망치는 적군을 모조리 무찔러버렸다. 이리하여 홍두적의 1차침입은 우리의 승리로 결속되였다.

그러나 1361년 료동지방에서 원나라군대와의 싸움에 패한 홍두적은 만리장성을 넘어 하북지방으로 넘어갈 길이 막히게 되자 발길을 돌려 또다시 고려지경으로 쳐들어왔다.

20만의 대군은 고려의 북쪽땅을 차지하면서 자비령(황해북도 서흥)까지 먹어들어왔다.

개경이 위태로와지자 공민왕은 할수없이 궁궐을 뜨게 되였다. 공민왕이 복주에 이르렀을 때 홍두적이 개경을 차지했다는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되였다.

《아, 이 무슨 변고인고. 그렇게 될수 없다, 없어.》

공민왕은 정세운에게 20만의 군사를 주어 개경을 탈환할것을 명령했다.

《상장군 정세운은 기어이 개경을 도적떼의 손에서 빼내야 하느니라.》

단숨에 개경으로 달려간 고려군사들은 1362년 1월 홍두적을 삽시에 무찔렀다. 이때 개경은 홍두적의 시체로 덮였다고 한다.

개경으로 돌아온 공민왕은 불탄 왕궁을 보수하는 기간 흥왕사에 들기로 하였다.

이무렵 원나라 순제의 황후는 제 오래비의 복수를 벼르던 나머지 간신인 김용을 꾀여 공민왕을 암살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그를 죽여라. 그러면 너에게 부귀와 황금이 차례질게다. 알아들었느냐?》

《내 기어이 해제끼고 오겠소이다.》

공민왕이 흥왕사에 든다는것을 안 김용은 제 무리를 이끌고 왕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수상쩍은 김용의 태도를 눈여겨 살피던 충신 최영에 의해 놈의 기도는 파탄되고 공민왕은 사전에 구원되였다.

김용의 무리들은 몽땅 처단되였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교활한 태도에 더욱더 돌아앉고 배척하게 되

였다.

그러나 공민왕의 말년은 좋게 끝나지 못하였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공주를 안해로 들인 후 그를 몹시 사랑하였는데 몸을 풀다가 그만 죽게 되였다. 이때부터 공민왕은 나라일을 점차 멀리하고 제 방에서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를 걱정하는 신하들도 없지 않았다.

어느날 한 신하가 공민왕앞에 와서 엎드렸다.

《전하, 옥천사(절이름)에 덕이 높은 스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를 불러 부처님의 덕을 입으심이 어떠하올지…》

그러자 공민왕은 두말없이 그를 불러들이라 하였다.

중인 편조가 왕궁에 들어오자 공민왕은 모든 정사를 그에게 맡기고 귀족칭호를 주었으며 높은 벼슬까지 내렸다. 얼마후 편조는 이름까지 신돈으로 바꾸고 나라의 일등가는 세도가로 되였다.

원래 옥천사에 있는 녀종의 아들이였던 신돈은 왕이 무슨 근심이라도 생기면 여러가지 불교행사들을 벌려 공민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지어 신돈은 개경의 세력있는 량반들이 자기의 벼슬을 빼앗기라도 할가봐 또 새로운 꾀를 꾸며냈다.

《상감마마, 아무래도 도읍을 옮겨야 될상싶소이다. 여기에 그냥 두게 되면 나라에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것으로 보이나이다.》

공민왕은 이 말이 비위에 거슬렸다. 그래서 좀 두고보자는 식으로 잘라버렸다.

그로부터 몇달후 공민왕자신이 지방에 파견했던 어느 한 관리가 돌아와서는 먼저 신돈에게 보고하고 다음에 자기에게 올라오는 것이였다. 부아가 치밀어오른 공민왕은 그 관리를 그자리에서 먼 지방으로 귀양보냈다.

그러자 신돈은 점차 무서운 마음을 먹기 시작하였다.

《죽여버릴테다. …》

하지만 다행히 신돈의 부하 하나가 이 사실을 미리 알리여 공민

왕은 구원되였다. 그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공민왕은 그날로 신돈일당의 목을 모조리 베였다.

신돈을 없앤 후에도 공민왕은 여전히 정사에는 생각이 없고 술놀이에 더욱더 깊이 빠졌다.

그러다가 아첨군들의 살인모의에 걸려들어 침상에서 칼에 찔려 왕위에 오른지 23년만인 1374년 9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공민왕은 왕권을 쥔 초시기 근 한세기 가까이 내려오던 고려―원관계를 개변하고 원침략세력을 몰아냈을뿐아니라 빼앗긴 우리 땅을 되찾고 원의 간섭하의 모든 제도를 바로잡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러나 공민왕은 이를 마지막까지 견제하지 못하였으며 사사에 눈길을 돌리고 정사를 줘던짐으로써 후세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였다.

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공민왕은 글씨와 그림에서 뛰여난 솜씨를 보여주었고 그의 그림 《천산대렵도》는 오늘까지 남아있다.

화약과 화약무기를 제조한 최무선

20살에 이른 최무선은 군기감에서 일을 하게 되였다. 무엇이든지 기술적인 문제이면 그냥 스치지 않는 그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란 모두 왜구들이 포구에 기여들어 우리 백성들을 학살하고 로략질한다는 소식뿐이였다. 어제도 진주에 래습한 왜구의 한 무리가 그곳 호장의 안해인 30대의 최씨를 겁탈하려 하였는데 최씨는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개놈들에게 욕을 보겠는가고 하면서 끝까지 맞서싸웠다는것이다.

그러자 놈들은 최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버린채 그의 두 아들을 끌고 도망쳤다 한다. 이런 일은 한두번이 아니였다.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있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놈들의 배를 불살라버리자면 화약이 있어야 할텐데. 아, 화약. 그렇다, 화약을 만들어내야 한다. 화약도 사람이 만들어낸것인데 연구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성공할수 있다.)

최무선은 화약을 만들어 왜적의 배들을 모조리 쳐부시리라 결심다지였다.

그리고 더욱 극성스럽게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최무선은 1326년 개경에서 광흥창사(관리들에게 주는 쌀을 보관하는 창고)의 책임자였던 최동순의 아들로 태여났는데 그의 조상들은 경상도 영천에서 살았다.

최무선은 어릴 때부터 왜구들이 우리 해안에 기여올라 재물을 빼앗아가고 유부녀들을 겁탈하는 등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는것을 눈으로 보았고 아버지로부터 해적들의 행패와 우리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들으면서 자라왔다. 이럴 때면 어린 그의 가슴은 악귀같은 놈들에 대한 증오로 하여 끓어올랐다.

이런 사실들은 최무선에게 고려의 남아로서 짐승같은 행위를 일삼는 왜구를 격퇴하고 나라와 백성들이 화를 입지 않게 할 방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였는데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이것은 더욱 굳어졌다.

《바다로 침입하는 적은 바다에서 물리쳐야 한다.》

이것이 최무선의 주장이였다. 그는 화공을 써서 악독한 왜구들을 몽땅 불살라버리고싶었다. 그러자면 화약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화약을 만드는 기술자도, 화약제조법에 관한 책도 변변히 전해지는것이 없었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멀리 원나라에서 화약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나라의 비밀이므로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기어이 화약을 만들어 왜구를 치려는 마음은 더욱 굳어져만 갔다.

최무선은 관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옷도 벗을새없이 책을 뒤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 어떤 날에는 온밤을 꼬박 새는 일도 있었다.

그는 우연히 흰 소금 만드는 곳에 갔다가 중요한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소금이 물에 녹는 리치인것이다. 그 리치대로 하면 염초도 얻어낼상싶었다.

그는 급히 진토들을 긁어내여 물에 녹여보려 하였다. 그런데 어쩐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번 거듭 웃물을 다시 졸여도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왜 그럴가. 내가 무엇을 놓치고있는것일가?》

최무선은 열번, 스무번을 거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집마당 한구석에 초막을 따로 짓고 실험실을 하나 꾸리였다. 하인들을 시켜 집집의 마루바닥 흙을 긁어오게 하고 또 그것으로 염초를 만들기 위해 실험을 거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생각같아서는 원나라에 당장 달려가 그 비밀을 알아오고싶었지만 그렇게 할수도 없으니 가슴만 타들어왔다.

여러차례의 실험에서 흰 가루가 얻어졌지만 그것 역시 불에 탈

듯말듯 하더니만 사그라지는것이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동네사람들은 최무선이 정신이 돌았다고 손가락질했다.
《저 사람은 염초에 아마 정신이 나갔나봐요.》
《그러게 말이요. 그 화약인지 무언지 한다면서 온 동네 마루바닥을 몽땅 긁어가니, 내 참 우스워서.》
이젠 최무선네 집 하인들까지도 그의 말을 곧이 듣지 않게 되였다.
그러나 최무선은 조금도 락심하지 않았다.
(내 반드시 화약과 화약무기를 만들어내고야말리라.)
최무선은 머리도 쉴겸 배를 타고 례성강가로 나갔다. 원나라상인들속에 혹시 염초의 비밀을 알고있는 사람이 끼여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였다.
그는 행인의 발길이 시작되기 전인 이른새벽부터 부두로 나가 무역선을 타려고 여기에 오거나 배에서 내리는 원나라사람이면 누구를 불문하고 붙어잡아 염초와 화약제조에 대하여 물었다. 그리고 밤이 이슥해져서야 무거운 다리를 끌며 마을로 돌아오군 하였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군다나 원나라에서는 그 기술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것을 막고있었기때문에 설사 알고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가르쳐주는 일이 아니였다.
이렇게 하기를 한해 또 한해가 지나갔다. 그래도 최무선은 멈추지 않았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느날 최무선은 강가에서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고 산천경개를 바라보는 무역상인인 리원이라는 중년의 사나이와 알게 되였다.
최무선도 이미 중년기에 들어섰기에 그들 둘은 노을이 물든 먼바다를 바라보며 두 나라의 공동의 적인 왜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최무선은 그를 자기 집에 초청하였다.
《로형, 우리 집에 묵으면서 강남이야기나 좀 해주시구려.》

《그렇게 신세를 지고서 언제 갚겠소.》
《원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이제야 친구로 되였는데 무얼…》
최무선은 리원을 자기 집에 들이고 극진히 환대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화약을 연구하는데 그 비밀을 몰라 안타깝다는 심정도 비치였다.
사실 리원은 염초제조의 비밀을 얼마간 알고있었다. 리원은 최무선의 집에 며칠 묵는 과정에 그의 높은 애국지심에 감동되였다.
(이 일이 좋은 일인데 내가 어찌 모른다고만 하겠는가. 내가 알고있는 염초 구워내는 방법만이라도 알려주자.)
리원은 최무선에게 자기가 알고있는 모든것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하여 《태조실록》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다.
《왜구를 제압하는데는 화약이 제일이라고 언제나 말들을 하였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 만드는 방법을 아직 모르고있었다. 최무선은 매번 강남으로부터 상인들이 올 때마다 그 만드는 방법을 물었는데 한 상인이 대충 안다고 대답하였다.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수십일동안 캐여물으니 드디여 그 만드는 법을 대략 짐작하게 되였다.》
화약무기를 만들어내자면 화약을 먼저 만들어내야 하는것이며 화약을 만들자면 그 주성분인 염초의 제조방법을 알아내는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화약의 기본3요소인 염초, 반묘(류황), 숯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는데서 힘든것은 염초인것이다. 류황이란 자연상태로 있는 광물이며 또 숯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염초가 문제였다.
최무선은 령리한 머슴인 돌쇠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사업을 벌려나갔다. 그는 침식을 잊다싶이 하면서 자기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집들의 마루바닥들을 모두 뒤져 그밑에 깔린 오래된 먼지들과 바닥흙을 긁어모아 끓여서 염초를 얻어냈다.
최무선은 무척 기뻤다.
최무선은 기어이 성공하려는 굳은 결심밑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내여 실험용자재와 기구들을 마련하였고 온 집안사람들을 연

구사업에 인입하였다. 그는 돌쇠와 같은 종들의 창발적인 의견들도 기꺼이 참작하여 염초와 류황의 배합비률확정 등 화약을 얻어내기 위한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사업은 순조롭지 못하였다. 실험성과가 보일듯하던 여름 례성강을 거슬러올라 옹진지방에 침입한 왜구들은 략탈과 방화를 감행했다. 젊은이들은 모두 방어군으로 왜구격멸에 떨쳐나섰다.

화약연구중에 왜구들의 침입소식에 접한 최무선은 생각이 깊었다.

(이 일도, 저 일도 모두 나라를 위한 일이다. 지금 당장은 나라가 위급하니 연구는 중단하고 나라부터 건져내야 한다. 원쑤를 치러 떠나자.)

최무선은 싸움터로 달려나가 왜구들을 격멸하는 싸움의 앞장에 섰다.

싸움이 끝나자 최무선은 다시금 연구에 달라붙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실험을 해나가던 어느날 새벽이였다. 최무선은 갑자기 《펑》하는 폭발소리와 함께 연기로 사라지는 물질을 발견하였다.

그는 너무 기뻐 새벽이라는것도 잊어버린채 정신나간 사람처럼 소리쳤다.

《성사요! 성사요! 이젠 알았소, 이젠 알았소!》

이 소리에 온 집안이 깨여났다. 그러거나말거나 그는 역한 화약내만이 가득찬 실험실에서 웃고울고 떠들며 춤까지 추어댔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또다시 송악산에 봉화가 오른것이다. 국난이 닥쳐왔으니 최무선은 다시금 연구를 중단하고 자진하여 싸움터로 나갔다. 떠나기에 앞서 그는 연구에 사용하던 기구들과 원료들을 묶어 깊이 간수하면서 어린 아들을 앞에 불러앉히고 엄숙히 말하였다.

《만약 내게 잘못이 생겨 살아 생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손치더라도 너는 이 아비의 뜻을 이어 반드시 〈화약군기〉를 완성해야 한다.》

2년간의 힘겨운 싸움에서 고려군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그가 싸움에서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부친과 맏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거처할 집마저 남지 않았다. 그래도 연구자료만은 보관했던 그대로 있었다.

최무선은 조금도 락심하지 않고 앞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연구를 다시 시작하였다. 자금도 없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때로는 끼니를 건느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사업만은 중단하지 않았다.

드디여 1373년 10월 최무선은 염초에 류황과 숯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화약제조에 성공하고야말았다.

최무선은 돌쇠와 함께 인적없는 산속에 들어가 화약의 위력을 시험해보았다. 화약의 힘은 아름드리나무를 송두리채 뽑아버렸으며 날아가던 새들까지 떨구었다.

최무선은 자기와 함께 그렇게도 고심해온 돌쇠를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였다.

《돌쇠야, 수고했다. …》

《아닙니다. 저야 심부름밖에 더한것이 있습니까.》

며칠후 최무선은 화약을 싸서 돌쇠에게 지워가지고 대량제조를 조정에 제기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러나 한 발명가의 수고를 귀히 알아줄 정부가 못되였다. 권력쟁탈과 재산로략질외에 다른것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봉건관리들이였다. 근시안적인 봉건통치배들은 화약의 위력도, 화약무기의 성능도 알려하지 않았고 심지어 협잡을 한다고 비웃기까지 하는자들도 있었다.

최무선은 굽힘없이 화약과 화약무기를 만들어 왜적들을 격멸해야 한다는것을 력설했지만 그들은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아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말해야 한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일이 아닌가!)

최무선은 거절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열을 올려 설명했다.

최무선은 당시 왜적과의 싸움에서 이름을 떨치고있던 라세를 찾아가 의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라세를 앞세우고 바다물이

넘나드는 서해기슭으로 나가 화약의 폭발력을 보여주었다.

《꽝! 꽝!》

하늘땅을 진동하는 화약의 위력은 대단하였다.

폭음에 뒤이어 군인들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저 굉장한 힘으로 왜구들을 친다면 얼마나 통쾌하랴!

이것은 시험을 목격한 군사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거듭되는 최무선의 요구와 라세를 비롯한 군인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하여 봉건정부에서도 가만있을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1377년 10월 화통도감이라는 화약과 화약무기를 만드는 기관이 새롭게 설치되였다. 최무선은 여기 책임자인 제조로 임명되였다. 그는 밤낮을 가림없이 화약제조를 지휘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화약을 생산하였다. 이때 최무선의 나이는 벌써 51살이였다. 그가 화약연구에 첫걸음을 내디디던 때로부터 어언 30년의 세월이 흐른것이다. 20대의 홍안의 청년기에 오직 왜구들을 쳐없애고 내 나라를 철옹성같이 지켜내리라는 단 한가지 결심을 안고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로년기에 들어선것이다.

그러나 화약의 제조는 다만 첫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위력있는 화약을 써먹으려면 시급히 화약무기를 만들어내야 했던것이다. 최무선은 또다시 화약무기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리하여 최무선은 여기에서도 커다란 업적을 남기였다.

1413년에 편찬된 《태조실록》에서는 최무선이 만든 화약무기를 이렇게 들었다.

대장군포, 이장군포, 삼장군포, 륙화석포, 화포, 신포, 질려포 그리고 불화살 또는 포탄들로서 화전, 철령전, 피경전, 철탄자, 류화, 주화…

이 무기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하나는 발사기의 역할을 하는 포 또는 총에 해당하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발사물이다.

화포, 화통은 적의 배를 파괴할뿐아니라 천지를 진동하는 요란한 폭음을 내기때문에 우선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여 그들이 주눅이 들게 만드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화약무기를 다루는 기술병종이며 특수병종으로서의 포병이 나타났다. 포병의 출현은 우리 나라 중세 병제의 발전과 변화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는것이였다. 포병의 편성은 무엇보다 수군의 위력을 강화하고 왜구들을 바다에 처넣을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최무선은 이 화약무기를 적재할수 있고 사용할수 있는 함선제작에 착수하였다. 종래의 배로는 대포의 발사시 그 진동에 의해 배가 파손되거나 뒤집힐수 있는 위험이 다분하였다.

때문에 화약무기의 함선은 습기방지와 함께 견고한 시설들이 갖추어진것으로 되여야 하였다.

그러자면 고도의 정밀성과 수력학적인 계산이 필요하였다.

최무선은 비상한 노력으로 이러한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마침내 훌륭한 함선도 만들어냈다. 화포를 쏠 때 배의 진동을 막기 위해 배전의 높이를 낮추고 갑판구조도 견고하게 하여 대포를 고착시켰다.

또한 배안의 습기로 화약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해냈다.

최무선이 만들어낸 화포는 명중률이 대단히 높았으며 그 위력이 상당하였다.

그러한 때인 1380년 8월 수만의 왜구가 500척의 함선을 몰아 진포(금강하구)앞바다로 침입하여 략탈과 만행을 감행하려들었다.

적들을 일격에 소멸하자는 최무선의 제의대로 정부에서는 그를 부원수로 임명하고 그가 발명한 신식화약무기로 장비한 100여척의 배들을 출동시켰다.

드디여 원쑤놈들을 요정내기 위하여 수없는 나날을 바쳐 연구하고 만들어낸 화약무기의 위력을 발휘할 때가 온것이다. 한달음에 진포로 달려간 최무선은 즉시 힘찬 공격명령을 내리였다.

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포탄을 날리였다.

《쾅! 쾅!…》

천지를 진감하는 요란한 폭음이 바다를 들었다놓는 가운데 포탄은 어김없이 목표에 명중되였으며 왜적의 배들은 불길에 휩싸였다. 진포앞바다는 온통 충천하는 화염으로 뒤덮이였다.

《참으로 어디에 견줄데가 없이 훌륭하구나!》

포의 위력앞에 고려군사들은 기뻐 어쩔줄을 몰랐다.

최무선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아,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오늘이던가!)

불붙은 배에서 바다에 뛰여내리는 놈, 발광끝에 타죽는 놈, 포탄에 맞아 하늘높이 날아오르는 놈, 진포앞바다는 죽어가는 왜구의 비명소리로 가득찼다.

《고려사》에는 이 진포대승리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였다.

《진포에 이르러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써 적선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차고 배를 지키던 적들은 거의다 타서 죽었으며 물에 빠져죽은자 부지기수였다.》

이 싸움에서 고려군대는 적함 500척을 몽땅 불살라버리는 전과를 올리였다.

화약무기로 장비된 고려함대는 1382년 곤양(경상남도 사천군앞바다)싸움과 1383년 박두양(경상남도 남해군앞바다)싸움에서도 커다란 전과를 이룩하였다.

이리하여 오래동안 계속되던 왜구의 침입은 한동안 근절되였다.

고려정부는 최무선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지문하부사》라는 관직을 주었다.

최무선은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1389년에는 자신이 직접 남해관음포에 내려가 침입한 왜구들을 격파하였으며 정부의 조치로 화통도감이 철페되자 저술사업을 시작하였다.

《책을 써서 아들에게 넘겨주자.》

아들은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다. 맏이를 원쑤들에게 빼앗기고 늦게 본 아들이니 별수 없는 일이였다.

최무선은 한자한자 정성을 담아 화약과 화약무기에 대한 책을 써나갔다.

그리고 얼마후에는 아들 해산과 부인을 머리맡에 불러앉히고 마지막말을 남기였다.

《뒤일을 부탁하오.》

최무선은 자기의 땀이 스민 저작을 부인에게 맡기면서 간곡한 부탁을 하였다.

《해산이 크게 되면 이것을 두었다 주오. 아마 요긴하게 쓰이게 될게요.

해산아, 내 뜻을 네가 이어나가야 한다. 그래서 대를 이어 화약 만드는 법을 전해가거라.》

최무선은 아들의 손을 꽉 잡은채 눈을 감았다. 이날은 1395년 4월 19일이였다. 이렇게 그는 69살을 일기로 생을 마치였다.

최무선의 사망후 봉건정부에서는 왜구를 물리치고 나라의 안전을 지켜낸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정승으로 천거하고 영성부원군으로 추봉하였다.

일반적으로 봉건시기에는 과학기술적발명들이 비밀에 붙여져 다음세대에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화약의 비밀은 최무선의 유언대로 최해산에게로 넘어왔으며 화약제조의 기본지도서로서 1487년에는 그의 손자 최식에 의하여 봉건정부에 바쳐지게 되였다.

최해산은 10여년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충실히 일하였다.

그리고 커다란 화약제조공장이 새로 세워져 화약감조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뒤 최해산은 벼슬이 군기감 판사로서 군기감에서는 최고책임자로 승진되였다. 최해산은 화약무기를 더욱 깊이 연구하여 여러가지 무기들을 새롭게 발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최무선에 의하여 배에 화약으로 제조된 화포를 설치하고 싸움을 벌린것은 세계해전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사실이였다.

유럽의 실례를 들어보면 화포를 가지고 바다싸움이 벌어진것은 베니찌아, 제노아, 에스빠냐의 련합함대가 뛰르끼예함대를 격파한 1571년 레빤토바다싸움이 처음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보다 근 200년이나 뒤에 있은 일이다.

이와 같이 최무선을 비롯한 우리의 조상들은 화약의 기술적발명과 화포사용에서도 세계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름난 시인이였던 권근(1352-1409)은 30년동안 우리 인민을 괴롭히던 왜구를 하루아침에 하늘로 날려보낸 최무선의 공로를 순풍에 돛달아 새떼처럼 빨리 오는 배들을 우뢰소리 천지를 흔들며 화포로 짓부셔버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그대 붉은 마음으로 화포를 만들어
첫 싸움에 흉한 원쑤를
모조리 무찔렀도다
하늘에 서린 도적의 기세는
연기와 더불어 흩어져버리고
세상에 떨친 공명이여
해빛과 함께 널리 퍼지리

(15세기의 량반학자이며 관리인 량성지는 우리 나라 화포의 력사에 대하여 그것이 신라때에 처음 나왔고 고려때에 발전되였으며 리조때에 완성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화약과 화약무기의 연원이 매우 오래다는것을 말한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염초제조법은 14세기말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발명되였으나 그것이 전습되지 않은채로 내려오다가 이때에 와서 다시 발명되였을수 있다.

일반적으로 봉건시기에는 이러저러한 과학기술적발명의 내용이 비밀에 붙여지고 다른 사람, 다음세대에 전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왕조를 지키려던 정몽주

화창한 봄날 몇순배 술이 오가자 리방원이 먼저 시조 한수를 슬그머니 던지였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그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백년까지 누리리라

리방원의 속심을 벌써 넘겨짚은 정몽주가 이에 거침없이 화답했다.

이 몸이 죽어죽어 열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여 넋이라도 있고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님 향한 일편단심, 고려왕권을 지키려는 정몽주의 마음은 드팀이 없는것이였다. 이것이 바로 정몽주의 유명한 《단심가》이다.

시조를 마치자 그는 군말없이 일어서서 리방원의 집을 나섰다. 자기의 생각을 쏟아놓았으니 더 앉아있은들 무엇하랴.

고려의 마지막충신인 정몽주는 이처럼 절개굳은 사나이였다.

고려 말기의 이름난 유학자이며 또한 고려를 지켜 목숨을 바친 충신인 정몽주는 1337년에 고려초시기의 문인이였던 정습명의 후손으로 태여났다. 그는 호를 포은이라 하였고 자는 달가, 시호는 문충이라고 하였다.

정몽주의 어깨에는 날 때부터 일곱개의 검은 김이 북두칠성처럼

두드러져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다. 어린시절 그의 애칭은 몽란 또는 몽룡으로 불리웠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뛰여난 재능을 보이였다. 어릴 때 그가 지은 글이 얼마나 신통하였던지 마을의 늙은이들이 또 한번 더 지어보라고 거듭 졸라대는 바람에 때로는 해지는것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몽주의 글재주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화도 있다.

그가 9살되던 해에 외가집에 놀러간 일이 있었다. 거기에는 일을 보아주던 녀자종이 있었는데 글 잘 짓는다는 그앞에서 선뜻 말은 떼지 못하고 망설이고있는것이였다.

정몽주는 녀인의 심중을 재빨리 포착하고 어서 이야기해보라고 따뜻이 말하였다.

어린 소년인 그가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을것 같지 못해 차마 말을 못떼고있던 녀인은 그제야 남편이 멀리에 나가있는데 문안편지를 보내자니 글을 몰라 안타깝다는것을 슬며시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순간 정몽주는 가볍게 웃음을 지은 후 녀인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글귀를 고르었다.

그는 기발한 착상으로 번개같이 간단명료한 편지를 써서 녀인에게 주었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녀인은 만족스런 표정이 아니였다.

자기 생각같아서는 그 종이장이 넘쳐나도록 그리운 랑군님께 쓰고 또 써도 모자랄것 같은데 고작 글자 몇개에 지나지 않으니 도무지 성차지 않았다.

(아이참, 문안이나 담았을가?…)

녀인은 이 심정을 다시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간절한 심정을 모두 담아 다시 써달라고 간청해댔다.

웃음을 머금은 정몽주는 두말없이 봉했던 봉투를 뜯고 두줄을 더 썼다.

녀인은 그때까지도 편지내용이 제 마음을 담기엔 너무도 적다고 생각됐지만 더 어쩔수 없고 하여 그것을 받아 남편에게 보내였다.

이 편지가 바로 정몽주의 유명한 《상사곡》이다.

>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 달은 찼다가도 기울지만
> 안해의 마음 변함이 없소이다
> (봉한것을 뜯고 다시 한마디 더 씁니다.)
> 세상에 병이 많은들
> 상사병만 하오리까

어린 정몽주는 자기곁을 떠나서 먼곳에 거처하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녀인의 깨끗하고 변함없는 심정을 이렇게 간결한 글귀에 담아주었던것이다.

이 편지체문장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세대를 건너 오늘에까지 이른것이다.

이렇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문장에 밝았고 사람의 심리를 깊이 살펴볼줄 알았다.

정몽주는 21살되던 해에 국자감에서 주최하는 감시에 합격하였다.

어머니는 그를 축하하여 례복 한벌을 만들어주었다. 옷을 받아든 그는 안감으로 붉은 색갈의 천을 댄것을 보더니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 옷의 안을 무슨 리유로 붉은 천으로 넣으셨소이까?》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너도 장차 벼슬길에 나서면 고려왕조를 섬기게 되겠는데 그길에서는 언제나 일편단심이여야 한다. 붉은 색갈이란 그런 뜻을 새기고있으니 너도 한마음 충신으로 살라고 그리하였다.》

《어머님, 알겠소이다. 그길에서 드팀이 없을줄로 아시오이다.》

과연 정몽주는 그 마음을 변치 않았다.

그는 23살이 되던 해인 1360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예문

관 검열로부터 벼슬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항시 그는 어머님의 말을 잊지 않았다.

《벼슬이란 결코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라를 옳바로 다스리고 백성을 잘살도록 하는것이 벼슬이다. …너는 언제나 나라에 충성하고 바른 일을 하며 한마디의 말을 해도 대의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몽주는 례조정랑, 성균관 박사, 사성, 대사성, 정당문학을 거쳐 수문하시중이라는 고려의 최고관직에까지 올랐다.

고려말 정세가 복잡해지자 정몽주는 어지러워진 봉건통치를 바로잡고 나라를 일으켜세워보려고 모든 힘을 다하였다.

외적의 침입으로 국경연선들에서 전란이 그치지 않고 또한 공민왕이 살해되여 우왕이 왕좌에 오르는 등 곡절이 거듭되는데다 임금의 방탕한 생활로 궁궐안은 소란스럽기 그지없었다.

이런 때에 정몽주는 적극적으로 일을 벌려나갔다.

그는 먼저 대지주들의 전횡을 막고 고려왕권을 유지하는데 힘을 돌리였다.

그는 문란해질대로 문란해진 지방관리임명제도를 바로잡아 관리선발을 돈이나 뢰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엄선하도록 하였고 나라의 법을 옳게 세워나가는데로 끌고나갔다.

정몽주는 당시 도평의사록사가 국왕의 비준도 없이 제 마음대로 국고에 손을 대여 돈과 쌀을 망탕 출고하던 문란한 제도를 뜯어고치여 경력과 도사라는 직제를 새롭게 내오도록 하고 출납관계를 장부에 명확히 기록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귀한 재산을 사취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없게 하였으며 언제나 장부를 펼치기만 하면 환하게 적혀있도록 엄한 통제를 하였다.

정몽주는 의창을 세우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수참이라는것도 설치하여 평민들이 편리하게 하였으며 운수문제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풀었다.

그는 또한 당시 착잡하게 엉켰던 대외사업을 풀기 위한 외교활동도 적극 벌렸다.

1368년 조정에서는 명나라와 원나라와의 관계문제를 놓고 론

쟁이 붙었는데 정몽주는 망해가는 원나라가 아니라 새로 일떠선 명나라와의 친선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사신의 임무를 지니고 명나라를 방문하여 걸린 문제들을 풀었던것이다.

그때 망망한 바다길에 나선 정몽주는 그리운 고향과 어린 두 아들을 생각하였다.

백가지 생각 재같이 식었으나
마음에 걸리는건 오직 두 아이
아직 어미품을 떠나지 못했으나
벌써 옛사람의 시를 외네

내 무슨 좋은 일을 쌓았으랴만
이름 남길건 너희들 둘뿐
다 쇠하여 늙어진 날이 되여야
너희들 어른된 모습 보겠네

그는 자식들의 장래를 그리면서 나라 위한 사절단의 사업을 목숨 걸고 맡아나섰다.

명나라 태조도 정몽주를 비롯한 일행의 례절있는 인사와 그들의 높은 품위에 감탄하여 정중하게 대하였고 명나라에 류학생들을 보내겠다는 정몽주의 제의를 기꺼이 수락하였다.

일을 무사히 끝내고 그들이 바다길에 나섰을 때 그만 파도에 휘말려 표류되는 격난을 당하였지만 정몽주는 목숨보다도 나라의 외교문서를 더 중하게 여기였다. 그런데 다행히 조난당한 소식이 왕궁에 가닿아 급히 배를 보내여 구사일생으로 살아날수 있었다.

또한 정몽주는 1377년 9월 왜적을 엄히 단속할데 대한 사신의 임무를 받고 규슈에 다녀오게 되였는데 이때에도 능란한 외교술과 류창한 언변으로 왜인들을 감동시켰다.

처음 왜인들은 그를 감금하고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정몽주는 먼저 부드러운 문장으로 도주에게 서신을

내였다.

《예로부터 제 집에 오는 사람을 박대하는자는 하늘의 복을 얻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박대하는것이 어찌 인간의 도리라 하겠습니까. 옛날의 어느 한 성인은 도적이 오더라도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맞으라 하였다고 합니다.

하물며 나는 나라왕의 명으로 귀국에 왔은즉 어찌 말 한마디 들어봄이 없이 옥에 가둘수 있습니까. …

말을 못하는 짐승까지도 제 생각이 통해야 같이 살거늘 하물며 말을 하는 인간끼리 이야기조차 나눌수 없다면 무엇으로 인간이라 이르겠습니까?

청컨대 나를 맞이하여 우선 귀국에 온 뜻이 무엇인지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받아든 도주는 얼굴을 붉히였다. 과연 옳은 말이였다.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해가지고는 안되겠구나. 학식과 인품이 훌륭한걸.》

도주는 즉시 령을 내리였다.

《옥에 갇힌 고려사신을 이리로 정중히 모셔들여라.》

정몽주와 마주앉은 도주는 더욱 머리가 수그러졌다.

그 인품은 과연 견줄데가 바이 없었다.

도주는 그의 학식에 감탄하여 물었다.

《고려에서는 무슨 일을 맡아보고계십니까?》

《성균관 대사성으로 지내고있습니다.》

《역시 학자님이시군요. 우리 사람들에게 강의를 좀 해주시오.》

《별로 아는것이 없지만 요구가 그러시다면 마침 성리학(유교의 한 류파)을 연구하고있던중인데 그것이나 들려드리던지…》

그리하여 정몽주의 강의를 듣기 위해 일본의 각곳에서 수많은 학자, 승려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정몽주에게서 기념으로 시도 한수씩 써달라고 요구했다. 그때마다 정몽주는 있는 글재간을 내여 그자리에서 한수씩 척척 써주었다.

정몽주는 국왕이 준 외교문제도 순조롭게 해결했고 이듬해 7월에는 붙잡혀갔던 수백명의 고려사람들까지 구원하여 10여척의 배에 태우고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우왕은 정몽주의 귀국에 너무 기뻐 그의 손을 움켜잡고 놓을줄 모르면서 그의 공로를 치하하였다.

그후 정몽주는 녀진징벌때도 외교관으로 나서서 그들을 감화시켰다.

그는 이처럼 뛰여난 외교술과 인품으로 하여 적편까지 감동시키는 인물이였다.

정몽주는 유학자로서도 이름이 났었는데 력사에서는 조선성리학의 창시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당시 그는 저명한 학자의 한사람이였던 리색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이들이 성리학에 대한 강의를 하면 정몽주편이 더 큰 절찬을 받았다 한다. 그는 유학을 보급하기 위하여 개경에 5부학당(량반자식들이 공부하는 곳)과 지방들에 향교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에 모든 힘을 다하였던것이다.

정몽주의 이러저러한 업적들을 놓고볼 때 그가 력사에 남는 인물로 되는것은 학자로서보다도 리성계의 《위화도회군》이후 그의 정권탈취를 결사반대한 고려왕조의 충신이였다는데 있다.

처음 리성계는 정권에 들어앉자 왕씨들을 멸족시키고 또 최영을 비롯한 반대파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지만 성리학자인 정몽주만은 왕조성립에 써먹으려고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리성계가 성리학을 통치리념으로 내세우고있었던것만큼 성리학자로서 이름이 높았던 정몽주의 지지를 받는것이 왕조성립에 유리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정몽주의 완강한 태도는 리성계일파의 비위를 상하게 하였으며 그 일당의 주목되는 대상으로 되게 되였다.

지금껏 그는 왕의 스승이 되여 정사를 도와나섰댔으며 일편단심 왕씨의 조정만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때 리성계의 세력이 부당하게도 날로 장성하여 민심이 거기에 쏠리고 또한 간신들과 책략가들이 그 주위에서 맴돌며 그

를 내세우려 하는것을 보자 정몽주는 참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리씨배척의 앞장에 나섰다.

그런데 이때 명나라에 갔던 왕태자가 돌아오므로 리성계는 이를 마중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던중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생겼다.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정몽주는 때를 놓치지 않고 리성계일파를 정계에서 내쫓으려 작정했다.

그러나 이때 리성계의 아들인 리방원이 이 소식을 애비에게 급히 알리여 빨리 돌아오도록 하여 일은 글러지고말았다.

정몽주는 리성계일당이 장차 거사를 시도하며 준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태를 직접 자신이 살펴보기 위해 병문안을 구실로 그의 관저를 방문하였다.

이때 리방원은 정몽주가 제발로 걸어온 좋은 기회를 놓칠수 없다고 타산하고 그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였다.

리성계와 방원 등 그 일파는 정몽주를 리용할것인가 아니면 없애버릴것인가 하고 그때까지도 망설이였다. 그로 말하면 당대의 이름난 인물로서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이였기에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웠던것이다.

때문에 리성계일파는 찾아온 그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여러가지로 그의 심중을 떠보았다.

그러나 그의 자세는 완강하였다.

방원은 최후수단을 쓰기로 작정했다.

처음 방원은 리지란을 불러 이 일을 맡겼는데 그가 말하기를 정몽주는 아까운 인재이므로 리용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방원은 다시금 심복장사 조영규를 불러들이였다.

《그대는 군기고의 쇠도리깨를 가지고 급히 선지교근처에 가서 은신하고있다가 조금 뒤에 정몽주가 그곳을 지날터이니 불문곡직하고 내달아서 때려죽이고 돌아와 알리도록 하라.》

정몽주는 리성계와 방원을 작별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의 동정을 살펴보니 무사할것 같지 못하다는것을 간파하였다.

그는 깊은 시름에 잠겨 이 나라에 닥쳐올 재난을 두고 눈물을 흘

리였다.

천가지만가지 잡시름에 잠겨있노라니 그가 탄 말은 어느새 선지교근처에 다달았다. 이상한 예감에 문득 앞을 바라보니 장대한 체구의 한 사나이가 쇠도리깨를 들고 서있는것이다. 그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말을 멈추어서게 하고는 뒤를 따르는 시종에게 조용히 일렀다.

《오늘은 웬일인지 공기가 이상한것 같구나. 나는 이미 마음에 정한바 있으니 구태여 피하지 않으려니와 너는 공연히 화를 당할 까닭이 없으니 속히 이자리를 피하여라.》

불상사를 예감한 정몽주는 자기때문에 그까지 화를 당할것이 걱정되였다.

정몽주의 시종이던 김경조는 공민왕시기 시중의 벼슬을 지낸 김구주의 아들이였다. 그는 평소에 정몽주의 인격을 존중하여 그를 성심성의로 받들었다.

성질이 강개하고 성실한 그는 이 말에 눈물을 떨구었다. 그는 정몽주가 아무리 말하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상공께서 변을 당하실바에는 소인이 어찌 편안히 살기를 도모하리까? 모시고 가겠나이다.》

그러나 정몽주는 어서 피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말에 올랐다. 그런데 말에 오르며 말머리를 뒤로 가게 하여 거꾸로 타는것이였다.

이것을 이상히 생각한 김경조가 그 리유를 캐여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는것이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피와 살이라 맑은 정신으로 죽음을 당하기 싫어 아까는 술을 많이 마셨고 앞으로 달려들어 때리는것을 보기 싫어서 이제 말을 돌려타는것이다.》

《저는 어떤 일이든지 대감님과 같이 하겠나이다.》

정몽주일행이 말을 몰아 선지교에 당도하니 기다리고 섰던 그 장대한 체구의 사나이가 달려들어 정몽주의 뒤통수를 쇠도리깨로 내리쳤다. 순간 김경조가 얼른 자기의 몸으로 정몽주를 감싸안았으므로 그가 먼저 피를 토하며 말에서 떨어졌고 다음에는 정몽

주마저 선지교에 넘어졌다.

그리고는 마지막숨을 거두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5살이였다.

정몽주가 마지막길을 간 선지교는 개성시 선죽동 로계천에 놓여있는 크지 않은 돌다리이다. 그가 죽은 선지교에는 그날밤 대나무가 솟아났다고 한다. 때문에 다리이름을 선지교란 종전의 이름대신에 선죽교로 고치였다 한다. 그리고 정몽주가 흘린 붉은피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이 일화는 정몽주의 고려왕조에 대한 우국충정을 말해주고있다. 물론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통치배들이 충군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지어낸 말일것이다.

화강석으로 된 선죽교는 1216년이전에 놓은것인데 란간은 정몽주의 후손들에 의하여 1780년에 덧붙여 쌓아졌다.

선죽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포은 정몽주를 잊지 않기 위해 《표충비》가 세워졌다.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였지만 리조시대에 들어와서도 모든 왕들이 그의 충절에 대하여 높이 찬양해나섰고 지어 리방원까지도 뒤날 임금이 된 후 그에게 령의정이라는 명예벼슬을 주고 문충이라는 시호까지 내리였다고 한다.

정몽주의 충의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봉건유교적충군사상에 기초한것이였지만 임금에 대한 그의 충의는 강의한 정신, 량심과 의리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지켜가는 인간의 고상한 정신적면모를 보여준것으로 하여 긍정적인것으로 평가되고있다.